

Dragon

용

Dragon

龍

Dragon

용 龍



한국민속상징사전 • 辰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 3704. 3225

발행인

김종대

총괄

권태효

기획

백민영

편수원

강중휘, 백지연, 신다혜, 장윤정, 정채린

윤문·교열

엄민용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우민정, 김근혜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437-01

ISBN

978-89-289-0372-6: 비매품



한국민속상징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Dragon



발간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 민속문화의 집대성과 지식체계 구축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한국 민속에 담긴 문화적 상징을 조망하고 정리한 <한국민속상징사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다가오는 갑진년을 맞이해 <한국민속상징사전> ‘용 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십이지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하며, 수신, 벽사, 권력, 호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용을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상서롭게 여겼습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은 이러한 용에 대한 관념과 그 문화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용의 표상부터 의례, 설화, 놀이, 그림, 건축, 복식, 풍수 등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속현장에서 수집된 사진 자료를 모아 일상 속의 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국민속상징사전>은 앞으로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민속문화의 집대성뿐 아니라 민속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이 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필자, 자문, 감수위원 및 자료를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우리 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

발간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민속상징사전>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속한 것으로 2021년 첫 발간을 시작하였다. 올해 발간한 <한국민속상징사전> '용 편'은 한국문화 속 용의 상징을 조명하였다. 표제어 128항목을 원고지 약 2천 매의 원고와 30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이 사전의 표제어는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를 기초로 관내외 민속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적합성 검증, 추가, 삭제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표제어의 원고는 69명의 해당 분야 연구자가 집필하였다. 집필진은 민속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국문학, 역사학, 미술사, 복식사 등 인접 학문 필자들이 참여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사진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집필자 제공 및 타 기관의 소장 자료를 확보하여 다양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적합성 검수와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을 거쳐 각 분야 전문 연구자의 감수를 받았으며, 감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수정·보완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용을 대표하는 용어와 표상, 설화, 수신과 벽사, 호국과 호법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자료 중심으로 용 관련 제의와 그림, 농기, 상여장식 등 민속에 등장하는 용의 다양한 모습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사전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등으로 구성하면서 한글 자모순 목차, 필자별 목차, 색인 등을 추가하여 사전 본연의 찾기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사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상징사전: 용 편〉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 선정 및 범주

1. 표제어는 〈한국민속상징사전: 용 편〉에 독립 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말한다.
2. 표제어는 용어와 표상, 설화 속 용, 수신과 벽사, 호국과 호법의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3.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표제어 배열 및 목차

1. 본문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분야별로 하였고, 각 분야 내에서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추가로 가나다순 목차를 구성하여 분야별 목차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가표제어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이칭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가표제어도 목차에 같이 제시하였다. 가표제어와 관련된 주표제어 쪽수를 제시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표기방법

맞춤법과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 1일 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8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부록

부록에는 우리 문화에 반영된 용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 국립민속박물관 및 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용 관련 유물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2.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용 관련 의례 사진을 지역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3. 용 관련 설화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수록하였으며, 4. 용이 등장하는 속담, 관용어, 속신, 고사성어를 수록하였다.

색인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016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070

설화 속 용

Dragons in Folk Tales

146

수신과 벽사

Discipline and Purification

280

호국과 호법

Patriotism and loyalty

314

부록

Appendix

목 차

Contents

수
록
순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 용	018
· 간룡법	025
· 귀면	028
· 백룡	033
· 여의주보	034
· 용궁	037
· 용꿈	040
· 용띠	042
· 용마루	045
· 용무늬	048
· 용신	051
· 용오름	054
· 용왕	056
· 용호	059
· 이무기	061
· 청룡	065
· 황룡	067

설화 속 용

Dragons in Folk Tales

· 설화 속 용	072
· 감은사	079
· 거타지설화	080
· 견훤	082
· 계룡산	084
· 공갈못	087

· 구룡사	088
· 구룡포	090
· 무왕	092
· 박혁거세신화	094
· 보양	097
· 부석사	098
· 비 내린 이무기	100
· 석탈해신화	101
· 선운사	103
· 아래자설화	104
· 오룡거	106
· 용 못 된 이무기	108
· 용 승천	110
· 용 싸움	113
· 용두암	115
· 용머리고개	118
· 용소	119
· 용추폭포	122
· 운문사	123
· 울돌목	125
· 원성대왕	126
· 잉어의 보은	129
· 작제건설화	130
· 주몽신화	132
·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134
· 창녕조씨 시조신화	136
· 처용	137
· 통도사	138
· 형산강	140
· 혜통	142
· 회룡포	143

수신과 벽사

Discipline and Purification

· 수신과 벽사의 상징	148
· 개구리알먹기	154
· 갯제	155
·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157
· 금산 청징연 기우제당	159
· 기우제	161
· 기우제등록	165
· 나룻배싸움놀이	169
· 남원 용마놀이	171
· 농기 용기	198
· 동김녕 잠수굿	173
· 물부리굿	175
· 밀양 용호놀이	175
· 반야용선	178
· 벽골제 쌍룡놀이	180
· 상진일	183
· 새알뜨기 용알뜨기	218
· 석척기우	185
· 어변성룡도	186
· 어부심	189
· 영노	191
· 오룡쟁주놀이	195
· 용경	196
· 용궁당 용왕당	225
· 용기	198
· 용날 상진일	183
· 용놀이	200

· 용단지	203
· 용단지모시기	206
· 용당기 용기	198
· 용대기	209
· 용떡	216
· 용신기 용기	198
· 용신당 용왕당	225
· 용신먹이기 용왕먹이기	231
· 용신제 용왕제	239
· 용알뜨기	218
· 용알먹기 개구리알먹기	154
· 용왕굿	221
· 용왕기	224
· 용왕당	225
· 용왕도	228
· 용왕먹이기	231
· 용왕밥	234
· 용왕상	238
· 용왕제	239
· 용인 용줄다리기	246
· 용줄다리기	248
· 용호문배도	251
· 우물굿 우물제	253
· 우물제	253
· 운룡도	256
· 이십이	259
· 정제 우물제	253
· 줄다리기	260
· 진쌍기놀이	265
· 차귀본향놀이	268
· 천룡당	270
· 철룡	273
· 침호두	276

· 통기	277
· 화룡제	278

호국과 호법

Patriotism and loyalty

· 호국과 호법의 상징	282
· 곤룡포	288
· 김부대왕	291
· 만파식적	294
· 문무왕	295
· 미륵사	297
· 백마강	298
· 용두	300
· 유금어들	302
· 호국룡	303
· 호법룡	307
· 황룡사	312

부록

Appendix

· 용 문화제	316
· 민속신앙 속 용	346
· 용 이야기	372
· 우리말 속 용	388
· 색인	407
· 필자	412

목 차

Contents

가
나
다
순

기역	
ㄱ	
간룡법	025
감은사	079
개구리알먹기	154
갯제	155
거타지설화	080
견훤	082
계룡산	084
곤룡포	288
공갈못	087
구룡사	088
구룡포	090
귀면	028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157
금산 청정연 기우제당	159
기우제	161
기우제등록	165
김부대왕	291
너은	
ㄴ	
나룻배싸움놀이	169
남원 용마놀이	171
농기 용기	198
더글	
ㄷ	
동김녕 잠수굿	173
미름	
ㅁ	
만파식적	294
무왕	092
문무왕	295

물부리굿	175
미륵사	297
밀양 용호놀이	175

비름

ㅂ

박혁거세신화	094
반야용선	178
백룡	033
백마강	298
벽골제 쌍룡놀이	180
보양	097
부석사	098
비 내린 이무기	100

서웃

ㅅ

상진일	183
새알뜨기 용알뜨기	218
석척기우	185
석탈해신화	101
선운사	103
설화 속 용	072
수신과 벽사의 상징	148

이름

ㅇ

야래자설화	104
어변성룡도	186
어부심	189
여의주보	034
영노	191
오룡거	106
오룡쟁주놀이	195
용	018
용 못 된 이무기	108

용 승천	110
용 싸움	113
용경	196
용궁	037
용궁당 용왕당	225
용기	198
용꿈	040
용날 상진일	183
용놀이	200
용단지	203
용단지모시기	206
용당기 용기	198
용대기	209
용두	300
용두암	115
용떡	216
용띠	042
용마루	045
용머리고개	118
용무늬	048
용소	119
용신	051
용신기 용기	198
용신당 용왕당	225
용신먹이기 용왕먹이기	231
용신제 용왕제	239
용알뜨기	218
용알먹기 개구리알먹기	154
용오름	054
용왕	056
용왕굿	221
용왕기	224
용왕당	225
용왕도	228
용왕먹이기	231
용왕밥	234
용왕상	238
용왕제	239
용인 용줄다리기	246

용줄다리기	248
용추폭포	122
용호	059
용호문배도	251
우물굿 우물제	253
우물제	253
운룡도	256
운문사	123
울돌목	125
원성대왕	126
유금이들	302
이무기	061
이십이	259
잉어의 보은	129

지웃

ㅈ

작제건설화	130
정제 우물제	253
주몽신화	132
줄다리기	260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134
진쌍기놀이	265

치웃

ㅊ

차귀본향놀이	268
창녕조씨 시조신화	136
처용	137
천룡당	270
철룡	273
청룡	065
침호두	276

티웃

ㅌ

통기	277
통도사	138

히웃

ㅎ

형산강	140
혜통	142
호국과 호법의 상징	282
호국룡	303
호법룡	307
화룡제	278
황룡	067
황룡사	312
회룡포	143

용어와 표상

Terms and Symbols

간룡법	수신과 벽사의 상징	용왕제
감은사	아래자설화	용인 용줄다리기
개구리알먹기	어변성룡도	용줄다리기
갯제	어부심	용추폭포
거타지설화	여의주보	용호
견훤	영노	용호문배도
계룡산	오룡거	우물제
곤룡포	오룡쟁주놀이	운룡도
공갈못	용	운문사
구룡사	용 못 된 이무기	울돌목
구룡포	용 승천	원성대왕
귀면	용 싸움	유금이들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용경	이무기
금산 청정연 기우제당	용궁	이심이
기우제	용기	잉어의 보은
기우제등록	용꿈	작제건설화
김부대왕	용놀이	주몽신화
나룻배싸움놀이	용단지	줄다리기
남원 용마놀이	용단지모시기	지내와 구렁이의 승천 다름
동김녕 잠수굿	용대기	진쌍기놀이
만파식적	용두	차귀분향놀이
무왕	용두암	창녕조씨 시조신화
문무왕	용떡	처용
물부리굿	용띠	천룡당
미륵사	용마루	철룡
밀양 용호놀이	용머리고개	청룡
박혁거세신화	용무늬	침호두
반야용선	용소	통기
백룡	용신	통도사
백마강	용알뜨기	형산강
벽골제 쌍룡놀이	용오름	혜룡
보양	용왕	호국과 호법의 상징
부석사	용왕굿	호국룡
비 내린 이무기	용왕기	호법룡
상진일	용왕당	화룡계
석척기우	용왕도	황룡
석탈해신화	용왕먹이기	황룡사
선운사	용왕밥	회룡포
설화 속 용	용왕상	

용 龍

동서양의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중 하나.

윤열수 | 가회민화박물관

우리 말 ‘미르’인 용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동서양이 서로 다르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 아직까지는 특정한 학설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학설로는 인도의 ‘나기^{naga}’나 고대 도철문에 나타나는 뱀에서 용이 출현하였다는 설, 기상학적인 현상에서 용이 출현하였다는 설, 고대 중국의 부족 토템 중 하나에서 용이 출현하였다는 설, 공룡에서 출현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용의 기원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원설도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의 형상과 관련하여 구사^{九似}라고 하는데, 용의 각 부분이 아홉 가지 동물의 각 부분과 닮았다는 뜻이다. 이는 용을 신성시하여 숭배하는 사고에서 출현한 해석일 뿐 처음부터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용을 합성해 낸 것은 아니다. 몸이 길거나 형태가 크고 특이하기만 하면 용과 연관시키고 있다. 용이라는 동물의 근간을 이루는 이미지는 특유의 기다란 몸이고, 용의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은 뱀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기다란 몸은 다른 어떤 신체적 특징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뱀에서 용이 출현하였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용이 단지 뱀 하나만을 원형으로 해서 생겨났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용이란 어차피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용의 형태와 특징은 문헌 속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중국의 옛 책인 『광야^{廣雅}』에 “용은 인충^{鱗蟲} 중에 우두머리로, 다른 아홉 가지 짐승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과 같고, 눈은 토끼와 같고, 귀는 소와 같고, 목덜미는 뱀과 같고, 배는 큰 조개와 같고, 비늘은 잉어와 같고, 발톱은 매와 같으며,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그런 가운데 99 양수인 여든한 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것과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明珠}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이 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왕부의 말이라’ 하여 『광야』와 일치하는 기록이 나온다. 이처럼 용은 여러 동물이 합성된 상상의 동물이다.

또한 『설문^{說文}』은 용을 “비늘이 있는 인충 중 가장 큰 것으로, 능히 몸을 감추었다가 커지기도 하며 짧아졌다가 길어지기도 한다. 춘분에는 하늘로 오르고 추분에는 깊은 못에 들어가 몸을 감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회남자^{淮南子}』에는 “교룡이 물에 사는 것과 호랑이나 표범이 산에 사는 것은 천지의 이치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소종 29년조에는 “용은 물에 사는 동물이고 물에서 잃어버리면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초사^{楚辭}』에서는 “신룡이라 하더라도 물 밖에 나와 물에 모이면 개미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였고,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는 말하기를 “신룡이 항상 깊은 물에 잠겨 있다가 상류로 흘러가 물에 살게 되면 온갖 잡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쪼이고 갇아 먹히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들을 통해 용은 물 밖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혁거세거서간조에서도 용을 기상 현상으로 파악한 기록이 나온다. 이 기사는 “60년 가을 9월, 용 두 마리가 금성 우물 속에 나타나더니 소낙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성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라는 매우 간략한 내용이지만, 기록 속 용 두 마리가 기후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金富軾}의 인식 저변에 합리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음을 말해 준다.

반면 일연^{一然}이 저술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용은 『삼국사기』와 달리 설화적인 용, 즉 존재하지 않는 성수, 말 그대로 상상의 동물이자 인격화^{人格化}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인도의 나가, 그리스의 히드라^{hydra}, 서양의 드래곤^{dragon}과 고대 오리엔트 문명 속 괴물들도 용으로 번역될 수 있다. 실제 서양의 괴물들을 보면, 동양의 용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닮은 점도 있어서 동양의 용과 동일한 근원^{根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풍토적 특성과 종교적 변이 때문에 성스러운 동물로 추앙받거나, 반대로 악의 화신^{化身}이 되는 등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용에 대한 묘사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환상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용이 강우를 지배하는 수신으로 신앙되면서 많은 용신신앙이 발생하였다. 신라시대 사해제와 사독제, 고려시대의 사독제, 조선시대의 각종 용신제와 기우제 등이 모두 용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의식으로, 생명의 원천이자 농경의 절대요건인 물의 풍족함을 기원하는 제의였다. 그중 사해제는 사해^{四海}에 있는 용왕에게 기원하는 제의로, 동양에서는 물이 모인 곳 중 가장 큰 네 곳을 사해라고 하고, 각각을 지키는 용왕이 있다고 믿어 제의를 거행하였다. 이러한 의식의 잔



영조 어진 | 가로73 세로169 | 조선 후기 | 국립고궁박물관

형은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용왕굿, 용신제, 용왕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용에게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는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고, 또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일반 민가에서는 이름에 ‘용’자가 들어간 지형지물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다양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비를 빌기도 하였다. 그중 용이 잠들면 가뭄이 온다고 생각하여 그 적수인 호랑이나, 고양이처럼 호랑이를 대신할 만한 짐승을 연못에 집어넣어 용을 깨우기도 하였다. 이는 연못에 부정

한 것을 넣어 더럽히면 하늘이 흐려져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용을 묘사할 때는 대개 구름 속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구름 속에 비가 숨어 있고 용은 구름 속에 숨은 비를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민들은 바다신앙의 중요 대상으로 용을 숭배하였다. 용이 바다 밑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숭배 방식으로는 용왕제와 풍어제가 있는데, 이는 용왕의 보살핌으로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가에 사는 사람들, 특히 바다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거친 바다로부터 보호해 줄 해신, 용신, 물의 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용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왕권이다. 일찍이 왕이나 황제 같은 최고 권력자는 곧잘 용에 비견되었다.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가진 특징, 즉 외모의 장엄함과 화려함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치수治水 능력 때문에, 용은 위인과 같이 위대하고 훌륭하며 신비로운 존재에 비유되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용이 하늘의 기후를 관장하는 존재, 즉 농경민족에게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관념의 순환을 통해 용은 왕권이나 왕위의 상징이 되었고, 임금과 관계되는 것에는 거의 빠짐없이 ‘용’이라는 접두어를 붙였다. 이 관념은 결국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여 호국룡 사상을 낳았다. 만인지상이 황제인 것처럼 만물지상이 용이라는 뜻이다. 용이 가진 치수의 이미지와 왕의 권위를 함께 갖춘 역사적 기사로 『삼국유사』의 만파식적 기사가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왕의 권위와 치수, 용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은 불교의 수호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면서 원래 상상의 산물이던 중국 용의 모습에 인도의 용인 ‘나가’의 관념이 혼입되었다. ‘나가’는 인도의 사신숭배蛇神崇拜신앙에서 발생한 용신으로, 나가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용은 오랫동안 불교와의 대립투쟁을 거쳐 불교의 호교자護教者가 되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과 용신은 팔부중의 하나로 불법을 수호하는 반신반사半神半蛇이다. 팔부중이란 천·용·야차·건달과·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신 혹은 호불신의 성격을 지닌다. 이 중 용은 원시 불교경전에서부터 수신으로 등장하며, 선악의 양면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護國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용도 호국룡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용이 영원한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 데 함께 이용되기도 하였다. 호법룡이 호국룡으로서 그 의미를 확대하는 과정은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기록 외에도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용의 활약상이 수록되어 있어, 호법룡이 호국룡으로서 그 의미를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호국불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기록을 보면 용은 몇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응룡應龍이다. 응룡은 1,000년을 산 용으로, 날개가 있는 비룡飛龍이고 발이 네 개이며 비늘이 있다. 『서양잡조西陽雜俎』에는 “응룡은 건조建鳥에게서 나고 건조는 기린에게서 나며 기린은 여러 짐승 중에 난다.”라고 적혀 있고, 중국 신화에서는 “치우蚩尤가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황제가 응룡을 시켜 공격하라고 명하였다. 우禹가 물을 다스릴 때에는 응룡이 꼬리로 땅에다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곧 물의 수호신이다.”라고 하였다. 『술이기述異記』 용화龍化의 기록에는 “교蛟는 1,000년이 지나야 용이 될 수 있으며, 용은 또 500년이 있어야 각룡角龍이 될 수 있고, 각룡은 1,000년이 지나야 응룡이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즉 용 중에서도 응룡이 가장 신기하고 기이한 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축룡觸龍은 축음觸陰이라고도 하는데, 종산鐘山의 신이다. 길이는 1,000리나 되며 머리는 사람을 닮았고 몸은 뱀과 같으며 색은 붉은색이라 한다. 축룡이 눈을 감으면 밤이 되고 눈을 뜨면 낮이 되며, 숨을 내쉬면 겨울이 되고 들이마시면 여름이 된다고 한다. 대체로 종산에 옆드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숨도 쉬지 않는다고 한다. 늘 초 하나를 입에 물고 북쪽의 어두운 천문天門을 비춰주어 이 이름이 붙었다.

저파룡猪婆龍은 입이 작은 악어처럼 생겼는데, 몸길이는 두 길쯤 되고 네 개

의 다리가 있으며 등과 꼬리는 모두 두껍고 딱딱한 비늘로 덮여있다. 성품이 게으르고 잠자는 것을 좋아하여 누가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낸다. 자신의 꼬리로 뱀가죽을 두드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저파룡을 죽여 그 가죽으로 복을 만드느라 저파룡이 사라졌다고 한다.

궤룡龜龍은 큰 이무기의 일종으로 물속에 살며 500년이 되면 교룡蛟龍이 된다고 한다. 궤룡의 형태는 은대 도철문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 문양은 전국시대 이후에도 간간이 보인다. 교룡은 궤룡이 500년을 살면 되는 것이라 한다. 용의 몸에 비늘이 있으면 응룡이고, 서로 엉켜 있으면 교룡이라 하는데, 교룡은 깊은 물속에서 태어난다고 하여 깊고 큰 물에는 교룡이 산다고 믿었다. 한편 물고기 무게가 2,000근이 넘으면 교룡이라고 하기도 한다. 교룡은 수중 생물의 신이며, 『설문』에서는 “용에 속한다. 뿔이 없는 것을 교라 하고, 벌레를 따라 서로 소리를 낸다.”라고 하였다.

규룡虯龍은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 따르면 ‘뿔이 있는 용’이라 한다. 『광아』에는 “비늘이 있는 것을 교룡, 날개가 있는 것을 응룡, 뿔이 있는 것을 규룡, 뿔이 없는 것을 이룡螭龍, 하늘로 승천하지 못한 것을 반룡蟠龍이라 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룡은 뿔이 없는 용이다. 때론 용의 암컷을 이룡이라 부르기도 하고, 붉은 호랑이의 모습에 비늘을 가진 용을 이룡이라 하기도 한다. 이룡은 특이하게 자연에 해를 끼치는 괴수로 묘사되어 『박물도록博物圖錄』에는 “이룡은 뿔이 없으며 만물에 해를 끼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규룡은 일명 두우斗牛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기록이 규룡과 같다. 두우의 형상은 이룡과 같으나 비늘이 있으며, 두 개의 뿔이 있는 것이 소와 같고 뿔이 아래로 처져 굽어 있으며, 얼굴의 형태 역시 소와 닮았다. 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룡蛇龍 역시 용의 일종으로 속설에 독사가 1,000년을 묵으면 살모사가 되고, 그 살모사가 1,000년 묵으면 이무기, 이무기가 1,000년을 묵으면 용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무기가 바로 사룡으로, 용이 되지 못한 모든 뱀 종류를 말한다.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선인들은 뱀도 용의 한 종류로 보았던 것이다.

기룡夔龍은 원래 『산해경山海經』의 기夔라는 동물로, 그 형태가 용과 유사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 동물은 외발로 뿔이 있고 머리가 소처럼 생겼고 몸은 뱀처럼 생겼으며 양손을 들고 있다고 한다. 문양에서는 뇌문雷紋과 비슷하여 도철문과 같은 괴수의 형상으로 표현되며, 은대의 청동기와 동이족의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난다.

용어龍魚는 인어人魚나 능어能魚라고도 하며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



통도사 용화전 청룡도 | 경남 양산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이다. 한편 『삼재도회三才圖會』에서는 용어를 “바다에서 살며 모양은 용과 같으나 수염이 많이 났으며 뼈가 없다. 맛이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용을 음양오행과 결부시킨 황룡皇龍, 청룡靑龍, 적룡赤龍, 백룡白龍, 현룡玄龍, 흑룡이 있다. 이들은 각각 방위와 계절을 상징한다. 동쪽은 청룡, 남쪽은 적룡, 중앙은 황룡, 서쪽은 백룡, 북쪽은 현룡이 담당한다. 계절에 대입해 보면 봄이 청룡, 여름이 적룡, 가을이 백룡, 겨울이 현룡이다.

『삼국유사』에도 계룡鷄龍, 적룡, 해룡海龍, 황룡, 어룡魚龍, 독룡毒龍, 청룡, 교룡 등 다양한 용들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계룡이란 알영 왕비의 탄생에 기록된 용으로, 자세한 생김새는 알 수가 없으나 그 문자의 뜻으로 추정할 때 닭이나 봉의 머리를 닮은 용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적룡·황룡·청룡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몸빛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고, 교룡은 중국의 교룡과 같은 동물이다. 어룡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지만 문맥이나 어휘의 느낌으로 봐서 대단히 큰 물고기를 용으로 격상시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용을 지칭하거나 용과 관련된 말로 ‘미르’ ‘이무기’ ‘이시미’ ‘미리’ ‘영노’ ‘팽철이’ ‘바리’ 등의 단어가 있어, 우리나라에 다양한 용 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용은 그 기원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물을 다루는 수신水神을 상징한다. 지구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특히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고대사회에서는 가뭄이나 홍수에 매우 민감하였다. 그래서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물을 다루는 힘을 가진 존



통도사 복극전 천장벽화 용조각 | 경남 양산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재가 있다고 믿고, 그 존재를 신성시해 왔다. 그로 인해 물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한 용은 곧 하나의 신앙으로 존송되는 대상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용의 형태와 종류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용은 오늘날에도 건축물, 범종이나 목조각 등의 다양한 불교 공예품과 사찰의 단청이나 변상도, 벽화 등에서 사천왕·금강역사와 함께 호도량신 혹은 호법신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도와 용신도 혹은 용왕도 속에서도 쉽게 용을 만날 수 있으며, 왕실을 상징하는 사물과 기우제를 지내는 농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인들이 생각하였던 용과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용은 형태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그 형태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과 상징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용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여전히 신성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용 불멸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중국신화전설1(袁珂,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간룡법

看龍法

풍수설에서 산을 용이라 부르는데, 그 산의 흘러오고 흘러가는 흐름과 힘을 파악하는 방법.

개관 풍수설에 따른 땅을 살피는 방법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섯 가지 순서로 구성된다.

산의 흐름[용龍]을 살피는 간룡법, 땅의 기운이 머무는 곳[혈穴]을 살피는 정혈법定穴法, 혈穴을 감싸는 주변의 산을 살피는 장풍법藏風法, 그 땅 위를 흘러가는 물[수水]을 살피는 득수법得水法, 산의 뻗어오는 방향과 물이 흘러가는 방향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좌향론坐向論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간룡법이다. 산의 흐름을 흔히 산맥·지맥 등으로 부르는데, 풍수에서는 이를 용이 저 멀리서 내려온다는 의미의 내룡來龍이라 부른다. 이때 내룡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 길고 짧음, 치우치고 반듯함과 그 땅의 기운[지기地氣]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한다.

조선왕조 지리학 고시 과목(지관地官 선발 시험 과목)인 『감룡경撼龍經』에서는 책 제목 자체에 ‘용龍’을 표기할 정도로 용을 중시하였다. 『감룡경』은 “용을 따라 모든 화복이 생긴다.”라고 하여 용을 보는[看] 간룡법을 중시하였다.

내용 용의 명칭 기원과 의미

왜 산을 풍수에서는 용이라 하였는가에 대해 초기 풍수 고전이자 조선조 지리학 고시 과목들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일부 초기 풍수 고전이자 조선조 지리학 고시 과목인 『청오경靑烏經』과 『장서葬書』는 용이란 표현 대신 ‘산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풍수 서적은 ‘산’ 대신 ‘용’이란 용어를 쓰며, 땅을 보는 첫 번째 순서로 간룡법을 소개한다. 풍수에서 산을 용이라고 명명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인자수지人子須知』이다. 1564년 중국의 서선계徐善繼·서선술徐善述 형제가 출간한 책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유입되어 지금까지 한반도 풍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다. 다음은 『인자수지』에 실린 용에 대한 설명이다.

“풍수가들이 산을 용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산의 변화가 천 가지 형태와 만 가지 모습이다.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급하고 완만하고, 순하고 거스르며 혹은 굽고 곧아서 그 산 능선 모습이 일정치 않다. 또 같은 산이라도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도 다르게 보인다. 이러한 형태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산을 용이라 이름 짓고 풍수 용어



인자수지를 찍던 책판 | 가로39 세로22 두께2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로 사용한 것이다. 용이 그러하듯 산의 형태도 잡겼다, 보였다, 낮았다, 뛰었다 하여 변화가 무궁무진함에서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단순히 산의 모양이 변화무쌍해서만이 아니다. 전설적 영물인 용처럼 산 또한 산마다 정기가 다름을 전제한다. ‘용(산)이 강하면 용감한 인물이 나고, 용(산)이 약하면 병약한 인물이 나며, 용(산)이 아름다우면 준수한 인물이 나며, 용(산)이 추하면 추한 인물이 난다.’는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이 다름 아닌 풍수지리의 명당발복론(明堂發福論)이다. 용(산)이 끊기면 인물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 자손의 번창과 이를 바탕으로 조상을 섬기는 관념이 강하던 시절에 용은 자손 번창의 결정적 요인으로 여겨졌다. ‘새끼 용에 해당하는 논두렁 발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사람 행실을 한다.’라는 관념이 생겨난 이유이다.

간룡법의 핵심 내용

간룡법의 핵심 내용은 풍수서마다 달리 설명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 속에 감추어진 지기(地氣)가 흐르는 맥(脈)이 있다고 믿는데, 간룡법에서는 용을 체(體)로, 맥을 용(用)으로 상징한다. 따라서 용과 맥은 외면상으로는 한 가지이지만, 용을 살펴 맥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어도, 맥을 보아 용의 길흉을 알

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용은 형체가 드러난 것이고, 맥은 용 속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이 있어야만 맥이 있고, 맥이 없으면 용은 죽은 용이다.’

제대로 용을 보아야[간룡(看龍)] 제대로 된 터를 잡을 수 있다. 터의 좋고 나쁨은 한 집안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끼친다. 간룡법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용의 종류에 따른 간룡법

조선조 지리학 고시 과목 가운데 ‘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은 『명산론(明山論)』이다. 『명산론』은 산을 12룡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생룡(生龍)·복룡(福龍)·응룡(應龍)·음룡(悤龍)은 좋은 것으로 본다. 궁궐·집·무덤이 들어서기에 좋은 곳이다. 반면 왕룡(枉龍)·살룡(殺龍)·귀룡(鬼龍)·겁룡(劫龍)·유룡(遊龍)·병룡(病龍)·사룡(死龍)·절룡(絶龍) 등 8룡은 흉한 것이기에 사용하면 불행이 생긴다고 본다. 이러한 곳은 한정적으로 신단·도관·사찰 터로 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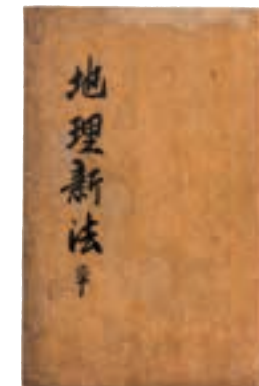
또 다른 조선조 지리학 고시 과목인 『지리신법(地理新法)』은 용을 36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초기 고시 과목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임진왜란 이후 중국에서 유입되어 조선 후기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인자수지』는 용에 대한 설명 분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간룡법을 중시하였다.

특징 및 의의

전통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터 잡기 방법으로 풍수가 수용되어 민속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나라와 시대에 따라 풍수 수용에 차이가 있다. 산을 중시하는 왕조·지역이 있는가 하면 물을 중시하는 왕조·지역이 있었다.

‘산은 인물을 키우고, 물은 재물을 늘려 준다.山主人 水主財’는 풍수 격언이 있다. 좋은 산에서 큰 인물이 나고, 물이 좋거나 많으면 재물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중국 남방의 상업이 발달한 지역과 해상국가인 일본에서는 물을 중시하는 풍수법이, 명나라 이후 도입지가 된 중국 북방에서는 산, 즉 용을 중시하는 풍수법이 주류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농공상 신분 체계를 강조한 조선왕조의 풍수는 산, 즉 용만을 강조하였다. 좋은 산(용)의 기운을 받아야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여 명문가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 도입지인 한양의 경우 용은 도봉산—삼각산—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말한다. 강하고



지리신법 | 가로20 세로30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웅장한 바위산으로 힘차게 내려왔다고 보았기에 조선 건국 후 도읍지로 정해진 것이다.

백두산을 용의 조종(祖宗)으로 삼고, 이로부터 한반도 전역으로 크고 작은 용들이 뻗어 나간다는 관념도 일종의 간룡법적 사고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하러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조선에 인물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느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조선에 인물이 나지 않도록 쇠말뚝을 박았다’는 전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난 이야기이다.

홍경래(洪景來)의 스승으로 알려진 일이승(一耳僧)은 조선 후기 최고의 풍수가로 알려져 단재 신채호(申采浩)가 그에 대한 소설을 남길 정도였다. 일이승은 용만 잘 보아도 ‘국가 풍수[국풍國風]’가 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 예로 선조 임금 때 활약한 지관 박상의(朴尙義)를 꼽았다. 박상의는 중국인 풍수사 섭정국(葉靖國)과 함께 현재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에 자리한 관묘(서울 동관왕묘) 터 잡기에 관여한다. 조선의 풍수가 간룡법을 중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한반도는 산악국가이다. 바람과 물길이 일정치 않다. 산(용)을 함부로 자르거나 뚫으면 이에 따라 바람과 물길의 변화, 즉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및 심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산(용)을 함부로 파괴하지 못하게 한 관념이 생겨난 이유이다. 특히 지금처럼 국토의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생태파괴를 경고·저지하는 데 간룡법적 사고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撼龍經, 明山論, 疑龍經, 地理新法, 풍수지리학설(배종호, 인문과학22,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9), 풍수학사전(김두규, 비룡출판사, 2005), 한국의 풍수사상(최창조, 민음사, 198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두규(金斗圭)

귀면 鬼面

사악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된, 용의 정면과 비슷한 형태를 한 도깨비 문양.

개관 ‘귀면’이라는 명칭이 학계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일본 연구자가 귀면(鬼面)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편화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 귀면문(鬼面文)을 사용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고대 사회에서 나오는 귀면문과 완전히 동일한 형상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오니オニ’와 우리나라의 ‘귀면’은 문양의 도상 표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구려 고분벽

화에서도 귀면으로 볼 수 있는 괴수 형상이 등장한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용의 정면 모습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있는데, 바로 귀면문이다. ‘귀면’으로 불리는 문양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문양으로 불리기도 한다. 용이나 귀면의 얼굴 정면을 표현한 문양에 관해서는 그 대상을 두고 학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내용 귀면은 사람 얼굴을 모티브로 하였으나 특정 부위가 강조된 문양이다. 송곳니를 비롯한 여러 개의 이빨이 부각된 큰 입, 부리부리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두 개의 큰 눈, 돼지코가 떠오르는 콧구멍, 큰 코가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귀 모양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얼굴에 사람의 몸을 빌려 표현하기도 하였다.

오래전부터 용문과 귀면문은 전혀 다른 문양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귀면문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 역사를 통해 용은 왕권의 상징이자 한대(漢代)까지는 여러 종류의 강력한 동물의 장단점을 갖춘 괴수 또는 신수(神獸)라는 관념이 정착한다. 용이 일정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商代) 이후이다. 진(秦)·한(漢)시대에는 오늘날의 용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렇게 정형화된 용 모습은 육조(六朝), 당(唐), 오대(五代)를 거치면서 지금의 보편적인 용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용 문양을 삼국시대부터 다양한 물건에 활용하였다. 용 문양은 유물에 그려지거나 조각으로 만들어졌는데, 정면보다는 측면 모습을 주로 이용하였다. 용의 측면이 전체적인 형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머리를 측면에서 본 모양이 용 표현의 핵심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용은 머리의 뿔과 벌어진 입, 돼지코가 강조되었다. 특히 입술이 밖으로 말려 있고, 입 속에서 혀나 연꽃 등이 나오기도 한다. 입에 보주(寶珠)를 물고 있기도 한데, 용은 봉황과 달리 입을 다물지 않고 구슬을 물고 있다.

신라시대의 서수형 토기, 용 토우, 굽다리 접시 뚜껑의 용, 용무늬 항아리, 범종 용뉴 등에 사용된 용 문양은 입 주변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표현하였다. 4~6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에 표현된 용은 뱀처럼 몸을 자유롭게 꼬거나 두 마리 용이 서로 감싸 안는 방식이다. 각종 공예품 내 투조문(透彫文)의 용 문양도 당초문처럼 만들었다. 특히 이런 표현은 말갯춤 중 말안장이나 말띠드리개, 화살통 장식, 허리띠, 신발 등에 주로 사용하였다. 물건에 특정 부위를 폭넓게 꾸며야 할 때는 용무늬 투조문을 자주 사용하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귀면이 표현된 사례로는 오희분 4호묘 널발 벽 모서리벽화의 역사형 괴수 등이 있다. 귀면은 기와에도 사용되었다.

귀면와는 얼굴형 귀면의 대표적인 유물로, 의인화형 귀면은 장식 문양으로

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팔작지붕의 마루 끝에 부착되는 마루용과 귀마루 끝에 잇대어 댄 방형의 사래용으로 구분된다. 귀면와는 신라와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확인된다. 성행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귀면의 형식미가 사실적으로 분명해진다. 주로 건축물의 지붕에 사용되며, 집 안으로 악귀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벽사의 의미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다.

유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귀면과 관련된 문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얼굴을 중심으로 표현한 귀면(얼굴형 귀면)과 사람의 몸 전체를 정면에서 바라본 귀면(의인화형 귀면)이다. 얼굴형 귀면으로는 귀면문 전돌, 나주 북암리 7호분 출토 등근고리자루칼[환두대도環頭大刀], 합천 옥전 M12호분 출토 장식도자와 귀면와(용면와), 공주 무령왕릉 출토 허리띠의 귀면, 공주 수촌리 고분 출토 귀면문 장식, 고령 지산동 고분 출토 귀면문 장식 등이 있다. 의인화형 귀면으로는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 부여 외리 출토 산수문 귀면 전돌, 연화문 귀면 전돌 등이 있다.

귀면 중 신라의 경주 식리총 출토 금동신발과 백제의 부여 외리 출토 귀면문 전돌은 몸과 가슴의 표현, 어깨의 기운, 얼굴의 형상과 코 모양 등이 아주 유사하다. 이런 귀면의 특징은 용 문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식리총 금동신발과 부여 외리 전돌의 귀면 문양은 중국 북조시대 하남 낙양후강洛陽候剛 묘지석 석각에 있는 역사형 신수神獸 문양과 비슷하다.

장우방은 귀면와를 용면와龍面瓦로 주장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의 주장은 성덕대왕신종의 용유에 있는 용의 정면 모습을 보고 귀신이 아닌 용일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가 귀면와에 사용된 문양의 주인공을 용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얼굴의 도상학적 유사성 이외에도 두 뿔 사이에 있는 보주, 용의 등에 있는 보주 같은 척목尺木, 입에 물고 있는 등근 보주, 이마에 새겨진 ‘王(왕)’ 자, 그리고 입에서 두 갈래로 나오는 운기문雲氣文이 있기 때문이다.

장용준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귀면이라 불리는 전반적인 도상이 용의 형상과 유사하며, 함께 사용되는 봉황·개구리·연꽃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귀면으로 불리는 일부 문양을 제외한 대부분이 용의 정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김성구는 귀면와는 용면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귀면은 귀면이고 용은 용일 뿐으로, 귀신과 용은 반드시 따로 묘사된다고 말하였다. 기존 괴수무늬 기와는 모두 귀면이며 용면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시대 문헌설화집 『해동잡록海東雜錄』, 판소리 <수궁가>, 소설 <박씨전> 등에 ‘귀면’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고려 초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즐겨 썼던 용어로 보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계룡, 적룡, 해룡, 황룡, 어룡, 독룡, 청룡, 교룡 등의 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에서 귀면의 기원과 역사, 의미 등을 참조할 만한 관련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귀면문이 용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용문과 귀면문이 함께 사용되는 이유나 귀면의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용 문양이 많이 사용된 유물 중에는 기와가 있다. 기와는 다른 유물보다 많이 제작되었고 땅속에서도 보존이 잘 되어 출토량도 많다. 삼국시대 용 문양 기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암막새에 용 문양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단룡형單龍形과 쌍룡형雙龍形이 있다. 단룡형은 S자형으로 가로로 날아가는 형태로, 여의주 또는 꽃을 잡으려고 발을 뻗은 모습이다. 쌍룡형은 화염 보주를 사이에 두고 대칭적으로 위치한다. 통일신라 시대에 널리 쓰인 사래용과 마루용의 귀면와에는 독특한 귀면문이 있다.

귀면와 중 679년에 건립된 안압지에서 출토된 녹유 귀면와가 중요한데, 이것은 용의 얼굴 정면을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녹유 귀면와의 두 뿔 사이 이마 위에 성덕대왕신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트 모양의 여의보주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귀면와의 입가에는 두 갈래로 힘차게 뻗쳐 나오는 운기문이나 운기당초문雲氣唐草文이 있다. 머리에는 화염 보주를 배치하거나 입에 보주를 물고 있는 형태이다. 코의 형태는 돼지코와 유사한 들창코인데, 이는 용의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런 귀면와는 용면와로 부를 만하다. 귀면와(용면와) 중에는 머리 위에 ‘王’ 자가 새겨진 것도 있다. 귀면에는 ‘王’ 자를 쓸 이유가 없다. 이 귀면와는 왕이나 왕실과 관련된 유물로, 용을 표현하기 위해 새긴 글씨로 볼 수 있기에 용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전돌은 기와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제작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울산 중산리 절터의 누각 귀면문 전돌은 모서리의 측면



외리출토 귀면문 전돌
가로28 세로29 | 충남 부여 | 국립중앙박물관



안압지출토 녹유 귀면와(용면와)
너비21 높이21 두께3 | 경북 경주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출토 녹유 귀면와(용면와)
폭29 높이29 | 경북 경주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을 경계로 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형태와 귀면이 귀면과의 형상과 아주 유사하다.

귀면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와에도 사용되었으나 신라시대의 귀면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사찰 중에는 건물에 용의 정면 모습을 그린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귀면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귀면이 용이 아닐 가능성 중 하나는 중국 고대의 도철문(鸞文)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중국 청동기시대에 흔히 사용된 도철문은 귀면 모티브와 유사하다. 도철문은 눈이 유난히 강조되며 머리에 두 개의 뿔이 나 있는데, 뿔 사이를 박산(博山)과 유사하게 표현한 점이 나 상호 대칭인 점 등에서 귀면과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귀면은 사람이 만들어 낸 상상의 문양으로, 그 형태는 나라와 지역이나 쓰임새 등에 따라 다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징 및 의의

귀면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다. 눈과 코가 과장되고 입이 유난히 크게 표현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위압감을 준다. 그리고 귀면은 누구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압도시키는 귀신이나 도깨비를 표현하였다고 전해진다.

아직 학계에서는 귀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용으로 보기 어려운 문양 중 상당수를 귀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용면이라는 표현보다는 귀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기와 이외의 유물에 있는 귀면문에 관해서도 용문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아직은 귀면문을 사용하는 사례가 우세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일관된 용의 표현방식은 벌어진 입과 윗입술을 말아 올려 코를 표현하거나 코(구멍)만을 유난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출토된 기와에 사용된 문양 중 우리나라의 귀면과 같은 문양은 없다. 귀면와는 중국에서는 희소하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에 새롭게 창안되었고, 널리 쓰였다. 그리고 귀면은 용생구자(龍生九子)에 나오는 용 문양과도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식리총 금동신발의 귀면 | 경북 경주 | 통일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귀면은 나쁜 기운을 멀리 쫓아내고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벽사구복(辟邪求福)’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용 문양이 왕실이나 사찰 중심으로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귀면문은 오히려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다.

귀면은 우리 역사에서 폭넓게 사용된 문양 중 하나로, 그 표현방식은

시대마다 달랐다. 장소와 물건, 쓰임새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귀면은 상상의 동물을 그린 그림으로, 특정한 형상으로만 한정해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귀면은 단순히 도상만이 아니라 문양이 표현된 기물의 용처, 함께 사용된 문양의 의미, 도상 특징, 종교적 의미, 출토 유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삼국시대 용문양의 수용과 발전(장용준, 한국고고학보53, 한국고고학회, 2004),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강우방, 월간미술, 2001), 한국와당예술론서설(강우방, 신라와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 과제(김성구, 부산 기와, 부산박물관, 2015), 한국의 문양 용(국립대구박물관, 2003).
필자 장용준(張龍俊)

백룡
白龍

오행 관념에 따라 방위로는 서쪽, 오행으로는 쇠, 색채로는 흰색에 해당하는 용.

내용

용을 여러 색깔로 묘사하는 말 중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은 청룡과 황룡이고, 백룡은 흑룡과 함께 가끔 등장한다. 조선 건국설화에서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 도조(道祖)는 꿈에서 서로 싸우는 백룡과 흑룡 중 흑룡을 활로 쏘아 죽임으로써 조선왕조 건국의 기틀을 쌓았다고 한다. 설화에서는 서로 승천하려고 다투는 용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백룡이 흑룡을 이기고 승천하는 설화가 있다. 기록과 설화에서 백룡은 오행설의 상극(相克) 원리가 적용되어 백룡이 흑룡을, 반대로 흑룡이 백룡을 이긴다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죽음은 흑룡, 권력은 청룡, 백성은 백룡에 비유해 ‘흑룡이 올라가면 사람이 많이 죽고, 청룡이 올라가면 머리 큰 사람이 살기 좋고, 백룡이 올라가면 농부가 살기 좋다.’고 한다.

흰색은 민족의 색이자 태양의 색이요, 하늘의 색이다. 흰색은 상서로운 서조(瑞兆)로 여겼다. 오룡거를 탄 해모수를 따라 휘하들이 흰 고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유화부인을 따라다니며 고주몽을 잉태시킨 햇빛이나 혁거세의 탄생을 알린 말 등은 모두 흰색이거나 흰색의 상징이다. 신화에서 하늘과 태양과 관계있는 흰 기운, 흰 동물이 등장하는 것에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왕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 신화가 숨어 있다. 흰색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예조(豫兆)이다. 흰 동물을 신성시하고 서수(瑞獸) 또는 서조로 여기는 풍속은 많다. 예로부터 흰색 동물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하고 백호, 백사, 백마, 백록, 흰 까치, 흰 참새 등 흰색 동물의 출현은 좋은 일의 징조로 여겼다.

국토정보지리원에 따르면 십이지(十二支) 동물 중 우리나라 지명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용’으로 나타났다. 용 지명은 전국 1,261곳에 쓰여 호랑이[虎] 관련 지명 389곳의 약 3배, 토끼[兔] 관련 지명 158곳보다 약 8배 많다. 이는 한국인의 유별난 용 사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용이 들어간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용산’으로, 서울시 용산구 등 전국 70곳에서 쓰고 있었다. 이어 용동(52곳), 용암(46곳), 용두(45곳), 용전(38곳), 용강·용정(27곳) 등의 순이었다.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이 들어간 지명은 110곳, 용이 승천하거나 누워 있거나 앞드려 있는 모습에서 유래된 지명도 246곳이었다. 풍수 관련 유래를 가진 지명도 77개로 나타났다. 색깔별로 지명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룡산白龍山’ ‘백용제’ ‘백룡’ 등 흰 용이 들어간 산·저수지·마을 등의 지명이 6건, 전남 고흥군 도화면 청룡靑龍마을 등 푸른 용을 쓴 지명이 19건, 전라북도 남원시 주생면 황용동皇龍洞 등 누런 용이 들어간 지명이 7건으로 조사되었다. 또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도덕봉(흑룡산) 등 검은 용 사용 지명도 2건 있었다.

십이지의 용[辰]은 갑진甲辰(청룡)—병진丙辰(적룡)—무진戊辰(황룡)—경진庚辰(백룡)—임진壬辰(흑룡) 등의 순으로 육십갑자를 순환한다. 그중 경진년庚辰年을 ‘백룡의 해’라고 한다. 경진에서 천간天干인 ‘경庚’이 오행으로는 쇠금이고, 서쪽이며, 백색[白]에 해당한다.

특징 및 의의

백룡은 오행설 관념에서 나온 상상의 동물로서 백룡의 흰색은 서쪽에 해당하는다. 흰색 동물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신성시되고, 서수 또는 서조이다. 기록과 설화에서 백룡은 오행설의 상극 원리가 적용되어 백룡이 흑룡을 이긴다거나 반대로 흑룡이 백룡을 이긴다는 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용 꿈을 꾸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필자 천진기(千鎭基)

여의주보

如意珠寶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다고 여기는 보배로운 구슬.

내용

여의주보는 불교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이며, 불보살佛菩薩의 신묘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불법을 상징하여 예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간에도 여의주보에 대한 관념이 확산되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재난을 없애는 보배의 의미로 설화

와 속담 등에 자주 등장한다. 여의주보는 고대 인도의 ‘친타마니Chintamani’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산스크리트어로 ‘친타’는 소망을 뜻하고, ‘마니’는 진귀하고 보배로운 구슬을 뜻하는 말이다. 이에 두 단어가 결합한 친타마니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여의주보가 용왕의 뇌에서 나왔다거나 인도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물고기 마갈어摩竭魚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이 전한다. 그 밖에 제석天帝釋天이 지녔던 물건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와 보주寶珠가 되었다는 설, 부처님의 사리가 변한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강우방은 보주의 개념이 문명 발상과 함께 정립된 것이라 하였다. 신화와 도상에 등장하는 항아리와 꽃병을 ‘우주의 생명력으로 가득 찬 만병滿瓶’ 개념으로 보면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만병이 곧 보주의 원형이라고 해석하였다.

민간에 전승되는 여러 여의주보 설화 가운데 〈여우구슬〉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당에 다니던 한 아이가 고개를 지날 때마다 여자로 변신한 여우가 나타나서 입을 맞추며, 구슬을 아이 입에 넣었다가 다시 자기 입에 넣어 혼을 빼앗아 가려 하였다. 훈장과 의논한 아이가 어느 날 입속의 구슬을 삼켜 버리자 여우는 죽고 아이는 자라나서 풍수지리에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 구슬을 삼킨 뒤 위를 보면 하늘의 이치를 알고, 아래를 보면 땅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훈장의 말을 듣고 땅을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



금산사 대장전 용마루 | 전북 김제 | 문화재청

여의주보는 특히 용과 짝을 이루는 상징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을 표현한 도상에는 용이 보주를 입에 물거나 발톱으로 움켜쥔 모습이 주를 이루며, 때로는 보주를 두고 희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용은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바다에 살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과 비바람을 일으켜 조화를 부리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용과 짝을 이룬 여의주보에 의미를 부여하여 민간에 ‘용이 여의주보를 얻어 승천한다.’는 담론이 생겨났다. 또한 용이 되지 못한 채 물에 사는 상상의 동물 이무기가 여의주보를 얻으면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뜻한 바를 다 이루게 되었을 때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라는 속담을 쓰는 것도 용과 여의주보 관계를 잘 나타내 준다.

용 이외에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팔부중八部衆의 하나인 금시조金翅鳥(가루라)도 여의주보를 지닌 동물이다. 진영아는 금시조가 형상이 비슷한 봉황과 오랫동안 혼동되었고, ‘백제금동대향로’ 등에 표현된 ‘목 아래 여의주보가 있는 봉황’ 또한 금시조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봉황을 보주와 함께 언급한 문헌은 없지만, 『대지도론大智度論』 등 여러 불교 경전에는 금시조의 주요 특징으로 ‘목에 지닌 여의주보’를 기록하고 있다.

불보살 가운데 여의주보를 지물持物로 지닌 존재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이다. 지장보살이 든 보주에서 광명을 발하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 신비한 공덕을 발휘한다는 상징성을 지녔다. 아울러 『대지도론』에 “능히 404가지 병을 제거한다.”라고 하여 중생의 고통을 없애 주는 영물靈物로서 여의주보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수많은 비구, 성문聲聞, 보살에게 나타난 신의 현상으로 여의주보가 등장한다. 모든 대중의 두 손에 여의주보가 들려 있고, 여의주보마다 여의보如意寶가 쏟아져 내렸으며, 여의보마다 광명이 나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였다. 여의주보가 발하는 빛이 부처님의 세계를 펼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다룬 셈이다.



반야용선에 표현된 여의주(삼화사 수록제) | 강원 동해 | 2021 | 구미래



통도사 대표 | 경남 양산 | 문화재청

그 밖에 법당의 가장 높은 용마루 중앙에 보주를 두어 건물 전체의 위상과 신성성을 높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 밀양 표충사 대광전 表忠寺 大光殿, 양산 통도사 대웅전 通度寺 大雄殿,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대웅전 佛甲寺 大雄殿, 전라북도 김제 금산사 대장전 金山寺 大藏殿 등의 보주가 있다.



백제금동대향로 | 최대지름19 높이62 | 충남 부여 |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특징 및 의의

여의주보는 민간에서부터 불교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보편의 의미를 지닌 채 전승되어 온 동양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특히 신묘한 능력을 지닌 상상의 두 영물로 ‘용’과 ‘여의주보’를 결합함으로써 두 대상에 투영된 인간의 소망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신화와 설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한국문화를 풍요롭게 해왔다.

참고문헌 고대 금시조 도상에 나타난 보주 연구(진영아, 강좌미술사59,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22), 민화(강우방, 다빈치, 2018),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의 비밀(허균, 대원사, 2013).
필자 구미래(具美來)

용궁
龍宮

용신이 사는 물속의 궁전.

개관

용궁龍宮은 민간에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지는 용신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바닷속이 보통이며, 강이나 우물인 경우도 있다. 용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문헌과 구비설화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에서 용궁은 화려한 보물과 산해진미로 가득 차 있으며, 용왕龍王·용자龍子·용녀龍女 등이 살고 있는 장소로 나타난다. 또 이곳은 인간의 덕행에 보답하거나 주인공을 융숭히 대접하고 그 소망을 들어주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내용

용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찾을 수 있다. 수로부인조에는 해룡에게 납치되어 돌아온 수로부인이 해중海中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궁전에 음식은 달고 향기로우며,

인간의 음식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또 “수로부인의 옷에는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세간에서는 맡아 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용궁은 매우 화려하고 온갖 보물이 있는 별세계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진성여대왕거타지조에서는 거타지가 용왕을 괴롭히는 여우를 활로 쏘아 퇴치하고 용왕의 딸을 아내로 얻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튿날 동쪽에서 해가 뜨니 과연 중이 와서 그 것처럼 주문을 외우면서 높은 용의 간을 빠져 하였다. 이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중은 즉시 높은 여우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 노인은 그 딸을 한 가지 꽃으로 변하게 하여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고, 두 마리 용에게 명하여 거타지를 받들고 사신 일행이 타고 가는 배를 뒤쫓아가 그 배를 호위하여 무사히 당나라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 설화에는 용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보이지 않지만 『고려사高麗史』의 <작제건설화作帝建說話>와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용궁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작제건설화>에서 “작제건이 아버지를 찾아 서해를 건너다가 서해용왕의 부탁을 받고 용왕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쏘아 죽이자 용왕은 작제건에게 사례하고자 칠보와 돼지를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 용녀는 개성으로 와서 작제건과 함께 살면서 침실 밖에 우물을 파고 이곳을 통해 서해 용궁을 드나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칠보는 용궁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돼지는 용궁의 산해진미 혹은 재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설화는 수로부인이 묘사한 용궁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비설화에 나타난 용궁은 주로 보은 공간으로 설정된다. 어부나 행인이 용자나 용녀의 변신인 잉어나 자라 등을 구해 주고, 그 보답으로 용궁에 초대되어 보물을 얻어 돌아온다는 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잉어의 보은>

설화이다. 전국적으로 널리 구전되고 있는 이 설화의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부가 큰 잉어를 잡았는데, 그 눈빛이 놓아 주기를 애원하는 듯하여 어부는 잉어를 방생하였다. 얼마 뒤 어부의 꿈에 살려 준 잉어가 사람으로 나타나 자신을 용왕의 아들이라 말하



동화우표 | 가로9 세로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며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가 용궁에 모셔 오기를 청하였다고 한다. 며칠 뒤 용궁에 간 어부는 지극한 환대를 받았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얻어 집으로 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외에도 <심청가沈淸歌> <수궁가水宮歌> 『심청전沈淸傳』 『토끼전』 『구운몽九雲夢』 등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도 용궁설화가 삽입되어 설화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용궁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용왕도 | 가로77 세로110 | 20세기 | 국립해양박물관

특징 및 의의

용궁은 용신이 사는 거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현실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우순풍조雨順風調의 주재자로 믿어지던 용신이 인간에게 재물과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천상계의 신으로 추앙되는 옥황상제나 천제 등이 인간의 운명이나 수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다면 농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신인 용신은 인간의 현실적인 복을 관장한다고 믿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천상계보다 수중계가 더욱 친근하며 가깝게 인식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또 설화의 주인공이 용궁에서 받은 보물로 인해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점에서 용궁은 현실 세계에서의 고난이나 역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담고 있는 이상향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미르용어를 통해서 본 용궁사상(서정범, 논문집8, 경희대학교, 1974), 용궁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이동철, 비교민속학28, 비교민속학회, 2005), 토끼전에 수용된 용궁설화의 양상과 의미(김재웅, 한국어문연구15, 한국어문연구학회, 2004).
필자 오세길(吳世吉)

용꿈

용이 나오는 꿈으로,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는 최고의 태몽이자 입신출세를 바라는 최고의 길몽.

내용 『후한서後漢書』 「이웅전李膺傳」에는 해마다 봄철이 되면 황하 상류인 용문협곡에서 못 잉어가 모여 급류를 타고 뛰어오르는데, 이때 성공한 잉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곧 경쟁을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하여 신하가 되어 나라에 충성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어변성룡魚變成龍이라 한다.

한국인은 꿈에서 용을 타거나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 고위 관직에 올라 만인을 호령하게 되고, 자신이 용이 되면 성공을 암시하는 길몽으로 여겼다. ‘용꿈을 꾸고 자식을 얻으면 훌륭한 자식이 된다.’라는 말처럼 장차 크게 이름을 떨칠 자식을 낳게 될 꿈이 바로 용꿈이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날면 입신출세한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날면 승진하고 벼슬에 오른다.’ 등의 속담처럼 용은 훌륭한 사람에 비유되며, 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입신출세 곧 등용登龍의 뜻으로 해석된다. 또 미꾸라지도 오래되면 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꾸준히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용꿈을 꾸고 자식을 얻으면 훌륭한 자식이 된다.
- 용꿈을 꾸면 아들을 낳고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 용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경사 난다, 출세한다).
- 용꿈이나 돼지꿈을 꾸면 형제한다.
- 용뿔에 구슬 달린 태몽을 꾸면 꿈 자랑을 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꾸는 동물 꿈 가운데 용꿈은 돼지꿈과 더불어 최고의 길조吉兆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용꿈은 돼지꿈과 함께 길몽의 쌍벽이다. 용은 누구나 알다시피 상상의 동물, 왕권의 상징이다. 용꿈은 태몽 중 으뜸이다. 장차 크게 이름을 떨칠 사내애를 낳게 될 꿈이 바로 용꿈이다. 이 때문에 신혼방의 이불과 베갯모, 병풍, 촛대 등에 용을 그리거나 새겨서 용꿈 꾸기를 기원하였다. <홍길동전洪吉童傳>에서는 아버지 홍 판서의 꿈에 용이 나타나서 홍길동의 탄생을 짐지해 주고 있다. 사임당 신씨가 용꿈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은 오죽헌의 방 이름은 ‘몽룡실夢龍室’이다.

또 ‘용코로 걸렸네’라는 말이 있다. 용은 날짐승·들짐승·물짐승의 잘난 부분만 모아 형상화하였는데, 특히 용의 코는 시커먼 돼지코여서 용은 돼지를 아주 싫어한다. 돼지꿈과 용꿈은 최고의 꿈이지만, 속신에 돼지띠와 용띠는 서로 맞



오죽헌 몽룡실 | 강원 강릉 | 한국관광공사

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용이 사는 곳에 용이 싫어하는 돼지머리를 집어넣으면 용이 움직이고, 용이 움직이면 바람이 일고, 바람이 일면 구름이 모여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은 문방사우文房四友, 즉 종이·벼루·붓·먹뿐만 아니라 연적이나 필통에도 용을 새겨 놓아 등용되기를 바랐다. 과거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출세하기를 바라는 선비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용을 선비의 사랑방 기물에 그림과 문양으로 장식한 것이다. 용의 상징과 가치는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일으키며 비·천둥·번개와 함께하는 장엄한 비상과 승천에 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일이다. 변화와 도전, 경쟁을 뚫고 등용되는 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대명제였다. 용의 비상은 관직이나 과거와 관련이 깊다. 과거에서 장원한 이를 용두龍頭니 용수龍首니 하고, 급제자의 방을 용호방龍虎榜이라 함도 그 때문이다. 선비의 문방구 중에 유독 용 문양이 많은 것도 과거를 통한 입신출세의 지향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문자도文字圖 ‘충충’은 잉어가 용의 꼬리를 물고 있고, 조개와 새우로 충 자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서 용은 왕, 물고기는 신하이며 왕에 충성하는 신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새우와 조개는 새우 하蝦와 조개 합蛤이 ‘화합’을 이룬다. 왕과 신하·백성이 서로 충성하고 화합한다는 뜻이다.

특징 및 의의

용은 여의주와 물·비·바람·구름을 만나고, 뿔이 나아만 승천할 수 있다. 용이 하늘에 가려면 여의주·물·비·바람·구름이 필요하듯 사람이 출세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위 여건이 맞아야 한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거나 비를 만난 격은 고생 끝에 좋은 운을 만나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용은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어 최고 자리에 오르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에 비유된다.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는 용꿈은 태몽으로서 최고의 꿈이다. 용의 승천은 입신출세 곧 등용을 뜻하며, 용꿈은 입신출세의 최고 길몽이다.

참고문헌 용 꿈을 꾸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용띠

열두 띠 중 다섯 번째의 띠.

개관 용띠는 진년(辰)생으로, 육십갑자 순서상 무진(戊辰)―경진(庚辰)―임진(壬辰)―갑진(甲辰)―병진(丙辰)생 등 다섯 가지이다. 시(時)로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방위(方位)는 동남(東南)동(東), 음력으로는 삼월, 계절은 청명에서 입하 전날까지, 음양오행은 양토(陽土), 물상으로는 윤택한 흙(潤土)이다. 용띠 해에 태어난 사람은 변화무쌍한 용의 속성을 타고나며, 다른 띠와 서로 원진(怨嗔)과 삼합(三合)·육합(六合)·육충(六衝) 등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궁합(宮合)에 활용된다.

내용 띠 동물의 외형·성격·습성 등의 특성과 연관 지어 그해 출생자의 성격과 능력을 점치는 풍속이 있다. 용띠는 진년(辰)생으로, 육십갑자 순서상 무진―경진―임진―갑진―병진(辰)생 등이다. 대체로 무진(辰)생은 고집과 끈기가 있으며 신뢰성이 있고, 경진(辰)생은 사회활동이 왕성하며 포부가 원대하고, 임진(辰)생은 두뇌 회전이 빠르며 행동이 민첩하고, 갑진(辰)생은 과묵하고 강직하며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좋고, 병진(辰)생은 융통성과 독립심이 있으며 호탕하다.

용띠와 화합하는 띠는 원숭이띠·쥐띠·닭띠이고, 충돌하는 띠는 개띠이고, 애증이 교차하는 원진살(怨嗔殺)이 되는 띠는 돼지띠이다. 원진은 서로 충돌(衝動)하는 지지(地支)의 바로 앞 또는 뒤의 지지이므로 싸운 뒤 그 앙금이 아직 남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뜻이다. 원진살은 궁합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용띠는 호랑이(寅)해·토끼(卯)해·용(辰)해가 삼재(三災)에 해당한다. 삼재가 되는 해에는 인재사(災)·관재(官災)·우환(憂患) 등이 생긴다고 한다.

진(辰)은 만물이 움직이고 떨치며 벼락치고 진동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

러므로 용띠인 사람은 변화무쌍하며 활동적이고 호탕하며, 포부가 원대하고 사람을 널리 포용하는 마음이 있다. 용띠의 대표적 성정은 다음과 같다.

물의 신(水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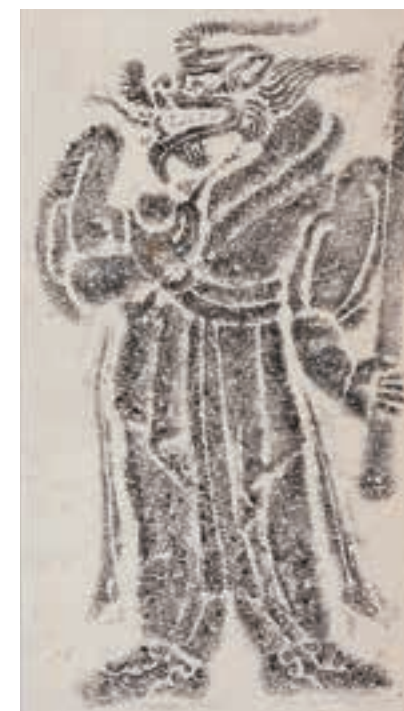
용(龍)은 한자어이고 우리 고유어로는 ‘미르’인데, 조선시대의 어린이를 위한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에 ‘미르 용(龍)’이라는 한자가 있다. 미르의 어원은 ‘밀(米)’, ‘물(水)’의 어원과 같다. 호랑이는 산신(山神)이고 용은 수신(水神)이다. 용은 큰 못이나 강·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비와 바람을 일으키고 물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용은 물의 신이자 비를 주관하는 우사(雨師)의 성격도 지닌다. 용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용과 물의 상관성은 전국 각처에 널리 있는 용소(龍沼)·용정(龍井)·용담(龍潭)·용호(龍湖)·용지(龍池)·용추(龍湫)·용강(龍江)·용연(龍淵)·용두(龍頭) 등의 지명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또 용을 위한 제사 장소가 모두 물가라는 점도 용이 수신으로서 갖는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신라 박혁거세(朴赫居世)의 부인 알영(閼英)은 용의 옆구리를 가르고 나왔다고 하였는데, 용이 나타난 곳이 우물인 알영정(閼英井)이라는 점은 알영이 바다에서 온 용녀(龍女)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가뭄이 지속될 때 용정·용담·용연·용지·용추 등에서 기우(祈雨)를 하였다 는 많은 사례가 실려 있다.

농경문화권인 우리 민족에게 물은 생명처럼 소중하므로 가뭄이 심할 때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냈다.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어촌에서는 용왕(龍王)굿이나 용왕제를 지내면서 배의 무사고와 풍어, 마을의 평안 등을 기원한다. 마을이나 집안의 우물에서도 용왕(龍王)제나 용왕(龍王)굿을 지낸다.

시조의 아버지

신화에는 용이 나라의 시조(始祖)나 임금, 씨족의 조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신라의 석탈해(昔脫解)는 용성국(龍城國)의 왕과 적녀국(積女國)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은 작제(作帝)건과 용녀(龍女) 소생(所生)인 용건(龍建)의 아



십이지신상(石像)본 | 가로49 세로94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들이다. 그래서 고려 때의 왕씨王氏를 용종龍種이라고 부른다.

백제 무왕인 서동襄童은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지南池가에 살던 중 그곳 연못의 용과 정을 통하여 낳았다. 후백제 시조 견훤甄萱은 광주光州 북촌의 부잣집 딸이 지렁이와 혼인하여 낳았다고 한다. 창녕조씨昌寧曹氏 시조인 조계룡曹繼龍은 용의 후예로 전해진다.

호국신

용은 호법신護法神이나 호국신護國神 역할도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이에 관한 많은 예가 실려 있다. 호법룡의 경우 ‘명랑법사明朗法師와 해룡[명랑과 신인종神印宗]’ ‘보양조사寶壤祖師와 서해 용[보양과 배나무]’ ‘의상대사義湘大師와 동해 용[낙산의 관음觀音·정취正趣 두 보살과 승려 조신調信]’ ‘진표율사眞表律師와 용왕[관동풍악關東楓岳의 발연수鉢淵藪 석기石記]’ 등이 있다.

호국룡의 경우 ‘문호왕법민文虎王法敏’과 ‘만파식적萬波息笛’에 “문무왕이 평소 ‘짐은 죽은 후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 유언으로 문무왕의 뼈를 묻은 곳을 대왕암大王岩이라 이름하고, 절 이름을 감은사感恩寺라 하였으며, 후에 용이 형상을 나타낸 것을 보던 곳을 이견대利見臺라 이름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자장율사慈藏律師와 지룡池龍’에는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황룡사皇龍寺 구층목탑의 건립 기원이 있는데, 이는 호국신앙의 발현이다.

제왕·임금

하늘 기후의 순조로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였던 농경문화권에서 군왕과 용은 자연스럽게 동일시되었다. 나아가 군왕과 관련되는 사물이나 비범한 인물에게 까지 용은 상징적으로 작용하였다.

『주역周易』 64괘의 첫 번째 괘인 중천건重天乾에서는 용을 하늘과 군자로 비유해서 인식한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東明王篇」에는 하느님[天帝]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五龍車]’를 타고 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혹룡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깐 동안 구름과 안개가 끼 감감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이어 왕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용이 왕과 결부된 예이다.

조선왕조의 창업을 노래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해동海東의 육룡六龍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건국하기까지의 여섯 선조先祖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은 그 권위로서 임금을 나타낸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

을 용안龍顏, 임금의 자리를 용상龍床, 임금의 옷을 곤룡포袞龍袍, 임금의 즉위를 용비龍飛라고 한다.

천지조화

용은 못 동물들이 가진 최상의 신체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구름과 비를 만들고, 땅(바다, 강, 큰 연못 등)과 하늘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믿어진다. 용은 짙은 안개와 비를 동반하면서 구름에 싸여 움직인다. 바다나 강, 호수 등지에서 하늘로 오르내릴 때는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와 구름이 만들어진다. 용이 승천하고 온갖 조화를 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의주如意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여의주를 갖지 못하면 이무기로 땅에 남아 여의주를 얻어 용이 되어 승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지지의 진辰은 동물로는 용龍이므로 능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간天干의 갑기甲己·을경乙庚·병신丙辛·정임丁壬·무계戊癸 모두 합화化合하는 오행을 따라 진월辰月과 진시辰時의 천간에서 그 변화한 기氣를 얻는다.

특징 및 의의

농경문화권인 우리 민족에게 용은 생명처럼 소중한 물[水]을 의미한다. 용띠는 변화무쌍한 용의 속성을 타고나며, 매우 활동적이고 호탕하며 포부가 원대하고 사람을 널리 포용하는 성정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용띠를 나타내는 진辰에는 만물이 움직이고 떨치며 벻락치고 진동한다는 뜻이 있다.

참고문헌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돌베개, 2010), 정선명리학강론(김만태, 지식의 통설, 2022),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문화상징사전1(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6).
 필자 김만태(金萬泰)

용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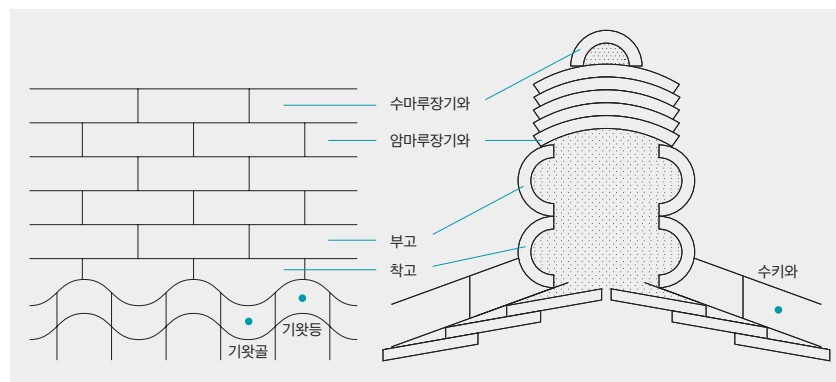
지붕 중앙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평평한 마루.

내용

용마루는 목조건물 지붕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주된 마루로, 종종마루·대대마루·수평마루·용옥척龍屋脊 등으로 불린다. 맞배지붕·우진각지붕·팔작지붕 등에 형성되며, 모입지붕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붕마루에 이어진 마루기와는 건물의 기능과 조화, 치장을 위하여 삼국시대부터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마루기와는 지붕의 마루를 형성한 축조기와와 각 마루에 사용된 장식기와로 구분된다.

용마루를 쌓아 올리는 축조기와는 내림마루·추녀마루와 마찬가지로 착고着固와 부고付高, 적새積瓦와 마루끝수키와로 구분된다. 착고는 기왓골 상단의 공간을 막음하는 기와로, 짧게 재단한 수키와를 가로 방향으로 뉘어 놓는다. 부고는 착고 위에 올린 기와로, 완형의 수키와를 사용한다. 궁궐과 관아·사원 등은 지붕마루를 높이기 위해 부고를 두 겹으로 올리지만, 민가나 협문 등의 작은 지붕마루는 1장의 부고를 이거나 착고 위에 적새가 곧바로 얹힌다. 적새는 부고 위에 이는 기와로, 암마루장기기와 수마루장기기로 나뉜다. 암마루장기와는 기본 기와인 암키와를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데, 건물의 위격과 규모에 따라 3장에서 11장까지 홀수로 그 개수가 겹친다. 그런데 용마루의 양쪽 끝은 암마루장기위를 몇 장 더 얹어 그 끝이 치켜져 반전된다. 수마루장기와는 암마루장기 와 위에 이는데, 완형의 수키와를 가로 방향으로 놓는다. 수마루장기와는 회흑색의 수키와인 흑와黑瓦를 대부분 이는데, 1~3장의 청유기와靑瓦가 용마루 가운데에 이어져 건물의 위상을 높인다. 마루끝수키와는 용마루 끝을 막음하는 기와로, 수키와 1~2장을 세우거나 가로 방향으로 이어 마루 끝을 막음한다.

용마루를 치장하는 장식기와는 매우 다양하다. 용마루 양쪽 끝에 이어지는 치미鷓尾·치문鷓吻·취두鷓頭를 비롯하여 용두와 망와, 용마루의 가운데에 이어지는 보탑과 보주, 사자상 등이 있다. 치미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용마루에 이어져 건물의 위상과 서상瑞祥을 나타냈고, 치문은 어룡형魚龍形으로 제작되어 화마를 막는 벽사의 의미로 고려시대에 사용되었으며, 취두는 왕권의 권위를 나타낸 대표적인 장식기와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취두의 두 측면에는 왕권을 상징한 소룡小龍을 새겼고, 후면에는 벽사의 의미인 귀면鬼面을 부착하였다. 용두龍頭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로, 취두가 이어지지 않은 용마루와 내림마루에 사용되며 화마를 막는 벽사를 나타냈다. 망와는 암막새의 드림새가 위로 향한 기와로, 취두가 이어지지 않은 용마루에 사용된다. 망와는 궁궐의 협문이



용마루 입면·단면도 | 김성구



전등사 대웅보전 마루축조기와와 정유기와 | 경기 강화 | 2013 | 김성구



해우당 마루끝수키와
경북 영주 | 2014 | 김성구



고운사 우화루 귀면문망와
경북 의성 | 2012 | 김성구



창덕궁 인정전 취두
서울 종로구 | 2014 | 김성구

나 사찰·민가 등에 사용되며, 길상과 벽사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다. 보탑寶塔과 보주寶珠 장식은 영광 불갑사靈光 佛甲寺의 대웅전大雄殿과 김제 금산사金湍 金山寺의 대장전大藏殿, 양산 통도사梁山 通度寺의 대웅전과 밀양 표충사密陽 表忠寺의 대광전大光殿에 설치되어 사원의 존엄과 위용을 나타냈다. 사자상은 구미 선산객사善山客舍의 용마루에 네 마리가 놓였는데, 당당한 암수의 좌상으로 지방관아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다.

특징 및 의의

용마루는 착고·부고·적새 등 마루축조기와로 높이 쌓아 올리고 각 시대에 따라 치미와 취문, 취두와 용두, 망와와 기타 장식기와 등으로 치장되어 목조건물의 품격과 위상을 나타냈다. 조선의 궁궐과 관아 건축은 수마루장기위를 제외한 마루축조기와 전체를 강회와 백토를 섞어 도포한 양성바르기가 성행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취두와 용두, 갑상과 토수가 조합되어 왕권의 권위는 물론 건물의 수호와 위상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조선시대의 마루기와와 그 특성(김성구, 한국기과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기과학회, 2014), 치미 하늘의 소리를 듣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박물관, 20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성구(金誠龜)

용무늬

전설상의 동물인 용을 소재로 도안한 무늬.

내용 용은 벽사와 수호의 능력을 갖춘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에 왕실에 서는 위엄과 권위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일반 사람들은 영험한 동물로 섬겼다. 용의 모습에 대해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머리는 낙타, 뺨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라고 묘사하였다. 용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으나 인간이 보아 왔던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조합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세속에서는 형태와 능력에 따라 아홉 가지로 구분하였다. 비늘이 있는 교룡蛟龍, 날개가 있는 응룡應龍, 뿔이 있는 규룡虯龍, 뿔이 없는 이룡螭龍, 승천하지 못한 반룡蟠龍, 물을 좋아하는 청룡靑龍, 불을 좋아하는 화룡火龍, 울기 좋아하는 명룡鳴龍, 싸우기 좋아하는 석룡蜥龍 등이다. 이들 중 규룡을 여러 용들의 우두머리로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고구려 고분의 널방에 그려진 청룡과 황룡이다. 청룡은 동쪽의 수호신으로서 천장 동쪽에, 황룡은 중앙의 수호신으로서 천장 중앙에 배치되었다. 청룡은 큰 입과 긴 혀, 둥근 눈을 하고, 그 머리 위에는 두 개의 긴 뿔, 뾰족한 발끝에는 세 개의 발톱이 돋아 있다. 마름모 형태의 비늘이 가득한 용의 몸통은 얇은 목선을 따라 굽은 몸이 이어지고, 꼬리 부분은 점차 얇아져 앞을 향해 걷는 듯 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황룡은 중앙에 꼬리를 틀고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용무늬는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기와·청동거울·청자·석관石椁 등에 장식 무늬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장식할 대상의 형태에 따라 길게 또는 둥글게 말린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걸거나 뛰는 것 같은 옆모습으로도 묘사되었다.

고대 직물 중에는 용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려 말에 만들어진 불상 내부에서 불복장 직물이 발견되어 당시의 용무늬를 확인할 수 있다. 불복장 직물에서 용무늬는 도안의 규모가 작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모두 측면의 자세로 작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불분명하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는 당시 서울과 지방의 민서民庶들은 의복과 기물에 용봉무늬를 넣지 못하게 금지한 대목이 있다. 이는 용봉무늬가 특별한 신분에게만 허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용봉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고려 말에 발견된 용무늬 직물과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인천시 석남동 출토 장옷

에 용무늬가 있으나, 그 형태는 고려 말 직물 조각에 나타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후로 발견된 용무늬 복식 자료로는 17세기 전반 유물부터 확인되며, 상류층의 의복에서 볼 수 있는 용무늬와 왕실의 상징성으로 표현된 화려한 장식의 용무늬로 구분된다. 상류층의 의복에 나타난 용무늬로는 윤선언尹善言(1580~1628) 묘에서 나온 철릭의 고름바대에 장식된 원형의 용무늬가 있다. 안동권씨安東權氏(1664~1722) 묘에서 출토된 지요 역시 지름 4.8cm의 원형으로 묘사된 용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안동권씨 묘에서 출토된 용무늬는 튀어나온 입과 둥근 눈, 두 개의 뿔, 몸의 비늘과 발끝에 표현된 다섯 개의 발톱 등 17세기의 유물에 비하여 비교적 세밀하다. 큰 원형으로 도안한 용무늬는 18세기 중반 유물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연응李沆應(1818~1879) 묘에서 출토된 마고자에서 용 두 마리가 지름 20cm가량의 큰 원형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무늬는 소재와 직물 조직에 따라 용문갑사·용단·별문영초라 부르며, 개화기까지도 왕실과 상류층 복식에서 자주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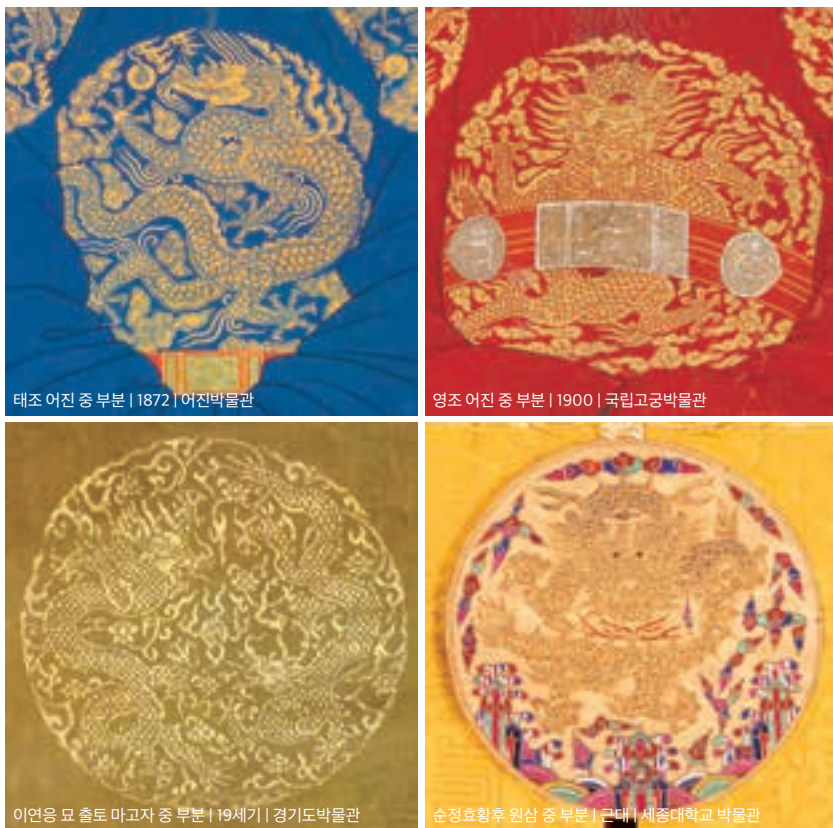
왕실의 위엄과 존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적인 용무늬로는 곤룡포에 장식된 용보龍補가 있다. 용보는 가슴胸·등背·어깨肩袂에 장식하는 둥근 형태의 용무늬 장식을 말한다. 왕의 복식에 용보를 달기 시작한 것은 1444년(세종 26) 명나라에서 상복常服으로 곤룡포 세 건을 사여받으면서였으며, 이는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어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872년에 제작된 태조 어진의 용보는 금실을 넣어 직조하였으며, 용에는 두 개의 뿔과 꼭 다문 길쭉한 입, 턱 밑의 수염 머리 뒤에 있는 다섯 가닥의 갈기가 있다. 몸은 조개 모양의 비늘로 덮인 채 S자에서 C자로 굽었으며, 네 개의 발끝에는 각을 세운 다섯 개의 발톱이 있다.

영조 어진에서 보이는 조선 후기의 용보는 금실로 수를 놓은 자수 용보였으며, 용이 태조 어진의 용과는 자세와 모습이 다르다. 태조 어진의 용이 측면형으로 머리보다 몸에 비중을 두었다면, 영조 어진은 정면형으로 머리에 비중을 두었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 정면을 향해 돌진하려는 자세를 취해 보다 위협적으로 표현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개의 뿔, 좌우로 휘날리는 갈기와 수염, 입·코·눈과 눈썹 그리고 이마의 주름까지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 태조 어진에 비하여 용의 몸이 커지고 긴 몸을 말아 머리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몸에는 조개 모양의 비늘이 가득 덮여 있고, 발끝에 각을 세운 다섯 개의 발톱이 있다.

철종 어진의 용보는 군복에 부착한 모습이다. 화제로 인하여 반 정도가 불에



오조용보 | 가로59 세로5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보

타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려우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군복용 흉배 도안을 통하여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철종이 입은 조끼형 옷인 전복은 구성상 앞 중심이 좌우로 나뉘기 때문에 용보 또한 반으로 나뉘어 여의주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놓여 있으며, 곤룡포의 용보와 달리 측면형에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고종의 곤룡포는 조선 말기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오른 황제의 지위에 걸맞게 황룡포이며, 그 위에 황색 용보를 부착하였다. 영조 어진의 용과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의주와 해에는 색사를 넣어 자수하였고, 가장자리는 꽃처럼 곡선이며 규모는 한결 작아졌다.

1751년(영조 27)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따르면 왕은 오조원룡보, 왕세자는 사조원룡보, 왕세손은 삼조방룡보를 사용하였다. 또 왕과 왕세자는 원형, 왕세손은 사각형의 보를 사용하고 지위에 따라 용의 발톱 수에 오조·사조·삼조로 차등을 두었다. 왕비·왕세자빈·왕세손빈의 용보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 전까지 왕실 여성 복식에 주로 봉황무늬가 사용되었

다면, 이때 이후로는 적통 왕실 여성의 예복에는 원형의 용보를, 그 외 왕실 여성의 예복에는 사각형의 봉황배가 사용되었다. 실물로 남아 있는 왕실 여성의 용보는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의 적의·원삼·당의에 부착한 것이다. 왕의 보와는 형태상 큰 차이가 없으나 왕실 여성의 용보에는 금사만 사용하지 않고 색사를 함께 사용하여 수를 놓았다.

특징 및 의의

용무늬는 왕이 입는 옷인 곤룡포, 왕의 행차를 알리는 깃발인 교룡기에 사용됨으로써 왕이 곧 용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또한 우리의 민속문화 속에서도 용은 최고의 자리에 비유되어 입신출세의 관문을 등용문登龍門이라고 하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을 두고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용을 건축·공예·회화·복식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장식하여 그 신령스러운 능력을 늘 가까이에 두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國朝續五禮儀補序, 本草綱目, 朝鮮王朝實錄, 우리나라 전통 무늬1-직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의문의 조선-무늬(경기도박물관, 민속원, 2016),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중국미술사 정사전(野崎誠近, 변영섭·안영섭 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한국직물문양 이천년(심연옥, 고대직물연구소출판부, 2006).

필자 정미숙(鄭美淑)

용신
龍神

사해四海 바다를 관장하는 신.

내용

용신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기 기록은 주로 건국신화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고구려의 <주몽신화朱蒙神話>에서 오룡거五龍車라는 해모수의 수레를 끄는 동물이거나 주몽이 죽어 승천할 때 타고 올라간 동물로 용이 등장한다. 신라의 <박혁거세신화>에서는 국모國母 알영이 알영정闕英井 가에 나타난 계룡鷄龍의 몸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석탈해신화>에서도 석탈해가 자신의 본국인 용성국龍城國에 이십팔용왕二十八龍王이 있으며, 모두 사람의 태배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용신과 제왕의 통치를 연결해 제왕의 신성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용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동시에 천상을 왕래할 수 있는 신이라는 점에서 제왕의 정치적 권위를 신성화하기에 적합한 동물이었다.

용신에 대한 숭배는 특히 신라시대에 와서 고조되었다. 이는 불교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호법룡護法龍신앙과 나라를 수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호

국룡護國龍신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신앙은 상호 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신라 30대 문무왕文武王이 당군唐軍의 침입 소식을 듣고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배워 왔다는 명랑법사明朗法師를 시켜 문두루文頭婁의 비법을 행하여 당나라 배를 침몰하게 하였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내가 죽은 후에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문무왕을 동해 바위 위에 장사 지냈는데, 그 후 문무왕이 호국룡신으로서의 이적異蹟을 나타냈다.” “신문왕神文王이 이견대利見臺에 행차하여 용으로부터 적병을 물리치고 가뭄에 비를 오게 하고 물결을 진정시키는 기능이 있는 옥대를 받았다.”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호국룡신앙의 관념은 백제에서도 확인된다. 백제 30대 무왕武王이 된 서동耆童(?~641)이 지룡池龍의 후손이었다는 기록,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595~667)이 백제를 공격할 때 용신이(또는 의자왕이 용으로 변하여) 백제를 보호하자 소정방이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아 제거하였다는 <조룡대釣龍臺 전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호국룡신앙이 고려와 조선의 국조신화에까지 계승되었음을 볼 때 비록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호국룡신앙을 용신신앙의 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민간에서는 용신을 수신水神으로 숭배하였으며, 비 오는 것을 관장하는 신적 기능을 지녔다고 보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보양이목조寶壤梨木條에 의하면 보양 스님을 따라 신라로 들어온 용자龍子 이목璃目은 날이 가물자 보양 스님의 지시를 받고 천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농민을 위하여 비를 내려 주었고, 보양 스님은 이목을 징벌하러 온 천신의 사자에게 배나무를 이목이라고 속여 배나무에 벼락을 치게 하는 내용이 보인다. 이는 불교와 습합된 수신으로서의 용신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신신앙, 특히 수신으로서의 용신신앙은 현재 전라도·충청도 등지의 내륙 지방에서 마을 우물이나 샘을 용신의 거주처로 간주하고 그곳에서 용왕굿이나 용신제를 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용못[龍淵]이나 용우물[龍井] 등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전설에 의하면 용이 보은報恩하려고 비를 내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고 한다. 수신으로서의 용신이 농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다와 관련하여 보면 용신은 풍어와 풍파를 조절하는 신적 기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용신은 용궁에 거주하며, 용궁은 신기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수로부인설화> <거타지설화> <작제건설화> 등의 기록뿐만 아니라 방리득보형설화放鯉得寶型說話 등의 구전이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용궁이 한국문학사에서 발복發福 가능한 이계異界 공간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려 준다.



무신도 | 가로57 세로93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궁부인도 | 가로51 세로9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무속신앙에서는 용신이 풍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숭배되고 있다. 가신신앙에서는 집 안의 우물이 용궁과 통해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용신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사례를 통해 민간에서는 물이 갖는 생명력生力이 용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신은 재래의 수신신앙에 불교·도교의 용신이 습합되어 형성된 신격으로, 호법신·호국신으로서 불교적·국가적 차원의 제향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년·풍어·기우·풍파조절의 기원 대상으로서 무속신앙·가신신앙 차원의 제향 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무속신앙이나 가신신앙 차원에서 용왕님, 용자신, 용관신, 용궁대감, 용궁대신, 용궁부인, 용궁불사, 용궁계석신, 용궁칠성신, 용궁천왕, 용왕제석, 사해용왕, 사해용신, 사해용왕대감신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숭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문화나 문학에서 가장 비중 있게 출현하는 신격 명칭은 ‘사해용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해안별신굿에서 용신은 동해를 관장하는 ‘광덕용왕’, 남해를 관장하는 ‘광리용왕’, 서해를 관장하는 ‘광택용왕’, 북해를 관장하는 ‘광연용왕’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권역별로 용왕이 존재한

다고 인식한 것은 불교나 도교 등 종교에서의 신격들이 보여 주는 체계화된 위계 및 직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도 무혼굿에서의 용왕맞이나 경상북도 포항 범곡의 용왕굿거리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잘 인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용신이 숭배되기도 한다. 이것은 용신이 바다를 관장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용왕을 잘 다독거리 줌으로써 망자의 혼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는 어촌민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廣開土大王碑文, 三國史記, 三國遺事, 거제도 별신굿(황루시, 열화당, 1993), 문학적 제재로서의 용의 변용(김대숙, 국어국문학100, 국어국문학회, 1988), 백제 용신 설화의 성격과 전개양상(정병현,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설화작품의 현상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용 그 신화와 문화(서영대·송화섭, 민속원, 2002), 용 불멸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제주도 무혼굿(현용준, 열화당, 1985),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이용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이동철, 민속원, 2005), 한국과 중국의 무속신비교 연구(장국강,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한국신화에 나타난 천신과 수신의 상관관계(서대석, 국사관논총 31, 국사편찬위원회, 1992).

필자 최원오(崔元午)

용오름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강한 바람의 소용돌이.

내용 기상 현상으로서 용오름이란 거대한 적란운으로부터 아래로 드리워진 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의 구름과 그 구름 아래의 지표면으로부터 말아 올리는 모래 먼지, 지상 물체의 파편, 수면으로부터의 물방울 등을 수반하는 강한 소용돌이를 말한다. 용오름은 보통의 경우 깔때기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소용돌이 기둥으로, 수면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주위의 기상 여건은 용오름이 자주 일어날 정도로 대기가 불안정하지 않다. 주변을 빨아올릴 정도로 강력하고 파괴적인 용오름이 많이 나타나지 않으며, 타 지역에 비해 용오름이 많이 관측되지 않는 편이다. 용오름은 일종의 기상 현상으로, 바다나 육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강한 바람의 소용돌이이다. 주로 울릉도와 제주도 연안에서 가끔 용오름을 볼 수 있다. 마치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물기둥을 보고 선조들은 용오름이라 하였다.

용오름이라는 기상 현상을 용의 승천으로 본 사례는 기록과 설화에 자주 등장한다. 1436년(세종 18) 제주 안무사按撫使로부터 “제주 정의현에서 다섯 마리의 용이 일시에 승천하였으며, 그중 한 마리가 되돌아와 수풀을 휘감다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는 용인가 아닌가를 두고 4년 동안 논쟁을 거듭한 끝에 상세한 조사 보고를 다시 안무사에게



벽골제 부근의 용오름 | 전북 김제 | 2021 | 기상청·김용천

지시하였다. 제주 안무사가 아뢰기를 “고로古老에게 방문하니, 지나간 병진년 8월에 다섯 용이 바닷속에서 솟아 올라와 네 용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운무雲霧가 자우룩하여 그 머리는 보지 못하였고, 한 용은 해변에 떨어져 금물두今勿頭에서 농목악弄木岳까지 물으로 갔는데, 풍우風雨가 거세게 일더니 역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옵고, 이것 외에는 전후에 용의 형체를 본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訪諸古老, 去丙辰年八月, 五龍自海中聳出, 四龍昇天, 雲霧濛濛, 未見其頭, 一龍墜海邊, 自今勿頭至弄木岳陸行, 風雨暴作, 亦昇天, 此外前後, 未有見龍形者.”라고 하였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더라.’ ‘이무기가 용으로 변하더라.’ 같은 유형의 설화도 전국 곳곳에서 전승된다. 용이 구름을 안고 등친하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용오름 마을이나 폭포명도 있다.

강한 비바람 후에 하늘에서 물고기가 마당으로 떨어지는 진기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물고기 비는 자주 발생하는 기상 현상은 아니다. 용오름의 회오리성 바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물속의 물고기와 개구리, 심지어는 거북도 빨려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물고기 비 현상도 용의 승천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특징 및 의의

용은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한다. 용은 변화의 존재이다. 그 변화는 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양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변신까지 한다. 용의 변신은 물고기, 파충류, 포유류, 식물, 사람, 산천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변화의 신으로서 용의 일반적 인식은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일으키며 비·천둥·번개와 함께하는 장엄한 비상과 승천에 있다. 용은 구름과 비를 만들고 땅과 하늘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믿어져 왔다. 작아지고자 하면 번데기처럼 작아지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으며, 높이 오르고자 하면 구름 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믿었다. 용은 대체로 짙은 안개와 비를 동반하면서 구름에 싸여 움직인다. 용은 승천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된다. 사람들은 용오름 현상을 하늘로 승천하는 용의 모습으로 상상하게 되었다. 용에 관한 목격담들의 공통점은 승천하고, 뇌우를 동반하며, 지표 물을 파괴하고, 고기비[魚雨]를 내린다는 점이다. 곧 회오리바람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 회오리쳐 오르는 것을 용오름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용오름으로 불린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용오름(조선일보, 2001.8.29.).
필자 천진기(千鎭基)

용왕 龍王

가정의 평안, 가족의 무병장수, 풍년, 풍어, 무사항해 등을 관장하는 신.

역사 용은 우리나라 역사에 흔하게 등장하는 신적 존재이다. 고구려의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의 수레를 끄는 오룡五龍이 바로 용이다. 주몽도 죽은 후 용을 타고 승천한다. 신라의 국모 알영 또한 계룡鷄龍의 몸에서 났으며, 석탈해도 자신의 본국을 용성국龍城國이라고 하였다. 백제의 30대 무왕 또한 지룡池龍의 후손으로 묘사된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용왕에 대한 숭배가 강화된다. 불교의 호국룡護國龍 신앙이 그것이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동해 바위 위에 장사지냈으며, 그 후 호국룡신으로서의 이적을 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용왕은 재래의 수신水神신앙에 불교·도교의 용신앙이 결합하여 형성된 신격으로서 호국신의 위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제향祭享 대상이 되어 섬겨지기도 하였다.

내용 민간에서 용왕에 대한 신앙은 크게 세 층위에서 형성된다. 우선 마을신앙 형태이다. 어촌에서는 정초에 그해 어로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를 지낸다. 풍어제 절차 중 용왕제龍王祭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풍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모시는 신이 바로 용왕이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의 경우 용왕은 풍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의 넋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정신앙에서는 가정의 평안, 가족의 무병장수, 풍년·풍어와 무사항해 등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숭배된다. 가정 단위에서 주부가 용왕에게 행하는 의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왕먹이기’이다. 이는 ‘용왕제’ ‘요왕제’ ‘용신제’ ‘유왕제’ ‘농사용왕’ ‘바람할때 용왕’ ‘갯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용왕먹이기’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가정에 따라 용왕먹이기를 하는 날은 다양하다.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정월이며, 그중에서도 대보름날이다. 이 외에 3일, 6일, 7일, 13일, 14일 등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놓고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정월 한 달 이내 또는 정월 대보름 이내에 용왕먹이기를 하면 된다고도 한다.

정월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삼월 삼진날과 시월 상달이다. 삼월에는 삼진날 외에 초하루에서 삼진날 사이에 택일하기도 한다. 시월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 그달 내에 택일하여 용왕먹이기를 한다. 이 밖에 이월 영등날(바람 올리는 날), 사월, 칠월칠석, 구월, 선달그믐에 용왕먹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이월 바람 올리는 날에 먹이는 용왕은 ‘바람할때 용왕’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에 따라 제의 시기에 대한 견해는 완전히 다르다.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생리 송골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에는 서낭신을 받기 때문에 이날은 용왕먹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에서는 이월은 영등달이라 하여 용왕먹이기를 피한다.

용왕먹이기를 하는 횟수는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대개 두 번 이상이고, 일 년에 세 번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정 횟수를 정하지 않고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한다. 즉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배를 타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 대주나 아이들의 생일 등에 용왕먹이기를 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용왕먹이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안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한 해 동안 집안에 액운이 들지 않고, 집안 식구 모두 건강하고 재수 좋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이다. 어촌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빈다. 농촌에서는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이를 ‘농사용왕’이라고 한다. 농사용왕은 제의 시기가 정월과 시월이다. 정월 농사용왕은 그해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시월 상달에 행하는 농사용왕은 한 해 농사가 잘된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이 낫기를 기원하고 객지로 나간 식구들이 탈 나지 않기를 빌기도 한다.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심방을 불러 바다에서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 용왕먹이기를 하면 아기를 낳는다고도 한다.

용왕먹이기가 행해지는 장소는 가정마다 고정되어 있다. 지역의 개발, 천재지변 등으로 제의 장소가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마다 장소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장소를 바꾸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모시던 장소를 며느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제의 장소로 세 곳을 들 수 있다. 첫째, 집안의 우물이다. 이것은 가정에 개인 우물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빈도는 낮은 편이다. 둘째, 마을 공동우물이다. 이곳도 사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피하곤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공동우물에서 샘제를 치른 뒤 그 물을 길어 와서 집 안의 부엌이나 장독대 등에서 용왕먹이기를 하는 가정도 있다. 셋째, 마을 주변의 물가이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되도록 집 밖에서 용왕먹이기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마을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는 다양하다. 어촌에서는 근처의 바닷가나 모래밭, 인근에 산이 있는 마을은 근처의 골짜기나 냇가로 가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을 선정하여 각각 행한다. 가까이에 못이 있는 마을에서는 그곳을 제의 장소로 이용한다.

이때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근래에 환경오염 등으로 마땅한 제의 장소를 찾지 못하면 집 안의 수돗가에서 지내기도 한다.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인근의 제의 장소를 찾아가기가 힘들 때도 집 안의 수돗가에서 지낸다. 간혹 절을 찾아 용왕먹이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에 따라서는 제일례이전, 주로 선달그믐에 제의 장소를 찾아가 그곳을 청소한 뒤 금줄을 치고 촛불을 밝히는 등 미리 제의 공간을 정화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물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며 정화와 생생력(生生力)의 원형이다. 또한 물은 인간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유지 수단이다. 물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수신신앙을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것이 용왕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용왕의 신성과 힘에 기대어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중에서도 물을 사용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의 종교적 심성이 용왕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09),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전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필자 오세길(吳世吉)

용호
龍虎

용과 호랑이의 합성어이며, 풍수설에서 산·물·길 등 주산의 좌우에 있는 지형물.

역사 주산(主山)을 등지고 왼쪽 산(혹은 흐르는 강물)을 청룡(靑龍), 오른쪽 산(혹은 큰길)을 백호(白虎)라 부른다. 이를 줄여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 혹은 '용호(龍虎)'라 한다.

청룡과 백호, 즉 용호라는 용어는 중국 고대 『여씨춘추(呂氏春秋)』 『회남자(淮南子)』 『사기(史記)』 『논형(論衡)』 등으로까지 소급되어 언급된다. 이 책들에서 용호는 하늘의 별들을 의미한다.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이 쓴 『논형』에는 “동쪽은 오해상(木)이며, 그 별은 창룡(倉龍)이다. 서쪽은 금(金)이며, 그 별은 백호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초기에 하늘의 별들을 지칭하던 것이 훗날 풍수설에 수용되어 『감룡경(撼龍經)』에 서술된 바와 같이 “땅에서 산 모양이 하늘에서는 별 모양으로 존재한다(山形在地星在天).”라는 문장으로 고착화된다.

이 용어는 조선조 지리학 고시 과목[지관(地官) 선발 시험]인 『금낭경(錦囊經)』 『의룡경(疑龍經)』 『명산론(明山論)』 『지리신법(地理新法)』 등 풍수 고전뿐만 아니라 최근의 풍수 서적에서도 일관되게 등장한다. 특히 조선 개국 직후 계룡산 도읍지론을 무력화한 풍수서 『지리신법』에서는 ‘용호론’이라는 독립된 장을 둘 정도로 해당 용어를 중시하였다.

내용

용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한 풍수서는 『금낭경』이다. “무릇 장사를 지낼 자리를 고를 때 왼쪽은 청룡, 오른쪽은 백호, 앞은 주작, 뒤는 현무로 삼는다.” 이 문장은 묘지 풍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용호는 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택(陽宅)과 양기(陽基) 풍수의 경우 용호를 산이 아닌 큰길(백호)과 흐르는 물(청룡)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묘지 풍수가 주류를 점한 까닭에 용호를 산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고대 양택·양기 풍수를 집대성한 명나라의 『양택십서(陽宅十書)』는 용호를 다음처럼 소개한다. “무릇 집의 경우 왼쪽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이를 청룡이라 하고, 오른쪽에 큰길이 있으면 이를 백호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일본의 양택·양기 풍수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서로서 11세기 일본에서 쓰인 『작정기(作庭記)』는 “동으로 흐르는 물을 청룡이라 하고, (중략) 서쪽에 있는 큰길을 백호라 한다.”라고 소개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渠)가 펴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수록된 「상택지(相宅志)」도 용호를 ‘흐르는 물’과 ‘큰길’로 이해한다.



소상팔경도의 용호 | 전체가로360 세로73 | 국립민속박물관

풍수에서 용호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까닭은 그것이 가져다준다는 ‘길흥吉凶과 발복發福’ 때문이다. ‘백호는 재물·예술·여성성을 주관하며, 청룡은 명예·권력·남성성을 주관한다.’는 풍수 서적들의 공통된 해석이 있기도 하였다. 예컨대 조선시대 한양의 경우 백호는 인왕산인데 청룡인 낙산보다 훨씬 길고 크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권력보다는 재물이 풍성하였고, 왕보다는 왕비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는 속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용호는 본래 ‘하늘의 28개 별 가운데 동쪽의 7개 별이 나열된 모습이 용의 모습, 서쪽에 나열된 7개 별은 호랑이 모양과 같다.’는 천문관에서 유래하였으나 이것이 풍수설에 물리적(지형적) 공간으로 환치되어 수용된다. 물리적(지형적) 공간으로서 용호는 인간의 거주에 중요한 보호공간 혹은 물류의 통로가 되기에 용호의 규모·모양·특성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길흥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 즉 하늘[천지]과 땅[지해] 그리고 사람[인시]이 하나의 유기체라는 천지인 합일 사상의 반영이다. 이러한 용호 관념은 전통 주택에까지 스며들어 ‘대문 좌우에 용龍과 호虎라는 한자를 써 붙

이면 그것이 그 집안의 흥함을 막아주고 길함을 가져다준다.’는 민속을 낳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撼龍經, 論衡, 明山論, 疑龍經, 地理新法, 조선풍수 일본을 논하다(김두규, 드림넷미디어, 2010), 풍수학 사전(김두규, 비봉출판사, 2005).
필자 김두규(金斗圭)

이무기

상상의 동물로,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

개관

이무기는 우리나라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용과 마찬가지로 물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존재이자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용이 인간을 돕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면 이무기는 긍정과 부정의 대상으로 동시에 인식되고 있다.

이무기의 거처는 대개 깊은 물속이다. 연못이나 소뚝 등이 대표적이며, 지명 설화를 비롯해 이무기와 관련한 많은 설화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이무기가 물속에서 100년을 보내면 하늘로 날아올라 용이 된다고 믿는다. 이는 이무기가 용이 되기 전 단계의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무기의 신성성을 약화하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는 대개의 설화에서 이무기의 신적 능력이 불분명하게 언급되거나 용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묘사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이무기는 인간의 사소한 개입에도 신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나약한 존재로 나타난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승천하는 순간 인간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 이무기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비설화에서 이무기는 주로 인간의 방해로 승천에 실패하는 존재로 나타나며, 그 때문에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해를 끼치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이무기의 속성은 속담으로도 형상화되었는데, “용 못 된 이무기 심술만 남았다.”는 심술이 가득하고 인정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입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용

이무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타난다. 먼저 불법을 수호하고 물을 관장하며 인간을 보호하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이무기가

있다. 이러한 이무기의 모습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보양과 배나무[寶壤梨木]’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이무기를 이목瘳目으로 칭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조 승려 지식知識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해 가운데 이르렀을 때 용이 지식을 궁궐로 맞아들여 불경을 외게 하고 금실로 수놓은 비단 가사 한 벌을 시주하고, 아울러 이무기[瘳目]란 아들을 시봉侍奉으로 팔려 보냈다. 이무기는 항상 절 옆의 작은 못에 살면서 불법 교화를 남몰래 도왔다. 어느 해 갑자기 가뭄으로 밭의 채소가 타들어 가므로 보양이 이무기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도록 하니 한 고을에 충분할 정도로 비가 내렸다. 천제는 자신이 모르게 비를 내리게 했으며 이무기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무기가 법사에게 위급함을 알리자 법사는 이무기를 마루 밑에 숨겼다. 얼마 후 하늘의 사자가 뜰에 와서 이무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법사가 뜰 앞에 있는 배나무를 가리켰다. 그러자 하늘의 사자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위의 이야기에서 이무기는 용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며, 동시에 물을 다스리는 존재이다. 이무기와 용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부자간으로, 이무기의 권능은 용의 아래 단계에 있으며, 장차 용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미완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무기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무기의 속성은 구비설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목瘳目이 용으로 변신하여 웅덩이에 들어가곤 하였다. 스님이 이목의 뒤를 밟아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해 날이 심하게 가물어 흉년이 들 위기에 처하였다. 스님이 이목에게 “비를 내려 해갈하고 흉년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목은 처음엔 옥황상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은 죽게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스님이 계속 부탁하자 비를 내려 주었다. 이목은 옥황상제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이목을 구들장 아래에 숨겨 주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찾아와 이목의 소재를 물었다. 스님은 절 앞의 대추나무를 가리키며 이목이라고 하였다. 이목은 스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고, 못에 거주하며 가뭄이 올 때마다 비를 내려 주었다.

여기에서 이무기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되는데, 『삼국유사』와는 다르게 이무기를 불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고 용과 동일시하는 인식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보다는 가뭄이 올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인간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다음은 신성성은 약화한 대신 인간적인 속성이 강화된 형태의 이무기가 있



이무기 부채 | 가로95 세로33 | 조선 | 호암미술관

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무기는 용의 권능을 완전하게 획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무기의 불완전함은 그 신성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어느 날 양반이 베를 판 돈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구렁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양반은 구렁이를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베를 판 돈 전부를 주었다. 양반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풍수가 되었다. 양반이 못자리를 구하는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불쌍한 한 아이에게 자기 밥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는神通한 능력이 있어 풍수에 문외한인 양반을 최고의 풍수가로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자신이 지난번 양반이 구해 준 구렁이라고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이무기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용으로 변신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아이는 은혜를 갚고자 찾아온 것이라며, 다만 이제 더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양반은 이무기 덕분에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여기에서 이무기는 구렁이로 묘사된다. 구렁이는 가정신앙에서 재물을 관장하는 업신業神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용의 아들인 이무기를 구렁이로 표현한 것은 이무기의 불완전성에 대한 민간의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신성성은 약화했지만 선한 인간을 보호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간적인 면모는 더욱 강화되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 구렁이를 구해 주고 굶주린 아이에게 자기 밥을 내어 주는 등 착한 본성을 잃지 않은 양반에게 보답하는 이무기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민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인 이무기가 있다. 이때의 이무기는 신성성과 인간성을 모두 잃은 존재로 묘사된다.



김시민 장군 생가지의 유허지 | 충남 천안 | 문화재청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무관 중 한 사람인 김시민(金時敏)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총명하고 체격이 장대하였다. 그가 아홉 살 때도 믿기 어려운 일화가 전한다. 김시민이 살던 백전마을(현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입구 쪽에는 백전천이 굽이돌아 흘렀다. 백전천 강가에, 물에 잠긴 바위가 있고, 그 아래 큰 굴이 하나 있었다. 굴속에는 큰 이무기가 살았는데, 수시로 출몰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가축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김시민은 이무기를 퇴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시민은 당장 동네 아이들을 모아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을 들고 백전천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동네 아이들을 마을 입구의 큰돌(龜巖) 위에 올려세워 그 그림자로 이무기를 유인하였다. 아이들의 그림자를 본 이무기가 모습을 드러내자 김시민은 뽕나무 활에 쑥대 화살을 얹어 내리 예닐곱 발을 명중시켜 이무기를 잡았다. 이때 이무기의 피가 며칠간 백전천을 붉게 물들였다고 한다.

여기에 나타난 이무기는 인간과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징치(懲治)의 대상일 뿐이다.

특징 및 의의

용은 불교문화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무기는 용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토착 신앙에서 수신(水神)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던 존재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용 사상이 우리 신앙

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자 토착 신앙에서 유지되던 이무기의 신성성은 약화하였다. 그래서 이무기는 용의 아들로 격하되거나 정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무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종교적 심성은 약화하였지만, 오히려 인간적 면모를 지닌 이물(異物)로서의 상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간의 경험이 미칠 수 없는 천상계의 신이나 동해·서해·남해 등의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용신에 비해 이무기는 생활 주변의 연못이나 소 등에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여하고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친밀한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그렇기에 생명을 존중하고 불우한 아이를 보살피는 선한 인간에게 보답하는 이무기의 모습에는 우리가 인간세계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와 인간상이 담겨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수용자의 해석과 설화의 다층적 의미(이인경, 국문학연구25, 국문학회, 2012), 왕의 탄생과 관련한 이물 교혼담에서의 동물 상징성 고찰(김중대, 우리문화연구23, 우리문화회, 2008).

필자 오세길(吳世吉)

청룡
靑龍

오행 관념에서 나온 방위로는 동쪽, 오행으로는 나무, 색채로는 청색에 해당하는 용.

내용

우리 민족의 색채 관념은 음양오행의 우주관과 방위 관념에서 나왔다. 오방정색(五方正色)은 청색, 백색, 붉은색, 검은색, 황색 등이다. 이 오방정색을 기본으로 사이 색인 홍(紅)·벽(碧)·녹(綠)·주황(朱黃)·자(紫)색이 기본으로 발달하였다. 청색은 방위로는 동(東)쪽, 오행으로는 나무(木), 동물로는 용(龍)에 해당한다. 청(靑) — 동(東) — 나무(木) — 용(龍), 백(白) — 서(西) — 쇠(金) — 호(虎), 적(赤) — 남(南) — 불(火) — 주작(朱雀), 흑(黑) — 북(北) — 물(水) — 현무(玄武), 황(黃) — 중(中) — 흙(土) — 봉황(鳳凰) 등의 상징적 의미체계로 연결된다.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체계〉

색채	방위	계절	오행	동물	오방신(五方神)	오정(五情)	오상(五常)	오미(五味)	신명(神名)
청색	동쪽	봄	목	청룡	청제장군	기쁨	인	신맛	아명(阿明)
백색	서쪽	가을	금	백호	백제장군	분노	의(義)	매운맛	거승(巨乘)
빨간색	남쪽	여름	화	주작	적제장군	즐거움	예(禮)	쓴맛	축웅(祝熊)
검은색	북쪽	겨울	수	현무	흑제장군	슬픔	지(智)	짠맛	우강(愚康)
황색	중앙		토	봉황	황제장군	욕심	신(信)	단맛	



강진 용소농기 | 일제강점 | 농협 농업박물관

용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실존하는 어떤 동물들보다 최고 권위를 가진 최상의 존재이다. 용은 상상의 동물로, 봉황·기린·거북과 함께 사령四靈의 하나이다. 용은 변화와 조화의 신으로서 바람을 부리고 구름을 일으키며 비·천둥·번개와 함께 장엄한 비상과 승천으로 완성되는 존재이다.

고구려 벽화고분 사신도에서 청룡은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와 함께 동쪽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이다. 청룡은 그 반대

편에 해당하는 서쪽의 백호와 짝을 이루는 형태이다.

숙종의 능인 명릉明陵 조성 의식절차를 기록한 『숙종산릉도감의궤肅宗山陵都監儀軌』(1720)에는 능의 모형과 재궁粹宮을 담아 두는 찬궁攢宮의 네 면에 각각 동서남북을 뜻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채색(사수도四獸圖)가 그려져 있다.

전라남도 강진 용소마을에는 1933년에 제작된 농기인 청룡기가 있는데, 두레패가 일을 나갈 때 이 농기를 앞세운다. 전남 강진 용소의 두레 농기에는 청룡을 타고 있는 신농씨가 물고기·거북과 함께 그려져 있다. 그림에서 신농씨는 청룡을 타고 살포를 어깨에 메고 있다. 신농씨는 고대 전설적 제왕인 삼황(복희, 신농, 여와) 가운데 한 분으로, 호미를 창안하고 농경을 가르쳤다. 살포는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기도 하고 논의 물꼬를 트고 막는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상징성 강한 휴대용 다용도 농기구이다. 청룡은 비와 바람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농어민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된다.

십이지의 용(龍)은 갑진甲辰(청룡)—병진丙辰(적룡)—무진戊辰(황룡)—경진庚辰(백룡)—임진壬辰(흑룡)의 순으로 육십갑자를 순환한다. 갑진년甲辰年이 '청룡의 해'에 해당한다. 갑진에서 천간天干인 '갑甲'이 오행으로는 나무이고, 동쪽이고, 청색이다.

특징 및 의의

청룡은 동서남북과 중앙의 오방위, 청·적·황·백·흑의 오방색, 청룡·주작·봉황·백호·현무의 오방신 동물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합된 상상의 동물이다. 청룡은 청—용—동—나무 등의 문화적 의미체계를 가지고 있다.

민속에서 오방을 지키는 신장은 동방청제東方靑帝장군, 서방백제西方白帝장군,

남방적제南方赤帝장군, 북방흑제北方黑帝장군, 중앙황제中央黃帝장군 등 색깔로 표현한다. 동방을 지키는 신은 청제장군으로 청색이다.

참고문헌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2009), 용 꿈을 꾸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황룡
黃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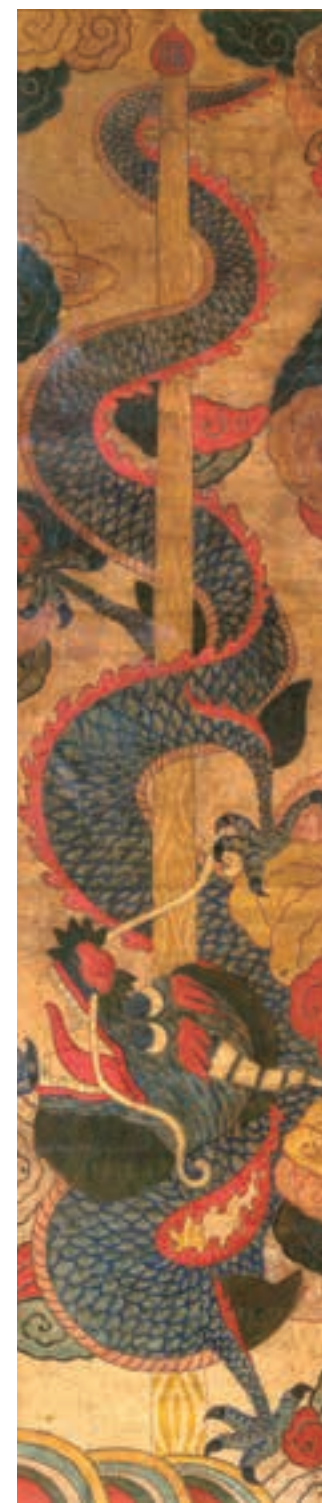
오행 관념에서 나온 방위로는 중앙, 오행으로는 흙, 색채로는 황색에 해당하는 용.

내용

오방색에 따라 동서남북의 가운데 있는 중앙은 오행으로 흙(土)이고, 오방색으로는 황색이나 황금 또는 황금빛이다. 용은 최고 권위를 지닌 최상의 존재이다. 상상의 동물인 황룡은 사방신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물론 중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누른빛이 도는 황룡은 제왕 중에서도 중앙을 관장하는 황제黃帝를 묘사할 때 자주 보인다. 이 황제는 나중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며, 이때 그가 탄 용이 바로 황룡이었다는 것이다. 황룡은 신선神仙이 타는 동물로도 자주 등장한다.

신라 진흥왕眞興王 때 궁을 건축하려다가 황룡이 나타나 궁을 사찰로 바꾸고 황룡사佛龍寺라고 하였다는 황룡사 연기설화를 비롯하여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을 보면 고구려 건국 시조 추모왕의 죽음을 바로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황룡이 나타난 기록이나 나라의 시조가 황룡을 댄다는 기록이 종종 보인다.



청룡도 | 가로61 세로183 | 국립민속박물관

천후天候를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농경 문화권에서 군왕과 용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용이 가진 장엄하고 화려한 성격 때문에 용은 왕권이나 왕위로 상징된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龍顔, 임금이 덕을 용덕龍德, 그 지위를 용위龍位라 하였다. 또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龍床과 용좌龍座, 임금이 입는 의복을 용의龍衣와 용포龍袍,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용가龍駕·용거龍車, 임금이 타는 배를 용선龍船이라 하였다. 심지어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라 하였다.

한국 복식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옷은 왕의 곤룡포袞龍袍이다. 왕이 일할 때 입는 정복正服인 곤룡포는 가슴·등·양어깨에 보補라고 하는 금실로 수놓은 용보龍補를 붙였다. 곤룡포에는 노란색의 황룡포, 붉은색의 홍룡포, 파란색의 청룡포, 검은색의 흑룡포 등이 있다. 왕의 초상화인 어진에 보면 조선 태조는 새로운 왕조를 연 뜻을 기리기 위해 파란색 곤룡포를 입은 모습이고, 다른 왕들은 붉은색의 용포를 입고 있다. 중국의 왕은 천자라 하여 황룡포를 착용하였고, 조선의 왕들은 제후국이라 하여 붉은색 곤룡포를 주로 착용하였다. 흑룡포는 사실 왕의 상복이다. 1897년 나라를 대한제국大韓帝國이라 칭하고 황제가 된 고종은 중국의 황제 복식과 똑같은 황색의 곤룡포를 입었고, 명성황후 또한 황색 원삼을 입었다. 황룡포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금실로 수놓은, 발가락이 다섯인 오조룡보를 달았다.



조선태조어진 | 가로 151 세로 220 | 조선 | 어진박물관

경복궁 근정전 천장에는 금박 입힌 용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근정전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의 정전이다. 황룡은 비늘까지도 그대로 조각하여 웅장하면서도 화려하다. 특이한 건 천장에 조각된 황룡의 발톱이 일곱 개이다. 두 마리의 황룡을 그린 황룡기는 국왕이 군대를 친히 사열(親閱)할 때 각 영營에 명령을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기로, 이것 또한 왕과 관련이 있다.

십이지의 용(辰)은 갑진甲辰(청룡)—병진丙辰(적룡)—무진戊辰(황룡)—경진庚辰(백룡)—임진壬辰(흑룡)의 순으로 육십갑자를 순환한다. 무진년戊辰年은 '황룡의 해'에 해당한다. 무진에서 천간天干인 '무'戊가 오행으로는 흙이고, 중앙이고, 황색이다.

용은 일찍이 풍수설에서도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즉 풍수설에서는 토지의 기복起伏인 산을 용 혹은 용날이라 한다. 그것은 기복 변화가 무상한 산이 마치 음양 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용의 조화와 서로



경복궁 근정전 천장 칠조룡 | 서울 종로구 | 2023 | 국립민속박물관

통한다는 뜻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다. 산맥이 꿈틀거리며 이리저리 뻗어 간 모습을 대하면 누구나 거대한 용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산을 용으로 보는 이러한 인식은 대중적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유래 자료에 의하면 황룡이 들어간 지명은 황룡산, 황룡제, 황룡강, 황룡강제방, 황룡지, 황룡교(천), 황룡동(리) 등으로 산·강·저수지·마을·다리 이름에 14건이 등장한다.

특징 및 의의

황룡은 존재 자체가 권위와 조화를 상징하기에 절대권력의 수호자로도 묘사된다. 중국에서 황룡은 황제를 상징한다. 이처럼 황룡은 황제를 상징하는 용과 중앙을 가리키는 황금 또는 황금색의 문화적 조합이다.

참고문헌 :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2009), 용 꿈을 꾸다(국립민속박물관, 2011),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필자 : 천진기(千鎭基)

설화 속 용

Dragons in Folk Tales

간룡법	수신과 벽사의 상징	용왕계
감은사	야래자설화	용인 용줄다리기
개구리알먹기	어변성룡도	용줄다리기
갯제	어부심	용추폭포
거타지설화	여의주보	용호
견훤	영노	용호문배도
계룡산	오룡거	우물계
곤룡포	오룡쟁주놀이	운룡도
공갈못	용	운문사
구룡사	용 못 된 이무기	울돌목
구룡포	용 승천	원성대왕
귀면	용 싸움	유금이들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용경	이무기
금산 청징연 기우제당	용궁	이심이
기우제	용기	잉어의 보은
기우제등록	용꿈	작제건설화
김부대왕	용놀이	주몽신화
나룻배싸움놀이	용단지	줄다리기
남원 용마놀이	용단지모시기	지내와 구렁이의 승천 다름
동김녕 잠수굿	용대기	진쌍기놀이
만파식적	용두	차귀분향놀이
무왕	용두암	창녕조씨 시조신화
문무왕	용떡	처용
물부리굿	용띠	천룡당
미륵사	용마루	철룡
밀양 용호놀이	용머리고개	청룡
박혁거세신화	용무늬	침호두
반야용선	용소	통기
백룡	용신	통도사
백마강	용알뜨기	형산강
벽골제 쌍룡놀이	용오름	혜룡
보양	용왕	호국과 호법의 상징
부석사	용왕굿	호국룡
비 내린 이무기	용왕기	호법룡
상진일	용왕당	화룡계
석척기우	용왕도	황룡
석탈해신화	용왕먹이기	황룡사
선운사	용왕밥	회룡포
설화 속 용	용왕상	

설화 속 용

나경수 | 전 전남대학교

왕통의 신성성과 용

한국의 대표적 건국신화建國神話 중 하나인 <주몽신화朱蒙神話>에 용마龍馬가 나온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는 천신天神으로서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지상에 내려온다. 또한 오룡거를 타고 유화柳花의 아버지 하백河伯이 사는 수중에도 들어간다. 용은 양서적 생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도, 잠수를 할 수도 있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한편 용이 끄는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수레를 끄는 다섯 마리의 용은 신성성과 지존을 표상하는 화소 자격을 가진다. 다섯 발가락의 용은 황제에게만 제한되는 독점적 권위를 표상한다. 용의 발가락 개수가 아닌 마릿수로 다섯이라는 것은 지상의 존재인 황제와 차별화하여 해모수에게 천상의 존재라는 신성 자격을 부여하는 하나의 징표이다.

그 유명한 <서동요童童謠>의 배경설화는 그 서두 부분을 마한신화로도 볼 수 있는데, 백제의 무왕武王으로도 표기되는 마한의 무강왕武康王은 부여 남쪽 연못가에 살던 과부가 용과 사통하여 그를 낳았다고 한다. 또 하나의 건국신화 <박혁거세신화朴赫居世神話>에서는 계룡鷄龍이 등장한다. 서라벌徐羅伐 사랑리의 우물 속에서 계룡이 나타나더니 왼쪽 옆구리에서 동녀童女가 탄생하였는데, 그녀가 곧 혁거세의 배우자가 된 알영闍英이다. 서라벌은 계림鷄林으로도 불리며,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의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말하는 신성한 숲에 해당하는 시원지일 수도 있다. 신라 진골 왕가의 시조인 알지闍智가 금궤에서 탄생하여 이름 붙여진 계림 이전에 이미 신라는 닭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알영을 옆구리로 낳은 계룡은 계림의 신성성과 관련된 수조신獸神적 성격을 가지는 한편 닭을 신성화하는 방법으로써 용을 덧붙인 예로, 명마를 ‘용마’라고 부르는 용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라 제4대 왕 석탈해昔脫解 역시 용과 관련된 설화 내용을 보인다. 석탈해는 용성국龍城國 사람이다. 용성국은 28명의 용왕이 사람 형상으로 태어나 모두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 거기에서 용왕 가운데 한 명인 함달파舍達婆는 적녀국

積女國의 공주와 혼인하였는데, 공주가 아이가 아닌 알을 낳자 이상하다 하여 배에 실어 인연이 있는 곳에 가도록 띄웠다. 먼저 가야에 도착하였다가 신라에 이르러 우여곡절 끝에 신라 노래 왕弩禮王의 뒤를 이어 제4대 왕위에 오른다. 이와 같이 석탈해신화도 기저에는 유명한 표착형 화소를 지니는 한편 천손天孫이나 지모신地母神 계통처럼 신이한 탄생과 신성성을 부가하는 방법으로 용손계 화소를 이용하였다.



삼국유사
가로15 세로21 | 광복 이후 | 국립한글박물관

이렇듯 고대신화에서는 왕통의 신성성을 확보하여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용을 차용하는데, 이는 신화시대의 일만이 아니다. 역사시대인 후삼국과 고려, 조선조에서도 용은 왕가와 관련되는 화소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야래자夜來者의 아들이며, 야래자는 ‘토룡土龍’이라 하였다. 토룡은 지렁이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이는 후대 평가절하를 위해 용을 지렁이로 격하시킨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견훤의 탄생지는 용이 태어난 마을이라는 뜻으로 생룡동生龍洞이라는 지명으로 현재도 쓰이고 있고, 주변 6개 마을에도 역시 ‘용’자가 들어간 마을명이 쓰이며, 주변에 흐르는 영산강 지류의 강도 황룡강黃龍江으로 불린다.

『고려사高麗史』에 김관의가 쓴 고려세계高麗世에 따르면 왕건의 가계에도 용이 등장한다. 『삼국유사』에 실린 진성여왕 대 <거타지설화居陀知說話>의 변이형이기도 하다. 왕건의 할아버지는 작제건作帝建이라고 하는데, 중국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다가 황해에서 용왕을 만나 용궁을 혼란하게 하던 여우를 퇴치해 준 대가로 용왕의 딸인 용녀와 혼인하고 왕가를 이루게 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의 국문 작품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역시 신화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세종대왕의 선대 6대조인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태종의 사적事跡을 악장체로 지은 노랫말인데, 여기에서 6대조를 육룡으로 지칭하면서 건국신화의 권위에 의탁하여 왕통의 신성성을 드높이고 있다.

불교의 연기설화와 용

불교에서 용은 호법룡護法龍으로 나타난다. 이미 삼국시대에 삼국이 모두 불교를 받아들이며서 각기 특색 있는 정교일치政教一致의 통치이념으로 각색해 나가

는데, 특히 신라의 경우는 삼국 중에서도 약소국이었던 관계로 호국신앙護國信仰이 두텁게 발전하였다. 백제의 미륵사彌勒寺, 고구려의 정릉사定陵寺와 함께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호국사찰인 황룡사皇龍寺가 신라 진흥왕 대에 지어졌다. 진흥왕은 본래 궁궐을 용궁龍宮의 남쪽에 지으려 하였는데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났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궁을 고쳐서 절을 짓고 황룡사라고 하였다. 황룡사 장육존상皇龍寺丈六尊像으로도 유명한 황룡사에는 선덕여왕 대에 9층 탑을 세워 구이九夷를 제압하는 의미를 담았다.

신라의 대표적 호국사찰은 사천왕사四天王寺이다. 당나라에 유학하던 의상대사義湘大師가 ‘당나라가 곧 신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김인문의 밀명을 받고 귀국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조정에서 의론하던 중에 각간 김천존이 “근래에 명랑법사明朗法師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해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 보십시오.”라고 하자 명랑을 불러 물으니 “낭산狼山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시일이 촉박하여 미처 절을 짓지 못하고 채색비단으로 절을 지었는데, 당나라가 신라를 두 번 침략하였으나 바다에 풍랑이 일어 신라가 안전할 수 있었다. 명랑법사는 용궁을 방문한 이인異人이자 용의 힘을 빌려 나라를 지킨 호국승이기도 하다.

신라의 호국룡 사상은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헌강왕憲康王이 사철 사방을 순시하던 중 각각 호국신들이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나라가 망할 것을 근심하는 와중에 동해에서 동해용왕을 만나게 된다. 헌강왕은 그의 막내아들인 처용을 경주로 데려와 벼슬을 주고 결혼도 시킨다. 여기서 <처용가>가 불리게 되는데, 처용은 본래 문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신격으로서 “빼앗겼으니 어찌하리오.”라며 신라의 망국을 노래로 예조豫兆한다. 또 다른 호국룡의 대표적인 설화는 문무왕과 관련된 <대왕암설화大王巖說話>이다. 문무왕은 죽기 직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화장한 뒤 동해 대왕암에 안장하고, 아들 신문왕神文王은 부왕이 시작한 절을 완공하여 감은사感恩寺라 하였다.

불교와 관련하여 용은 창사전설創寺傳說에서도 역할을 맡는다. 경상북도 영주시의 부석사浮石寺는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가서 머물던 집의 주인 딸 선묘는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의상이 탄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용이 되어 도왔다. 신라에 돌아온 의상은 영주 봉황산에 절을 짓고자 하였지만 먼저 차지한 무리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용으로 변하였던 선묘가 다시 큰 바윗덩이로 변해 무리의 위로 떨어질 듯 말 듯 하자 무리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고, 그로 인해 ‘떠 있는 돌’이라는 뜻에서 부석사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유사한 이야기가 『삼국유사』 보양이목조寶壤梨木條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유학을 하고 귀국하는 길에 서해용왕을 만나 그 도움으로 작갑사鵝岬寺라는 절을 짓는다. 자장법사慈藏法師가 창건한 울산광역시 대화사 역시 유학생과 관련된 용신설화龍神說話의 내용을 가진다.

한편 용이 선점하고 있는 못을 메워서 절을 세운 소위 매지형전설埋地型傳說도 각처에 전승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의 구룡사龜龍寺는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한다. 원래 지금의 절터는 깊은 연못이었고, 이곳에는 용 아홉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의상이 못을 메우고 절을 세우려 하자 용들이 비를 내려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지만, 의상대사가 부적 한 장을 그려 못에 던지자 물이 마르고 용은 멀리 도망을 쳐서 그곳에 절을 짓고 구룡사라 하였다. 『택리지擇里志』에는 전라북도 김제시의 금산사金山寺 관련 전설이 실려 있다. 지금 금산사가 있는 곳에는 본래 큰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용이 살고 있었다. 이에 진표율사가 소금수만 석을 용추에 넣어 메우자 용은 달아났고, 그 자리에 금산사를 세웠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옥룡사玉龍寺는 도선대사道詵大師가 창건하였는데, 그곳 역시 본래는 큰 못이 있던 자리이다. 하지만 도선대사가 소금과 고추를 못에 넣자 용이 달아나서 그곳에 절을 세웠다는 것이다. 유사한 이야기가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림사寶林寺와 담양군의 용추사龍湫寺에도 전하는데, 쫓겨 가던 용이 할퀴 자국이 계곡이 되고, 용이 흘렸던 혈흔이 지금도 남았다는 내용이다.

싸우는 용과 독룡

전북 김제시 벽골제의 전설은 인신공희형人身供犧形 전설로도 유명하다. 벽골제 보수의 책임을 맡고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원덕랑을 그곳 태수의 딸 단야가 사모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덕랑에게는 이미 월내라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다. 한편, 보수를 하고있던 벽골제 독은 쌓기가 무섭게 터져 버렸다. 사람들은 백룡과 청룡의 싸움 때문이라며 심술긋은 청룡에게 산 처녀를 바쳐야 한다고 하였다. 태수는 딸을 위해 음모를 꾸며 원덕랑의 정혼녀인 월내를 보쌌다. 청룡에게 마쳤고, 이후 더는 제방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태수의 딸 단야가 아버지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월내를 대신해서 보쌌을 당해 청룡에게 스스로 희생되었던 것이었다.

경상남도 양산시의 가야진사伽倻津祠에는 용신설화가 있다. 한국향토문화전 자대전에 실린 전설로, 옛날 양주도독부의 한 전령이 공문서를 가지고 대구로 가던 길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꿈에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남편 용이 첩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멀리하니 첩 용을 죽여 주면 은

해를 갇혔다는 것이었다. 전령이 생각할 때 사정이 딱해 그러기로 약속하고 날이 새자 첩 용을 죽이기 위해 용소에 갔는데, 실수로 그만 남편 용을 죽이고 말았다. 비탄에 빠져 있던 본처 용은, 그럼에도 도와준 전령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갔는데, 그런 후 마을에 재앙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 사당을 짓고 용 세 마리와 전령의 님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돼지를 잡아 용소에 던지며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고 한다.

황해도 장연읍에는 용소가 있는데, 옛날 활 잘 쏘는 김활량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장연의 용소에서 황룡이 나타나 '다음 날 청룡과 싸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 청룡을 활로 쏘아 죽여주면 보은하겠다.'고 약조를 하는 중에 꿈에서 깬다. 다음 날 김활량이 꿈속에서 황룡의 부탁대로 하늘에서 영커 싸우고 있는 청룡을 활을 쏘아 죽였다. 그러자 황룡이 조화를 부려 황무지나 다름없던 주변 벌판이 물이 넘실대며 옥토로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김활량은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 벌판을 '용정벌'이라 부른다. 비슷한 이야기는 황해도 장연 용연면 용정리에 '용정'이라는 지명과 함께 이본이 전한다.

이렇듯 싸우는 용 중에서 하나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용의 유형으로 대표적인 예가 못 속에서 1,00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여의주를 얻지 못해서 용이 되지 못하고 심술을 부리는 소위 이무기류가 있다. 이무기는 이시미·미리·영노·강철이·깡철이·팡철이·바리·뿔룡·이룡 등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은 미완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사례로 전국에 많은 전설이 있다.

지명설화 속의 용

용이 사는 곳을 용소龍沼·용연龍淵·용정龍井·용혈龍穴 등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지명은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황해도 신계의 용소는 용이 살았으나 가뭄에 물이 말라 용이 어디론가 가 버렸다 하고, 황해도 웅진에는 우물 속에 지나던 상여가 빠졌는데, 그 속에서 흰 용이 나타나 하늘로 승천한 뒤 주변에 물이 차서 용연이 되었다고 한다. 전남 곡성군은 신승검 장군의 탄생지이기도 한데, 신승검은 섬진강에서 용마를 얻어 타고 다녔다고 하며, 용마가 나온 섬진강의 큰 바위굴을 용마굴龍馬窟이라고 부른다. 전남 담양군의 추월산에도 용마굴이 있는데, 지금도 용의 발자국이 주변에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대구광역시에는 옛날 백장군이라는 장사가 살았는데,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못에서 살고 있는 용마를 유인하여 잡았다. 이후 그는 용마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용마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용마가 살던 곳이 용마연龍馬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매지형전설에 속하는 다른 예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通度寺의 창사전설이 있다. 그 자리는 원래 연못이었고, 연못에는 용이 아홉 마리 살고 있었다. 절을 지으려던 자장법사는 용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용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자장이 종이에 '불 화火' 네 개를 써서 연못에 던지고 지팡이로 연못을 젓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러자 못 건넌 용 다섯 마리는 오룡곡五龍谷이라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고, 나머지 용 네 마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죽어 그 피가 근방의 바위에 튀었는데, 그 용혈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그곳을 용혈암龍血巖이라고 부른다.

낭만적인 용과 병에 걸린 용

효나 열과 같은 이념이 만들어 낸 미인이 아닌 순수미로서는 신라의 수로부인이 으뜸일 것이다. 수십 길이나 되는 절벽에 핀 붉은 철쭉꽃을 꺾어 주면서 불렀던 견우노인의 <헌화가獻花歌>로도 유명하지만, 수로부인은 남편의 임지任地로 동행하여 가던 중 여러 차례 바다의 용왕은 물론 연지蓮池의 용들에게 납치를 당한다. 이 설화에서의 용들은 자색姿色을 밝히는 속성을 지닌다. 설화는 구술口述되지만 구연口演과 구창口唱도 가능하다. 구창의 대표적 예는 서사민요 혹은 판소리일 것이다. 판소리에는 두 속성의 용이 등장한다. 하나는 <심청가沈淸歌>에서, 다른 하나는 <수궁가水宮歌>에서이다. <심청가>에서 용은 인신공회, 특히 심청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원한다는 점에서 수로부인을 탐한 용왕과 속성을 같이한다.

한편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신조에는 <귀토설화龜免說話>가 전한다. 용왕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의 간이 약이라 하여 거북을 시켜 토끼를 유인해 오지만 토끼가 피를 내어 도망갔다는 내용이다. 신성한 존재인 용왕의 딸이 병에 걸린다는 것도 이상한 설정이지만, 지존인 용왕이 미물인 토끼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라도 괜찮다는 고구려 선도해의 조언이 담긴 우화이지만, 판소리 <수궁가>에서의 용은 그 근원설화인 <귀토설화>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판소리는 이중 주제를 통해서 근대성을 지향한다. <춘향가春香傳>의 열불열烈不烈, <심청가>의 효불효孝不孝, <흥부기興夫歌>의 우불우友不友, <적벽가赤壁歌>의 신불신信不信, 그리고 <수궁가>의 충불충忠不忠이다. <수궁가>의 자라는 용왕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나 미물인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야말로 용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만든다. 이때의 토끼는 민중을 의미하며, 자라는 봉건적 이념, 용왕은 전제군주의 표상이다. 따라서 용왕의 지엄한 신성이 부정되고 자라가 농락당하는 것에서 근대지향적 주제 의식이 부각된다.

서사의 일종인 설화는 허구의 산물이다. 더구나 설화 속에 등장하는 용 역시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다. 거대 문화권인 동양과 서양에서 공히 먼 옛날부터 상상의 동물로서 용을 말해 왔지만, 인식상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서양에서 용은 대개 드래곤(dragon)이라 하여 퇴치되어야 할 존재, 즉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반면에 동양에서는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관장하는 용신(龍神) 또는 용왕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불교의 관념으로는 천천(天), 야차(夜叉), 건달비(乾闥婆), 아수라(阿修羅),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摩睺羅伽) 등과 더불어 팔부상 중 하나로서 호법룡으로 믿어지기도 한다. 또한 동양에서 용은 용안(龍顏)·용상(龍牀)·곤룡포(袞龍袍) 등에서 보이듯이 최고의 지존을 지칭하는 상징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용마·계룡 등 동물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묘사하는 수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설화에서도 용은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캐릭터(character)이며, 지명설화 속에 자리하면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또한 구비설화뿐만 아니라 문헌설화에도 흔히 등장한다. 특히 용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함께 데려온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라는 직능신의 복합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관장하는 신격으로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의 우리말인 '미르'가 물(水)의 고어인 '물'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의 근원을 책임지는 존재로 믿어져 왔다. 이 때문에 그에 관한 많은 설화가 회자되고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의 신화연구(나경수, 교문사, 1993), 한국의 창사설화 연구(이준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감은사

感恩寺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절터 감은사지와 관련된 전설.

내용

줄거리

신라 제31대 신문왕(神文王)이 선대 부왕인 문무왕(文武王)을 위하여 동해 해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절 기록에 이르기를 문무왕이 일본 군사를 진압하기 위하여 처음 이 절을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어 용이 되었으며,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682년에 내부 장치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절의 문지방 아래에는 동쪽을 향하여 구멍이 한 개 났는데,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서릴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한다. 유언에서 뼈를 간직하라는 곳이 대왕암이요, 절 이름이 감은사이며, 현신한 장소를 이견대(利見臺)라 하였다고 한다. 절의 폐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금당 터 앞에 거대한 석탑 2기가 동서 양쪽에 있다. 이들 두 탑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삼층석탑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분석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감은사와 죽어 자임하여 용이 된 문무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설화이다. 감은사 관련 설화들은 감은사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



감은사지 | 경북 경주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는 설화와 문무왕 득천설화가 서로 분리되거나 결합하면서 변이형을 낳는다. 전자의 예는 용혈을 통해 감은사로 내왕하는 용설화, 호국사護國寺가 감은사가 된 내력담, 감은사 대중을 훔쳐 가다가 대왕암 앞에 빠뜨린 왜적에 관한 이야기 등이다. 후자의 예는 전자의 이야기에 문무왕이 득천하면서 울릉도를 제외한 동해의 섬을 없앴다는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감은사설화들은 증거물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놓여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들 개별 이야기가 한국적 호국룡설화의 층위로 통합될 때는 한국 호국룡설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특징 및 의의

감은사는 원래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자임한 문무왕이 창건을 시작한 절이다. 마침내 문무왕은 호국의 용신으로서 그리고 풍요신이자 농업의 용신으로서 득천한다. 이로 보아 <감은사설화>와 이와 결합된 문무왕 득천설화는 불교의 호법룡과 고유의 용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국 고유의 호국룡설화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감은사지 삼층석탑 구조에 관한 연구(남시진, 건축역사연구17,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기린 굴신화 연구(전관수, 동방학지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문무왕 호국용 설화의 교육적 의미(이동철, 한민족 문화연구16, 한민족문화학회, 2005), 문무왕의 사상과 대왕암전설(영전정치,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문무왕의 산골 처와 문무왕릉비(김창호, 경주문화연구9,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김화경(金和經)

거타지설화

居陀知說話

신라 진성여왕 대 명사수 거타지에 관한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진성여대왕거타지조에 실려 있다. 이는 아르네-톰프슨Arne-Thompson의 설화 유형 중 '738번 뱀싸움'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북유럽 및 아시아,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있는 <정령선程靈鏡>(118권), <임해인臨海人>(131권), <임옥任瓊>(421권) 등은 각각 '이무기와 이무기' '뱀과 뱀' '용과 용' 등의 대결로 되어 있어서 <거타지설화居陀知說話>와 서사 구조가 비슷하다. 그리고 일본의 설화에도 '용과 지네' '지네와 지네' '용과 용' 등의 대결구조를 나타내는 자료가 보이며, 특히 '용과 용의 대결담'은 『법원주림法苑珠林』 속 이야기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거타지설화>가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1280년경 자료인

『삼국유사』에 실리기 이전에 이미 전승되었을 것이며,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불교설화 혹은 중국 서적의 유입을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

신라 진성여왕의 막내아들인 아찬 양패良賈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후)백제의 해적이 진도를 막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사 50명을 뽑아 데리고 갔다. 이때 거타지도 공사로 뽑혀서 따라갔다. 도중에 곡도鷓島에서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10일 넘게 그곳에 머물렀다. 공이 사람을 시켜 짐을 치게 하니, "섬에 신령한 못神池이 있으니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이 그 못에 제물을 차려 놓자 못의 물이 한 길 넘게 솟구쳤다. 그날 밤 공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이곳에 남겨두면 순풍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이 일을 주위에 알리면서 "누구를 남겨 두어야 하는가?"라고 묻자, 사람들은 "나무 조각木削 50개를 만들어 우리의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진 후 가라앉은 자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그 말대로 행하였는데, 거타지의 목간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에 공이 그를 곡도에 남겨 두고 떠나니,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나아갔다.

거타지가 혼자 섬에 남아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왔다.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서해의 신西海神이요, 매일 해가 뜰 무렵 한 중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라니眞訶를 외면서 이 못을 세 바퀴 돌면, 우리 부부와 자손들이 모두 물 위로 떠오른다고. 그러면 그 중은 내 자손의 간冊을 모두 먹어치우니,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소. 내일 아침에도 다시 또 그가 올 테니, 그때 그대가 그를 활로 쏘아 주오."라고 부탁하였다. 거타지가 그 일을 승낙하였고, 노인은 고마워하면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거타지가 숨어서 그 중을 기다리는데, 과연 중이 나타나서 이전처럼 주문을 외면서 늙은 용의 간을 빼내려고 하였다. 그때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히니, 늙은 여우老狐로 변하여 죽었다. 그러자 노인이 나와 사례하며 "공의 은혜를 입어 내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딸을 그대의 아내로 주겠소."라고 말하였다. 노인은 자기 딸을 꽃가지枝枝로 변하게 한 후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두 용에게 명령하여 그를 데리고 사신의 배를 뒤쫓아 가며, 그 배를 호위하여 당나라로 들어가게 하였다.

당나라 사람들이 '신라의 배가 용 두 마리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위니에 보고하였다. 당 황제는 "신라 사신은 반드시 비범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연회를 열어 (사신을) 신하들의 위에 앉히고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었다. 거타지가 신라로 돌아와 품에서 꽃가지를 꺼내었고, (꽃가지는) 여인으로 바뀌었다. 둘이 함께 살았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의 기본 서사는 ‘두 신격의 치소 차지 싸움에서 힘이 약한 기존의 신격이 인간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에 따라 영웅이 도래하는 신격을 처치함으로써 그 보답을 받는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신격이 용으로 설정된 까닭에, 이 설화의 유래를 불교설화나 중국 서적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신격의 치소 차지 경쟁’ 이야기는 우리의 건국·무속신화 그리고 구비설화에서도 두루 발견되고 있어서, 이런 신화소를 가지는 설화들은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 속에서 이해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이 신화소는 <작제건설화(帝建設話)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속 ‘도조 이야기’ 등에서 확인되며, 특히 도조 이야기는 문헌과 구비설화에서 <적지전설>로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두 신격 간 경쟁담’은 <거타지설화>에서 보듯이 대개의 경우 두 신격의 싸움에 ‘인간 영웅’이 끼어들고 있다. 이는 ‘신격 위력의 감소와 신성성의 약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특히 용들 간 싸움은 민간에는 ‘용사설화(龍蛇說話)’로 변용되어 여러 지역에서 많은 각편이 채록되었는데, 치소의 공간뿐만 아니라 그 보답의 성격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또한 이 설화에서 보여 주는 ‘두 신격 간 싸움에 끼어든 인간 영웅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를 <구룡담(救龍談)이라 부를 수 있지만, ‘페르세우스 신화 계열의 악마(괴물) 퇴치담’ 혹은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등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 설화의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설화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학적·역사적 측면에서 그 특징·의미·의의 등을 규명하여 왔다. 이 설화에 나타난 ‘민간신앙처로서 서해 곡도의 중요성’과 ‘전통 재래신인 용과 밀교신앙을 가미한 도래신인 여우 사이의 다툼’ 등은 신라 후기 민간신앙과 불교 관계, 용신과 여우신 사이의 신격 교체와 이에 따른 신성성 약화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구룡담의 사적 전개와 변이(노영근, 어문연구59, 어문연구학회, 2009), 삼국유사 곡도 거타지 설화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시론(여성구, 한국학논총4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치소차지경쟁 신화소의 현대소설적 변용양상(이지영,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필자 이지영(李志暎)

견훤

甄萱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甄萱)의 출생에 관한 설화.

역사 <견훤설화>는 뱀으로 변해 찾아온 남자와 관계를 맺은 처녀가 비범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의 야래자형 설화(夜來者型 說話)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후백제 견훤(甄萱)에 그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유사한 이야기가 『청구야담(靑邱野談)』에 <괴물매야색명주(鬼物每夜索明珠)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수신천황(崇神天皇)條에도 실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전승되어 온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광주(光州)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딸이 부친에게 말하기를, ‘밤마다 자춧빛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교혼(交婚)하고 간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친이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꿸이라고 하자 딸이 그 말대로 하였다. 날이 밝은 뒤 실을 따라갔더니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로 태기가 있어 사내를 낳으니 이가 곧 후백제 시조 견훤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列傳) 견훤(甄萱)조에 보면, “견훤은 본래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씨였으나 후에 견(甄)으로 성을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로, 농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였다. 처음에 견훤이 어려서 아직 강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어머니가 밭을 나르면서 어린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젓을 먹었으므로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매 몸집이 크고 외모가 기이하며 기품이 활발하여 범상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견훤설화>는 <야래자설화>라고도 하는데, 각편에 따라 ‘야래자’의 양상이 지렁이, 수달, 절굿공이, 동삼(童參), 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절굿공이인 경우에는 태어난 아들이 없으며, 수달인 경우에는 머리가 노랑게 태어나서 ‘노랑지’라고 불린 아들이 청나라 태조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고, 용인 경우에는 아들이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고 한다. 지렁이인 경우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야래자를 죽이는 방법으로는 물에 소금을 타서 죽이는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지역에서는 야래자에 의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는 동안에 가난해서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에 호랑이가 풀밭에 누워 있는 견훤에게 젓을 먹이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후백제 견훤이 안동을 공격하자 당시 안동을 지키던 권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張貞脚) 등의 삼태사(三太師)가 지렁이로 변한 견훤을 차전으로 몰아서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와 결부되어 안동차전놀이의 유래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리나라의 고대 건국신화나 왕권신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탄생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비범성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통성과 절대성을

확립시켜 왔다. 이는 <견훤설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견훤이 후백제의 건국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특성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자설화는 『삼국유사』 무왕조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과거 무왕의 탄생담에 차용되었던바, 견훤은 옛 백제 땅에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자신의 탄생담에도 역시 <아래자설화>를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비범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자설화>는 여성과 아래자와의 관계를 통해 2세의 탄생을 본다는 점에서 이물교혼담異物交婚談의 한 유형으로 보며, 태어난 2세가 후에 왕이나 건국주 또는 마을신이 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후백제의 건국주 견훤, 송나라 태조,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부친 등과 같은 건국시조의 탄생담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평강채씨平康蔡氏 시조 탄생담에도 들어 있어서 성씨시조신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견훤, 즉 <아래자설화>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래된다는 점은 이 설화가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아래자설화>는 신화적 성격과 함께 전설과 민담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백제신화 연구(서대석, 백제논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이지영,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아래자전설과 일본의 삼륜산전설과의 비교연구(장덕순, 한국민족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문학연구(소재영,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한일아래자설화의 일연구(조희철 외, 연구논문집15-2, 울산대학교, 1984).

필자 한서희(韓抒希)

계룡산

雞龍山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의 명산 계룡산에 얽힌 전설.

역사 계룡산은 지리산과 경주시에 이어 1968년에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과 대전에 걸쳐 있다. 동학사와 갑사·신원사 같은 고찰이 있으며, 국보·보물과 지방문화재도 많다. 계룡산은 신라 오악五嶽 가운데 서악西嶽으로 중국까지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삼악三嶽 중 중앙中嶽으로 봉해지기도 하였다.

계룡산이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을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자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란 데서 계鷄와 용龍을 따 왔다는 설이 있다. 풍수지리상 명산으로 꼽혀 조선 초

기에 계룡산 기슭에 도읍을 건설하려 한 적도 있으며, 『정감록鄭鑑錄』 같은 비기류秘記類에서 한양을 이를 도읍지로 적시한 바 있다. 계룡산 지역에서는 이성계의 신도新都 도읍에 얽힌 전설과 정도령의 미래 도읍에 관한 풍설이 널리 전해져 왔고, 갑사와 동학사에 얽힌 전설과 용추계곡에 얽힌 자연전설 등이 전해 왔다.

내용 우선 계룡산 도읍에 얽힌 전설이 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물색하다가 계룡산 신도안 일대가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도읍지로 삼고자 하였다. 직접 신도안에 내려온 이성계는 궁궐 자리를 정한 뒤 작업을 서둘러 주춧돌까지 다 마련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고 정씨가 800년 도읍을 할 자리니 물러가라.”라고 하였다. 노인이 바로 계룡산신이었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신도안을 포기하고 물러가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신도안에서 도읍 건설을 할 때 사람들이 신발에 묻은 흙을 한곳에 모아서 털었는데, 그 흙이 쌓여서 산이 되어 ‘신티리봉’이라 불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말채(말채찍)를 꽂아 놓고 간 것이 살아나 자랐는데, 이는 말채나무라고 불린다.

조선왕조가 망한 뒤 계룡산에 새로운 도읍을 세울 사람은 정도령이라 불린다. 해도정출海島鄭出이라 하여 정도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도 하며, ‘육대구월六代九月에 해운개海雲開’나 ‘계룡석백鷄籠石白하고 초포행선草浦行船이면 세사가지世事可知’와 같은 참언들도 전해진다. 공주시 계룡면의 무너미고개가 터져 물이 흐르게 되면 계룡산 형세가 산태극과 수태극이 되어 도읍지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 밖의 전설로, 먼저 <남매탑전설>이 있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길에는 남매탑(오뉘탑)이 있다. 한 스님이 도를 닦다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빼 주었는데, 그 호랑이가 보답으로 웬 처녀를 산 채로 물어다 주었다. 스님이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처녀는 스님과 남매를 이루어 평생 함께 살면서 도를 닦았다. 사람들이 그들의 덕을 기려 두 개의 탑을 세우니 바로 남매탑이다.

남매탑에서 고개를 넘어가면 계룡산 갑사가 있는데, 짐대라 불리는 커다란 철당간이 있다. 갑사와 동학사의 장사가 서로 철당간을 차지하려 경쟁하였다고 한다. 갑사의 영규대사와 동학사의 여장군이 돌아가며 짐대를 빼 왔다. 원래 여장군이 힘이 더 셴지만 영규대사가 커다란 쇠신을 삼아 길가에 떨어뜨려 놓은 걸 보고 여장군이 짐대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영규대사와 짐대를 놓고 싸운 절은 동학사가 아니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구룡사였다고도 한다. 구룡사 장수가 갑사에 짐대를 빼앗긴 뒤 구룡사 절은 망하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계룡산의 자연전설로는 암용추와 수용추 이야기가 유명하다. 이는 신도안



계룡산 산신제 | 충남 공주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연못으로, 거기엔 용이 살았는데 한 곳에는 암늪이 살고 다른 한 곳에는 수늪이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사이좋게 살다가 굴을 뚫고 나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전해진다. 암용추와 수용추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밑에서 서로 연결돼 있어 암용추에 물건을 넣으면 수용추로 나온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계룡산에 얽힌 전설은 명산의 형세에 관한 해석이 도읍과 새 왕조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연결돼 있다. 그 핵심은 계룡산이 500년 조선왕조를 이을 800년 도읍지라는 것인데, 그 속에는 왕조에 대한 대타의식과 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계룡산신이 이성계를 신도안에서 내쫓았다는 설정에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대타의식이 잘 나타나 있으며, 진인眞人 정도령의 출현에 대한 여러 풍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떠돌고 있는 데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가 망한 지 100년이 넘도록 현지에서 계속 계룡산 도읍설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그 기대와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읍설의 핵심 지역이었던 계룡산 신도안 일대는 현재 계룡시로 편입되어 3군 본부가 들어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계룡산 도읍설이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지만, 일부는 도읍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설이 잔존 문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생활문화로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구전 예언의 문학적 고찰(신동훈, 어문연구26, 어문연구회, 1995), 계룡산 산신제의 역사성과 구비성 연구(안상경, 구비문학연구24,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계룡산과 승지 신앙(김홍철, 종교연구52, 한국종교학회, 2008).
 필자 신동훈(申東昕)

공갈못

전국에 분포한 공갈못과 관련된 전설.

내용 <공갈못전설>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전해 내려온다. 첫 번째 유형은 옛날에 공갈못을 완성할 수 없었는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은 후 못을 완성하여 그로부터 그 못을 ‘공갈못’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한 남자가 여인으로 변한 황룡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야기이다. 경상북도 경주 용담의 용녀였던 여인이 남자에게 공갈못의 용남龍男에게 시집가야 하는데 다른 용이 방해하니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날 남자는 여인의 말대로 싸우는 세 마리 용 가운데 백룡을 차단하려 하였으나 실수로 청룡의 허리를 잘라 공갈못의 용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황룡이 자신을 과부로 만들었으니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남자에게 말하였다. 남자는 결국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 남자의 시체를 가져다 제사 지내자 못 속에서 황룡이 나와 시체를 안고 들어갔다. 그 뒤로 이 지방 사람들이 공갈못의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이듬해 풍흉을 점치기 시작하였다. 이를 ‘용갈이’라고 하였는데, 못의 얼음이 동에서 서로 갈라지면 풍년이고 그 반대면 흉년이라 여겼다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옛날에 고기를 잡던 사람이 못에 살던 이십이를 잡아서 못이 다 메워지는 바람에 이를 공갈못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네 번째 유형은 백낙천환생담과 관련이 있다. 옛날 백낙천이 자식 없이 살다 죽으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시체를 공갈못에 넣고 “상주 함창 공갈못에 백낙천이 날 데려가소.”라고 외치며 울라고 하였다. 아내가 남편이 시킨 대로 하던 어느 날 나라의 태자가 태어났는데, 주먹을 쥐고 울음을 울면서 누가 달래도 그치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듣고 백낙천의 아내가 올라가 아이 앞에 서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아이의 주먹을 펴 보니 ‘백낙천’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공갈못전설>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이를 묻고 못을 완성한 인신공희설화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용의 청을 받고 실수로 다른 용을 죽인 사람이 결국 죽어 못 속의 용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이

심이를 죽여 못이 메워진 설화이고, 네 번째는 과거 공갈못이 더 넓었던 시절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못의 신성함과 영험함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못은 우물이나 산, 바위처럼 우주 재생의 구심이자 우주의 기운이 생성되는 근원이다. 대지의 배꼽이자 우주의 중심인 이와 같은 상징 공간은 성스러운 힘으로 넘쳐나 중요한 주술 행위나 의례의 핵심 대상이 된다. 농사의 풍흉을 짐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 등이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이런 공간에는 흔히 용이나 이무기 등이 깃들어 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 의례가 행해지기도 한다.

참고문헌 인신공희설화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보10, 한국민속학회, 1999),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이정재,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필자 김영희(金玲希)

구룡사 龜龍寺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소재한 구룡사 창건에 대한 전설.

역사

구룡사 창건 인물에 대해서는 『구룡사지龜龍寺誌』의 「치악산구룡사적기雉岳山龜龍寺蹟記」에 기록된 것으로 ‘신라 668년(문무왕 8)에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설과 「구룡사사적龜龍寺事蹟」에 기록된 것으로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이 전한다.

내용

줄거리

현재 구룡사 대웅전이 자리한 곳은 원래 깊은 소궤였는데, 그곳에 용이 아홉 마리 살고 있었다. 이곳에 대웅전을 짓기 위해 의상은 용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청하였으나, 용들은 내기로 정하자고 하였다. 먼저 용들은 뇌성벽력과 함께 많은 비를 내려 주위 산들을 삼시간에 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에 의상이 부적한 장을 그려 연못에 넣자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용들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여덟 마리는 동해 바다로 가고, 눈이 먼 용 한 마리는 용소에 머물다 승천하였다. 의상은 연못을 흙으로 메워 대웅전을 짓고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다.

한편 치악산의 나물은 진상품이었는데, 구룡사 주지가 이를 관리하였다. 사람들은 좋은 값을 받으려고 주지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에 절은 풍요로웠으나

수행 풍토가 흐려졌다. 한 노인이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혈穴을 끊으라.’라고 일러 주었다. 그래서 거북바위의 등에 구멍을 뚫어 혈을 끊었지만 사세寺勢는 더욱 쇠퇴하였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 ‘거북의 혈맥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북바위의 혈을 다시 잇는다는 뜻에서 절 이름에 ‘거북 구룡’을 써 구룡사龜龍寺로 바꿨다.



구룡사 대웅전 | 강원 원주 | 문화재청

변이

원래는 현재 부도가 있는 자리에 사찰을 세우려 하였으나, 하룻밤 사이에 재목들이 스스로 연못으로 옮겨진 것을 부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곳에 구룡사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또 구룡사와 인접한 횡성군 구룡마을에 원래 구룡사가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현재의 자리로 옮겼으며, 그때 마을의 우룡소에 살던 용도 함께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지금의 국사단 앞 거북바위는 잘못된 것으로, 국사단 앞 도로에 묻혀 있다고 한다.

분석

사찰의 창건전설에 나타난 용은 그 역할에 따라 선룡善龍과 악룡惡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룡사의 경우는 악룡에 속한다. 이 전설은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불영사佛影寺의 창건전설과 닮았으며, 불영사 또한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전설에 용이 개입하고 사찰 이름에 용이라는 글자를 넣어 작명한 것은 용신사상이 결부된 결과이다. 거북바위의 길흥吉凶은 풍수사상이 결부된 것으로, 이 전설은 두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 구비문학 연구(서준섭, 강원문화연구8,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8), 강원도의 설화 2(강원도, 2005), 태백의 설화-상(최승순 외, 강원일보사, 1974), 한국불교사찰사전(이정, 불교시대사, 1996), 한국사찰연구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횡성의 지명유래(이영식, 횡성문화원, 2001).

필자 이영식(李英植)

구룡포

九龍浦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인근의 지명.

내용 구룡포九龍浦라는 지명은 1914년 당시 영일군迎日郡의 사라리·신동리·창주리를 합하면서 그 일대 지형이 아홉 마리의 용처럼 생겼다고 하여 구룡리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해안가의 경사가 급하여 큰 마을이 아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구룡포항이 들어서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23년에는 방파제를 쌓아 부두를 만들어 본격적인 어항으로 발전하였고, 1942년에는 창주면滄州面을 구룡포읍九龍浦邑으로 바꾸어 승격하였다. 서쪽으로는 동해면東海面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호미곶면虎尾串面, 남쪽으로는 장기면長鬚面, 동쪽으로는 동해東海와 접하고 있다. 1995년에는 시·군(도농) 통합으로 인해 영일군에서 통합 포항시 남구로 편입되었다.

구룡포 일대는 대부분 화산암 대지가 침식작용을 받아 새로이 형성된 지형이다. 광정산廣鼎山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200m 정도의 완만한 구룡지로 되어 있고, 해안선을 따라 너비 0.5~1km의 계단 모양으로 평탄한 땅이 분포하여 주요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서부 산지에서 시작되는 여러 개의 하천이 동해로 흘러 들어가지만, 물길이 짧아 동쪽과 북쪽 해안 일대를 제외하고는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구룡포는 농지가 부족한 반면 바다를 접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어업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특히 구룡포항은 작은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심이 깊어서 일제강점기부터 동해안의 주요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잡히는 대게를 비롯하여 콩치, 오징어, 대구, 방어 등의 수산물을 어획한다. 또한 미역·천초·전복 등의 양식업과 통조림, 냉동 등의 수산가공업이 활발하였다. 겨울에는 콩치를 건조한 ‘과메기’를 전국 생산량의 95% 이상 생산하여 포항의 특산물로 전국에 유통하고 있다.

구룡포는 포항 도심에서 동쪽 외곽에 위치해 포항과 울산을 연결하는 국도가 주요 도로일 정도로 교통이 열악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호미곶의 해맞이 행사와 일제강점기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의 복원, 2010년대 이후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명성을 얻으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됨에 따라 현재는 도로와 대중교통이 확충되어 구룡포로 가는 교통이 발달하였다.

구룡포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용과 관련된 마을 설화가 전해진다. 조선시대까지 구룡포의 서쪽 용두산龍頭山 밑에 사리砂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파도가 부딪치는 큰 구멍이 있었다. 신라 진흥왕 때 장기현감이 각 고을을 순찰하던 중



구룡 조형물 | 경북 포항 | 2017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용주리(현재 구룡포6리)를 지날 때 별안간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쳐서 급히 민가에 대피하였는데, 이 구멍에 살던 용 열 마리가 승천하다가 한 마리는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이에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浦口라 하여 구룡포라 부른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처럼 구룡포란 지명은 용 아홉 마리가 승천한 곳이라 하여 지어진 것이며, 지금도 이곳 어민들은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구룡당九龍堂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두 번째 설화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신라 때 서라벌은 비만 오면 성안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이 큰 걱정거리였다고 한다. 어느 해 큰 장마로 성안이 물바다가 되자 모두가 근심하였다. 이를 보고 왕자가 백률사栢栗寺에 들어가 100일 동안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이 주문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음력 초아흐렛날 형산冠山 밑에 가서 주문을 외우면 네가 큰 구렁이가 될 것이다. 그때 너를 보고 사람들이 모두 구렁이라고 하며 놀라 도망갈 것이나, 너를 보며 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몸을 꿈틀거리면 용이 될 것인즉,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면서 꼬리로 산의 높은 곳을 치면 서라벌의 물이 빠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자는 백발노인이 일러 준 대로 초아흐렛날 주문을 외워 구렁이가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구렁이 보아라.” 하며 도망을 갔는데, 할머니 등에

업힌 어린 소년이 “이것은 구렁이가 아니고 용이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마침내 왕자는 용으로 변하게 되었고, 용이 된 왕자가 꼬리로 산꼭대기를 치니 천지天地가 진동하면서 산이 두 동강이 나고 막혔던 물길이 열려 서라벌의 물이 모두 빠져나가 형산강江이 되었다. 또한 산은 날아가서 구룡포읍 일대의 반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음력 초아흐렛날 용이 꼬리로 반도를 만들었으므로 구룡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구룡포에 대한 다양한 용의 설화가 전해지는데, 이는 구룡포 지역을 구성하고 있었던 옛 사사리·신동리·창주리 세 지역 구룡의 형태가 아홉 마리의 용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룡포는 지형으로 인해 과거부터 용과 관련된 지명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 지명유래총람(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내 고향의 전설-경북시편(김환대, 한국학술정보, 2023), 영남의 전설(유중선, 형설출판사, 1971), 영일군사(영일군, 영일군사편찬위원회, 1990), 한국의 지명유래1(김기빈, 지식산업사, 1986), 포항시청(pohang.go.kr).
필자 손정수(孫正洙)

무왕
武王

과부와 용의 교점으로 태어난 서동이 신라 선화공주와 혼인하고 백제 무왕이 된 후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설화.

개관

무왕武王(재위 600~641)은 백제 제30대 왕으로 제29대 법왕法王의 아들이고,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義慈王의 아버지이다. 그는 재위 당시 영토 회복을 위해 신라와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다. 또한 사비에 궁궐을 중수하면서 연못을 조성하였고, 전라북도 익산에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하였다. 백제 말기에 전쟁의 승리와 문화의 중흥을 이끈 무왕에 관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그의 탄생과 혼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불교적 영험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부여에는 무왕이 조성하였다는 궁남지宮南池 유적이 남아 있으며, 2009년에는 미륵사지 석탑彌勒寺址 石塔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선화공주가 아닌 무왕의 부인 사택왕후沙宅王后가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된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가 발견되면서 무왕 설화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내용

백제의 무왕은 그의 어머니가 수도의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연못 속

의 용과 교접하여 낳았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장평인데, 어릴 때 항상 마를 캐어 팔아 생활하니 사람들이 서동薯童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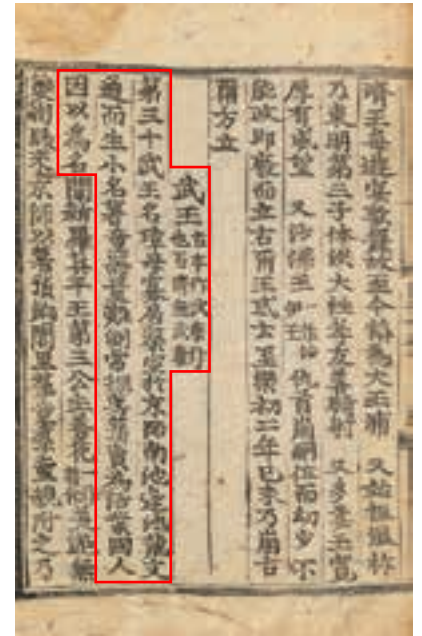
서동은 신라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가서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며 친해진 후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선화공주가 서동이라는 자를 몰래 만나 사귀었다.’는 내용의 동요가 수도에 널리 퍼지자 궁궐의 모든 관료가 임금에게 간언하여 선화공주는 먼 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공주는 왕후로부터 순금 한 말을 여비로 받고 유배지로 향하였는데,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모시겠다고 하여 공주의 환심을 샀다. 공주는 서동과 동행하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되자 동요의 영험함을 믿게 되었다.

서동과 함께 백제로 온 공주가 여비로 가져온 금으로 살림할 계획을 세우자 서동은 마를 캐던 곳에 이런 것이 흩쳐럼 많이 쌓여 있다고 하였다. 공주가 놀라 금이 천하의 지극한 보물임을 말하고, 그 금을 부모님이 계신 궁으로 보내자고 청하였다. 서동이 좋다고 하여 금을 언덕처럼 쌓아 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방법을 물으니, 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금을 신라 궁궐에 보냈다. 진평왕이 신이하게 여겨 존경하고 항상 안부를 물었으며, 서동은 이로 인해 인심을 얻어 왕이 되었다.

이후 무왕이 부인과 사자사에 가는 길에 용화산 아래 큰 못가에 이르자 미륵삼존彌勒三尊이 연못 가운데에서 나타났다. 부인이 이곳에 큰 절 짓기를 소원하여 왕이 허락하고 지명법사에게 의논하니, 법사가 신력으로 하룻밤에 산을 무너뜨려 연못을 메웠다. 그 자리에 미륵사를 창건하였고, 신라의 진평왕이 기술자들을 보내 이를 도왔다.

특징 및 의의

용의 아들인 무왕은 신이한 출생에 이어 그의 앞에 미륵삼존이 출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륵사를 창건하는 신성한 업적을 수행한다. 또한 계략을 써서 적국인 신라의 공주와 혼인하고 금을 발견하여 부를 일구어 양국의 존경과 인심



무왕의 출생 | 삼국유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을 얻은 거국적인 영웅이기도 하다. 백제의 건국신화는 천손계인 동명왕東明王 신화를 이으면서도 시조인 온조溫祚에 대해 특별한 신이성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후대 무왕의 탄생과 업적에서 수신水神과 야장冶匠 및 미륵불의 신성한 표상들이 집결되어 나타난다.

더욱이 기존 백제의 지배층은 북방계인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화를 이었는데, 무왕의 탄생에는 마한의 신화인 수부지모형水父地母型 신화가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무왕이 즉위하기 직전의 왕들이 단명하면서 백제 왕위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왕 역시 등극이 순탄하지 않았고 그가 마한의 신화를 받아들이며 그 세력을 포용하려 하였다고 본다. 용신신앙은 백제 지역에서 전승되던 토착 신앙으로 야래자夜來者신화의 배경이 된다. 이는 무왕 대에 귀족세력이 재편되면서 왕의 혈통으로 수용되었다가 이후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탄생담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된다.

무왕은 재위하는 동안 분열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무왕은 사자사에 가던 중 용화산의 큰 연못에서 용이 아닌 미륵을 만난다. 이에 무왕 부부는 수레를 멈추고 절을 한 후 그 자리에 미륵사를 세운다. 이에 대하여 용의 우리말인 ‘미르’가 불교의 ‘미륵’과 습합되는 모양으로 보고,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용의 아들이자 미륵의 화신인 무왕이 구심점이 되어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용화龍華세계를 제시하며 민심을 아우르려 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무왕 설화에서 용은 정치권력과 결부된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며 불교와 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백제초기문화의 종합적 검토-백제의 신화(서대석, 진단학보60, 진단학회, 1985), 삼국유사 속 용 서사에 나타난 문화충돌과 문화적 공존에 대한 고찰(표정옥, 공존의 인간학10,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3),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연구(변중현, 배달말47, 배달말학회, 2010), 신라 진평왕 시기 백제 관계와 서동 설화(이장웅, 신라사학보44, 신라사학회, 2018), 한·일 용사 설화의 비교 연구(이경화,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필자 홍나래(洪나래)

박혁거세신화

朴赫居世神話

신라의 건국시조인 박혁거세에 관한 신화.

내용 줄거리

진한辰韓 땅 6부의 조상들이 각각 자제들을 이끌고 알천闕川 언덕에 모여 ‘덕德이 있는 자’를 임금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내려다보니 양산 아래 나정 우물가에 번갯불처럼 이상한

기운이 하늘에서 땅으로 비치고 있었다. 또 흰 말 한 마리가 꿰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 보니 붉은 알 한 개가 있었고, 말이 사람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후 그들은 알을 깨고 어린 남자아이를 얻었는데,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동천東泉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 이윽고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밝게 빛났다. 이에 아이를 혁거세왕赫居世王 또는 불거내왕弗矩內王이라 이름 짓고, 위호位號를 거슬한居瑟耶, 居西干이라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덕德이 있는 여인을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사랑리 알영정 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왼쪽 갈비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얼굴과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으나 입이 닭의 부리와 같았다. 이에 월성月城 북쪽에 있는 냇물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부리가 빠졌다. 이후 사람들은 궁실을 남산 서쪽에 세우고, 두 성스러운 아이를 모셔다 길렀다. 남자아이는 알에서 태어나고, 그 모양이 표주박瓢과 같다 하여 성씨를 박차으로 삼았다. 또 여자아이는 태어난 우물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두 성인이 열세 살이 된 오봉五鳳(한나라 선제 연호) 원년 갑자甲子에 둘을 각각 왕과 왕후로 삼았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徐羅伐, 徐伐, 斯羅, 斯盧이라 하였다. 처음에 왕후가 계정雞井에서 탄생하였으므로 나라 이름을 계림국鷄林國이라 하였는데, 후세에 신라라 하였다.

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되던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갔고, 그 뒤 7일 만에 죽은 몸이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 역시 왕을 따라 죽었다. 나라 사람들이 왕의 몸을 합쳐 장사 지내려 하였는데,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며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다섯 몸뚱이[五體]를 그대로 나누어 장사 지내 다섯 능[五陵]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능을 사릉蛇陵이라고도 한다.

분석

〈박혁거세신화〉에서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국 고대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천신이 하강하여 건국하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혁거세도 하늘에서 하강한 ‘천신이자 태양신 성격’을 지닌다. 가령 하늘에서 내리뻗은 번갯불 같은 이상한 기운, 백마, 자줏빛, 난생, 시조의 몸에서 나는 광채, 천지 진동과 일월의 청명 등에서 천신적 면모를 찾을 수 있고, 난생의 ‘알’은 천신적 성격을 지닌 주몽·수로의 ‘알’과 같이 태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신라 왕권을 신성화하는 데 큰 구실을 한다. 혁거세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거내왕’, 곧 밝은 왕으로서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光明理世’는 뜻을 담고 있는 것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단군신화에 보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둘째, 혁거세는 고구려의 주몽처럼 모친의 몸을 통한 난생이 아니라 백마라는 ‘하강한 운반체’를 통해 난생함으로써 고조선와 고구려의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부모의 신성혼에 의한 시조의 탄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신화에는 시조의 탄생과 동시에 왕비 알영의 탄생이 설정되어 ‘남녀의 신성혼과 등극’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상호 대등한 관계는 환웅과 웅녀, 해모수와 하백녀 유휘가 천상적 남성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다. 이는 곧 혁거세 집단이 경주 지역에 이주한 뒤 알영 집단과의 혼인 동맹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왕위에 올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신화에서 6촌의 무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를 받들어 왕으로 삼는 것은 ‘씨족사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는 역사 사실을 반영한다.

셋째, 혁거세의 강림 장소가 ‘산’이 아니라 ‘우물(나정)’이며, 비인 알영의 탄생지 역시 ‘우물(알영정)’이라는 것은 신라 초기부터 우물이 성역이었음을 뜻한다. 우물은 농경사회의 정착민에게 중요한데, 현재 마을곳에서 당산나무와 우물은 제의 대상이 된다.

넷째, 혁거세와 알영이 각각 왕과 왕비가 되는 조건으로 ‘덕’을 강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통치자의 신이한 능력보다는 도덕적인 우월함이 새롭게 중시되는 인간 세상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알영이 탄생한 뒤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길었다가 뒤늦게 떨어진 다.’는 모티프는 주몽신화에서 ‘유휘가 입술이 길어 세 번 자른 뒤 말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여성의 입사식(入社式)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혁거세가 승천하였다가 다시 시신(屍身)이 땅에 흩어지고, 왕비와의 합장을 뱀의 방해로 하지 못하자 다섯 능으로 나누어 매장하는 것은 한국 건국신화에 유례가 드문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 ‘풍요를 위한 농경의례의 하나’로 설명하지만, 더러는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성무식(成巫式)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체 분리의 모티프’에 대응하여 논하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박혁거세신화〉는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으면서도 ‘하강한 운반체를 통한 난생과 부부 신성혼’을 내용의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방 지역 건국신화와 다른 면을 보여 준다. 이러한 면은 같은 남방 지역의 건국신화인 금관가야(金首羅王신화)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선도산 여산신이 신라 건국시조인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내용의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지배층이 천신계 건국신화를 전

승하는 것과 달리 토착 집단에서는 산신숭배에 따른 지모신 계통의 신화를 전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박혁거세신화 논고(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0), 신라 건국신화의 신성족 관념(김두진, 한국학논총11,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9), 신라건국설화의 연구(김화경, 민족문화논총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김열규, 일조각, 1977),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이지영, 태학사, 1995).
필자 이지영(李志映)

보양
寶壤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의 이야기로, 이무기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천제의 분노로부터 이무기를 보호해 준 운문선사 승려 보양에 대한 전설.

내용

줄거리

승려 보양(寶壤)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서해용왕이 그에게 금라가사(金羅袈裟) 한 벌을 보시하고, 아들 이목(伊木)으로 하여금 그를 모시고 가도록 하였다. 보양은 용왕의 말대로 까치 떼가 쪼고 있는 곳에 작감사(鵲寺)라는 절을 세웠다. 이후 어느 해 날이 가물자 보양은 이목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였는데, 천제(天帝)는 이목이 자기 직분에 넘치는 짓을 했다고 그를 죽이려 하였다. 이에 보양은 이목을 상 밑에 감추고, 그를 요구하는 하늘사자(天使)에게 이목과 음이 같은 배나무(李樹)를 가리켰다. 하늘사자는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올라갔고, 이목이 시든 배나무를 어루만져 소생시켰다.

변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6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산천조에는 이무기가 있다는 호박소가 나온다. ‘구연(白淵)’이라고도 하는 이곳에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비가 온다고 하였다. 호박소가 기우제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양이목(寶壤梨木)〉 설화는 현재도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나 대미사 일대 그리고 밀양 등지에서 구전되고 있으나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달리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화소가 중심이 된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운문사가 있는 청도군에서 전해지는 시래호박소의 이무기전설을 꼽을 수 있다. 상좌가 밤마다 자취를 감추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스님이 쫓아가 엿보니 그가 대비지(大悲池)에 가서 요동을 치며 용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정체가 드러난 이무기는 하늘로 날아가며 꼬리로 절 남쪽의 역산 바위를 쳤으며, 그 때문에 바위가 뽕죽해졌다고 한다.

분석

『삼국유사』 보양이목조에에서 갈등의 초점은 보양과 이목이 아닌 보양과 하늘사자 간에 있다. 이목은 보양의 명을 따라 비를 내렸을 뿐인데, 천제는 이목에게 별을 주려고 한다. 보양은 이목을 요구하는 하늘사자에게 이목과 음이 비슷한 배나무를 지목하면서 직접 대결하지는 않으려 한다. 즉 불교는 천제, 곧 민간의 천신신앙과 대면할 때는 귀신이나 무당을 앞세운 여타 토착신앙과 달리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고 우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삼국유사』에 기록된 <보양이목> 설화는 신라에 전래된 불교가 토착적인 천신신앙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유사』 이후 천제의 존재는 문헌이든, 구비전승이든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삼국유사』 이후에 전개되는 구비전승도 불교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된다. 이 구비전승들은 서사의 중심을 이무기에게 옮기면서, 비를 내리는 용신의 속성을 강조하거나 용으로 변신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등 다양한 면모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보양이목> 설화와 그 변이형들은 한국 고대 토착신앙과 불교·민속신앙 등 다양한 문화지층들의 면면과 그 역동성을 드러내며, 그런 점이 이 설화가 지닌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의 전승론적 검토(천혜숙,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형설출판사, 1990), 삼국유사 설화와 구전설화의 관련양상(조동일,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 연구(박성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무기 설화와 기우제(황경숙, 한국민속학보4, 한국민속학회, 1994).

필자 박성지(朴聖智)

부석사
浮石寺

부석사浮石寺 창건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연기전설緣起傳說.

내용

의상義湘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할 때 어느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집주인의 딸 선묘가 의상을 사모하게 되었다. 의상은 그저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공부를 모두 마친 뒤 그 신도의 집에 들러 집주인에게 인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것을 뒤늦게 안 선묘는 자신이 준비한 범복과 각종 용품을 부랴부랴 함에 담아 의상이 있는 해안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상이 탄 배는 벌써 멀리 떠나 버린 뒤였다. 선묘는 자신이 가져온 함을 바다에 던진 뒤 ‘용으로 변해 대사를 모시면서 그의 불도를 이루게 해 달라.’는 주문을 외웠다. 그랬더니 선묘는 용으로 변하였



부석사 무량수전 | 경북 영주 | 2020 | 문화재청

으며, 배의 바닥을 받쳐 의상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

신라에 귀국한 의상은 불법을 전파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권중이부權宗異部の 무리가 수백 명씩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의상을 따라다니며 지키던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더니 절의 정상을 덮고 떨어질 듯 말 듯 하였다. 이것을 본 많은 승려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상은 이 절에 들어가 화엄경을 펴내기 시작하였고, ‘돌이 공중에 떴다.’고 하여 이 절의 이름을 부석사浮石寺로 지었다.

특징 및 의의

이 전설은 우리나라에서 민담 형식으로 폭넓게 구비전승되는 <상사뱀설화>가 불교 화엄종의 유입 시기에 불교설화로 정착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석사전설>과 <상사뱀설화>의 서사 단락별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설화학계에서는 변신하는 용 모티프의 원형을 구렁이 또는 뱀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宋高僧傳, 사성계 창사설화 연구(김홍철, 교육과학연구2,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8), 송고승전 소재 의상전고(김홍철, 인문과학논집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필자 김진형(金鎭亨)

비 내린 이무기

천제^{天帝}의 명을 어기고 인간을 위해 비를 내려 준 이무기와 관련된 설화.

내용 줄거리

이목(이무기)이 용으로 변신하여 웅덩이에 들어가곤 하였다. 스님이 이목의 뒤를 밟아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해 날이 심하게 가물어 흉년이 들 위기에 처하였다. 스님이 이목에게 “비를 내려 해갈하고 흉년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목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은 죽게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스님이 계속 부탁하자 비를 내려 주었다. 그리고는 옥황상제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이목을 구들장 아래에 숨겨 주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찾아와 이목의 소재를 물었다. 스님은 절 앞의 대추나무를 가리키며 이목이라고 하였다. 이목은 스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고, 못에 거주하며 가뭄이 올 때마다 비를 내려 주었다.

변이

이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보양이목조^{寶壤梨木條}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보양이목조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는 예도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무기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연못의 이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이되고 있다.

분석

이 이야기는 가뭄 때 이무기가 산다고 여겨지는 용소에 기우제를 지내면 이무기가 비를 내려 준다는 내용이다. 고대부터 우리나라는 농경 중심 사회여서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겪는 가뭄은 늘 걱정거리였고 고통이었다. 그래서 기후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 왔다. 전국 각지의 용강^{龍江}·용연^{龍淵}·용담^{龍潭}·용추^{龍湫}·용소^{龍沼}·용정^{龍井} 같은 용 관련 지명도 그와 관련이 있다. <시래호박소 이무기전설>도 그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무기가 일정 기간의 수련을 마치면 승천하게 되는데, 승천할 때에 구름이 모이고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때 생겨난 강이나 못이 용과 관련된 지명이 되고, 가뭄 때 거기에서 기우제를 지내 왔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용 승천과 관계없이 이무기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못으로 상징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특징 및 의의

일반적으로 용은 인간을 돕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무기는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이무기가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인간을 돕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목^{異木}으로, 구비설화에서는 이목^{李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발음상 이무기를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이무기라는 명칭의 어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로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 소재 용전승 연구(김문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용사상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이혜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설화에서 용신신앙의 수용 양상과 의미 연구(이동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동철(李東哲)

석탈해신화

昔脫解神話

신라 제4대 왕이자 석씨 왕가의 시조인 탈해에 관한 신화.

내용 줄거리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탈해왕조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해왕 때 아진포에서 혁거세왕의 고기잡이 할미였던 아진의선^{阿珍善}이 어느 날 바다에서 까치들이 떼를 지어 날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긴 노파가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배 한 척이 있었고 배 안에 큰 궤짝이 있었다. 궤를 열자 안에는 단정하게 생긴 한 사내아이와 함께 여러 보물과 노비 둘이 있었다. 그 사내아이를 7일 동안 보살피 주자, 사내아이는 “나는 본디 용성국^{龍城國} 사람이다. 왕비에게서 알로 태어났으나 버림받아 이곳에 닿았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친 아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從을 데리고 토함산에 올라가 돌무덤을 파고 7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성 안에 살 만한 곳을 찾은 뒤 호공^{胡公}의 집에 갔다. 아이는 속임수를 써서 호공 집 곁에 몰래 숫돌과 숯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호공 집에 가서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라 우겼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여 “나는 본래 대장장이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자가 차지한 것이니, 그 땅을 파보면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숫돌과 숯이 있어서, 아이가 호공의 집을 차지하였다. 이 사내아이가 탈해이다. 남해왕이 탈해의 슬기로움을 알고 만사위로 삼았다.

탈해가 동악^{東岳}(토함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백의에게 물을 떠오라 하였

는데, 백의가 요내정에서 물을 떠오다가 먼저 그 물을 마시자, 물그릇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탈해가 꾸짖고 백의가 사죄하니 그릇이 떨어졌다. 그 후로 백의가 두려워 속이지 않았다. 노례왕을 이어서 탈해가 왕이 되었지만, 왕에 오른 지 23년 만에 죽어 소천구疏川丘에 모셔졌다. 훗날 신조神詔(탈해 신령의 말)로 뼈를 땅에 묻었는데, 그 크기가 역사力士의 뼈와 같았다. 이에 뼈를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대궐에 모셨다. 다시 신령의 말에 따라 그 상을 동악에 봉안하였고, 나라에서 계속 그를 동악신으로 모셨다.

분석

탈해의 출생지는 왜의 동북 1,000리에 있는 용성국이며, 그곳에 28명의 용왕이 있고, 그 모친이 적녀國積女國의 왕녀라고 하였다. 또한 탈해는 붉은 용이 호위하는 배를 타고 가야의 남해를 거쳐 계림(곧 신라) 동쪽 해안 하서지촌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탈해 집단은 해양문화를 가지며 출생 원천이 물(바다)과 친연성이 깊다는 점을 나타내며, 한국 고대신화에서 천상에 근본을 둔 신화 말고도 물이라는 신성한 초월계를 상징한 신화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탈해의 출신지 기록에 근거하여 '동북 시베리아의 어로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류를 따라 동해안을 거쳐 경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왔으며, 선진 청동기 내지 철기문화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징 및 의의

〈석탈해신화〉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아니라 석씨 왕가의 시조신화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김씨 왕가의 시조신화인 〈김알지신화〉가 있다. 아울러 신라 육촌장신화와 함께 석씨시조신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신화는 건국시조신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탈해가 야무왕의 성격을 지니고, 고대국가 초기에 왕과 사면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며, 사후의 이중장 및 남성 신격의 산신화라는 민속적 사례를 제공하여 한국 서사문학상 풍부한 내용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석탈해신화의 연구(김화경, 어문학69, 한국어문학회, 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 집문당, 2000),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김열규, 일조각, 1977).
필자 이지영(李志映)

선운사

禪雲寺

선운사의 창사연기(創寺緣起)에 관한 설화.

내용 신라 진흥왕眞興王이 창사하였다는 설화는 진흥왕이 늙어서 왕위를 버리고 도솔산의 어느 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때 미륵 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꿈을 꾸고 크게 감응하여 왕비 도솔(兜率)과 딸 중애(重愛)의 이름을 따서 도솔암과 중애사를 창건하고 존상(尊像)을 봉안함으로써 선운사의 시초를 열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설에는 진흥왕이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의운화상義雲和尚을 선운산에 보내 선운사를 창건하였다거나 의운화상이 진흥왕의 큰 시주를 얻어 대참사大懺寺를 창건하였다고도 한다. 그리고 검단선사에 의한 창사설화는 '본래 선운사 자리는 용이 살던 큰 못이었는데, 검단선사가 이 용을 몰아내고 돌과 솥으로 못을 메워 그 자리에 선운사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솥으로 연못을 메우는 과정에서 검단선사는 신통력으로 마을 사람들이 눈병을 앓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연못에 솥을 던지면 눈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연못에 솥을 던지니 금세 못이 메워졌다고 한다.

검단선사에 의한 창사설화는 검단리의 소금 생산 기원설화와 맞물려 전승



선운사 대웅전 | 전북 고창 | 문화재청

되고 있다. 김단선사가 선운사를 창건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 주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를 '보은염報恩鹽'이라 불렀으며, 마을명도 김단리라 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진흥왕 창사설화에 나타나는 미륵삼존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미륵사 창사설화를 연상시키며, 도솔암과 관련해서 선운사가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단선사가 연못의 용을 쫓아내는 과정은 토착종교를 내몰고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서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김단선사는 용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솥을 이용하고 백성들에게 솥 굽는 방법을 알려 주는데, 이는 당시의 선진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단선사가 용추를 메우는 데 흙을 이용하지 않고 솥을 이용한 것은 외래문화가 토착문화를 점유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兜率山禪雲寺創修勝積記, 김단선사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이동철, 실천민속학18, 실천민속학회, 2011), 고창군지-하(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명찰순례2(최완수, 대원사, 1994), 선운사 창건과 보은염의 유래(김용덕, 한국언어문화39, 한국언어문화회, 1997), 선운사 창건설화의 고찰(김상현, 신라문화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필자 한서희(韓抒希)

아래자설화

夜來者說話

남자로 변한 뱀이 밤에 여성(처녀)을 찾아와 관계하고 이를 통해 낳은 아이가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에 실린 <견훤탄생담>이 가장 오래된 문헌자료이며, 『청구야담靑邱野談』 권1 <귀물매야색명주鬼物每夜索明珠>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사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사기古事記』(712) 승신천황조崇神天皇條에 <삼륜산전설三輪山傳説>이라 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고사기』보다 늦게 나온 『일본서기日本書紀』 승신천황조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첫가락묘(箸墓)의 지명 유래담으로 소개되어 있다.

<견훤탄생담>에는 아래자夜來者의 정체가 '지렁이'이지만 일본의 두 자료에는 그것이 '산에서 내려온 뱀'이라 하였으니, 문헌의 편년으로 보아 아래자는 원래 뱀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아래자설화에 해당하는,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이나 월남 정왕조의 선황先皇 부령部領과 청 태조 누르하치 등의 탄생담에는 아래자가

'수달'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적어도 동북아에 보편적으로 전승되면서 건국시조 및 역사 인물의 탄생담에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이 설화의 핵심은 '정체불명의 아래자가 밤에 여성(처녀)의 방에 들어가 관계하여 임신을 시키고, 가족(부모 혹은 그녀 자신)들의 추궁과 교시를 통해 그녀가 아래자의 정체를 확인하며, 그녀가 낳은 2세가 훗날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서구에서는 '큐피드-사이키'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손진태는 이 설화를 '견훤식 전설'로 부르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았는데, 대부분 한국의 학자들은 그 반대로 이해한다.

이 설화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반도에 존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덕순은 일본의 기타큐슈 지역에서 초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한 야요이 문화가 시작된 때에 이 설화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삼륜산전설>과 거의 일치하는 자료로 충청남도 연기 수리산에 얽힌 구전설화를 거론하였다. 김화경도 이 설화가 5세기 무렵 백제계의 유이민 집단에 의해 횡혈식 석실 고분문화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대석은 이 설화를 마한계의 수부지모형水父地母型 신화였을 것으로 보면서, 백제 후기에 마한의 부족들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설화를 차용한 <서동설화>가 생겼고, 또한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 유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견훤의 후백제시대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이지영은 이 설화를 '북방지역의 동이족이 남하하면서 가져온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화'로 이해하면서, 전승집단의 성격 수용양상에 따라 원래 산에 거주하는 뱀이었던 아래자가 용·자라·수달·잉어 등의 수신계 신격으로 후대에 바뀌었다고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후백제 시조인 견훤, 송 태조 조광윤, 청 태조 누르하치 등과 같은 건국시조의 탄생담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평강체씨平康蔡氏 시조 탄생담에도 들어 있어서 성씨시조신화의 성격도 띤다. 특히 후자의 경우 비교적 신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래자의 정체가 '산에 사는 뱀'이 아니고 '못 속의 거북' '연못의 조개 또는 자라'로 나타난다. 이는 수신계 신격이 부계父系로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는 또한 을파소, 도선국사, 최치원(최충), 김통정 등의 역사 인물 탄생담에도 활용된다. 이 경우 본래의 신화적 성격을 상실하면서 '이물異物과의 결합'이 강조된다. 더욱이 지명 유래담의 성격이 부각되면서 전설화하는 경향도 보여 준다. 특정 지역의 못·굴·산 등 아래자의 거주 공간과 관련이 깊은 곳에 대

한 지명 유래담이 대부분인데, 아래자는 지령이로서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 끝으로 이 설화는 단순히 아래자와 관계 후 그를 퇴치하는 일만 강조된 이야기, 혹은 동삼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된 이야기 등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고사기』에 실린 것처럼 원래 이 설화 속의 아래자는 산에 거주하는 뱀(신의 아들)인데, 잉어·수달·자라와 같은 수신계 신격으로 바뀐 것은 후대의 일이다. 정체가 확인된 뒤 뱀은 산으로 사라질 뿐 퇴치되지 않으며, 아래자는 산 또는 산 속의 굴이나 바위(돌)의 속·위에서 발견된다. 아래자 신격은 전승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며, 인물 탄생담의 경우 ‘산·굴—지령이·구렁이(뱀)’ 외에 ‘연못—자라·거북·잉어·조개’라는 ‘물과 수신적 속성의 아래자’가 함께 활용된다. 그리고 이 설화를 활용한 성씨시조담에서 ‘연못—자라·거북·조개’의 요소가 나타난 것은 바로 전승집단이 지닌 수신계 신격의 수용 의식 때문이다.

참고문헌 백제신화 연구(서대석, 백제논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아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이지영,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아래자전설과 일본의 삼륜산전설과의 비교연구(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월 노달치설화의 일연구(강재철, 동아시아고대학1, 동아시아고대학회, 2000), 한국설화의 연구(김화경,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필자 이지영(李志映)

오룡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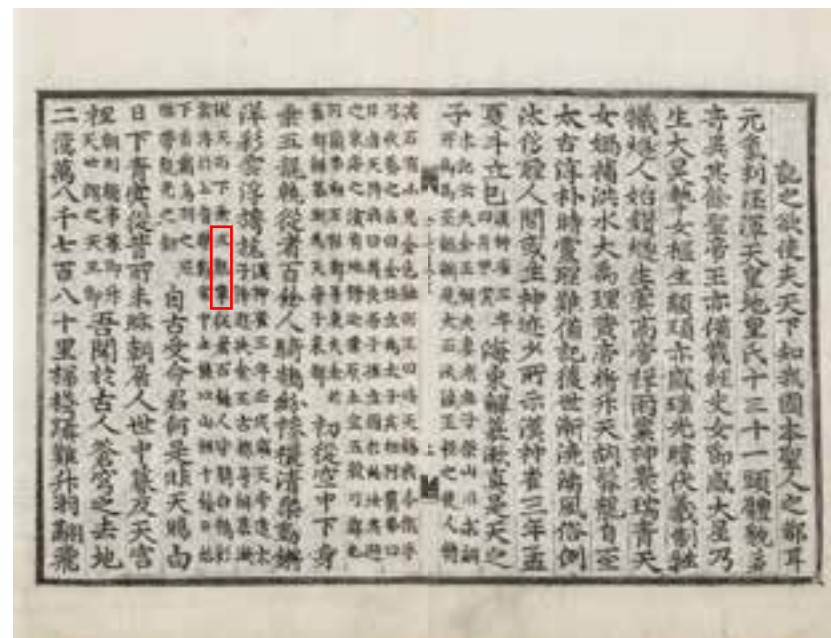
五龍車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

내용 오룡거五龍車는 다섯 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로,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타고 다녔다고 한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3 「동명왕편東明王篇」에는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왕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백河伯의 공간인 바다 궁전까지 갔다 온 내용이 전한다.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는 부여왕의 옛 도읍에 내려와 놀았는데, 다섯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있었다. 그 뒤를 100여 명이 고니를 타고 화려한 털깃옷을 입고서 따르니, 채색 구름이 뜨고 음악 소리가 구름 속에서 울려 퍼졌다. 웅심산熊心山에 머물렀다가 10여 일이 지나서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깃으로 만든 관[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차고 있었다.

해모수는 왕이 되어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서 정사를 듣고 저녁에는 오룡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사람들이 그를 천왕랑天王郎이라고도 불렀다. 하늘과 땅까지의 거리가 멀어 날개로 날아도 쉽게 지칠 텐데도, 아침저녁으로 오룡거를 타고 오르내렸다고 한다.



해모수가 타고 온 오룡거 | 동국이상국집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어느 날 해모수는 하백의 세 딸이 압록강에서 나와 웅심연熊心淵 근처에서 노는 것을 보고 왕비로 삼아 후사를 두고자 하였다. 곧 말채찍을 땅에 그어 웅장한 집을 짓고 술상을 차린 후 여인들이 놀다가 취하였을 때 만발 유희柳花를 붙잡았다. 하백이 이를 알고 크게 화를 내어 사신을 보내자 해모수는 혼인하기를 청하였으나 하백을 만나러 그의 궁궐에 갈 수가 없었다. 유희는 왕과 정이 들어 홀로 떠나려 하지 않았고,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왕이 하늘을 가리켜 고하니 오룡거가 공중에서 내려와서 유희와 함께 수레에 탔다. 오룡거는 풍운을 일으키며 하백의 궁전에 도착하였다.

하백은 변신을 하며 해모수를 시험하였는데, 하백이 잉어·뱀·사슴이 되면 해모수가 수달·매·승냥이가 되어 승리하니 실로 천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백은 혼인 후 해모수가 딸을 데려가지 않을까 봐 술을 권해 크게 취하게 한 후 둘을 함께 작은 가죽 수레에 싣고 오룡거에 태웠는데, 술에서 깬 해모수가 유희의 황금 비녀로 가죽을 뚫고 홀로 용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후 하백이 딸에게 크게 노하여 유희의 입을 석 자나 되게 잡아당기고 우발수優渤水로 추방하였다. 금와왕金蛙王이 유희를 발견하여 입술을 세 번 잘랐고, 해모수의 부인인 것을 알고는 별궁에 두었다. 유희는 해를 품고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나온 이가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이다.

특징 및 의의 신화 속에서 용이나 말은 하늘과 땅을 이어 주며 수레와 같은 탈것을 끌기도 한다. 해모수의 오룡거는 하늘에서 땅을 이을 뿐만 아니라 물속까지 연결하면서, 천손인 그가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해모수는 태양의 마차를 모는 세계 각지의 태양신처럼 아침저녁으로 수레를 타고 이동하며, 태양의 권능을 상징하는 까마귀의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이라는 이름의 검을 찼다. 이는 태양이 연상되는 ‘해’씨의 자손들이 단순한 천손이 아니라 눈부신 태양의 자손임을 주장한다고도 해석된다.

해모수는 자유롭게 수레를 불러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검이나 채찍을 드러내면서 물리적 힘을 지닌 정복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웅장한 집을 짓거나 우월하게 변신하는 그의 위용은 하늘의 권능을 과시하는 형태이다. 천신·태양의 상징들은 후대로 내려가면서 주몽의 준마와 채찍(용편), 유리가 찼은 아버지의 검처럼 자손들이 하늘의 권능을 이으면서 존재를 변화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였다고도 본다. 곧 천손인 해모수는 오룡거를 타고 땅에 내려와 은총을 베푸는 존재, 이질적인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 태양과 같이 만물을 살리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제시하였다고도 해석된다.

참고문헌 東國李相國集,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임재해, 비교민속학43, 비교민속학회, 2010), 고구려 패수에서의 의례와 신화(나희라, 사학연구118, 한국사학회, 2015), 동명왕편 소재 양가물의 신화적 기능과 서사맥락에서의 의미(이강엽, 고전문학연구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동명형설화와 고대사회(정경희, 역사학보98, 역사학회, 1983),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홍나라(洪나라)

용 못 된 이무기

용이 되려다 인간의 방해로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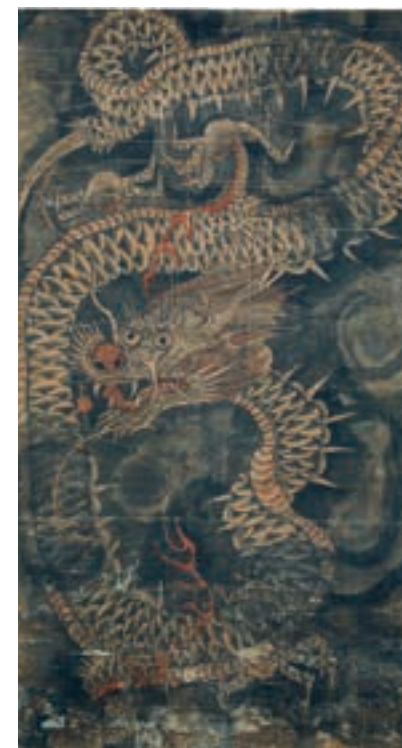
내용 공부를 많이 하였지만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양반이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베를 짜서 남편에게 주면서 양식을 사 오라고 하였다. 남편은 베를 팔았으나 양식을 안 사고 돈을 들고 집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구렁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양반은 사람들에게 구렁이도 하나의 생명인데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라며 양반을 위협까지 하였다. 이에 양반은 구렁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주겠다고 하였고, 베를 판 돈을 모두 그들의 술값으로 지불하였다.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왔기에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풍수라도 하라며 패철(무덤 자리나 집터를 정할 때 풍수나 지관이 사용하던 나침반)을 얻어 와서 남편에게 주었다. 양반은 풍수에 문외한이었

지만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섰다. 가다가 어떤 집에 초상이 나서 가 보니, 좋은 뗏자리를 정하기 위해 풍수쟁이를 불러 모으고 있었다. 양반도 그 자리에 갔으나 풍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난감해하였다. 그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불쌍한 한 아이가 들어왔다. 양반은 자기 밥을 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神通한 능력이 있어서 풍수에 문외한인 양반을 최고의 풍수사로 만들어 주었고, 양반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제야 아이는 자신이 지난 번에 양반이 구해 준 구렁이라고 정체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이무기인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 때문에 용으로 변신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아이는 그때의 은혜를 갚고자 찾아온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더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그렇게 이무기 덕분에 양반은 부자로 잘살았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많지 않다. 이무기가 용이 못 된 경우 이무기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설화처럼 과거에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설화는 용이 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내용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우리 문화에서 용을 지칭하거나 용과 관련된 말에는 ‘이무기’ ‘이시미’ ‘미리’ ‘영노’ ‘괭철이’ ‘바리’ 등이 있다. 보통 용은 긍정의 이미지를 지니지만, 이무기는 부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 못 된 이무기 심술만 남았다.” “용 못 된 이무기 방천 낸다.” 같은 속담이 생겨났다. 이 설화에서 주인공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사람들이 구렁이를 죽이려고 할 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구해 주고,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내주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방해로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면, 이무기는 보복하는



윤룡도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자신을 죽이고 방해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용사상의 한국문화적 수용양상(이혜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설화에서 용신신앙의 수용양상과 의미 연구(이동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동철(李東哲)

용 승천

龍昇天

이무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설화.

내용

줄거리

온 가족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여러 생각 끝에 부인과 자식을 두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깊은 산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하룻밤 지낼 곳을 찾다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대궐 같은 집이 있어 들어갔다. 그런데 아리따운 처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처녀는 목욕물을 받아 주고,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옷도 내어 주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두 사람은 잠자리도 하고 바둑도 두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3년을 살았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내던 남자는 문득 두고 온 식구들 소식이 궁금하고 부친의 제사도 걱정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도 조금씩 생겼다. 그러나 그 말을 차마 못 하고 있는데, 그 처녀가 미리 알고 두루마기를 준비해 주며 다녀오라고 하였다. 집으로 가기 전날 밤, 남자는 잠을 자다가 처녀의 몸에서 구렁이 꼬리를 발견하였다.

처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사실을 알고도 남자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눈을 감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을 하였다. 첫째, 밖에서 한 노인을 만나거든 일절 답하지 말라고 하였다. 둘째, 두루마기를 입고 집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장을 옷고름에 세 번 적서 오라고 하였다. 셋째, 집에서 나올 때 대문을 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치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넷째, 장을 적신 옷고름을 잘 간직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남자는 처녀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남자는 돌아오는 길에 지네가 변신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간장 적신 옷고름을 달라고 하였다. 남자는 옷고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돌아와서 처녀에게 주었다. 처녀는 옷고름을 받아두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구렁이 처녀는 남자 덕분에 용으로 승천할 수 있었다. 구렁이를 도와준 남자도 집

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부유하게 잘살았다.

변이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였다는 설화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설화는 많은 용 승천 설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 유형의 설화는 이무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용으로 승천하였다는 이야기에 해당되고,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의 변이형이다.

이 외에도 이무기의 용 승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승된다.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1,000년, 산에서 1,000년, 물에서 1,000년 등 모두 3,000년을 견뎌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이런 기본 관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결부된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인간이 이무기의 용 승천을 돕고 그 결과로서 큰 재물이나 넓은 땅을 얻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며, 훌륭한 후손을 얻기도 한다. 이때 인간이 이무기의 용 승천을 돕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남들이 더럽다고 할 때 깨끗하다고 말하고, 흉하다고 할 때 잘생겼다고 말하고, 뱀이라고 할 때 용이라고 말하고, 침을 뱀이라고 할 때 안 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이다. 반대로 이무기의 승천을 방해하였을 때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에게 보복을 당하는 이야기도 있다. 전국에 퍼져 있는 용 관련 지명은 거의 용 승천과 관련되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가난한 인간과 용으로 승천하기를 지향하는 이무기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가난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다. 돌과구를 찾을 수 없는 주인공은 결국 집을 나와 자살을 결심할 정도의 지경에 이른다. 이때 구원자인 구렁이 여인이 나타난다. 구렁이 여인과의 만남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구렁이 여인은 경제적인 풍족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결핍을 안고 있다. 구렁이 여인의 결핍은 지상의 삶을 끝내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다. 구렁이 여인은 천상에서 천제에게 죄를 짓



운룡도 | 가로 150 세로 178 | 조선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고 지상으로 유배됐기 때문이다. 다시 승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한다. 수련의 내용은 보통 인간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 선한 일을 인간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주인공과 용 승천을 지향하는 구렁이 여인의 만남은 상호 보완적이다. 주인공은 구렁이 여인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얻고, 구렁이 여인은 주인공의 도움으로 용이 되어 승천한다. 그 과정에서 방해자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를 물리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 서로의 목적을 성취한다. 결국 이 설화는 겉으로는 주인공이 구렁이의 승천을 돕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과 동물, 본능과 이성, 경제와 윤리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강조된다. 또한 이 설화의 각편에서 ‘활인活人의 덕德’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승천에 관심을 두는 신격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설화에서 설정한 가난은 대부분 민중의 가난이다. 그런데 ‘가난은 하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민중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상상을 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 승천> 이야기이다. 용이 승천할 때는 반드시 큰비를 내리는데, 이는 가뭄 해소라는 민중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과 연결된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때 설화 속에 형상화된 이무기는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항구적인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일정 정도의 윤리적 행위를 이무기에게 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인간과 이무기 사이에 암묵적인 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이무기에게 제시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쪽이 인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상의 동물인 용은 신이한 조화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설화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상의 동물인 용을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다. 설화 속 용은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에서 비를 내려 주는 존재로 숭앙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의 용은 승천하기 전 단계인 이무기이고, 그 한계 때문에 인간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그려진다. 이렇게 소재와 내용이 확장된 것에서 이 설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내처녀설화(이지영,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전남 용설화의 의미향 연구(한정훈, 남도민속연구11, 남도민속학회, 2005).

필자 이동철(李東哲)

용 싸움

어떤 사람이 못에 사는 용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한쪽 용을 이기게 도와준 보답으로 넓은 들을 얻었다는 전설.

역사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22장에 이성계의 조부인 도조度祖가 용 싸움에 끼어들어 백룡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것이 <용싸움설화>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도조가 흑룡을 쏘아 못의 물이 붉게 물들었다는 적지赤池, 용 싸움에 개입한 사람이 과부가 된 암룡과 부부가 되었다는 공검지恭檢池에 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시대 읍지류에는 용을 알아본 보상으로 땅을 얻는 <유금이들> 유형이 보인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적어도 조선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줄거리

옛날 황해도 장연군 용연면 용정리 마을에 활을 잘 쏘아서 ‘활량’으로 불리는 김씨가 살았다. 어느 날 김씨의 꿈에 마을 용소의 황룡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수백 년 동안 지켜 온 소리를 서해 청룡이 빼앗으려 한다면서, 김씨더러 내일 있을 싸움에 와서 활로 청룡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음 날 용소로 간 김씨는 황룡과 청룡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 활을 쏘지 못하였다. 꿈에 또 황룡이 나타나 부탁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용소에 가니 두 마리 용이 또 엉켜서 싸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김씨가 청룡을 쏘아 죽였다. 그날 밤 꿈에 황룡이 나타나 은혜를 갚겠다며, 용소의 물을 줄 것이니 마을의 넓은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라고 하였다. 김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간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성벽력이 치더니 용소와 황무지를 막고 있는 바위산에 큰 굴이 생겼다. 그곳으로 용소의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넓은 황무지가 수천 정보의 논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 용이 나온 연못을 ‘용소’, 개간한 벌을 ‘용정벌’, 마을을 ‘용정리’, 면을 ‘용연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변이

전국적으로 못이나 소가 있는 곳에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설로, 용 싸움에 끼어든 주인공의 행위에 따라 상이한 결말의 변이가 나타난다. 곧 용 싸움을 돕는데 성공하여 행운을 얻는 유형과 실패하여 패망하는 유형으로 대별된다. 『용비어천가』의 <도조설화>에서는 도조가 백룡의 부탁으로 흑룡을 활로 쏘아 죽이자, 백룡이 나타나 자손이 흥할 것을 예언하였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그 예언

의 실현이었다. 청주한씨淸州韓氏 시조도 용 싸움을 도와주고 들을 얻어 충청북도 청주시 방서동의 대머리마을을 개척한다. 행운형 가운데는 이렇게 들이나 농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망형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원구리의 <용당못전설>처럼 용 싸움에 개입한 사람이 실수로 상대 용을 이기게 한 탓에 당사자가 죽거나 또는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이다. 용을 퇴치하는 수단은 활, 칼, 고함치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두 마리의 용이 못 지킴이의 권한을 두고서, 또는 승천을 다투며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북 상주군 공검면 양정리 공검지의 경우처럼 남편 용을 두고 처첩 사이인 두 용이 싸우기도 한다. 싸움에 끼어든 존재가 개국시조의 조부, 성씨시조, 명궁과 같은 영웅적 존재에서부터 점차 부자와 며슴 등으로 바뀌는 것은 신화적 의미가 퇴색되면서 생긴 변이이다.

분석

용 싸움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용신들의 싸움이다. 황룡이 수백 년 동안 지켜 온 못을 서해 청룡이 빼앗으려고 한 데서 기인된 용들 간의 싸움은 결국 연못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관장하려는 용신들의 주도권 다툼이다. 경북 안동의 선어대 용과 임하 용의 싸움, 또는 영덕 용당못과 오십천 용들 간의 싸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때로 선악의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쪽 용, 곧 선룡이 인간에게 나타나 도움을 청함으로써 용 싸움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고, 인간은 선룡을 도와준 보상으로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는다. 전설의 주인공이 토지를 얻는다는 결말은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전설 향유층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 용신은 인간의 도움 없이는 목표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다. 용 싸움에 개입하는 인간은 안동 선어대의 마씨 총각처럼 평범하고 결핍된 존재도 있지만, 선행 유형에서는 도조나 청주한씨 시조처럼 영웅적 존재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설의 원초적 의미는 영웅적 존재가 신들의 싸움을 해결해 준 보상으로 나라 또는 마을의 토지를 얻는다는 것이었는데, 점차 평범한 농민들의 땅에 대한 욕망을 투영하면서 지명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전설로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싸움전설>은 여러 지역의 <용소전설>들과 관련하여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기우제의 현장이었던 용소, 너무 깊어 명주실꾸리가 끝없이 들어간다는 용소, 악한 장자를 징치하여 생겨난 장자못 등이 용 싸움의 현장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용이 지키는 소궐’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설은 ‘용 싸움’이나 ‘영웅의 악룡 퇴치’와 같은 신화적 모티프가 근간이 된 점에서, 신

화적 전설의 범주에 속한다. 들이나 논으로 주어진 보상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마을 공동체로 확산된 각편들이야말로 이 전설의 신화적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용신의 승천을 도와준 인간이 들을 증여받았다는 유형은 <유금이들> 이야기와도 유사하지만, 여기에는 용 싸움의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토지가 용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용을 농경신으로 섬겨 온 민속신앙의 반영이다.

한편 용과 인간이 관계 맺는 양상을 통해서도 신인神人 관계에 대한 민중적 사고를 읽을 수도 있다. 이야기 속에서 신은 절대적 우위에 있지도 않고, 인간에게 일방적 증여를 하는 존재도 아니다. 이러한 상호증여相互贈與 또는 상호시혜相互施惠의 신인 관계는 제물을 통해 신과 소통하는 제의의 원리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용 싸움>의 상징은 많은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싸움, 또는 싸움의 구조를 취하는 많은 민속놀이의 구조와도 연결되는 점에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용 그 사회와 문화(서영대·송화섭, 민속원, 2002),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이동철, 민속원, 2005), 현장론적 화소체계에 따른 용싸움에 끼어든 도조유형 설화의 구조분석(김진형, 비교민속학38, 비교민속학회, 2009).
필자 천혜숙(千惠淑)

용두암
龍頭岩

제주도 용담동 해안의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

내용 용두암은 1990년대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첫 번째 관광코스였다. 용두암과 바로 곁에 있는 용연龍淵은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였기 때문에 자연경관 위주의 관광이 성행하던 시기에는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였다. 용두암은 옛 기록에도 자주 등장한다. 과거에도 풍광이 뛰어나 시인묵객詩人墨客의 방문처로 유명하였다. 일찍이 임제林悌道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 “바닷가에 불끈 솟은 저 바위, 부질없이 용두라 이름 붙였네, 큰 파도 밤낮 와서 부딪치니, 오히려 우레소리 일으키네.”라고 노래하였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자주 언급되는데 내용은 비슷하다. 이원진李元鎭은 『탐라지耽羅志』에서 “용두암은 주 서쪽 5리에 있다. 북쪽 기슭 바닷가에 용의 머리 모양이 돌출하여 있는데, 그 주위는 평평하여 앉을 수 있다. 그 둘의 기운이 기이하고, 용연과 포구를 비스듬히 내려다보면 어촌이 자못 아름답다.”라고, 용두암과 용연과 포구가 어우러진 모습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형상李衡祥도 『남환박물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 | 조선 후기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南窟博物』에서 “용두암은 취병담翠屏潭 서쪽 벼랑에 바다와 붙어 있다. 높이 솟은 돌의 모양이 마치 용의 머리와 같다. 높이가 10장은 족히 되고, 꼭대기는 평평해 앉을 수 있다. 또한 좌우로 기괴한 암석이 많고 전복을 채취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라고 높이를 자세히 말하면서 직접 용두암에 가서 앉고 즐겼음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근처의 잠녀(해녀)들이 작업하는 실상을 들려주기도 하였다.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병담범주屏潭泛舟〉를 보면 대천외리大川外里를 사이에 두고 왼쪽에는 취병담이 있고 오른쪽에는 용두암이 그려져 있다. 취병담의 하구가 바로 용연이다. 용연에 배를 띄워 선상 잔치를 즐기고 있고, 용두암 안쪽에는 잠녀(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그림이다. 대천외리는 한내大川 밖 마을이라는 뜻이고, 곁에 한두기大瀆浦 마을이 그려져 있다. 용연은 영주 12경의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의 장소인데, 이 형상은 용연 위쪽의 취병담을 가져다 제목으로 하였다. 이익태李益泰도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 중 〈취병담〉에서 용담에서 뱃놀이하는 경치와 용두암을 함께 그렸다.

용연과 용두암은 조선시대 시인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였다. 이원조李原祚는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서 용연을 두고 “풍속에 전하길 신통이 잠긴 곳이어서 가뭄에 비를 빌면 응한다고 하여 이름을 붙였다.”라며, 용연에서의 기우제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용두암에 관한 몇 가지 전설이 전하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용머리〉란 제목으로 전하는 이야기들이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용담동 해안 마을에 백마가 있었는데,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백마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번지자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는 힘센 장수가 나타나서 그 백마를 잡기로 하였다. 백마는 장수의 모습을 보자 물속에 숨고 나타나지 않았다. 장수는 허수아비를 세워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백마의 목덜미를 잡았다. 백마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었다. 얼마 후 백마의 몸은 물속에 잠기고, 머리는 물 밖에서 굳어져 용머리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가 〈말머리〉란 제목으로 전한다. 옛날 제주도 용담동

에 정서방이 살았는데,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는 힘센 장사였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늘 배가 고팠다. 정서방의 부모는 자식을 먹여 살리려 하였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어 관가에 요청하였다. 관가에서 정서방을 살펴보니 나라에 해가 될 위험한 인물인 듯하여 죽이려 하였다. 정서방은 관가에서 자신을 부르자 죽음을 직감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실컷 배불리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이에 관가에서 쌀 한 섬과 소 한 마리를 잡아 먹이자 정서방은 만족하며 ‘큰 바윗돌을 두 팔과 두 다리에 묶어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자신을 죽일 방도를 알려 준다. 이후 관가에서 정서방을 바윗돌에 묶어 바다에 던졌고, 정서방은 3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결국 가라앉았다. 그렇게 정서방이 죽자 백마가 바닷물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와 세 번 크게 울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말이 머리만 내밀었다가 들어간 곳이라 해서 말머리라 한다. 이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용머리바위〉란 제목으로 출전을 달리하여 전하고 있는데, 결말에 “백마가 물속에 잠긴 채 바윗돌로 굳어졌으며, 이 바위를 용머리라 한다.”라고 하여 말머리와 용머리가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용머리 이야기에서 말이 죽어 용머리가 되었다는 설정이 다소 어색하다. 그래서 전설의 서두에 백마가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고, 결국 죽어서 용머리가 되었다는 결말을 만들어 낸 느낌이다. 대개 백마는 아기장수가 타는 동반자인데, 장수가 백마를 죽였다는 설정도 기존의 이야기와 다르다. 그보다는 말머리 이야기가 친숙한 모티프를 갖추고 있다. 힘센 장수가 있었는데, 관가에서 죽이자 장수가 탈 말이 뒤에 나타나 슬퍼하다가 말도 함께 죽고 말았다는 ‘아기장수’ 전설의 전형을 담고 있다. 다만 제주도의 아기장수는 먹을 것이 없어 한 번 배불리 먹고 죽음을 자청하는 화소가 덧붙여져 있는 지역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말머리 전설과 용머리 전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말머리 이야기와 용머리 형상이 결합해 위의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이 전설에서 말은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 말이 아니라 용마龍馬의 형상으로 이해해야 옳다. 제주도 이야기 속의 아기장수가 타는 말은 용마의 형상으로 자주 등장한다. 현길언玄吉彦이 제주도에 전하는 ‘아기장수’ 전설을 재구성한 소설 〈용마의 꿈〉에서도 그런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말머리 전설이 원래 있었던 이야기이되 ‘말머리’가 아니라 ‘용마 머리’였다가 〈용머리〉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무기가 1,000년 세월을 견뎌 승천하려 할 때 한라산 산신의 구슬을 훔쳐 가져가려다가 산신이 쏜 화살에 맞아 바다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다 위로 치켜든 바위가 바로 ‘용머리바위’라는 전설도 남아 있다. 혹은 이무기가 한라산의 불로장생 풀을 가져가려다가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죽고 용머리바위가 되었다는 유사담도 전한다.

용머리 옆에 있는 용연은 용신龍神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어서 용연 전설도 덧붙인다. 큰 가뭄이 들어 고대정高大靜 심방이 곳을 하였는데, 용연 옆 제단에 짚으로 만든 머리를 얹고 꼬리는 용연에 담가 7일간 정성을 들이자 비가 내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신다섯 자 길이의 용을 메고 성안을 돌며 풍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고, 용연과 기우제의 효험을 전하고 있다.

용머리는 서귀포 산방산 아래에도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제주에 인재가 많이 나니 중국 사람들이 와서 혈맥을 찾으러 다녔고, 송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고종달이 산방산에 가 보니 왕후지지王侯之地가 있었다. 고종달은 부하들에게 쇠 말뚝 열두 개를 박으라 하고 용머리를 잘라 버렸다. 혈이 잘려 나가자 피가 날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징 및 의의

제주도 용담동 해안에 있는 용의 머리를 닮은 용두암은 지금도 용머리바위라 전해지기도 하는데, 오래전부터 그 형상의 기이함 때문에 주목받았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헌마다 용두암의 위용을 그리고 있다. 용의 형상을 한 용두암 동쪽에 용연이 있는데, 용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곳이다. 두 곳이 가까이 있어 함께 소개되지만, 용두암은 기우제와는 거리가 있다. 용두암은 '아기장수' 전설의 증거물로, 세상을 바꿀 영웅이 탄생하였으나 죽게 되자 백마 혹은 용마가 따라 죽어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 주인공 정서방은 소도 온마리로 먹고 돼지도 온마리로 먹는다는 제주도의 '웨네깃도'라는 신화적 영웅과 닮았다. 이런 신화적 주인공이 나중에 아기장수와 같은 힘센 영웅으로 바뀌어 비극적 전설로 전해진다. 이본에 따라서는 이무기가 용이 되려다가 실패하고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의 증거물로 전한다.

참고문헌 南溟小乘, 南宦博物, 知瀛錄, 耽羅巡歷圖, 耽羅誌草本, 남국의 전설(진성기, 교학사, 1981), 제주도 전설(현용준, 서문당, 1996), 제주문화원형-설화1(제주특별자치도, 2017), 제주문화원형-설화2(제주특별자치도, 2018), 취병담(현행복, 각, 2006).
필자 허남춘(許南春)

용머리고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동에 있는 용머리 형상의 고개에 얽힌 지명전설.

내용

전주천에서 자란 용이 1,000년을 기다렸다가 전주천 물을 모두 삼키고 승천하다가 힘이 빠져 떨어졌다. 이때 용이 떨어진 곳이 완산 칠봉계곡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1,000년에서 하루가 모자랐기 때문에 승천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용이 한을 품고 몸부림치다가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그 떨어진 자리가 용머리 형상이라 '용머리고개'라고 하였다.

'용머리고개'에는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또 다른 유래가 있다. 몹시 가뭄이 든 어느 해에 강감찬 장군이 전주천을 건너는 초립동草笠童을 불러다가 "왜 이런 가뭄을 못 본 체 지나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고 호통을 쳤다. 초립동은 잠시 인간으로 둔갑한 용이었는데, 강감찬 장군의 꾸짖음에 비를 내리게 하고 떨어져 죽었다. 그리고 용이 떨어져 죽은 곳을 '용머리고개'라고 하였다 한다.

두 전설은 모두 산의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용머리라는 지명은 용의 머리가 떨어진 자리라서 붙여졌다는 것으로, 풍수적으로 어떤 지형의 유래를 설명하고자 한 지명전설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1,000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승천하지 못한 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비교적 단조롭고, 강감찬이 가뭄을 해결한 지혜를 덧붙인 이야기는 좀 더 흥미를 자극한다.

특징 및 의의

지명전설은 어느 지역의 지형과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전승되므로 그 지역 안에서 생명력을 갖는다. 용은 우리나라 지명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용머리 또는 용두라는 지명이 많고, 이에 얽힌 지명전설도 비슷한 것이 많다. 풍수지리적으로 용은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민간신앙과 관련해서는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명에 얽힌 전설에서 용은 매우 친근한 존재로 자주 등장한다.

참고문헌 전주 지역전설의 현대적 활용(서해숙, 남도민속연구9, 남도민속학회, 2003), 전주시지(전주시청, 1997),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전주문화원, 문예연구사, 2001),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국토지리정보원, 2010).
필자 김승연(金承衍)

용소

龍沼

용이 살거나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뜻에 관한 전설.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만파식적조萬波息笛條에 용이 승천한 자리가 못이 되었다는 내용을 가진 '용연龍淵'의 지명유래 설명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도 용이 살고 있거나 용과 관련한 신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각지의 못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던 전국의

읍지에도 해당 자료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이 유형 전설의 형성과 전승의 오랜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줄거리

용이 살거나 승천하였다는 못에 관한 전설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용이 살았다는 못의 지형에 관한 이야기,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지형,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으로서의 용소龍沼, 연못의 얼음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는 용경龍耕, 용 싸움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서 전하는 용연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문왕이 동해의 용으로부터 검은 옥대와 대나무를 받고 돌아오던 중 기림사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태자 이공理恭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하례하고는 천천히 살펴보고서 “이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왕은 “네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니, 이공이 “이쪽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옥대의 왼편 둘째 쪽을 떼서 시냇물에 넣으니 금방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으니, 그 못을 ‘용연’이라고 불렀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 지역에서 구전되는 〈용소전설〉은 몇 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강물을 따라 올라가면 농업용수로 쓰려고 막아 놓은 용소龍沼 沼壁가 있는데, 얼마나 깊은가 하면 옛날에 명주실꾸리에 감긴 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거기에 돌맹이를 매달아 못 안에 집어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고 한다. 둘째, 옛날에 용이 거기서 등천登天하였다고 해서 용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거기에 길이가 약 10m 정도 되는 굴이 하나 있는데,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셋째, 옛날에 명주실꾸리 하나를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정도로 물이 깊으니, 당시 글깨나 하는 양반들이 거기에 모여서 통나무로 만든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시를 읊거나 술을 마시며 즐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용소전설〉은 기우제 지내는 공간의 면모를 보여 준다. 여름에 모내기를 한 후 가뭄이 심하면 그곳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개를 잡아서 개 피를 바위에다 칠하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가뭄이 심하면 그렇게 한다고 한다.

변이

용소 관련 전설들은 대체로 해당 지형에 대한 설명 또는 지형 형성의 유래에 대

한 간단한 설명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이 살았거나 승천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지형에 관한 설명이 기본요소가 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기우제 지내는 장소로서 활용된다는 사실이 설명되거나 용경에 관한 내용이 제시된다.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진 못에 관한 내력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예컨대 황해도 옹진군 용연리 용연의 경우, 옛날에 큰 우물 옆을 상여 행렬이 지나가다 상여꾼이 덥고 피로하여 잠깐 쉬려고 하니 갑자기 땅이 울면서 우물이 함몰되고 상여도 떨어지더니 물이 솟아오르면서 흰 용이 나타나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곳은 못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경상북도 경주시 기림사 용연은 용으로부터 받은 옥대의 한쪽을 떼서 시냇물에 넣으니 금세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이내 못이 되었다고 한다.

분석

용소에 관한 전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사례가 많은 유형으로, 용이 살았다는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 있다. 물이 얼마나 맑고 깊은지 명주실꾸리를 다 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못의 깊이를 부각하지만 그것은 못의 크기와 못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을 동시에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지형의 특성은 용이라는 동물을 신성시하는 민간의 신앙 관념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둘째, 용이 승천하면서 만들어진 지형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용은 앞서와 같은 큰 못에서 승천하기도 하지만, 경주시의 용연이나 옹진군의 용연처럼 우물이나 시냇물에 인연하여 승천하면서 못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또한 물과 용의 관련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용소는 한결같이 수심이 깊고 수량도 풍부하여 물에 대한 다양한 상징과 상상력이 작동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셋째, 용소는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는데,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 민간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개의 피를 칠해 바위를 오염시킴으로써 비를 유도하는 기제이다. 맑고 정결해야 할 신성 공간을 불결하게 만듦으로써 그 부정을 씻어 내도록 유도한다. 이는 용소가 비를 관장하는 용의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민간의 기우 관련 주술의 기제를 엿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소전설〉은 하나의 독립적 유형이라기보다 용과 관련된 못에 관한 다양한 지명전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용이 살았거나 용과 관련하여 형성되었다는 공간에 대한 내력을 소박한 언어로 전하는 〈용소전설〉에는 용에 대한 신앙적 관념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한국인의 기층적 생활문화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다.

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중요시되어 온 신성 상징이므로 용신 관념은 한국인의 세계관이나 상징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용소는 물의 원형적 이미지와 용의 상징성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용소전설>은 용과 관련된 민간의 오랜 신앙적 관념과 원형적 상징성에 기초한 신앙적·생활적·문화적 상상력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설화문학의 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필자 강진옥(姜秦玉)

용추폭포

龍湫瀑布

용왕이 승천^{昇天}하면서 남긴 폭포나 못과 관련된 전설.

내용 전라남도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곡물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각각 '용뚝병'이 있다. 어느 날 아래 용뚝병 근처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솟더니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무꾼들은 바위와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하였다. 그때 갑자기 용뚝병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뭔가 커다랗고 이상한 것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나무꾼들이 쳐다보니까 땅으로 푹 떨어졌다. 나무꾼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용이 이무기로 변해 있었다. 그 이무기는 마을 사람을 많이 괴롭혔다.

이 전설은 용이 소^沼에서 승천하였다는 공통된 모티프를 보여 주며, 그와 관련된 증거물로 용소^{龍沼}·용연^{龍淵}·용뚝병·용추골·용추폭포^{龍湫瀑布}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용이 승천하려다가 인간에게 들켜 머리만 용이 되고 몸은 뱀으로 남았다거나, 승천하다가 추락하였다는 변이형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승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용의 승천 모티프와 함께 가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용이 승천한 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는 내용이 첨가된 변이형도 있다. 이때 용에게 바치는 제물도 지역에 따라 개의 머리, 개의 피, 돼지, 생계 등 다양한 변이 양상을 보인다. 기우제를 포함한 지역적 사례로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용추폭포,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용추폭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상리 용소,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용천동 용바우 등이 있다.

<용추폭포>는 용의 승천과 함께 기우제를 지낸다는 내용이 결합한 예가 많

인데, 이는 기우제와 관련한 민간의 풍속과 상관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보면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랑이의 머리를 한강과 박연^{朴堧}에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물속에 있는 용을 자극하려는 것인데, 용이 화가 나면 비를 뿌린다는 민간신앙의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전국에서 구비전승되는 용과 관련한 지명전설에서도 기우제를 지낼 때 개를 잡아서 개의 피를 바위에 바르거나, 생계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용이 더럽다며 내친다고 전해진다. 가뭄이 들면 용과 관련된 연못이나 우물에 피를 뿌려 흐리게 해서 용을 화나게 하는데, 맑은 연못이 흐려졌을 때 연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용이 비를 내린다. 이런 풍속은 모두 용을 수신^{水神}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뭄이라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신에 대한 격렬한 모욕 행위를 통해 '비'로 상징되는 재앙을 자초한 것인데, 이는 일상적인 제의와는 다른 기우제만의 특징이다.

특징 및 의의

이 전설은 단순히 용의 승천 이야기와 그에 따른 증거물인 지명전설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 풍속인 기우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용의 여러 성격 중에서 물을 지배하는 수신^{水神}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가평의 지명과 유래-상(가평문화원, 2001),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다른세상, 2001),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필자 이홍우(李洪雨)

운문사

雲門寺

고려 초기 보양선사가 서해용왕의 예언을 좇아 전대의 대작갑사 터에 중창한 고려조의 비보^{裨補}사찰.

내용 운문사는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받고 돌아온 보양선사가 후삼국의 난리로 망괴^{亡塊}된 대작갑사 터에 중창한 사찰이다. 보양이 귀국길에 서해에 이르렀을 때 용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외게 하고 비단 가사^{袈裟} 한 벌을 주었다.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雀岬}에 절을 짓고 살면 적병을 피할 것이며 장차 불법을 수호하는 왕이 나와 삼국을 평정하리라.”고 하면서, 용자^{龍子}이 목^目으로 하여금 보양을 시봉해서 가게 하였다. 보양이 돌아와 이 골짜기에 이르자 갑자기 노승이 나타나 스스로를 원광이라고 하면서 인케를 주고 사라졌다. 또 오층탑의 환영과 더불어 까치 떼가 나타나 땅을 쪼는 것을 보고 그곳이 전대의 절터임을 확인하였다. 작갑이라고 했던 서해용의 말을 떠올린 보양은



운문사 대웅보전 | 경북 청도 | 문화재청

그곳에 절을 짓고 머물면서 이름을 작갑사鵝岬寺라고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가 전대의 오갑사五岬寺에 속했던 밭 500결을 시납하고 운문선사雲門禪師로 사액하였다. 따라온 서해용자 이목은 이 절 곁의 작은 못에 살면서, 강우降雨 등의 신이神異한 능력으로써 보양의 법화를 음陰으로 도왔다. 이상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보양이목寶壤梨木’기사에 전하는 운문사 중창의 내력이다. 이 설화는 서해용왕의 호법護法과 예언, 원광의 현신現身, 까치의 조짐 등에 힘입어 보양이 운문사를 중창한 이야기와, 서해에서 데려온 용자 이목과 함께 보양이 이곳에서 법화를 베푼 이야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및 의의

‘승려 보양의 용궁설법—서해용의 시해—용자 이목의 시봉—창사’ 단락으로 구성된 이 설화는 호법룡이 관련된 창사연기담創寺緣起譚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설화 속의 서해용은 황룡사나 금산사 등의 다른 창사연기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법룡이지만, 용자 이목은 특이한 존재이다. 재래용 ‘이무기’의 음사音寫로 보이는 이목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강우 등 이목의 신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설화 후반부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운문사 주변, 특히 대비사의 대비못이나 밀양의 호박소를 중심으

로 이무기에 관한 전설들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구전되어 왔다. 구비전설의 이무기는 서해용자가 아니라 불승의 상좌로서, 자신의 신성神性を 숨기고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불승보다 능력이 우월하여, 불승과 대결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는다. 자신의 비범함과 신이가 드러난 후 스스로 시례호박소 등으로 이주한 이무기는 그곳에서 비를 내려주는 용신과, 가뭄 또는 벼락을 주는 팡철이의 양가적 신성으로 잠행을 거듭한다. 이는 사찰이 들어서면서 불승의 도력에 의해 그곳 용소에 살던 용들이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는 ‘통도사(구룡곡 전설)’ 유형의 창사전설들과도 다르다. 이렇게 현지 구비전설의 이무기는 ‘보양이목’ 기사의 이목과 차이가 있으며, 승僧과 용龍의 대립관계를 근간으로 한 창사전설들과도 흥미로운 동이同異를 보여 준다. 무엇보다 ‘이무기’의 명명과 신분, 신성의 우열, 양자의 대립구조가 차이의 핵심이다. 이는 기우제 및 이무기 신앙이 강했던 이 지역의 종교문화적 전통, 또는 태조의 비보사찰로서 운문사가 이 지역에서 경영했던 방대한 사원전寺院田의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사전寺傳과 현지 구전의 향전鄉傳이 보여 주는 대립 및 혼효의 양상은 외래용과 재래용, 또는 불교신앙과 용신신앙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雲門寺誌,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1990),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의 전승론적 검토(천혜숙, 동계성병희박사학위논문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운문사 주변 이무기전승의 실제와 지역사적 맥락(천혜숙, 실천민속학연구29, 실천민속학회, 2017), 한국용신창사설화의 역사민속학적 연구(이준근, 문현, 2010).

필자 천혜숙(千惠淑)

올돌목

구기자의 효험을 본 노인이 전라남도 진도군의 망적산 봉우리에 있는 용샘과 올돌목을 뚫어 홍수를 면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전설.

내용

아주 먼 옛날에 진도읍 망적산에서 커다란 청룡 한 마리가 승천하였는데, 용이 승천한 샘에서 물길의 솟아올라 남녘의 산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물이 수십 일 동안 계속해서 솟구쳐 망적산 남쪽 들녘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뿔감을 구하려고 뒷산으로 갔다가 하늘도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용샘에서 솟구치는 물길을 잡으려면 용샘을 오직 도굿대(절굿공이)로 절구통에 보리쌀 찜뚱이 힘껏 쳐서 뚫어야 한다는 말을 듣

게 되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용샘물은 바다로 나가게 되어 물길도 잡히고, 앞으로 망적산 남녘에는 진도 전역을 호령할 커다란 읍성도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이 시름에 잠겼는데 육지 장사 세 명이 용샘을 뚫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육지 장사들도 3일 만에 실패하고 몰래 도망을 가 버렸다.

며칠 후 망적산 남쪽 기슭에 있는 구기자골에 사는 70대 노인이 도곳대로 용샘을 뚫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33일째 되는 날 울돌목까지 구멍을 뚫어 온 바다에 물이 치솟았고 드디어 물길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용샘에 도곳대를 놓으면 사흘 만에 울돌목 바다로 나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여 노인을 따라가 보니, 노인은 수백 년 묵은 구기자나무로 집을 짓고, 구기자 열매와 구기자 뿌리에서 나온 물만 마시면서 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구기자의 효험이 알려졌고, 망적산 아래에는 진도읍성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용샘과 울돌목 전설> 혹은 <망적산 용샘 전설> 등으로 전하나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특징 및 의의

<울돌목 전설>은 특정한 지역이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결점이 해소되고 나아가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좋은 땅으로 변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점을 해소하는 일이 특정 식물의 효험 덕분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지역이 결점을 해소하면 명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지역 특산물인 결점 해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역 특산품의 위상을 높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옥주의 열(진도문화원, 1982), 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4), 호남의 전통문화론(박만규·나경수, 전남대학교출판부, 1999), 디지털진도문화대전(jindo.grandculture.net).
필자 박종오(朴宗吾)

원성대왕

元聖大王

신라의 용들과 관련된 원성대왕元聖大王의 등극과 치적에 관한 설화.

개관

김경신金敬信은 자신보다 왕위 계승에 앞서 있던 김주원金周元을 제치고 785년에 성덕왕聖德王을 이어 신라 제38대 원성대왕이 되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그의 치세 동안 중앙 귀족들의 내분으로 불안정하였기에, 원성대왕은 내치와 외교 및 불교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원성대왕조元聖大王

條에서는 호국룡과 관련된 다양한 왕의 일화를 전하며, 신라 하대를 개척한 왕으로서 그의 업적과 신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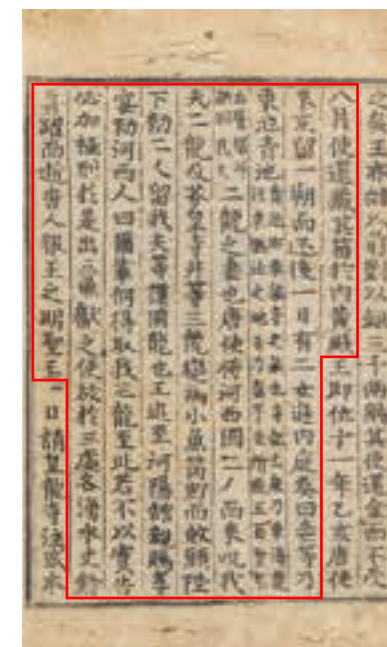
내용

김경신은 왕이 되기 전 재상인 이찬 김주원보다 아랫자리인 각간이었다. 어느 날 그는 꿈에서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열두 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天官寺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점치는 사람이 ‘벼슬을 잃고서 칼을 쓰고 감옥에 갈 조짐’이라고 하여 근심하였다. 그때 여삼餘三이 와서 복두를 벗는 것은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흰 갓은 면류관을 쓸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에 들어가는 것은 궁궐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열두 줄 가야금은 12대손까지 왕위가 전해짐을 의미한다고 해몽하였다. 김경신이 여삼에게 자기 위에 김주원이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묻자 여삼이 북천신北川神에게 몰래 제사를 드리라고 하여 그 말을 따랐다. 이후 선덕왕이 죽고 주원을 왕으로 맞이하려 하였을 때 갑자기 홍수로 북천의 물이 불어나 그가 건너오지 못하자, 경신은 궁궐에 먼저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

원성왕이 즉위하자 아버지인 효양孝讓이 만파식적萬波息箝을 왕에게 전하였다. 일본 왕 문경이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어 군사를 물리친다는 소문을 듣고 황금 50냥과 피리를 바꾸자고 하였다. 왕은 진평왕 시대에 있던 신물이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으나, 문경은 다음 해에도 사신을 보내 황금 1,000냥을 주며 보기만 하겠다고 하였다. 왕은 거절하였고, 피리를 내황전內黃殿에 보관하였다.

왕위에 오른 지 11년 되던 해에 당나라 사신이 경주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하루는 두 여인이 궁궐 안뜰에 와서 자신들은 동지東池와 청지靑池에 사는 두 용의 아내라며 말을 이어 갔다.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남편인 두 용과 분황사 우물에 살던 용에게 주문을 걸어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한 후 통 속에 넣어 가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왕이 사신을 쫓아내고 연회를 베풀며 하서국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 세 마리 물고기를 바치게 하였다. 물고기들을 세 곳에 놓아 주었더니 이들이 물속에서 한 길이나 솟아오르며 기뻐하며 사라졌다. 이에 당나라 사람들이 왕의 명철함에 탄복하였다.

또 어느 날 왕이 황룡사의 승려 지해智海를 대궐



당 사신이 몰래 붙잡아 가는 호국 삼룡을 원성왕이 천히 되찾아 오다 | 삼국유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로 청해 50일 동안 화엄경을 외게 하였는데, 어린 중 묘정妙正이 매일 금광정金光井에서 바리때를 씻으며 자라 한 마리에게 남은 밥을 주었다. 범석法席이 끝날 무렵 묘정이 자라에게 자기 은덕을 무엇으로 갚겠냐고 말하자 며칠 후 자라가 입으로 구슬 한 개를 주었다. 묘정이 구슬을 허리며 끝에 달자 대왕이 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당나라에 갈 사신도 묘정을 아껴서 왕에게 청하여 당나라로 데려가자 황제도 묘정을 총애하였으며 모든 관료가 묘정을 존경하고 신뢰하였다. 관상가가 묘정이 길한 상이 아닌데도 사랑받으니 분명 이상한 물건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여 황제가 살피도록 하니 작은 구슬이 나왔다. 황제는 자기가 잃어버린 여의주라며 구슬을 잃어버린 날과 묘정이 얻은 날을 맞춰 보았더니 똑 같았다. 황제는 구슬을 빼앗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묘정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않았다.

특징 및 의의

신라의 신화에서 우물은 박혁거세와 알영이 태어난 곳이며 수신인 용이 교통하는 곳으로, 꿈속에서 우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이 될 운명으로 해몽된다. 원성왕은 꿈을 이루기 위해 북천신에게 제사를 드려 강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왕위 계승의 유력한 후보였던 김주원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데, 이로 미루어 북천신은 수신인 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권능에 힘입은 김경신은 신라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만파식적은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文武王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神文王에게 내려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로, 용이 신문왕에게 이르기를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날씨가 평안해진다.”고 하여 피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만파식적은 통일 과업을 이룬 선대의 가호이며 소리로써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보배인데, 이를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원성왕은 중대 왕권의 계승자로 부상한다. 이 일화를 통해 왕은 <신공사녀가身空詞腦歌>를 지었다고 할 만큼 음악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자 하였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물리치며 신물을 수호하는 정치적 능력을 보였다.

신라 상대나 중대에서 상상되는 장엄한 호국룡과 달리 원성왕 때의 용들은 당나라 사신들과 하서국 사람들에 의해 저주받아 작은 물고기로 변하게 되었고 이후 납치된다. 하서국(현재의 강원도 강릉)의 두 명이 배신하여 중국 사신들에게 용을 넘긴 것은 왕의 정적이던 김주원이 하서국으로 물러난 후 그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은 위축된 용을 다시 솟구치게 함으로써 왕권 수호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재하게 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원성대왕 설화 속에서 용과 관련된 상상은 신라 왕권의 정통성과 왕권 수호의 의지를 보여 준다. 또한 왕은 용을 매개로 국제적·불교적인 다양한 세계와 신이하게 교통하면서 탁월한 능력과 신성한 위엄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삼국유사 속 용 서사에 나타난 문화충돌과 문화적 공존에 대한 고찰(표정옥, 공준의 인간학10,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3), 삼국유사 원성대왕조의 원성왕 형상(박성혜, 동방문화비교연구7, 동방비교연구회, 2017), 한·일 용사 설화의 비교 연구(이경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홍나래(洪나래)

잉어의 보은

잉어로 변신한 용왕 또는 용왕의 아들이나 손자를 살려 주고 보은을 받는다는 내용의 신이담 형태의 설화.

내용

숫장수가 낚시를 하여 큰 잉어를 잡았지만, 불쌍해 보여 도로 놓아 준다. 어느 날 잉어가 다시 나타나 숫장수를 용궁으로 데려간다. 잉어는 용왕의 아들이며 용왕이 아들을 구해 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숫장수를 용궁으로 초청한 것이다. 용왕의 아들은 아버지가 숫장수에게 선물을 줄 것을 미리 알고, “다른 선물에는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말한 것만을 선택하라.”고 숫장수에게 일러 준다. 숫장수는 용왕의 아들이 말한 대로 근사해 보이는 많은 보물을 놔두고 작은 반지만을 달라고 한다. 처음에 망설이던 용왕은 결국 숫장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지를 선물하였고, 숫장수는 인간세계로 돌아와 반지 안에 있던 용왕의 딸과 결혼하여 잘 살았다.

이 설화는 주인공이 보은을 받은 뒤 그 후손들이 잉어를 먹지 않게 되었다는 특정 가문의 전설이나, 보답으로 독이나 강이 만들어졌다는 지명 유래담으로 변한 예도 있다.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이나 <해인사연기설화>가 대표적인 변이형이다.

특징 및 의의

잉어는 용의 유형에 들기 때문에 출세·귀함·효도를 상징한다. 용을 도와주어 그 보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史』 권2 진성여대왕거타지조와 『고려사高麗史』 서문에 실린 <작제건설화> 이래로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또한 이 설화는 범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아시아 일대에서 많은 자료가 보고되었다. 중국에는 거북 또는 자라가 등장하여 보은으로 생명을 구해 주는 이야기가 많고, 몽골이나 일본의 이야기에는 잉어 대신 뱀이 등장한다.

참고문헌 동물 보은담에 갈무리된 공생적 동물인식과 생태학적 자연관(임재해, 구비문학연구1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4), 용궁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이동철, 비교민속학28, 비교민속학회, 2005).

필자 김정경(金靜京)

작제건설화

作帝建設話

고려 태조 왕건의 조부 작제건에 관한 설화.

역사 『고려사高麗史』 고려세계高麗世系에 실려 있는 태조 왕건王建 선조 6대의 이야기인 ‘고려국조신화高麗國祖神話’ 가운데 왕건의 조부에 관한 설화이다. 이 설화에는 ‘두 신격의 싸움에 끼여든 인간 영웅 이야기’와 ‘용녀교혼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거타지설화居陀知說話>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대개는 <거타지설화>의 영향으로 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거타지설화> 속의 진성여왕 대(887~897)와 <작제건설화作帝建設話> 속의 당唐 숙종肅宗(711~762)의 시대적 간극,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찬술(1281~1283)과 고려세계 원전자료인 『편년통록編年通錄』의 제작(1162~1164)의 시대적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후자가 더 앞선다는 견해도 있다.

내용 당 숙종이 잠저 시 송악 보육育의 집에 한 달간 머무를 때 그의 딸 진의辰義와 동침하였다. 숙종은 집을 떠날 때 자기를 ‘대당 귀성貴姓 출신’이라 하면서 “남아를 낳으면 이 활과 화살을 주라.”고 하였다. 그 후 진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작제건作帝建이라 하였다. 작제건은 어려서 총명하고 용력이 신과 같았다. 나이 대여섯에 모친에게 부친이 누구인지 물으니, 모친은 단지 ‘중국인唐人’이라 대답하였다. 자라서 육례와 글씨, 활 솜씨가 뛰어났다. 16세에 모친은 부친이 남긴 활과 화살을 주었고, 그가 이것을 쏘니 백발백중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신궁이라 하였다.

그는 부친을 만나려고 장삿배를 탔는데, 가는 도중 사방에 운무雲霧가 끼면서 배가 3일간 나아가지 못하였다. 뱃사람들이 점을 치더니 ‘고려인을 없애야 한다.’고 하므로, 그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거기에 바윗돌이 있어 그가 서게 되었고, 안개가 개면서 배가 빨리 나아갔다. 잠시 후 노인이 나타나 “나는 서해용왕이다. 항상 석양 무렵에 늙은 여우가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일월성신을 벌려 놓은 뒤 나각을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면서 웅중경腫腫經을 읽으면 내 머리가 아프다. 그대는 활을 잘 쏘니 나의 괴로움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여 그가 허락하였다. 때가 되자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북쪽에서 누가 오는데, 그는 진짜 여래로 여겨 감히 활을 쏘지 못하였다. 노인(용왕)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그가 바로 늙은 여우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작제건이 활을 쏘아 맞히자 늙은 여우가 떨어졌다.

용왕이 그를 궁궐로 맞아들여 사례하며 “그대 덕분에 내 근심이 사라졌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 서쪽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천자인 부친을 만나겠는가? (아니면) 칠보를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 모친을 받들겠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제 소원은 동쪽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용왕은 “그것은 그대의 자손 삼건三建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작제건은 ‘용녀와의 혼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용왕은 딸 저민의纈旻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용녀의 조언으로 용왕에게서 양장楊杖과 돼지를 얻었다. 이후 그가 배를 타고 귀국하는데 순식간에 창릉굴 앞 강가에 닿았다. 백주정조白州正朝 유상희 등이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를 맞이하였고, 또 영안성을 쌓고 궁궐을 지어 주었다. 용녀는 개주 동북쪽 산기슭에 우물을 판고, 거기서 1년을 살았다. 그런데 돼지가 우리에게 들어가자 용녀는 “네가 가는 곳을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돼지가 송악 남쪽 기슭에 드러누운 곳에 새집을 지으니, 강충의 옛집이었다. 작제건은 30여 년간 그곳과 영안성을 오가며 살았다. 용녀는 새집 곁에 우물을 파고 용궁을 왕래하였는데, 그에게 용궁에 들어갈 때 엿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를 어겨 몰래 엿보자, 용녀는 부부의 신의를 어겼다면서 딸과 함께 황룡이 되어 서해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작제건은 만년에 속리산의 장갑사에 들어가 살며 불경을 읽다가 죽었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수용되어 ‘백룡이 흑룡과의 싸움에서 도조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도조가 흑룡을 활로 퇴치하자 그 자손의 경사를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도조이야기’로 재현된다. 그리고 이 ‘도조이야기’는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 <적지전설>로 정착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지역전설로 전해진다. 또한 <작제건설화>는 한문단편 <왕수제취득용녀설王秀才取得龍女說>로 재창작되었으며, 근자에는 1937년에 채록된 제주도 <군웅본풀이>에 ‘군웅신의 내력담’으로 서사화된다.

고려국조신화는 12세기 의종 대 왕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치적 의도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건국신화보다는 신화가 지니는 ‘신성성’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니, 작제건 역시 건국신화의 주인공과 같은 ‘영웅적 일대기’를 온전히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 천자의 자손이라는 ‘고귀한 혈통’을 가지며, 활쏘기가 탁월한 데다 총명하고 육례를 겸비하고 글쓰기에도 뛰어나다는 등 ‘문무겸전의 중세적 영웅성’을 새롭게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설화의 중심 내용은 ‘용과 늙은 여우의 다툼에 끼어들어 여우를 퇴치한다.’는 것과 ‘그 보답으로 용녀와 혼인한다.’는 것인데, 전자는 ‘치소차지 경쟁’ 신화소로서 우리의 전통 서사문학에 두루 나타나며, 후자는 고려 역대 왕들이 지닌 혈통의 신성성을 보장하는 ‘용손설’의 근간이 된다. 아울러 이 설화에는 다양한 설화적 요소가 있어서, 전통 서사와 민간신앙의 교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홀로 태어난 아들이 부친이 남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부친을 찾으러 간다.’는 ‘심부담(審父譚) 화소는 고구려 <유리왕설화>에 나오고, ‘돼지가 작제 건의 집터를 잡아 준다.’는 내용은 고구려 유리왕 기사에도 보이며, ‘용녀가 우물에 들어가면서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금기’ 화소는 문헌 및 구전설화에 두루 보인다.

참고문헌 高麗史, 고려국조신화(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고려국조신화 고려세계에 대한 신고찰(이강욱, 한국학보48, 일지사, 1987), 고려세계에 나타나는 신라계 설화와 편년통록의 편찬의도(허인욱, 사총5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3), 고려세계의 서사 구성방식과 그 의미(이지영, 동아시아고대학4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한문단편소설 왕수재취득용녀설의 서사적 특징(권혁명, 동양고전연구75, 동양고전학회, 2019).

필자 이지영(李志暎)

주몽신화

朱蒙神話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의 탄생과 건국에 얽힌 신화.

내용 줄거리

주몽은 해모수와 유화의 아들로 출생한다. 천제가 태자 해모수를 부여의 옛 도읍지로 보낸다. 옛 도읍지는 천제의 명에 따라 동해 가섭원으로 나라를 옮겨 동부여를 세운 부루왕의 땅이었다. 오룡거에 탄 해모수는 고니를 탄 100여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하강하였는데, 머리에는 까마귀 깃으로 만든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차고 있었다.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천왕랑’이라고 불렀다. 해모수는 웅심연 물가에 놀러 나온 하백의 세 딸을 아름다운 구리집으로 유혹하여 그 가운데 맏이인 유화와 억지로 통정한다. 해모수가 용수레를 따라 하백의 나라에 이르러 유화와 혼인을 요청한다. 해모수와 혼인할 때 패한 하백은 혼인을 허락한 뒤 해모수가 유화를 버리고 갈까 걱정하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둘을 함께 가죽수레에 넣어 용수레에 싣는다. 하지만 술이 깬 해모수는 유화의 금비녀로 가죽수레를 뚫고 홀로 승천한다. 하백이 크게 노하여 유화를 우발수로 추방한다.

유화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 동부여의 금와왕에게 갔는데, 금와왕은 유화가

천자의 비녀라는 걸 알고 별궁에 둔다. 그 뒤 유화는 햇빛이 몸을 비추어 임신을 하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큰 알을 낳는다. 왕이 알을 버렸으나 우마(牛馬)가 피해 가고 새가 깃으로 품어 어쩔 수 없이 유화에게 돌려주었더니 마침내 한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나온다. 한 달이 지나 말을 하였는데,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백발백중으로 파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성장하면서 금와왕의 일곱 아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항상 질시를 받는다. 그래서 주몽은 유화가 준비해 준 준마를 타고 세 벼과 더불어 동부여를 떠난다. 압록강 동북쪽 엄체수에 이르러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천자의 손자, 하백의 외손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말하면서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뒤쫓는 군사들을 따돌리고 무사히 강을 건넌다. 졸본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뒤 비류왕 송양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한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에 하늘에 올라간 뒤 내려오지 않아서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龍山)에 묻고 장사를 지낸다.

분석

주몽은 동부여 금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때문에 동부여를 떠나 남하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운 뒤 비류국을 점령하는 등 점차 세력을 키워 간 인물이다. 그러나 주몽의 신화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주몽의 혈통과 능력을 신화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여계 민족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천신의 권위와 혈통을 끌어들인다. 주몽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를 아버지 지로 삼는다. 해씨는 주몽의 성인 고씨와 혈통이 다른 고구려 지배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주몽이 해모수의 아들이 된 것은 천제의 권위와 해씨 집단의 힘을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몽은 해모수만이 아니라 하백계 집단도 끌어들인다. 왕의 시비가 빛에 의해 임신을 한다는 부여계 전승이 있지만, 유화는 단지 시비가 아니라 하백의 딸로 자리매김되어 압록강의 수신을 숭배하는 또 하나의 세력을 신화를 통해 통합한다. 천신과 지신(수신)의 결합에 의해 건국주가 탄생하였다는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특징 및 의의

<주몽신화>는 다른 건국신화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신계 집단이 드러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와 유화의 아버지 하백 집단이 그들이다. 하백은 압록강의 신으로 수신이다. 동부여의 금와왕 탄생신화, 연개소문의 탄생담이나 그 아들들의 묘지명에도 수신신화의 특징과 흔적이 나타난다.

또 하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북방계 유목민들이 정착민이 되고 농업생산을 시작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신화로서의 의의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舊三國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동아시아 건국 신화의 역사와 논리(조현설, 문학과지성사, 2003),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高)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가난한 남성이 지네 여인과 살다가 신의를 지키고,
 그 남성의 도움으로 지네 여인은 승천하거나 사람이 된다는 내용의 민담.

내용 처자식을 부양하기 어려운 한 남자가 죽으려고 산에 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그에게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남자는 여인을 따라가 산속 여인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다. 그런데 남자는 가족이 걱정되어서(혹은 부친의 제삿날이 다가와서) 자기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여인은 처음에 가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그러나 남자가 계속 가고 싶다고 하자, 여인은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오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당부하였다.

남자는 자기 집에 들렀다가, 여인의 도움으로 식구들이 부유하게 잘살고 있음을 알았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은 조상을 만났다. 죽은 조상은 여인의 정체가 지네라는 것과 함께 여인을 처치해야 살 수 있다면서, 그 방법으로 “담배 찹(밥알)을 뱉으라.”라고 하였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 과연 여인이 지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하여 죽이기를 단념하였다. 여인이 남자에게 사례하면서 “당신이 오는 도중에 만난 조상은 사실은 구렁이로 나와 승천 경쟁을 하는데, 당신 덕에 내가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지네 여인은 승천하지만, 구렁이는 승천하지 못하거나 죽는다. 남자는 지네 여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

이 설화는 ‘이물異物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으로 변신한 뒤 승천하거나 혹은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된 관심은 이물교혼(이물교구)의 측면에서 신성성의 발현과 그 의미의 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아가 변신설화의 틀에서 이물의 변신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려고도 한다. 또한 이 설화 속의 이물이 구렁이와 지네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용사설화龍蛇說話’ 혹은 ‘사신설화蛇神說話’로 간주해 하위 유형별 특징을 밝히면서, 전체 용사설화의 관계들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명하려는 작업도 벌인다. 이 밖에 이 설화의 방대한 자료를 채록하여 지역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추출한 뒤 이를 지리 환경에 따른 변이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설화는 대립하는 짝으로 ‘지네(여)와 구렁이(남)’를 설정한 예가 보통이다. 그런데 자료의 통계로 보아, 구렁이가 지네보다 등장 횟수가 더 많다. 곧 여성을 신격으로 설정하였을 때 구렁이 여성이 지네 여성보다 더 빈도수가 많으며, 남성을 신격화하였을 때도 구렁이 남성이 지네 남성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구렁이가 지네보다 원형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용사신격龍蛇神格은 ‘용—이무기—구렁이—지네’의 과정을 겪으며 변모한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덕’을 쌓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용사설화에는 용이나 구렁이가 승천을 위하여 여의주를 구할 때, 더러는 여성과 성적인 접촉이나 결합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활인의 덕’이 승천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경쟁이 강조되고, 지네 여인이 ‘가난한 남성을 몰래 도와 부유하게 한 것’ 때문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음이 강조된다. 따라서 구렁이의 승천 자체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먹여 살리는 ‘인간의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야기의 결말에는 승천을 도운 대가로 지네 여인이 승천하면서 재물을 남기거나 비를 내리면서 들판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인간 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네의 승천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는 비록 지네라는 이물異物이지만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가난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던 자신을 도와준 여인’에게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과 잠시나마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았다는 인간적인 유대감 내지 신뢰(믿음)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부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가 드러난다. 특히 지네와 승천 경쟁을 하는 반대편 이물인 구렁이가 남성의 ‘죽은 조상(혹은 그의 친구)’으로 변신하여 지네 여인을 죽이는 방법을 일러 주지만, 남성은 조상의 말을 거역하면서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아내였던 지네 여인을 죽이지 않는다. 이는 수직적 부자유리 및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의 변환을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이물교혼설화, 변신설화 그리고 용사설화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용사설화(혹은 사신설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수신계 신격인 용과 이무기는 점차 구렁이·지네·거미 따위로 변모하며, 이들은 자력自力으로 승천하다가 신성성의 쇠퇴화 추세에 따라 타력他力으로 승천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은 용사설화의 전승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설화로서, 지네 여인이 인간 남성과 접촉하고, 그의 도움을 통하여 승천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지네처녀설화(이지영,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이물교구설화연구(라인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지네 여인 변신설화의 지역성과 전승양상(심민호,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지네각시 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김정석, 민족문화16, 민족문화추진회, 1993).
필자 이지영(李志映)

창녕조씨 시조신화

昌寧曹氏始祖神話

창녕조씨 시조인 조계룡(曹繼龍)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특성(得姓)에 관한 신화.

내용 <창녕조씨 시조신화(昌寧曹氏始祖神話)>는 여느 시조신화에 비해 시조 조계룡의 신이한 탄생 과정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창녕조씨 족보를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창녕조씨충간공파보(昌寧曹氏忠簡公派譜)』 『창녕조씨장양공파보(昌寧曹氏莊襄公派譜)』 『창녕조씨시중공파보(昌寧曹氏侍中公派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인 예향(禮香)이 청룡(靑龍)을 얻어 화왕산에 있는 용담에서 목욕하다가 청룡의 아들 옥결(玉珖)과 만났다. 그리고 계룡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옆구리 밑에 ‘조(曹)’ 자가 새겨져 있는지라 성을 조씨(曹氏)라 하였다고 한다. 또 세속에 전해 내려오는 바로는 조씨의 시조모 예향은 나면서부터 복질(腹疾)이 있어 고생하던 중 어떤 사람이 화왕산에 있는 못이 매우 영험하니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말에 길일을 택하여 못으로 올라가 목욕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속에서 운무가 자욱하게 솟아올라 컴컴해지며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잠시 후에 운무가 개면서 예향은 못 속에서 솟아 나왔다. 그 뒤로 병이 씻은 듯이 나온 동시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다. 꿈에 장부가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화왕산 큰 연못의 신통(神龍)의 아들 옥결인데, 내가 아이의 아버지이다. 아이를 잘 기르면 공후에서 경상에 이르기까지 자손만대가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버지 한림학사 이광옥이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니, 왕은 자세히 듣고서 ‘조계룡’이라는 성명을 주었다. 장성하여 진평왕의 사위가 되고 창성부원군으로 봉해졌는데, 이 사람이 창녕조씨의 시조라고 한다.

<창녕조씨 시조신화>는 시조인 조계룡의 탄생과 특성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화의 핵심은 시조의 신비로운 탄생으로, 시조가 예향과 신통인 옥결과의 교구(交媾)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 신이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옆구리 밑에 ‘조’ 자가 새겨져 있어 이를 성으로 삼은 것은 남평문씨(南平文氏) 시조가 석함에 ‘문’ 자가 새겨져 이를 성으로 삼은 것과 같다. 또한 ‘조계룡’이라는 성명을 통해 용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씨족집단이 새롭게 출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이 신화는 용지(龍池)와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과 용의 교혼으로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난 뒤 특출한 인물이 되어 이후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시조의 부모는 인간과 이류인 동물로 여성과 남성의 이원적 대립구조를 가진다. 시조를 출산한 여성은 물·대지·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관장하는 지모신이며, 이류인 남성은 수부신이다. 이들 지모신과 수부신의 결합으로 시조가 출생하는 신화구조를 보여 준다.

참고문헌 昌寧曹氏侍中公派譜, 昌寧曹氏莊襄公派譜, 昌寧曹氏忠簡公派譜, 창녕조씨 시조신화 연구(서해숙,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화회, 2002),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성씨대관(최덕교·이승우, 창조사, 1971),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한국인의 족보(한국인의 족보편찬위원회, 일신각, 1977).
필자 서해숙(徐海淑)

처용

處容

동해 용의 아들로 신라 왕정을 보좌하다가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물리치고 문신(門神)이 된 처용에 관한 설화.

역사

신라 49대 헌강왕(재위 875~886) 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879년(헌강왕 5)에 생김새와 옷차림이 괴이한 사람 넷이 왕 앞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1 「신라본기(新羅本紀) 헌강왕조의 기록이 이 설화와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의 사서와 문집에 처용희(處容戲)나 처용무(處容舞)에 관한 기록들이 나오고, 조선 초에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악장가사(樂章歌詞)』에 고려의 <처용가(處容歌)>가 실려 있다.

내용

줄거리

헌강왕이 울산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일관(日官)이 동해 용의 변고(邊古)라고 아뢰니 용을 위해 절[망해사(望海寺) 혹은 신방사(新房寺)]를 짓도록 명하였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동해 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추고 연주하였다. 그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와서 왕정을 보좌하였다. 왕이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緞干) 벼슬을 주어 머물도록 하였다. 그런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장면을 목격한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물러났다. 이때 부른 노래가 <처용가>이다. 그러자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 꿇으며, 이후로 처용의 모습을 그린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에 나라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고 경사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변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내용이 울산의 <처용암전설>로 전승되었다. 또 제주도에 서는 역신이 용신龍神인 처용에게 굴복하였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영덕 앞바다에 흑룡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자 무술이 뛰어난 처용랑이 퇴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신라 헌강왕 대 성립되어 후대 처용회·처용무 공연의 서사 내용을 이룬다. 벽사진경의 의미를 지닌 채 오랜 시간 전승된 전통 연희의 하나로 문학적·민속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처용가>의 배경설화이기도 하며, 노래의 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설화의 극적 긴장감을 높여 준다. 또한 울산의 처용암과 결부된 전설적 성격도 띠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고려 처용가의 처용랑 망해사조 재해석과 벽사진경의 원리(정운채, 고전문학연구13, 한국고전학회, 1998), 삼국유사 소재 처용설화의 일문석(이우성,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처용가와 관련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처용가의 무속적 고찰(서대석, 한국 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처용설화의 연구(장주근, 한국어교육6, 한국어교육학회, 1963), 처용설화의 일고찰(이용범, 진단학보32, 진단학회, 1969).

필자 신재홍(申載弘)

통도사

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통도사通度寺의 창건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

내용 **줄거리**

자장慈藏이 중국 오대산 문수대성의 소상 앞에서 수도할 때 꿈에서 소상이 자장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계를 주었다. 이튿날 이승異僧이 나타나 자장에게 계송을 풀이해 주고 가사와 사리를 주었다. 태화지太和池에서 신인이 나타나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고 사리를 모시면 외적의 침입을 막으리라 하였다. 신인은 황룡사 호법룡이 자신의 장자라면서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주면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자장은 다시 중남산 운제사에 가서 3년 동안 수도하였다. 646년에 선덕여왕이 당 태종에게 자장의 귀국을 요청하였다. 자장은 분황사에 살면서 왕의 애호를 받았다. 자장은 황룡사 구층탑을 세우고 중국 오대산에서 가져온 사리를 황룡사 구층탑, 대화사탑, 통도사 계단에 나누어 모셨다. 또한 자장은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계를 주면서 불법을 융성하게 하였다. 승려가 되려는 자가 해마다 늘어 통도사를 세우고 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 경남 양산 | 2015 | 문화재청

변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위의 설화는 「탑상塔像」 황룡사구층탑조와 「의해義解」 자장정물조의 이야기를 결합한 통도사 창건의 연기설화緣起說話이다. 자장의 전기를 구성하는 와중에 통도사 창건담이 끼어들어 간 형국이다. 1328년에 석호釋瑠가 기록한 『통도사지通度寺誌』의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裝事蹟略錄」에는 서해의 용이 용궁으로 자장을 청해 용궁의 보배인 자단압침을 바치면서, 절을 지어 사리를 봉안하면 탑을 돌며 호법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범승이 자장에게 취서산(영취산) 아래의 독룡지毒龍池를 메우고 금강단을 쌓아 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三災를 면하고 불법이 오래 머물며 천룡天龍이 항상 옹호할 것이라 하였다. 앞선 줄거리의 중국 태화지의 용이 서해의 용으로 바뀌고, 독룡의 피해를 막아 백성을 구하고 불법을 지키는 것으로 통도사의 창사 연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헌설화들을 수용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구술되던 용신 모티프들을 첨가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현전하는 구비설화는 자장과 용이 대결해 결국 독룡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불법을 설함으로써 용을 굴복시키는 것과는 다른 면모라 하겠다.

분석

이 설화는 고승의 전기가 사찰 연기설화로 확장되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서사물이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면서 승려가 되고자 하는 백성들을 받아들여 통도사를 창건하였다는 <자장전(慈藏傳)>의 짧은 이야기는 통도사의 기록 속에 독룡을 진압하는 과정으로 흥미롭게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재래신앙이라 할 용신앙이 불교신앙과 대결하여 결국 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잘 보여 주는 설화가 <통도사연기설화>이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승전(僧傳)과 사지(寺誌), 민간설화가 뒤섞이면서 용신신앙과 불교신앙 사이의 교섭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변이 양상을 다양하게 보여 주면서 통도사의 창건 유래를 흥미롭게 전하고 있는데, 신앙 체계의 변화와 불교사를 살피는 데 그 의의가 깊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용신창사설화의 형성과 의미(이준곤,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통도사지(한국학문화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83),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오대혁(吳大赫)

형산강

兄山江

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시를 흘러 동해로 들어가는 형산강에 얽힌 설화.

내용 줄거리

옛날 포항과 경주 사이에 형제산이 있었다. 형제산 때문에 남천·북천·기계천의 강물이 모여서 큰 호수를 이루었고, 장마가 지면 항상 범람하여 경주까지 피해를 줬다. 김부대왕(경순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신라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순왕이 사관에게 점을 보게 하였고, 사관은 동쪽의 임정현(현 안강·포항 지역)에서 왕위를 위협하는 역적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역적을 막기 위해서는 안강호수의 물을 영일만의 어룡사(漁龍沙)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형제산의 단맥을 위해서 경순왕은 하늘에 올라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종묘사직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땅에서는 태자가 천지신명께 기도하였는데, 태자는 기도 끝에 큰 뱀이 되었다. 태자가 용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를 용으로 불러 주어야만 하였다. 태자가 길가에 누워 누군가가 용이라 불러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들 그를 보고 큰 뱀이라 부르며 겁을 먹었다. 마침 한 노파가 손자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손자가 태자에게 용이라고 불렀다. 태자는 뱀을 용으로 불러 준 아이에게 안강호수의 물이 빠진 땅을 주고 그 땅을 아이

의 이름을 따 '유금이들'이라고 불렀다. 한편 형제산은 형산(兄山)과 제산(弟山)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강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강을 '형산강'이라고 하였다.

변이

<용이 된 김부대왕> 이야기는 김부대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왜적을 막았다는 내용으로, 구룡포의 지명유래와 관련 있는 전설이다. 왕이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안전을 도모해 주었다는 이러한 내용은 신라 문무왕의 <호국룡설화>와 비슷하다. 다음은 김부대왕이 죽은 후에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꼬리로 산을 치고 물길을 터 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그 들을 '안강들' 또는 '안강 양살매기'라고 불렀다. 또 다른 유형은 김부대왕이 죽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회용바위'라고 부른다는 내용이다.

분석

신격화한 이야기에서 용과 인간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이다. 용은 그의 신격을 수용하여 숭배하는 인간에게는 신력을 행사하여 복락을 내리고,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인간에게는 무서운 재앙을 내린다. 이 전설은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뱀을 신격으로 수용하고 용의 위력을 나타냄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을 공통 내용으로 취하고 있다. 김부대왕이 용이 되어 물길을 트고 승천한다는 기본적인 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된 내용이 왜적을 물리친 이야기, 바다를 풍요롭게 만든 이야기, 지형지물을 바꾸어 옥토로 만든 이야기와 같이 강·바다·바위를 결부시켜 생성 과정을 이야기한다.

특징 및 의의 이 전설은 그 신성성이 많이 희석되어 전설로 존재하지만, 김부대왕은 고려 말부터 '기복신앙'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속신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이야기가 포항 지역의 신화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실의 고난에 대한 강렬한 극복 의지와 풍요를 추구하려는 설화 향유층의 의식도 잘 보여 준다.

참고문헌 영일군사(영일군사편찬위원회, 1990), 포항마을의 유래와 전설(포항문화원, 2002), 포항지역 구전설화의 유형과 의미(김윤규, 국어교육연구43, 국어교육학회, 2008), 포항지역 설화 연구(최무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구한(金求漢)

혜통 惠通

무외에게 신묘한 신법을 배우고 신라로 돌아와 많은 신통력을 부린
신라 중기의 승려인 혜통과 관련된 전설.

내용 혜통惠通이 어려서 냇가에서 수달을 잡아 죽이고 마당에 버렸는데, 이튿날 찾아가 보니 그 뼈가 수달이 살던 굴속에 들어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크게 느끼어 출가하였다. 당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온 무의삼장으로부터 밀교를 전수받았다. 그때 당 고종의 공주가 병이 들자 콩으로 군사를 만들어 교룡을 퇴치하여 병을 고쳐 주었다. 이후 교룡이 신라로 도망쳐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정공을 통해 알고 귀국하여 교룡을 퇴치하였다. 그러자 교룡은 버드나무로 변신하여 정공이 처형당하게 만들었다. 혜통도 그로 인하여 의심을 받았으나 신통력으로 살아났고, 효소왕의 공주를 낫게 하여 국사로 봉해졌다. 한편 혜통에게 패하여 기장산으로 들어가 곰 신령이 된 교룡은 그곳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혜통이 이곳에 와 살생을 금하라고 타이르며 계울을 주자 용의 피해가 없어졌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이 설화는 혜통이 당나라로부터 밀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에서 불교사 측면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가 콩으로 군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모티프는 식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인류 기원 신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교 신화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혜통의 행적은 전통 용신앙에 대한 불교의 우위 구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도는 용신이 불교와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금갑설화>나 <거타지설화>와 구별된다. 혜통의 행적에 보이는 용신에 대한 불교 우위의 구도는 용신이 스스로 불도에 귀의하여 보요선사, 명랑법사, 보양법사, 진표율사와 같은 고승들에게 호법신으로 봉사하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한편 콩으로 군사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모티프는 인간을 창조한 절대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삼국유사 신주편을 통해 본 토속신앙의 향방(신태수,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2005), 삼국유사 용신설화의 유형과 작품양상(박진태, 고전문학과 교육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삼국유사 혜통함룡조의 검토(노중국,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신라 중대 왕권과 밀교(이세호, 동국사학49, 동국사학회, 2010), 인류의 기원 신화(김화경, 한국의 신화 세계의 신화, 새문사, 2015), 한국에서의 밀교의 수용과 전개(종석, 승가15, 중앙승가대학교, 1998).

필자 김화경(金和經)

회룡포 回龍浦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감입곡류 지형에 위치한 강변.

역사 회룡포는 내성천(內城川)에 기묘하게 이루어진 지형이 의궤로운 자연환경을 이루는 강변이라 하여 과거 의성포(義城浦)로 불린 곳이다. 또 다른 지명 유래로는 1856년 대흥수 이후 의성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설과 낙동강의 소금배가 이곳에 머물렀다가 의성 방면으로 갔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2000년 KBS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로 이용된 후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예천군에서는 의성포라 하면 남쪽에 이웃한 의성군에 속하는 지명으로 착각할 것을 우려하여 서쪽 물 건너 마을의 이름을 따 회룡포로 개명하였다.

내용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높이 190m의 비룡산을 350도 되돌아서 흘러가는 맑은 물과 백사장이 어우러진 곳이다. 비룡산에는 천년 고찰 장안사와 옛날 국방상 중요한 역할을 한 봉수대, 초기 국가 시대의 성곽인 원산성 등 문화유적이 위치한다. 2005년 국가에서는 내성천과 낙동강 상류 일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감입곡류 지형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맑은 물과 백사장으로 이루어진 하천, 그리고 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파른 경사의 산악지형, 농경지와 마을이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하는 곳으로 경관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명승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회룡포 일대는 하안단구, 범람원 등 하천의 침식과 퇴적 현상을 살펴볼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회룡포 주변에는 용과 관련한 수많은 지명이 존재한다. 과거 용궁군의 읍치는 회룡포가 위치한 대은리와 인접한 향석리에 위치하였다. 이 군명은 고려 성종이 용주자(龍州刺史)로 승격시킨 후 고려 현종 때 용궁(龍宮)으로 개칭한 이래 1914년 예천군에 병합되기 전까지 1,000년 이상 지속된 명칭이다. 또한 이곳에는 용이 나는 형상에 빗대어 붙여진 비룡산, 용비산성(龍飛山城)이란 문화유적, 회룡마을 서북쪽에 회룡지(回龍池)가 있다. 이처럼 회룡포 주변은 용과 관련한 지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회룡포는 내성천의 용이 비상하기 위해 힘차게 몸을 휘감고 꿈틀거리며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오를 듯한 기세의 지형을 갖춘, 용을 상징하는 곳이다.

특징 및 의의 회룡포의 굽이치는 강줄기는 용을 상징한다. 또한 용의 궁궐이라는 용궁은 회룡포가 속해 있는 용궁면의 명칭이다. 용궁이란 십이지신에 속하는 상상의 동



회룡포 | 경북 예천 | 2019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물인 용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산줄기와 강줄기에 용과 관련한 지명을 붙여 표현한 것이다. 2023년 예천군에서는 용궁역 주변에 용궁에서 살 만한 생물을 선정한 12해신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이곳은 용궁·회룡·비룡 등의 지명을 통해 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용궁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전승되는 공

간이다. 즉 회룡포는 용을 표현한 명승으로 역사적·경관적·예술적·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용을 소재로 다양한 스토리 개발을 시도한 사례이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명승 경관자원 조사연구 및 DB구축-6차(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명승지정 학술조사 연구(문화재청, 2004), 예천춘락사(예천군, 199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이재완(李在浣)

수신과 벽사

Discipline and Purification

간룡법	수신과 벽사의 상징	용왕제
감은사	아래자설화	용인 용줄다리기
개구리알먹기	어변성룡도	용줄다리기
갯제	어부심	용추폭포
거타지설화	여의주보	용호
견훤	영노	용호문배도
계룡산	오룡거	우물제
곤룡포	오룡쟁주놀이	운룡도
공갈못	용	운문사
구룡사	용 못 된 이무기	울돌목
구룡포	용 승천	원성대왕
귀면	용 싸움	유금이들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용경	이무기
금산 청정연 기우제당	용궁	이심이
기우제	용기	잉어의 보은
기우제등록	용꿈	작제건설화
김부대왕	용놀이	주몽신화
나룻배싸움놀이	용단지	줄다리기
남원 용마놀이	용단지모시기	지내와 구렁이의 승천 다름
동김녕 잠수굿	용대기	진쌍기놀이
만파식적	용두	차기분향놀이
무왕	용두암	창녕조씨 시조신화
문무왕	용떡	처용
물부리굿	용띠	천룡당
미륵사	용마루	철룡
밀양 용호놀이	용머리고개	청룡
박혁거세신화	용무늬	침호두
반야용선	용소	통기
백룡	용신	통도사
백마강	용알뜨기	형산강
벽골제 쌍룡놀이	용오름	혜룡
보양	용왕	호국과 호법의 상징
부석사	용왕굿	호국룡
비 내린 이무기	용왕기	호법룡
상진일	용왕당	화룡계
석척기우	용왕도	황룡
석탈해신화	용왕먹이기	황룡사
선운사	용왕밥	회룡포
설화 속 용	용왕상	

수신과 벽사의 상징

천진기 | 전 국립민속박물관

물의 신, 용

용龍의 상징적 의미가 아무리 상이하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은 물과 관련된다. 용은 물에서 산다. 그래서 용은 물이 되기도 한다. 물이 바다이든 연못이든 우물이든 샘이든 대소大小를 가리지 아니하고 용이 산다. 용은 '물의 원리를 표상화한 것' 또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용의 변화무쌍한 형체는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물의 능력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리고 조용한 이슬에서부터 거센 폭풍우에 이르기까지, 줄줄 흐르는 시냇물에서부터 천지를 집어 삼킬 듯이 성난 파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평화롭게 대지를 기름지게 하며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한 물의 성격과 특성이 그대로 용에 반영된 것이다.¹

농사를 생업으로 삼아 온 옛사람들에게 비는 생명과 같은 것이며, 홍수·천둥·번개·폭우 등을 불가항력의 두려움으로 느꼈을 것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는 생명 그 자체인 동시에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다. 수신水神으로서 용이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당연하다. 용은 물에 살며, 물을 지키고 비를 관장한다. 용은 바다의 왕이다. 용은 못池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면서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용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용은 물의 신이면서 지상계의 비를 관장하는 우사雨師의 성격도 지닌다.

용은 물에서부터 탄생한, 물과 뗄 수 없는 초월자적 존재로 숭배되어 왔다. 용은 물에서 살며 물을 지배하는 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일반 민간에 이르기까지 용신제·용왕제 등을 올리며 용의 조화로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풍작을 염원하는 농민들의 마음과 안전한 항해 및 풍어를 바라는 어민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용을 위하는 의식과 신앙이 전승되고 있다.

1 서양의 용은 그 모습과 성격에서 동양과 사뭇 다르다. 물의 신이자 선신인 동양의 용 관념과 달리 화염(火炎)을 토하는 동물, 악의 상징으로서 종종 등장한다.

용의 수신적 성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우신雨神의 관념이다. 수신인 용은 물을 다스리고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며 천둥·번개를 부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비를 내린다. 용이 머무르는 곳이 수중水中인 데다 용의 출현에 동반하는 폭우는 자연스럽게 용을 우신으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우신은 농경 민족에게는 농신農神이기도 하였다. 관개시설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강우降雨는 풍흉豊凶을 결정짓는 열쇠였기 때문이다.

바다의 왕은 용이다. 해양神海王神은 강하江河나 소택沼澤 또는 정천井泉과는 그 규모에서 비교가 안 되는 바다의 '지킴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해신 광덕왕東海神 廣德王, 남해신 광리왕南海神 廣利王, 서해신 광윤왕西海神 廣潤王, 북해신 광택왕北海神 廣澤王 등으로 부르듯이 흔히 용왕龍王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용왕은 수국水國의 통치 군주라는 의미를 띠고 있으며, 왕의 호칭에 걸맞은 용궁龍宮이라는 궁전에 머문다.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호·지배하며, 해상의 군왕과 유사한 통치조직을 가지고 있고, 용궁 속에는 온갖 재화를 비장하고 있다.

우신이 농신으로 발전하듯이 해양신은 어신漁神으로 발전한다. 동해안·남해안의 별신굿이나 서해안의 배연신굿·대동굿 등에서 용왕에게 비는 것은 하나같이 해상 안전과 풍어이다. 용이 제왕·권위·하늘·국가 등을 상징하는 것도 결국 물의 상징으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물을 상징하는 용은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리水利 전문가인 제왕이나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고, 나아가 하늘을 상징하는 것과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신이 농신으로 발전하듯이 해양신은 어신漁神으로 발전한다. 동해안·남해안의 별신굿이나 서해안의 배연신굿·대동굿 등에서 용왕에게 비는 것은 하나같이 해상 안전과 풍어이다. 용이 제왕·권위·하늘·국가 등을 상징하는 것도 결국 물의 상징으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물을 상징하는 용은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리水利 전문가인 제왕이나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고, 나아가 하늘을 상징하는 것과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의 신으로서 불(화재)을 막는 용

한국 전통 건축물들은 대부분 목조건물이다. 목조건물은 특히 화재에 약하다. 이 때문에 화재를 막고 집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재책을 써 왔다. 경북궁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7년 11월 경북궁 경회루 연못 정비작업 중 동銅으로 만든 용이 발굴되었다. 이 용은 1866~1867년 경회루를 중건하면서 목조건물의 화재를 막기 위해 넣은 두 마리 중 하나이다. 이 사실은 경회루 중건에 관한 기록인 『경회루전도慶會樓全圖』²에서 확인된다.



경회루 연못출토 청동용
가로147 세로14 | 조선 후기 | 국립고궁박물관

2 이 책은 고종의 명을 받아 경회루 중건사업에 참여한 정학순(丁學洵)이 쓴 『경회루서』(1865)와 『경회루제도법례』(1866)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설계도, 후자는 해설서에 해당한다. 이 책에 따르면 경회루 중건사업은 1866년에 시작하여 1867년 4월 상량식을 한 뒤 이 해에 끝났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경희루전도』 번역문

연못(경희지)의 남쪽에 동으로 만든 용 2개를 잡겨 두었다. 동(銅)의 속성은 불의 색(火色)이고 둘(二)의 수는 불의 수(火數)이다. 용은 하늘을 뜻하는 건(乾), 양(陽)을 뜻하는 구(九)의 상징이다. 건은 하늘보다 먼저 있어(先)지 불을 피우는 근본이다. 그 흐름을 제어하려고 하려면 먼저 그 근본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용으로 건을 상징하게 하였고, 구(九)로 육음(六陰)을 배합한 것이며, 쇠(金) (용의 재질)로 물(水) (연못이나 하늘의 비)을 생성하게 하였고, 물로 불(火)을 이기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음양(陰陽), 수화(水火), 금수(金水)의 조화를 합하여 묘한 변화를 이룬 것이다.

1997년 경희루 앞 연못에서 나온 구리용은 길이 146.5cm, 폭 14.2cm, 무게 66.5kg이며, 용의 모습은 혀를 길게 내밀고 콧수염을 동그랗게 말아 해학적으로 생겼다. 이 용을 복제하여 발굴된 이듬해인 1998년 2월 25일 다시 경희루 앞 연못에 안치하였다. 뒤로는 북악산, 앞으로는 관악산을 바라보는 경복궁은 풍수지리적으로 화(火)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연못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관장하는 용을 넣어서 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한 부적 2점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붉은색 장지에 작은 크기의 '龍' 글자 1,000여 개를 써서 크게 '水' 자 형태가 되도록 만든 부적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붉은색 장지에 발톱이 다섯 개 달린 오조룡(五爪龍)을 그린 부적이다. 두 자료 모두 목조건물인 경희루와 근정전을 불의 재앙으로부터 막으려고 물을 다스리는 용의 힘을 빌린 것이다.

민간에서는 집을 지을 때 상량문의 양쪽에 '龍(용 룡)'과 '龜(거북 구)'를 써 넣는다. 물을 상징하는 용과 거북을 통해 불을 막아 집을 보호하려는 바람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새해가 되면 궁궐의 문이나 민가의 문에 용 그림을 내다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이 용 그림은 세화(歲畫)의 일종으로, 용의 신령스러운 힘을 빌려 나쁜 기운을 물리치려는 벽사(辟邪)의 의도를 담고 있다. 불교의 호법신중(護法神衆)의 용 그림과 무속의 용신(龍神) 그림처럼 모두 길상·벽사와 관계된 용이다.

사람들은 용이 가진 뛰어난 능력으로 나쁜 것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입춘날 때문에 '龍虎(용호)'라고 써 붙이면 용은 주인에게 오복을 불러들이고, 호랑이는 수재·화재·풍재를 막아 준다. 또 용과 상대되는 동물은 호랑이다. 물에서 가장 힘센 용과 육지에서 가장 강한 호랑이를 대비시켜 강자의 싸움이나 막강한 권력, 용감성, 위엄 등을 상징한다.

풍농·풍어, 복을 주며 재앙을 쫓는 용

용은 민간신앙에서 비를 가져오는 우사이고, 물을 관장하는 수신이며,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벽사의 착한 신이다. 농경 민족인 우리에게 물은 생명처럼 소중하므로 가뭄이 심할 때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고, 어로를 생업으로 삼는 어촌에서는 용왕굿이나 용왕제를 지내며 배의 무사와 풍어, 마을의 평안 등을 기원한다.

음력 정월 첫째 진일(辰日)을 상진일, 즉 '용날'이라고 한다. 이날에는 새벽부터 부녀자들이 남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 오기 바빴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날 새벽에 하늘의 용이 지상에 내려와 우물에 알을 풀어 놓고 가는데, 이 우물물을 제일 먼저 길어다가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 운이 좋고 농사가 크게 잘된다고 하였고 때문이다.

정초에 지신밟기를 할 때 풍물패들은 마을 공동우물에 가서 용왕굿(샘굿)을 치고, 집돌이를 할 때도 각 집의 우물에서 용왕굿을 친다. 정초의 지신밟기 때 풍물패들은 우물(샘)에 가서 "용왕님, 제발 적선 농사 물 좋아 농사 잘 짓고, 이 물맛 좋아 온 식구 건강하게 해 주소서."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선달그믐날 우물에 촛불을 켜 놓고 밤새워 설을 맞는 풍속도 광명과 함께 물과 용의 힘이 새해에 솟아오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액막이의 하나로 '어부슴'을 행한다. 경기도 일대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대보름날 아침에 흰 종이애다 액막이하는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시를 적고 거기에 흰밥을 조금씩 떠 넣은 뒤 써서 깨끗한 개울이나 강물에 던



샘굿 | 전북 고창 | 1994 | 국립민속박물관

져 한 해 동안의 액을 막기도 한다. 주로 그해 운이 나쁜 사람이나 아이들을 위해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종이에 쓴 흰밥은 바로 용신에게 바치는 공양이다. 이와 유사한 ‘용궁맞이’도 있는데, 정월 14일 저녁에 한강 변과 용궁당에서 부녀자들이 자손들의 장수長壽와 액막이를 위해 용신에게 바치는 공물을 강 속에 던지며 소지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모두 용신에게 자손들의 장수와 무탈을 비는 것이다.

전라도 지역 각 마을의 농기農旗에도 농사철의 물을 관장하는 ‘청룡’을 그려 놓았다. 이 농기는 정초 지신밟기를 할 때나 두레를 할 때 내다 건다. 농협 농업 박물관에 소장된 농기에도 용이 그려져 있다. 강진 농소농기는 193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농신인 신농씨가 살포를 메고 용을 탄 모습의 그림이다. 또 여러 가지 구름 문양과 잉어, 거북 등은 물에 사는 존재를 민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산 덕지천농기는 ‘대정 5년’이라고 적힌 명문으로 보아 1916년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며, 운룡문을 채색으로 그렸으나 색이 많이 바랬다.

유월 유두 철에 논두렁이나 물꼬에 가서 떡을 떼어내 눈에 뿌리며 용왕님이 많이 잡수시고 풍년을 들게 해 달라고 기원하는 것도 결국 농사신農事神으로서 용의 건재함을 뜻한다. 올해는 물난리도 겪지 않고 가뭄도 들지 말라고 용신제, 농신제를 지낸다.

민가에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특히 ‘용’ 자가 들어간 연못이나 강·바다·산·바위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그곳의 물을 병에 넣고 술잎으로 막아 사립문에 거꾸로 매다는 등 주술적인 방법으로 비雨를 빌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용지龍池와 용두산龍頭山, 충청도의 용연龍淵, 황해도의 용정龍井, 평안도의 구룡산九龍山, 경상도의 용수암, 전라도의 용지와 용연, 함경도의 장자지 등은 효험이 큰 기우처祈雨處로 널리 알려져 왔다. 조정과 민간 구별 없이 정성스럽게 용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애타게 기다리는 비를 내려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전하였던 것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 11월 조條에 보면 홍천 합덕지와 밀양 남지에 용의 발갈이로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徵驗하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동지를 전후하여 못이나 저수지에 얼음이 언 모양을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짐치는 풍속이다.

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에는 쌍룡놀이, 용마놀이, 용호놀이, 줄다리기 등이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양면과 강원도 영월군에서 전승되는 놀이로 두 용이 등장하는 쌍룡놀이와 전라남도 남원 지방에서 행해지는 용마놀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서 전승되어 오는 용호놀이가 있다. 민속

놀이 가운데 줄다리기에서 줄이 용으로 불리기도 하며, 특히 쌍룡雙龍 줄다리기에서는 암용과 수용으로 부르고 있다.

용은 또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에게 가장 지극한 숭배 대상이 되어 왔다. 바다 및 용궁에 사는 용왕에게 고기잡이 나간 어부들의 무사함을 기원하고 풍어를 비는 제祭 또는 굿을 용왕제, 풍어제, 용왕맞이 등이라 한다. 특히 풍어제는 속초에서 동래까지 동해안 지역에서의 별신굿, 웅진·연평도·강화도 등 서해안 지역에서의 배연신굿과 대동굿, 충무와 거제도 등지에서의 남해안별신굿 등이 있다.

일반적인 용왕제는 주로 어촌에서 음력 정초나 2월 초의 만조 시를 택하여 해변에 제물을 차려 놓고 사해용왕에게 마을 주민과 가족의 안전 및 풍어를 비는 의식이다. 제가 끝나면 차려 놓았던 제물을 골고루 조금씩 떼어 네 덩이를 만드는데, 가족 중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몫으로 한 덩이를 더 만들게 된다. 그것을 백지에 싸서 한 덩이 한 덩이 바다로 멀리 던지며 용왕으로 하여금 기꺼이 그 제물을 받아 주기를 마음속으로 빈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된 제주도에서는 ‘용왕맞이굿’이 유명하다. 큰 굿의 한 제차祭次로 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익사한 영혼을 건져내어 저승으로 고이 보내거나 풍어를 빌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이든 그 중심 제차는 용왕이 오시는 길을 치워 맞아들이고 소원을 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때 제사상 차림에는 용왕이 거느리고 있는 바닷고기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

신앙, 세시와 놀이에서는 용이 비를 다스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예시자로서 용이 지닌 상징을 통해 우리 조상은 풍농·풍어를 예견豫見할 수가 있었다. 한 해 농사와 고기잡이 수확의 다과多寡, 비의 많고 적음 등을 용의 상징을 통해 기원하고 해석하여 한 해를 대비하였다.

참고문헌 慶會樓全圖,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개구리알먹기

경칩(驚蟄) 무렵이면 동면(冬眠)하였던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겨울잠에서 깨어서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건져 먹는 풍속.

내용 '대동강물이 풀리고 개구리가 입을 때는 날이다.'라는 속담처럼 경칩 무렵이 되면 봄기운이 완연해진다. 봄의 전령(傳令)처럼 봄의 개시(開始)를 알리는 존재로 개구리와 도롱뇽 같은 양서류가 있다. 경칩 무렵 산속의 맑은 물이나 연못, 호수, 하천, 웅덩이, 실개천처럼 습기 있는 곳에 개구리나 도롱뇽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첫 알을 낳는다. 개구리의 산란 시기는 보통 음력 2~5월경이고, 북부 지방에서는 평지에 산란하지만, 남부 지방에서는 산골짜기의 맑은 계류에 산란한다. 반면에 도롱뇽의 산란 시기는 음력 3월 상순에서 4월 하순에 걸쳐 있는데, 한 마리의 암컷이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모두 물속에서 젤리와 같은 물질로 덮여 있을 뿐 다른 보호막을 갖고 있지 않아 부드러워 먹기가 쉽다.

이러한 알을 먹는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개구리알 먹는다.'라고 표현하나, 그 양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충청도에서는 개구리알을 먹으며, 경기도에서는 도롱이(도롱뇽)알과 개구리알을 먹는다.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개구리알과 도롱뇽알을 먹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개구리알 또는 비단개구리알을 먹는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도롱뇽알을 먹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도롱뇽알이나 개구리알과 빨간 개구리(한개구리)알을 먹는다. 전남 지역에서는 도롱뇽알을 미룡이알·미룡알·미용(微龍) 또는 농알이라 부르며, 개구리알은 용알(龍卵)이라 부른다.

경칩과 관련하여 용을 관념하는 것은 중국의 음력 2월 초이튿날의 춘용절(春龍節)의 사례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옛날 섬서성에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이에 옥황상제가 동해용왕의 손자에게 비를 내리게 명하였다. 그러나 용왕의 손자가 용하(龍河)에 들어가 놀며 비 내리기를 잊었기에, 사람들은 온갖 시련 끝에 용하 부근에서 강용목(降龍木)을 구하여 용왕의 손자를 항복시켰다. 용왕의 손자가 물속에서 머리를 들자 삼시간에 우레가 치고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가뭄을 제거하기 위해 용왕에게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춘용절이다. 겨우내 잠자고 있던 용이 이날이 되면 '우르릉'하는 우렛소리에 놀라 깨는데, 용이 머리를 들면 비가 온다고도 한다. 이처럼 경칩에 용을 의식하는 것에는 농경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를 바라는 농경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음력 정월 보름 새벽에 용알을 떠오르면 그해에 농사가 잘 된다는 속신처럼 용을 비롯하여 용알이나 미룡알은 농경민에게 비를 내려 주는 강한 주력(呪力)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알을 절기상 경칩에 먹으면 보신(保身)이 된다고 하여 즐겨 먹는데,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 특히 신경통이나 속병(위장병)과 요통(腰痛)에 효험이 좋으며, 가슴이 시원해지고 뱃속의 벌레를 없애기도 한다고 믿는다. 눈도 밝아지고, 머리도 총명해진다고 하여 아침에 남몰래 먹기도 한다. 여름에는 더위를 타지 않게 하는데, 특히 다리에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홍역이나 기침에도 좋다고 한다.

개구리알, 도롱뇽알, 빨간 개구리알 등을 먹을 때에는 비릿한 냄새가 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주와 함께 마시거나, 콩고물에 묻혀 먹거나, 간장이나 마늘과 함께 먹는다. 역한 느낌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즐겨 먹는데, 남자가 먹으면 양기(陽氣)를 돌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이는 봄의 힘찬 기운을 양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특징 및 의의

개구리는 경칩이 지나야 겨우내 닫고 있던 입을 비로소 여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므로 깨끗하여 약이 된다고 믿는다. 봄기운을 가득 담고 첫 입을 연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알은 생명을 포태(胞胎)한 것으로 만물의 생기(生氣)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먹는 것은 생명의 정기를 섭취하는 것으로, 새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경칩의 의미와 어우러져 민간의 주술요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참고문헌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중국의 생활민속(김인옥, 집문당, 1996), 한국민속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7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한국의 양서류(양서영, 아카데미서적, 2001).

필자 김효경(金孝慶)

갯제

바닷가에서 풍어와 안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례.

내용

갯제는 도서해안의 마을에서만 행해지며, 배나 어장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고사나 푸닥거리, 마을에서 무당을 불러서 하는 풍어굿과는 성격과 형식을 전혀 달리한다. 또한 그 분포권 역시 호남 지역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갯제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식이 있다. 마을제사인 동제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당산제와는 별도로 행해지는 곳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양식으로 행해지는데, 예를 들면 여자들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사



모도 갯제 | 전남 완도 | 1982 | 국립민속박물관

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해당 마을의 해산물에 대한 산업적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갯제가 확대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갯제는 동제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풍농을 비는 농촌 지역의 줄다리기나 달집태우기와 같이 동제의 부대행사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지역사례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의 경우는 갯제가 동제의 말미에 속하면서 대미를 장식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제례 방식은 서로 다르다. 대포리의 경우는 동제를 모시면서 몹시 엄숙한 분위기가 계속되지만 갯제는 완전히 축제적 분위기에서 행해진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밤새 가무를 하고 놀다가 새벽에 용왕에게 소 한 마리로 간주되는 한 마리 분의 소뺨를 헌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좌리의 경우는 바닷길과 관련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정성껏 제물을 차려서 바닷가에 가져다 놓고 개인적으로 절을 하며 해산물의 풍작을 빈다. 또 위도의 경우는 소위 띠뽕놀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띠배에 허수아비를 태워 마을의 액운을 멀리 바다에 띄워 보내는 송액(送厄)의 기능과 복합·결착된 갯제를 행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 도깨비가 풍어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지역에서는 도깨비를 위해 헌식하기도 한다. 동제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 둔 메밀묵을 제관들이 마을의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바다에 던져 준다. 대보름 풍속에 달이 뜰 때 바다의 도깨비 불을 보고 풍어를 점치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깨비에 의해

서 어장의 풍흉이 결정된다고 믿어 갯제 때 역시 도깨비가 가장 좋아한다는 메밀묵이나 메밀떡을 바다에 뿌리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형식으로서 특이하게도 여자들만 참여하거나 처녀들만 참여하여 갯제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남 완도 고금도에서는 정월 열나흘날 오후에 마을의 처녀들이 각 가정을 돌면서 김과 쌀을 걷어다가 김밥을 싸서 바닷가에 모여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김의 풍작을 빈다. 또 그들은 김밥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놀기도 하고 마을을 돌면서 각 가정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논농사가 많은 지역의 줄다리기, 밭농사가 많은 지역의 달집태우기와 대칭되는 것으로서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산물의 풍작을 위해 갯제가 행해진다. 그런 점에서 갯제는 동제에 비해서 음복, 헌식, 그리고 놀이적 성격이 훨씬 강한 어촌의례의 하나이다.

참고문헌 광주·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나경수(羅景洙)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의 진악산 물굴봉에서 날이 가물 때 기우제(무제)를 지내던 제당.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금산군 산천조에 “진악산 동쪽 봉우리에 석혈(石穴)이 있는데 너댓 걸음 들어가면 물소리가 요란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전하는 말로는 용이 사는 곳이라 한다. 하늘이 가물 때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응함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지명총람』 충남 편은 물굴을 “진악산에 석굴이 있는데 10m 들어가면 넓게 파진 곳에 물이 괴어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이곳이 영험하다 하여 한 채뽕(채뽕)이 있으면 기우제를 지낸다. 굴 위의 지형이 호룡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면 시체는 용이 되어 승천하고 그 집안이 잘된다고 하여 가끔 물래 묘를 쓰는 사람이 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 부근의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모여 그 묘를 기어올라 찾아서 파내고 만다.”라고 소개하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진악산 물굴봉은 이미 조선 전기 이래 500여 년의 역사를 계승한 기우제당임을 알 수 있고, 이 기우제 전통은 1990년대 초까지 지속되었다.

물굴봉 기우제에서 주목되는 점은 호랑이의 머리를 석굴 속으로 침수시키

는 이른바 ‘침호두沈虎頭’ 의례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본래 침호두는 흠향歆饗을 위해 준비되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용호상박의 긴박한 적대관계를 촉발시키기 위한 자극물이었다. 이러한 침호두 기우법은 조선시대 국행기우제의 하나로 정착된 것이다. 1474년(성종 5) 6월 예조禮曹에서 기우제 방법에 대하여 아홉 개의 항목을 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다. 그 셋째 항목에는 “한강의 양진에는 침호두를 행하고, 또 도류道流로 하여금 용왕경을 읽게 하며, 박연朴淵에도 침호두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이와 동일한 기록이 보인다. 이와 비슷한 조선 전기에 침호두는 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우제에 쓸 호랑이를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쓴 썩고 묵은 호두虎頭를 사용하다 비난을 받는 사례도 보인다. 또 1660년(현종 1)에는 제일이 임박하였음에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여 돼지머리를 대용하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호두를 구하는 일이 어려웠다. 20세기에 전승된 물굴봉 기우제에서는 줄곧 돼지머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돼지머리로 바뀐 것은 호랑이의 머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아울러 호랑이 대신 돼지머리를 넣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도 애초와는 달리 물을 주관하는 용의 흠향을 위한 공양물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내용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은 금산읍 내에서 서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인삼의 발상지로 알려진 진악산은 해발 737m로 금산에서 최고봉을 이루며, 상봉이 속칭 물굴봉[水窟峯]이다. 제당 형태는 당집이나 신위를 모시지 않은 자연 제당으로, 이곳에는 커다란 바위굴[石穴] 속에 못이 있어 명주실꾸리 한 타래가 다 들어갈 정도라고 구전된다. 물굴봉 기우제는 조선시대 군·현 단위에서 수령이 주관한 읍치기우제의 전통이 일제강점기 이후 민간기우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극심한 한발旱魃이 지속되면 금산읍에 속한 대부분의 마을과 진악산을 끼고 있는 성곡리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하게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하여 읍내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소문이 돌면 마을마다 삼과 팥이를 들고 풍장을 울리면서 진악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를 위해 하루 전날 집집마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청솔가지를 끼워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을 선정하였으며, 비용은 집집마다 쌀과 돈을 각출하여 충당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술 등이다. 제단에 제물이 진설되면 크게 징을 쳐서 알린다. 이를 신호로 제관이 “진악산 산신령님 강림하소서.”라고 아뢰면 참제자 모두가 재배한다. 이어서 유교식 절차에 따라

술을 올리고 축문 낭독 및 소지를 올린다. 간단한 음복이 끝나면 제관은 희생으로 바친 돼지머리에 돌을 매달아 물굴 안으로 던진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돼지머리가 없어진다고 한다. 굴 안에 사는 용이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무제를 마치면 물굴 위에 있는 호룡혈을 파서 암장한 시신을 찾아낸다. 예부터 이곳에는 자손의 발복을 위해 몰래 묘를 쓰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누군가 호룡혈에 시신을 매장하면 그 집안은 번창하지만 인근 마을에는 극심한 한발이 닥친다는 속설이 전한다. 어느 해인가는 호룡혈을 파 보니 여러 개의 송장이 겹겹이 나왔다고 한다. 그것은 시신이 발각되지 않도록 평장平葬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속설을 믿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투장偷葬하려는 사람과 이를 파내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호룡혈 주변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고 흙도 붉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물굴은 상탕과 하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탕은 기우제를 행하는 곳이며, 하탕은 제관들의 목욕하고 제수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또한 물굴 위에는 ‘호룡혈’ 또는 ‘등잔혈’로 불리는 천하 명당이 있어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암장한 시신을 파내며 비를 기원하는 풍속이 전승되었다.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慵齋叢話,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16, 한국종교학 연구회, 1997).

필자 이해준(李海濬)

금산 청징연 기우제당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에 위치한 청징연에서 날이 가물 때 기우제(무제)를 지내던 제당.

역사

청징연은 조선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기우제가 거행된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진산군 산천조에 “청징연, 군의 남쪽 10리에 있다. 물의 깊이를 알 수 없고, 세상에 전하기를 용이 있다고 한다. 날이 가물어 비를 기원하면 즉시 응한다. 지금은 모래가 덮여 물 깊이는 불과 3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기우제당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 충남 편에는 “삼거리 남쪽에 소궐이 있다. 물이 맑고 깊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용이 살고 있다고 한다. 가뭄이 심할 때 무제(기우제)를 지내면 매우 영험하다고 한다. 현재는 메워져서 한 길밖에 깊지 않다.”라고 하여 예부터 날이 가물 때 청징연에서 기우제를 지내 온 사실이 짧게 소개되었다.

내용 청징연은 속칭 ‘청등소’ 또는 ‘청강수’라고 불리며, 앞마을을 청징이 또는 청등이라고 한다. 청징연은 진산면 삼가리에서 청징이 뒤편으로 300m쯤 떨어진 계곡에 자리한다. 이곳은 인대산에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이 암벽에 부딪쳐서 폭포수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 밑에 커다란 못이 형성되었다. 청징연 바닥에는 굴이 뚫려 있다. 이 굴은 명주실꾸리 한 타래가 다 들어갈 만큼 깊으며, 안에 용 또는 이무기가 산다 하여 이무기굴이라고 한다. 옛날에 호기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굴 안을 들어갔다가 이무기가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되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또 10여 리 남짓 떨어진 진산면 오항리로 통하는 이무기굴은 물 위에 홍두깨를 띄워 놓으면 오항리에 있는 못으로 떠오른다고 한다. 그래서 청징연을 암소, 오항리를 수소라고도 한다.

예전에 날이 가물면 삼가리에 속한 청징이, 삼가동, 방각골이 회합을 갖고 기우제를 지낼 날짜를 잡았다. 택일이 되면 십시일반으로 보리쌀이나 돈을 각 출하여 제수를 마련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떡·통복어·불백기·과자·술 등으로, 세 마을이 각각 별도로 준비하였다. 기우제 하루 전에는 집집마다 대문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편다. 또 병에 물을 가득 담아 술가지로 주둥이를 막고 대문 앞에 걸어 두면 솔잎을 타고 물이 조금씩 흘러내려 마치 비가 오는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당일 아침이 되면 세 마을의 남자들은 낫을 들고 청징연으로 가서 각자 풀과 나뭇가지를 한 짐씩 베어 못 안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큰 못이 팍 찰 정도로 풀이 넘쳐나며, 하늘에서 이를 본 용이 속히 비를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 내린다고 한다. 이는 용소에 돼지 피를 뿌리거나 오줌을 누어 비를 기원하는 것처럼 용의 거처인 청징연에 풀을 잔뜩 넣음으로써 운우雲雨를 기원하는 일종의 오염기우汚染祈雨인 셈이다.

기우제에는 세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석하였다. 제의 준비가 다 되면 여성들은 키를 뒤집어쓰거나 그릇을 들고 풍장을 울리며 청징연으로 모여 못 앞에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 기우제를 지냈다. 이때 입담 좋은 아낙네가 비가 내리기를 간곡히 축원하는 소리를 올렸고, 기우제를 마치면 여자들은 키로 물을 까부르며 비 오는 시늉을 하였다. 또 그릇에 물을 떠서 허공에 뿌리거나 연못에 들어가서 서로 상대방에게 뿌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효험이 있어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고 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청징연 기우제는 못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혹독한 가뭄이 아니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평생을 마을에서 산 노인들이 기우제를 경험

한 것은 몇 차례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청징연을 매우 신성시하였다. 특히 유황(용왕)을 위하는 가정에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이곳을 찾아와 무병제액을 축원하는 고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설화 속의 금산(안용산, 금산문화원, 1996).
필자 이해준(李海濬)

기우제

祈雨祭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비가 내리도록 비는 일체의 방식.

역사 수리시설이 부족한 전통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기우제祈雨祭를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비에 대한 관심은 <단군신화>에서도 확인된다. 환웅桓雄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인간세계에 하강하였다는 것은 이런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뭄은 자연기후 현상임에도 치자治者의 부덕不德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고대 부족국가인 부여의 경우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는 풍속이 있었다. 마여麻余가 죽자 그의 아들인 여섯 살배기의 려依慮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전한다. 이런 관념은 조선시대에까지 강하게 지속된다. 비록 왕을 죽이거나 바꾸는 등 극단적인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왕 스스로 부덕과 실정으로 인해 한발旱魃이 있는 것으로 여겨 다양한 속죄 의례를 통해 비를 기원하였다. 정전正殿 옮기기, 일산日傘 쓰지 않기, 감선減膳하기, 형옥刑獄 풀기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지志」 제사조에는 4성문제四城門祭, 4천상제四川上祭, 일월제日月祭, 오성제五星祭, 4대도제四大道祭, 압구제壓丘祭, 벽기제辟氣祭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본기本紀」에서는 삼국에서 각각 시조묘始祖廟나 명산대천 등에 기우제를 올리는 것은 물론 백성들에게 다양한 선정善政 베풀기를 한 사실이 두루 확인된다. 명산대천에 기우제를 올린 예는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또 선정 베풀기로는 백성들을 동원하는 역사役事 중지, 재조사를 통한 죄수 사면, 백성 구휼, 조세 감면, 덕 있고 능력 있는 인재 등용 등 사례가 다양하다. 그리고 한발의 책임을 왕 자신의 부덕과 실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



키까부르기 불농기

기우제 | 충남 서산 | 국립민속박물관

서 정전을 피해 앓으며, 음식을 평상시보다 줄이는 등 근신을 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용 그림을 그려 빌거나 시장을 옮긴 경우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기우제의 양상이 드러난다. 『고려사高麗史』를 통해 볼 때 선정 베풀기, 근신, 조상신에 대한 제사, 궁전 및 내전에서 의 제사, 불교식 제사, 영성靈臺에 대한 제사, 무속 제사, 명산대천을 비롯한 자연신에 대한 제사, 시장 옮기기, 토룡을 만들거나 용을 그려 놓고 빌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기우제가 있었다. 왕의 근신도 삼국시대보다 더욱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엄격해졌다. 부채 사용 금지, 음악 금지, 샷갓 등 모자 착용 금지, 금주, 가축 도살 금지 등이 추가로 실시되었다.

고려시대의 특징으로는 국교가 불교인 만큼 밀교密敎 성격이 강한 다양한 도량道場과 법회法會의 개설, 도교의 성격이 짙은 구요당九曜堂 제사나 태일太一에 대한 초제醮祭, 무당을 모아서 비가 내리기를 빌게 하는 취무도우聚巫禱雨 등을 들 수 있다. 취무도우의 경우 많은 때에는 300명, 길게는 엿새 동안 무당들을 도성에 모은 사례들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기우제 양식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크게는 폭로暴露의례, 기우제禱雨祭龍, 유교식의 기고祈告의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폭로의례는 기후재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나 무당 등을 뜨거운 햇볕에 폭로시켜 고통을 줌으로써 비가 내리기를 비는 방식이다. 기우제 룡은 물의 신인 용에게 비가 내리기를 비는 방식이다. 이는 용의 모습을 본떠 형상화한 상룡像龍, 용을 대신할 유사 동물을 이용하는 대룡代龍, 용이 거처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에서 행하는 잠룡潛龍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교식의 기고의례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기우제 양식을 말한다. 그 제의 절차나 양식은 1704년(숙종 30)에 12제차로 정식화되었다. 당시의 『기우제등록祈雨祭禮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차:삼각산·목덕산·한강, 2차:용산강·저자도, 3차:풍운뇌우산천·우사霽祀, 4차:북교·사직, 5차:종묘宗廟, 6차:삼각산·목덕산·한강의 침호두沈虎頭, 7차:용산강·저자도, 8차:풍운뇌우산천·우사, 9차:북교·모화관지변·석척동자기우蜥蜴童子祈雨, 10차:사직·경회루지변·석척동자기우, 11차:종묘·춘당대지변春塘臺池邊·석척동자기우·폐남문개북문閉南門開北門·천시遷市, 12차: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 등이다. 이러한 조선 후기 국행기우제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승려나 무당·맹인이 배제되었으며, 오직 유자儒者로 제관이 일원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기술은 모두 국가가 주관한 국행기우제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행한 민간기우제는 문헌사료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정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기우제 역시 국행기우제와 흡사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간기우제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행하는 것으로, 그 절박함으로 인해 굳이 제사 형식을 따지 않은 것도 많았다. 경상남도 함천 지역의 디딜방아 기우제, 경상북도 남부 지역과 경남 지역의 팽철이 쫓기, 충청남도 금산군의 '농바우끄시기', 경북 고령군의 미송산 천제당 기우제, 경북 의성군의 금성산 기우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내용

기우제는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행기우제의 경우 조선시대 숙종 때 정리된 12제차의 기우제 중 11차를 보면 종묘, 춘당대지변, 석척동자기우, 폐남문개북문, 천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종묘' 제사는 조상신에 대한 유교식 제사 방식이고, '춘당대지변'에서 행하는 기우제는 명산대천 또는 용이 거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유교식으로 비가 내리기를 비는 것이다. '석척동자기우'는 어린아이로 하여금 도마뱀을 잡아다가 놀게 하는 것



디딜방아 거꾸로 매기 | 서울 종로구 | 1994 | 국립민속박물관

이다. 도마뱀은 비를 주관하는 용을 대신한 것으로, 이 방식에는 도마뱀을 잡아다가 작열하는 햇볕 아래서 작대기로 때리거나 괴롭히면 하늘의 용이 비를 내리게 한다는 주술적 관념이 담겨 있다. ‘폐남문개복문’은 도성의 남문은 닫고 북문은 열어 두는 방식이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행하던 ‘4성문제’와 맥락이 통하며, 음양오행의 원리에 기반한 기우 방식이다. ‘천시’는 소통의 상징성이 특별히 강한 곳으로 시장을 옮겨 여는 방식이다. 이는 가뭄의 원인이 소통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시장을 강변이나 골목 안 등지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12제차의 국행기우제는 제사마다 정해진 품계의 제관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대체로 제차가 거듭될수록, 유교 제사 방식에 가까울수록 고위관리가 담당하였다.

민간기우제는 국행기우제보다 더 복잡다단하다. 시대 차이도 있지만 지역별 차이도 많다. 기우제 터만 보더라도 폭포가 있는 산간지역은 용소龍潭을 중심으로, 명산이 있는 곳은 산정山頂에서, 바위가 많은 곳은 바위 아래에서, 강이 있는 곳은 강변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은 샘가에서 각각 지내는 등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 제의방식이 덧붙여지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용소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대개 수신인 용을 자극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술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국행기우제에서는 ‘침호두’라고 하여 호랑이 머리를 용소에 빠뜨려 물속에 산다는 용을 자극함으로써 비가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민간기우제에서는 개나 돼지 등 동물을 잡아 그 피를 주변에 뿌려 기우제 터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곧 동일한 유형의 기우제 터라고 하더라도 기우제 방식은 천차만별로 다르며, 주술원리 또한 다를 수 있다. 유교식 기우제가 온갖 정성을 들이는 순응적 제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동물의 피를 용소에 바르는 것은 용을 자극하는 대항적 제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우제 방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한다. 그 방식은 대체로 지역의 문화 전통과 관련된다. 즉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가장 효험이 있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하여 민간기우제가 선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기우제 역시 국행기우제와 흡사하게 여러 가지 기우주술을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별로 그 마을에서 가장 효험이 있으리라 기대되는 방식의 기우제가 선행됨과 동시에 몇 개의 자연마을이 합동으로 특정 지역에서 거듭 지내는 경우도 많다. 이때 동참하는 자연마을은 같은 기우권역에 속하는 것이 되며, 이런 경우 해당 관청의 장이 제관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민간기우제의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도 하다. 명산의 산정에서 지내는 경우 남성들이 암장한 묘를 파헤치고, 연기를 심하게 내면서 불을 피우고, 독축고사 형태의 제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여성들은 속옷을 벗은 상태에

서 일제히 방뇨를 하며 준비해 간 물을 끼얹는 등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이 주관하는 기우제에는 키로 물 까불기, 샷장 쓰고 쟁기로 모의 마당 갈기, 디딜방아 거꾸로 매기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험을 크게 한다는 관념이 있다.

특징 및 의의

기우제는 단순한 주술행위에서부터 복잡한 종교의례까지 동원되는 것으로 유형화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원리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것은 비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기우제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우제는 사소한 유감주술 원리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전통적 종교 관념이나 사상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1회의 기우제에서 한 가지 유형의 기우제만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우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방법이 다발적으로 행해졌다.

참고문헌 高麗史, 祈雨祭禮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금산의 민간 기우와 민중들의 사고(김미순, 금산의 마을 공동체신앙,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0),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기우제와 지역사회(임장혁, 민속원, 1999), 기우제의 지역 간 비교와 기우문화의 지역성(김재호,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도연기우제의 민속지와 주술적 장치(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4), 사시기우제의 기우 원리와 시장의 소통성(김재호, 한국민속학50, 한국민속학회, 2009), 산골사람들의 물 이용과 민속적 분류체계(김재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서천 남산장의 공간적 기능 변화 고찰(정형호, 민속학연구3, 국립민속박물관, 1996), 중세사회의 기우의식에 대한 고찰(박계홍, 한국민속연구, 형설출판사, 1973), 합천기우지(박문목, 합천군, 1987).

필자 김재호(金在浩)

기우제등록

祈雨祭禮錄

1636년(인조 14)부터 1889년(고종 26)까지

수표, 기우제, 기청제, 기설제 등과 관련된 논의와 보고를 담고 있는 6책 분량의 기록물.

내용

『기우제등록祈雨祭禮錄』은 흔히 6책의 기록물을 총칭한다. 하지만 실제로 1책은 『기우제일祈雨第一』, 2책은 『기우등록祈雨禮錄』, 3책은 『기우제등록』, 4책은 『전향사기우록典享司祈雨錄』, 그리고 5책과 6책은 『기우기청등록祈雨祈晴禮錄』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 『기우제등록』은 규장각에 보관 중인 자료 이외에도 1743년(영조 19)부터 1832년(순조 32)까지의 기우제 및 기청제의 제문을 모아 놓은 장서각의 『기우제등록』도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과 분량에 있어 규장각 자료가 기후의례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본인 『기우제등록』은 인조 대부터 고종 대까지 253년간의 논의와 실상을 일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날짜별로 기록된 항목은 총 1,811건에 달한



기우제등록 | 가로27 세로34 |
조선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다. 1책에는 인조(70건), 효종(75건), 현종(26건) 대의 171건이 실려 있다. 2책은 숙종 대의 236건을 담고 있으며, 3책은 숙종 대의 502건과 경종 대의 52건을 포함한 554건이 기록되어 있다. 4책은 영조(290건)와 정조(40건) 대의 330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5책은 정조(74건)·순조(133건)·현종(40건) 대 등의 247건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6책은 현종(7건), 철종(79건), 고종(187건) 대의 273건을 실고 있다.

1,811건에 달하는 기록을 왕의 재임기간 별로 나누어 보면, 2책 전부와 3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숙종 대가 738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290건), 고종(187건), 순조(133건), 정조(114건)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숙종 대의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숙종의 재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당시에 기후학적인 외적 변동이 잦았으며, 기후의례의 예제화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활발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우제 관련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가 내릴 때까지 의례를 지속하는 기우제의 특성으로 인해 기우제에 관한 보고와 논의, 의례적인 조처와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었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의 유형은 대개 주술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식들, 폭로의례暴露儀禮와 관련된 것들, 기우제에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가미한 기우제룡祈雨祭龍의 방식들, 그리고 유교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로 유형화된다.

첫째 유형에는 피정전避正殿, 감상선減常膳, 철악撤樂, 물격고勿擊鼓, 금산선禁繖扇, 금주禁酒, 금연禁煙, 천시遷市, 심원옥審冤獄, 방수도放囚徒 및 방경계放輕繫, 양로養老, 진환과고독賑寡孤獨, 홀궁궐恤窮匱, 방역부放役夫, 엄격매지掩骼埋髒 등의 다양한 기우 방식들이 속한다. 이러한 양식들은 고대의 주술적인 사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발뽀이라는 자연질서의 일탈을 도덕적인 행동 양식으로 극복하려던 조선조 유교사회의 도덕주의적 사고를 표출하고 있다. 통치자의 실덕失德으로 인해 빚어진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기양의례祈禳儀禮보다도 근신과 반성이 전제된 행동양식(피정전, 감상선, 철악, 물격고, 금산선, 금주, 금연, 천시)을 통해 일상의 편의, 향락, 사치 등을 유보하는 것이 강우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실현하지 못한 과오를 재조정하여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줄이거나 해소하려는 양식들(심원옥, 방수도, 방경계,

양로, 진환과고독, 홀궁궐, 방역부)도 해갈解渴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로 전제되었다. 이러한 인정과 관용의 실현은 생자들뿐만 아니라 뼈와 살이 드러난 사체를 가려 주는 엄격매지의 조처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우 양식들은 고대적인 주술성의 전통에 유교의 도덕주의적인 전통이 교차되면서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기우 조처로 활용되었다.

둘째 유형은 왕, 무당, 토룡 등에 폭로의례의 주술성을 극대화한 의례와 관련된다. 왕의 폭로의례는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퇴약별에 노출되는 의례적인 행위였다. 이른바 노좌露坐 혹은 노립露立은 왕의 희생과 근신을 보여 주는 행위이면서도 강우의 조건을 유도하는 분신의례焚身儀禮의 전형을 간직한 야외폭로였다. 무당 역시 폭로의례의 주요 대상이었다. 이른바 폭무暴巫는 무당에게 한발의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기대하였던 강요의례強要儀禮였다. 강우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뉴월 퇴약별에 노출되어 있는 무당의 고통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왕이나 무당뿐만 아니라 토룡土龍도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흙으로 용을 형상화한 토룡을 폭로시키는 의례는 수신水神인 용을 자극함으로써 승천과 강우를 압박하는 강요의례였다.

셋째 유형은 용의 상징과 상상력을 동원한 기우제룡祈雨祭龍과 관련된다. 『기우제등록』에 기록된 기우제룡의 방식으로 대표적인 의례가 토룡제土龍祭, 화룡제畫龍祭, 침호두沈虎頭, 석척기우蜥蜴祈雨, 진암분시辰巖焚柴 등이다. 토룡제는 토룡을 제작하여 동(홍인문 밖), 서(양화도 부근), 남(한강 북쪽), 북(북교 여단 근처), 중앙(종각 옆)의 오방에서 거행하던 기우제로서 기우제차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의례였다. 화룡제는 용의 그림을 배치하고 기우제를 거행하는 의례로서 주로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거행되었다. 의례를 마치면 화룡으로 제물을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킴으로써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 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용의 형상을 닮은 생물체(도마뱀)를 독에 넣고 주문과 소음으로 용을 자극하였던 주술적인 의례였다. 주로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 등의 연못가에 어린 동자童子들을 동원해 석척기우를 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암분시는 용의 거소로 인정되는 바위에 불을 피움으로써 용을 자극하는 의례였다. 대부분의 기우제룡은 용신을 위무하는 의례라기보다는 용신의 기능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강요의례였다.

넷째 유형은 유교 기고의례祈告儀禮의 양식들과 관련된다. 기고의례는 변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진 비정기적인 임시의례로서 유교 『오례의五禮儀』 중에서 길례吉禮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행해졌다. 기고의례는 정기적인 의례와 행례 절

차가 유사하였지만, 초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음복^{음복}과 고기의 일부를 받는 수조^{受昨}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신과 인간의 공감을 확인하는 음복수조의 절차가 생략된 기고의례는 감사와 보은보다는 구복이 강조되는 기원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기우제와 관련된 기고의례는 주로 삼각산·목덕산·한강·풍운뇌우단·북교·사직·종묘 등에서 행해졌으며, 간혹 여기에 기우제룡의 양식이 곁들여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기우제등록』에서는 홍수의 상황에서 비를 멎게 하는 기청제와 관련된 191건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뭄과 달리 홍수는 일거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한 초기에 단일한 형태의 의례를 신속하게 거행하는 것이 기청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홍수의 상황에서 거행한 기청제는 중앙의 국문^{國門}과 지방의 성문^{城門}에서 해당 방위의 산천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국문과 성문에서 거행한 기청제를 영제^{靈祭}라고 하는데, 사문에서의 영제는 문루 위에 제물을 진설하되, 신위가 안쪽을 향하게 하고 헌관이 밖을 향하도록 하였다.

『기우제등록』에는 기설제와 관련된 26건의 기록도 들어 있다. 기설제는 겨울에 행해지는 기우제라고 할 정도로 기우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행되었다. 따라서 기설제가 거행되는 제장과 제차도 기우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기설제는 1차적으로 종묘·사직·북교 등에서 중신이 거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풍운뇌우산천과 우사(이상 중신) 그리고 삼각·목덕·한강(이상 근시관) 등에서 거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우제등록』에는 기후의례 이외에도 수표^{水標}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 기록 건수의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주로 강물의 증감을 수표^{水標}직^直이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이며, 이를 근거로 기후의례와 관련된 논의들이 뒤따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기우제등록』은 물의 과부족^{過不足}으로 빚어진 자연재해 앞에서 해갈과 지우^{止雨}의 욕망을 문화적으로 표출하였던 각종 기후의례의 현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기후의례의 다양한 양식과 더불어 그것이 통일된 양식과 절차로 표준화되어 가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보여 주기도 한다. 『기우제등록』은 조선 후기의 기후 실상은 물론 거기에 대응하였던 기후의례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읽게 해 주는 좋은 기록문화라 할 수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에 유교 국가가 표출하였던 자연을 향한 위기의식과 문화적으로 축적한 실천양식을 통찰할 수 있다.

참고문헌 祈雨祭禮錄,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용부림과 용부림꾼(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유교 기양의례에 관한 연구(이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한국 기청제 연구(최종성, 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한국의 기우풍속에 관한 연구(강용권, 석당논총6,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2).

필자 최종성(崔鍾成)

나룻배싸움놀이

정월 대보름날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고 무사고를 기원하며 나룻배끼리 힘을 겨루는 놀이.

내용 나룻배싸움놀이는 강원도 속초시 만천동과 청대리(현재 조양동)를 왕래하던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며 힘을 겨루던 민속놀이이다. 만천동은 현재의 교동서쪽의 옛 지명인데, 만천호가 있다고 하여 만천동^{萬千洞}이라 불렀다.

속초에는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호^{石湖}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는데, 호수에서 행해지던 호상^{湖上} 민속이 전한다. 지역에 전하는 전설에 의하면 석호인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고 있으며,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을 통한 물길로 오가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불이 나면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자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하여 수룡이 죽고 말았다.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는 가뭄과 흉어가 들었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해 무당을 청하여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던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놀이를 연행하였다고 한다.

이 나룻배싸움놀이에서 진 마을에서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마을에 대접하고, 이긴 마을은 그해에 풍어와 풍작을 거둔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긴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나룻배를 타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한다.

과거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와 남으로 청대리 싸리제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대포동과 이어졌다. 두 마을 간 나룻배싸움은 정월 대보름날 시작된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용신제를 지낼 날짜를 정한다. 제관들은 목욕제계한 후 부정을 금하고 제를 지내는데, 이는 동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년과 풍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 후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한 다음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제물을 차려서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물에 뿌리면서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징이 울리면 마을 사람의 함성 속의 양편에서 나룻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치면서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패자가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상대편 나룻배를 밀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 청년들이 서로 힘을 겨루어 이기게 되면 그 마을은 풍어를 약속받은 것으로 믿는다고 한다. 나룻배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함께 논다. 나룻배싸움에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도선료도 받지 않고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대우해 준다.

나룻배싸움은 마을 청년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를 만나게 되어도 벌어진다. '혼례나룻배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 믿는다. 이것은 육지의 가마싸움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만천동은 동군東軍, 청대리는 서군西軍으로 갈려 편전偏戰 형태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편전 양식은 풍요제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나룻배싸움 때에는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른 장정들을 뽑아서 태우면 좋다고 한다.

암수의 용으로 상징되는 나룻배싸움은 나룻배를 이용하는 두 마을이 서로 화합하기 위한 과정이며, 서로 어울려 풍요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겨울철 청초호의 얼음이 언 것을 보고 새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는데 이를 용경龍耕, 즉 '용갈이'라 불렀다. 용경의 점치는 방법은 용이 남쪽을 향해 갈아 놓으면 풍년, 북쪽을 향해 엇갈이로 갈아 놓으면 흉년이 든다고 보았다. 남북으로 얼음 위에 밭을 간 것과 같은 굴곡의 모양을 보고 다음 해 길흉과 풍년을 점친 것이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용선희龍船戲와 같은 성격을 지닌 해양민속놀이로 평가된다.

특징 및 의의

속초 지역 나룻배싸움놀이는 마을을 오가는 나룻배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어민들에게 전승되는 용신龍神신앙을 바탕으로 연행되며, 양편으로 나누어 겨루는 제의적 형태의 민속놀이이다.

참고문헌 속초민속예술이아기마당(장정룡, 속초문화원, 2019), 속초시 어로민속지(장정룡, 속초문화원, 1997), 속초의 향토민속(장정룡, 속초문화원, 1992).

필자 장정룡(張正龍)

남원 용마놀이

전북 남원시에서 설달그믐 또는 정월 대보름에 재앙을 누르고 풍흉을 점치기 위해 편을 나눠 승부를 겨루는 대동놀이.

역사

용마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의 기록인 『용성지龍城誌』에 옛날부터 재앙災殃을 누르고, 그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 위해 용마놀이를 하였다는 대목이 있는데, 고을 이름이 '용성龍城'이었다. 이 점으로 보아 용과 관련된 지역명이 등장한 백제시대 이후로 그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민속대관』에 실려 있는 관련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원은 고대 마한의 영역에 속해 있었으며, 마한의 도읍지였던 달궁達宮 마을은 높이가 약 1,000m나 되는 고원 지대에 있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었던 입지 조건으로 인해 해마다 지리산 상봉上峯에 올라가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이렇게 기우제를 지낸 까닭인지 용이 비를 몰고 내려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 마한 땅은 백제에 병합되었다. 백제 왕은 남원에 풍년이 들자 고대로부터 용 때문에 잘 사는 고을이라 하여 '고룡군古龍郡'이라 이름 짓고, 후손들에게는 용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용마놀이를 하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용마놀이는 백제시대 이래로 행해진 남원 지역 고유의 민속놀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룡 | 전북 남원 | 국립민속박물관

용마놀이는 벽사의례(辟邪儀禮)와 기풍제의(祈豐祭儀)적 성격을 띠며, 조선시대 말까지 연행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 광복 이후 용마놀이가 복원되었는데, 1950년대 남원 소재의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청팀과 백팀이 승부를 겨루는 놀이 형태로 변화해 간간히 행해지게 되었다. 간헐적으로 이어져 온 용마놀이는 1970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1986년에 남원문화원 주도와 춘향문화선양회의 지원으로 남원 춘향제의 중요 행사로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용마놀이는 생김새, 색채와 장식 등이 점차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놀이 방법은 기존 기록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현재 용마놀이는 춘향제에서 이따금 재현되고 있다.

내용 용마놀이의 도구 제작 과정과 놀이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아 그 실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699년(숙종 25)에 편찬된 남원의 향토지인 『용성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대략적으로나마 그 놀이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용마놀이는 매년 제석(除夕)이나 상원(上元)에 사는 곳, 즉 용마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남(南)과 북(北)의 두 대열(隊列)로 나누어진다. 남과 북의 두 대열이 각각 큰 용마(龍馬)를 만들어 용(龍)의 무늬를 그린 후 오색으로 채색한다. 승부를 겨루기에 앞서 용마를 독륜(獨輪車)에 실어 거리를 도는데, 이때 여러 가지 놀이가 뒤따르기도 하였다. 용마놀이는 남쪽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북쪽이 이기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었다. 용마놀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관이 장려하여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 용마놀이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원문화원에서 발굴·재현한 용마놀이의 용마는 철골(대나무) 골조와 광목 등을 이용해 만들었다. 남북의 대립을 보여 주기 위해 남쪽은 황룡(黃龍), 북쪽은 청룡(靑龍)으로 채색된다. 용마놀이를 할 때 삼지창과 남·북기를 든 60여 명의 머리꾼이 용마의 선두에서 머리꾼끼리 대진하고, 용마의 좌우에는 짚방망이를 든 60여 명의 앞채꾼과 놀이꾼이 호위한다. 놀이꾼은 무섭게 꾸민 탈을 쓰고 짚방망이를 들면서 상대방 머리꾼 그리고 앞채꾼 등과 싸운다. 싸움 도중 용마를 뺏기거나 호위병이 패배하였을 때, 그리고 타고 있던 장수가 떨어지거나 수세에 몰리면 승부에서 패하게 된다. 용마놀이 승부가 결정되면 농악에 맞춰 광장을 돌며 놀이마당으로 끝을 맺는다.

특징 및 의의 용마놀이는 가장 오랫동안 전승되었던 남원 고유 민속놀이의 하나로,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행해진 시기와 편제가 기풍제의적 성격을 지닌 편싸움 계통의 대동놀이와 유사하면서도, 그 형태가 다른

쟁투 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남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남원 용마놀이의 원형 검토와 전승 실태(이명진, 남도민속연구10, 남도민속학회, 2004), 용성지(남원문화원, 1995), 한국민속대관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유목화(柳牧和)

동김녕 잠수굿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해녀회가 중심이 되어 매해 음력 3월 8일에 행하는 무속의례.

개관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는 해녀마을로 지칭될 정도로 여덟 개의 자연마을에 속한 바다 어장이 있고, 해녀들이 활동이 왕성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 동성동·신산동·청수동·봉지동으로 구성된 동김녕리에서는 해녀들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잠수굿'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잠수굿은 잠수회, 즉 해녀회 중심으로 행하여진다.

내용 동김녕 잠수굿은 구좌읍 동김녕리 해녀공동체가 매해 음력 3월 8일에 행하는 무속의례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날은 '요왕황제국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는 날'로 '동해용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신을 맞이하기 위해' 잠수굿을 한다고 믿는다.

신들에게 바칠 제물과 지역 단골이 먹을 음식은 해녀들이 공동으로 물질 작



동김녕 잠수굿 굿당 | 제주 제주시 | 1980 | 국립민속박물관



동김녕 잠수굿 용왕제 | 제주 제주시 | 1980 | 국립민속박물관

업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여 준비한다.

제물로 우선 시루떡·사발떡·돌레떡(도래떡)과 사과·배·밀감·곶감·대추·밤·비자 등 과일을 준비한다. 이어 생선으로는 명태와 옥돔을, 채소로는 콩나물·고사리·미나리를 마련한다. 그 밖에 지드림용 요왕지와 팔찌거리용 물색 명주, 백지, 시렁목(옷감), 술, 쌀, 메 그리고 조상들을 청할 때 쓸 원미를 준비한다.

제일에 참여한 단골들이 먹을 음식은 밥과 성갯국 그리고 반찬으로 군소 또는 문어숙회나 무침, 오분작구이, 방어회, 툇무침, 마늘장아찌, 해삼무침 등이 준비된다.

의례 재차 진행을 보면 북, 설채, 대양 등을 치는 ‘삼석울림’을 통해 굿 시작을 알리며 초감제를 행한다. 초감제는 인문사항의 발생을 알리는 ‘베포도업침’, 굿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날과국섬김’, 축원하는 자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열명’, 굿하는 까닭을 아뢰는 ‘연유담음’, 굿하는 제청에 신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제청신도업’을 한다. 이어서 문을 열어 신이 오기를 도량춤으로 기원하는 ‘군문열림’, 신의 내방을 명도로 확인한 후 신의 뜻을 아뢰는 ‘분부사뵐’, 신이 내려오는 길의 부정을 없애는 ‘새도림’, 내방한 신들을 위계에 맞게 대접하는 ‘젯도리얏혀살려움’을 행한다.

그리고 도래한 신들을 대접하는 ‘추물공연’에 이어 요왕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자청비신화 ‘요왕세경본풀이’를 구술한 후 다시 요왕과 당신을 맞이하는 초감제를 행한다.

이어서 향으로 제장의 분위기를 정화하는 ‘상축권상’과 ‘새도림’을 한 후 ‘신청궐’을 하기 전 채룡을 들고 춤을 추는 ‘도래둘러냄’, 악기신을 달래는 ‘젯북맞이굿’을 한다. 그리고 미처 오지 못한 신을 초대하는 ‘오리정신청궐’을 한 후 신과 인간이 동락하는 무가인 ‘서우젯소리’로 자리의 흥을 돋우고, 본향신의 도래를 알리는 ‘본향뽀’과 요왕신이 오는 길을 닦는 모희인 ‘요왕질침’에 오면 굿은 신명을 더한다.

의례가 끝나면 제물을 백지에 싸서 바다로 던지는 ‘지드림’을 한 후 씨앗을 바다에 뿌리며 풍년을 기원하는 ‘씨드림’을 한다. 단골들이 개별적으로 점을 쳐서 산수를 받아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액막이를 한 후 짚배를 바다로 띄워 보내는 ‘배방선’을 하여 신을 돌려보내는 ‘도진’으로 마무리된다.

특징 및 의의

잠수굿은 제주도에서 음력 2월 해산물의 씨앗을 뿌리러 찾아오는 외방신인 영등신에 대한 의례인 영등굿과 성격이 유사하다. 하지만 동김녕 잠수굿은 해녀회가 중심이 되어 의례를 담당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 해의 무사고와 무탈을 바라는 새해맞이 의례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례는 해녀공동체의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마을 내 해녀회의 위상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참고문헌 제주도 잠수굿 연구(강소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좌혜경(左惠景)

물부리굿

조선시대에 지냈던 기우제.

내용

물부리는 담배를 재어 불을 붙이는 담뱃대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매우 뜨겁고 연기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뭄이 심하고 날씨가 더운 상황이 마치 물부리 같아서 물부리굿이라고 한다. 물부리굿에서 물부리라는 명칭은 연기처럼 안개가 피어오르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졌다.

굿을 할 때 무녀들은 짚으로 용을 만들고, 타악기를 시끄럽게 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한다. 그런 다음 용을 객사로 맞아들여 모시고 비가 올 때까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용을 신체로 만들고 있어서 물부리굿이 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악기를 치는 것은 하늘을 분노케 하여 비를 내리게 하는 기우제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현재는 물부리굿이 행해지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다.

참고문헌 잘돼도 못돼도 다 조상탓(이규태, 조선일보사, 2001), 조선조무속 국행의례 연구(최종성, 일지사, 2002).
필자 홍태한(洪泰漢)

밀양 용호놀이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해마다 정월 보름날 놀았던, 용과 호랑이의 상박놀이.

개관

밀양 용호놀이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서 행해 오던 민속놀이이다. 이 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래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중단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 와서 차츰 우리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갈 때 현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놀이가 재현되었다. 무안(武安)은 원래 수안(水安)으로 부르다가 1922년부터 무안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역원과 사창·시장이 있었



밀양 용호놀이 | 경남 밀양 | 2018 | 밀양시청

으며, 창녕·청도·창원 등지로 통하는 교통과 교역의 중심지였다. 따라서 옛날부터 농산물의 집산지였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곳이다. 이러한 입지 환경에서 일찍부터 민중의 대동놀이였던 줄당기기와 용호놀이 등을 놀아 왔던 곳이다.

용호놀이의 원형은 줄당기기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용호놀이는 조선 전기부터 놀아 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에 고증할 방법은 없다. 용호놀이는 짚으로 용과 호랑이를 상징하는 큰 줄을 만들어 서로 상박하는 놀이인데, 이곳 서쪽 마을의 질부산은 백호 모양이고 동쪽 마을의 진등산은 청룡 형상으로 앉아 있어 이를 상징화하여 놀게 된 것이 그 유래라 한다. 이 놀이는 처음에 양쪽 대장이 줄머리에 타고 서로 부닥쳐서 승부를 내거나, 대장끼리 접전하여 떨어뜨리거나, 양쪽 줄 위에 호랑이와 청룡을 각각 만들어 태우고 이를 먼저 빼앗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겨루었는데, 모두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이를 지양하기 위해 청룡 줄에는 여의주로 분장한 소년이 타고, 백호 줄에는 금양(金羊)으로 분장한 소년이 타서 양쪽 줄이 접전할 때 이들이 상대방의 기를 빼앗는 것으로 싸움을 약화시켰다.

내용 용호놀이는 용(龍)과 호(虎)의 상징적인 싸움이다. 전해 오는 풍수 사상에 의하면 명당은 사람이 양팔을 벌려 감싸듯이 보호한다고 여겼는데, 명당 둘레를 감싼 동쪽 산줄기를 좌청룡이라 하고, 서쪽 산줄기를 우백호라 하였다. 산줄기를 신령한 동물인 청룡과 백호로 상징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무안의 용호놀이를 청룡과 백호의 싸움으로 설정해 놓고, 짚으로 큰 줄을 만들어 동쪽을 청룡 줄, 서쪽을 백호 줄로 명명하였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승부 짓기를 해 오다가 지금은 동부의 청룡 줄에는 대장과 용이 가장 원하는 여의주를 태우고, 서부의 백호 줄에는 대장과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금양을 태워서 서로 공격한다. 대장은 큰 칼을 빼들고 군사들을 독려하고, 접전할 때는 상대방 대장과 칼싸움을 벌인다. 이때 금양과 여의주로 분장한 소년이 상대방의 기를 빼앗아 온다.

용호놀이를 할 때 옛날에는 줄당기기에 쓰는 큰 줄을 이용하였으나, 요즘에는 아예 용호놀이에 쓰는 머리가 큼직한 대형 줄을 따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줄은 머리 쪽에 있는 원형의 고가 앞쪽으로 향하여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접전할 때 양편 줄이 부닥쳐서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도록 만들어져 있다. 줄당기기 줄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길이가 100m 정도 되는 큰 줄로서 보통 한 줄에 약 100명의 인원이 붙어서 둘러메고 다닌다. 줄이 나갈 때는 농악대와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이 양편으로 에워싸고 춤을 추며 따른다.

특징 및 의의

경남 밀양시의 무안은 오래된 산간벽지 마을이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조상 전래의 고유한 민속놀이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다. 정월 대보름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 행하는 줄당기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놀이인 용호놀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영산에서는 쇠머리대기를 하고, 안동에서는 차전놀이를 하는데, 무안에서는 용과 호의 싸움인 용호놀이를 벌였다. 쇠머리대기는 소와 소의 싸움을 형상화한 것이고, 차전놀이는 수레와 수레가 서로 밀치는 싸움이라면, 용호놀이는 청룡과 백호의 싸움을 보여준다. 무안의 산세는 동편의 진등산과 서편의 질부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풍수 사상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용과 호의 싸움을 벌이는 민속놀이는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

용호놀이는 대단히 상무적이어서 마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격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보는 이들도 전율을 느낀다. 줄 위의 대장은 장검을 빼들고 군사들을 지휘하는데 전진의 속도, 줄을 공중으로 떠받치게 하는 것, 힘차게 나아가 상대와 충돌하게 하는 것 등을 몸짓과 칼짓으로 지휘한다. 접전을 할 때에는 줄에 탄 대장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낙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놀이 때에는 맹렬히 싸우지만 싸움이 끝나면 적대감을 씻고 모두가 한마당을 이뤄 화동하여 논다. 무안 사람들은 이러한 민속놀이를 치르면서 마을 사람들끼리의 화합을 다져 왔으며, 이제 새로 시작될 농사를 위한 새로운 힘을 비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호놀이는 과거 즐길 거리가 없었던 시절에 즐거운 마을 축제가기도 했지만, 농사의 준비를 기약하는 생산적인 행사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무안 용호놀이 연구(배도식,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한국민속의 현장(배도식, 집문당, 1993), 한국민속종합보고서3-경상남도(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배도식(裴桃植)

반야용선

般若龍船

불교에서 차용한 무속 용어로, 굿을 받은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타고 간다는 배.

개관

불교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은 사바세계에서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건너갈 때 타는 상상의 배이다. 용선이므로 용과 배의 형상이 결합된 형태로 만든다. 대나무 가지로 배 모양을 만들고 한지를 이용하여 배의 형상을 만든다. 색지나 물감을 써



우목리 풍어제 용선 | 경북 포항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대포동 용왕굿 지선 | 강원 속초 | 1988 | 국립민속박물관

서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종이를 이용하여 용의 머리를 만들고, 용선의 등 부분에는 선실을 만든다. 결면에는 종이를 오려진 팔보살을 덧대기도 한다. 동해안에서는 지화도 꽃아 장식한다. 일반적으로 반야용선은 일회용으로, 오구굿이 끝나면 불태운다. 오늘날 동해안의 경우 용의 머리와 팔보살 모형은 만물상에서 인쇄되어 만들어진 것을 사서 쓰고, 재활용한다. 동해안에서는 반야용선에 길베를 연결하여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반면, 남해안에서는 반야용선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반야용선은 배의 바닥이 완전히 막혀 있지만, 남해안 반야용선은 트여 있다.

내용

반야용선은 전남 씻김굿, 거제·통영 중심의 남해안과 동해안 오구굿에서 주로 쓰인다. 다만 그 용어를 '반야용선'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전남에서는 녀당석(신태집)을 용선과 반야용선이라고도 하며, 이 둘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해안과 동해안의 반야용선은 망자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신태집(신평주리)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동해안굿에서는 반야용선 대신 '선개용선'이라 부르며, 남해안굿에서는 '용선'이라고만 부른다.

동해안의 반야용선은 별신굿과 오구굿에서 모두 사용된다. 별신굿에서는 굿의 말미에 있는 뱃노래굿에서 사용된다. 굿을 받으러 오신 신들이 돌아갈 때 이 배를 타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신령의 이동 수단으로 해석된다.

특징 및 의의

동해안에서 용선은 굿당을 장식하는 무구이기도 하면서 별신굿에서는 굿의 말미에 뱃노래굿에서 사용된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용선은 모셔졌던 신들이 타고 갈 운송수단이다. 오구굿에서는 두 차례 연행에 사용된다. 굿의 초반부에 (오는)뱃노래굿, 굿의 후반부에 (가는)뱃노래굿이다. (오는)뱃노래굿은 굿에 신들이 올 때 타고 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가는)뱃노래굿은 신들의 이동 수단이

기보다는 망자가 타고 극락에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뱃노래굿을 할 때 관중은 이 배에 돈을 얹으며 두 손을 모은다.

남해안에서의 용선은 보통 집에서 굿을 할 때 문밖에 걸린다. 굿 진행 중에 이 반야용선과 관련한 의례가 없다. 그러나 굿의 말미, 즉 뒷전에 해당되는 시석 이전에 용선놀이(용선놀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굿의 규모가 크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즉 굿의 비용을 많이 받고 하는 곳에서 이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마치 사자탈을 뒤집어쓰는 것처럼 용선을 쓴다. 산이(약사) 한 사람이 재담과 축원의 무가를 부르면 사자춤을 추듯 용선춤을 추며 돌아다닌다. 이때 관중은 용선의 등에 별비를 얹는다.

참고문헌 남해안굿 갈래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동해안 오귀굿 구조의 현장론적 연구(김형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경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한국무속의 연구(최길성, 아세아문화사, 1978).

필자 김형근(金亨根)

벽골제 쌍룡놀이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골마을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

개관 한국 최대最大이고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인 벽골제(碧骨堤)가 있는 김제는 우리나라 도작문화(稻作文化)의 발생지로 농경문화를 꽃피워 온 곳이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골마을에서 전승되는 벽골제 쌍룡(雙龍)놀이는 1960년 당시 김제문화원과 김제군이 ‘김제군민의 날’(음력 9월 9일)에 개최한 향토축제에서 현지 마을의 전설과 놀이를 바탕으로 재현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 김제의 대표적인 놀이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재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주요 행사로 전승되고 있다.

벽골제에 관한 전설을 놀이로 형상화한 쌍룡놀이가 김제 지방의 특색 있는 민속놀이로 부각되어 1975년 9월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속놀이 부문 문공부 장관상(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전북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내용 쌍룡놀이의 모태가 되는 단야(丹野) 남자의 전설이 전해 오는 벽골제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축조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로서 충북 제천시의 의림제(義林堤), 경남 밀양시의 수산제(水山堤)와 함께 삼한시대의 3대 수리시설 중 하

나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新羅本紀) 2 흘해니사금(訖解尼師今) 21년조』에 “처음으로 벽골지(碧骨池)를 개착(開鑿)하니 언덕 길이가 1,800보步이다(二十一年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라고 하여 330년에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벽골제의 축조는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어 두었다가 농번기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함으로, 그 방대한 규모는 당시의 토목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벽골제 전설에 의하면, 현재 전북 김제시 월촌동과 김제시 부량면의 경계를 이루는 원평천을 가로막은 벽골제 제방에서 약 200m 하류 지점의 신타미산(草鞋山) 북쪽 끝에 있는 커다란 웅덩이인 용추龍湫에 백룡(白龍)이 살면서 벽골제를 수호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용을 벽골룡이라 불렀다. 또한 벽골제 중간 제방 약 100m 하류 지점인 부량면 용골마을 남단의 연포천(漣浦川)에는 청룡(靑龍)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가리켜 쌍룡추(雙龍湫)라 하고, 백룡과 청룡을 쌍룡이라고 불렀다.

백룡은 온후(溫厚)하여 인명을 수호하고 제방을 지켜 주며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청룡은 본래 성질이 사납고 이따금 비바람에 의한 재난을 일으켜 제방과 가옥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이웃에 살고 있는 백룡이 충고하였으나 청룡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끝내는 쌍룡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붕괴 직전에 놓인 벽골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청룡은 안전한 축제(築堤)와 마을의 안녕 및 풍년을 보장하며 김제태수(金堤太守)의 외동딸 단야의 목숨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결국 단야 남자는 수많은 장정이 죽음을 무릅쓰고 쌓은 벽골제를 지키고 김제평야와 만경평야의 풍년을 가져오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되고, 이러한 단야의 거룩한 희생정신에 감복한 청룡은 물러나고 인신 제물의 악습도 없어지게 되어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놀이의 내용을 보면, 쌍룡놀이는 벽골제에 전승되는 단야남자의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축제공사 현장—쌍룡놀이—단야의 희생—단야의 소생 순으로 전통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놀이에 등장하는 쌍룡이나 의상과 도구들 모두 전통 쌍룡놀이에 근거하여 그대로 제작하였다.

제1장 축제공사 현장에서는 청룡의 심술로 어렵게 쌓아 올린 벽골제가 무너져 내린다. 이때 국가에서 기술자 원덕랑(元德郎)을 파견하여 김제태수와 인부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한다. 김제태수 유품(由品)은 원덕랑을 도와 인부들을 독려하고, 독을 쌓기 위해 인부들은 토석을 운반하면서 말바기 노래를 부른다.

제2장 쌍룡놀이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과 번개불이 일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동편에서



벽골제 쌍룡광장 | 전북 김제 | 2023 | 국립민속박물관·강중희



벽골제 쌍룡놀이 | 전북 김제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장윤정

청룡이 괴성을 지르며 공사장에 나타난다. 놀란 사람들이 원덕랑을 원망하면서 도망가고, 서편에서 백룡이 고갯짓하면서 청룡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백룡은 독을 수호하기 위해 몇 번이나 청룡을 달래 보지만 포악한 청룡은 듣지 않고 독을 무너뜨리려 한다. 결국 백룡과 청룡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끝내는 백룡이 당하지 못하여 패하고 다시 서편으로 사라진다.

제3장 단야의 희생에서는 승리한 청룡이 완공되어 가는 독을 무너뜨린다. 이때 이속(伊述)이 앞에서 지휘하며 교자상에 보쌈한 여인(월내(月乃))을 싣고 청룡 앞으로 다가온다. 청룡 앞에 여인을 내려놓고 이속들은 포대를 벗긴다. 이속과 포대가 벗겨지는 순간 월내남자가 아닌 태수의 딸 단야임을 알자 이속들은 놀라며 뒷걸음질로 도망친다. 이때 단야의 창이 나온다. 창이 끝날 무렵 단야는 먼저 부모님께 비통하게 고별인사를 올린다. 원덕랑과 월내가 결혼하여 누대토록 영화를 누리라고 축원한 뒤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서서히 청룡 앞으로 다가가다 쓰러진다. 이러한 단야의 태도를 지켜보던 청룡은 단야의 의에 감화되어 머리를 끄덕이고 뒤로 사라진다.

마지막 제4장 단야의 소원무에서는 단야가 기절한 뒤 김제 태수 유포미 뒤늦게 이속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 달려온다. 다행히 단야가 죽지 않고 기절해 있음을 확인한 태수는 딸을 얼싸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단야의 거룩한 정성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단야는 의식이 들자 아버지 품 안에 머리를 묻고 감회 어린 울음을 터뜨린다. 이때 이속들과 몸종 다복이 그리고 인근에 있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모여들어 '단야의 의로운 치성에 천우신조가 있었다.'면서 감격한다. 잠시 후 고을 백성들이 경사를 맞은 듯 농약을 치고 농부가를 부르며 군무를 추는 것으로 놀이의 막이 내린다.

특징 및 의의

벽골제 주변에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쌍룡놀이는 논농사 초기에 발생한 향토신사(嚮土神祀)로 생각된다. 수리관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일로, 전국에서 가장 기름지고 넓은 호남평야의 한가운데에 있는 벽골제의 위상은 특히 높았다. 쌀을 많이 생산해야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튼튼해지므로 벽골제의 중요도는 매우 높았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던 벽골제를 둘러싸고 전승되던 제방공사와 용의 이야기에 후대에 와서 인간들의 애정 갈등이 추가되고 함께 얽히면서 놀이화한 것이다. 따라서 벽골제의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여인의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모시고, 농사에서 중요한 비를 관장하는 신격(神格)인 용을 등장시켜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있는 쌍룡놀이가 놀아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벽골제사(정진형, 대흥출판사, 1982),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필자 한서희(韓抒希)

상진일

上辰日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로 맞는 용날.

개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이러한 풍속이 황해도와 평안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대보름날(上元) 풍속으로 기록하고 있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는 이날 걷는 물을 '노용자(撈籠子)'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진일(上辰日)에 하는 풍속으로 콩 볶기, 머리 빗기, 칼질 안하기, 일 안하기 등이 있다. 이날 콩을 볶아 먹으면 그해 곡식에 썩이 슬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상남도 지역에도 이런 풍속이 있다. 이날 칼질을 하지 않는데, 만약 칼질을 하면 일하는 날마다 비가 오고, 일꾼들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한다.

내용

상진일은 정초십이지일의 하나로 '첫 용날'이라고 부른다. 전국적으로 상진일에 전승되는 풍속으로는 '용알뜨기'가 있다. 정월 첫 용날이나 대보름에는 새벽에 하늘의 용이 지상으로 내려와 우물에 알을 풀어놓고 가는데, 이 우물물을 제일 먼저 길어다가 밥을 지으면 그해 운이 좋아 농사가 대풍이 든다고 한다. 부녀자들이 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앞다투어 물을 길어왔다. 용의 알을 먼저 떠간 사람이 그 표시로 지푸라기를 잘라 우물에 띄워 두면, 다음에 온 사람



진신 안비라대장 | 가로70 세로136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은 용의 알이 있는 다른 우물을 찾아가게 된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상진일에 머리를 감으면 농사철 일할 때 비가 자주 온다고 머리를 감지 않고, 그 대신 머리가 용꼬리처럼 길어지라고 머리를 빗는다. 그러나 같은 고창의 성송면에서는 상진일에 머리 빗질을 하면 혼사와 같이 큰 일을 치를 때 비가 온다고 하여 머리도 빗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는다.

상진일에 일을 하면 바쁜 농사철에도 일할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한다. 특히 물 길는 행위와 비가 오는 것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첫 용날에 물을 길지 않는다. 이날 물을 길으면 여름철에 바쁘게 일할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한다. 특히 여름보리 타작할 때 비가 와서 방해가 된다고 한다. 어촌에서도 어장을 할 때 비가 와서 해를

끼친다고 해서 물을 길지 않는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첫 용날에 지붕을 이지 않는데, 이날 지붕을 이면 불이 난다는 속신이 있다. 전주시에서는 ‘수수’ 자를 네 기둥에 거꾸로 붙여 화재막이를 한다. 또 첫 용날이 드는 날에 따라 비가 많고 적음을 점치는데, 그해 첫 용날이 초닷새에 들면 용이 다섯 마리이고, 나흘날에 들면 네 마리, 열이튿날에 들면 열두 마리라고 한다. 용의 수가 많으면 비가 많이 오고, 적으면 비가 적게 온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비가 골고루 내려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신水神으로서의 용신龍神을 잘 섬겨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첫 용날은 일 년 농사의 풍흉과 관계있다고 믿어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別陽歲時記,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85), 한국의 세시풍속(최상수, 흥인문화사, 1960),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필자 천진기(千鎭基)

석척기우

蜥蜴祈雨

용의 형상과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도마뱀(蜥蜴)을 이용한 기우의례.

내용

석척기우蜥蜴祈雨는 용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지 않고 용을 대신하는 생물체(도마뱀, 도롱뇽)를 주술적으로 이용한 대룡기우代龍祈雨의 한 방식이다. 석척기우는 주로 연못가에 동자들을 모아 놓고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게 하는 기우의식이었다. 이것은 유사룡類似龍에게 소음과 주문을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연못에 거하는 부동의 잠룡을 일깨우기 위한 강요의례였다.

석척기우는 중국 당대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유양잡조酉陽雜俎』에는 도롱뇽을 독에 넣고 밀봉한 다음 10세 미만의 아동 10여 명에게 청죽靑竹으로 독을 주야로 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송대에는 청의靑衣를 입은 28명의 동자들에게 도마뱀이 들어 있는 독에 주문을 가하게 하는 석척기우법을 공식적으로 반복하였다. 조선 태종 7년 6월에 광연루에서 석척기우를 시행하였다. 이때 석척기우는 푸른 옷을 입은 20명의 동자들이 버드나무 가지로 도마뱀이 든 두 개의 독을 두드리며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이미 국가의례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우제에서도 석척기우가 행해졌다. 숙종 대에는 경회루慶會樓, 모화루慕華樓, 춘당대春塘臺의 연못가에 수십 명의 청의동자를 동원해 실행하는 석척기우를 국행기우제의 공식적인 절차로 정례화하였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모화루의 석척기우만이 국가의례에 남고 나머지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석척기우의 주술적인 의도는 동자들이 외우는 주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송사宋史』 권102 예지55 예5에 실려 있는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라 비를 흥건히 내리게 하면 너를 돌려보내리라蜥蜴蜥蜴 興雲吐霧 雨令滂霧 令汝歸去.”라는 주문은 석척기우문의 전형형을 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용을 부리고 자극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보여 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석척기우의 주문도 중국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태종실록太宗實錄』에 보이는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토해내라 비를 흥건히 내리게 하면 너를 돌아가게 놓아주리라蜥蜴蜥蜴 興雲吐霧 興雨滂霧 放汝歸去.”라는 석척기우문은 송대의 주문과 약간의 자구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주술의 문장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석척기우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즉 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강요의례적 주문 내용이 비속하고 비윤리적이라

고 비판되기에 이른 것이다. 영조 대에 이르러 석척기우문은 “도마뱀아 도마뱀아 안개를 토해내고 구름을 일으키라 비를 내려 흥건히 적시어 속 타는 이 마음을 씻어 주어라 蜥蜴蜥蜴 吐霧興雲 降雨滂沱 滌此熒熒.”로 바뀐다. 이것은 영조가 숙종의 시문집에서 발굴한 석척기우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대룡代龍을 압박하기보다 대룡에게 기원하고 호소하는 분위기를 중시하는 의례경건주의적 맥락에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다. 『기우제등록祈雨祭禮錄』 5책 뒤표지 속면에 수록되어 있는 별도의 석척기우문도 내용상 영조 대의 것과 일치한다.

특징 및 의의

석척기우는 기우제禱祈雨祭禮의 한 유형으로서 입체적인 구조물이나 회화를 통해 용의 모습을 표현하기보다 용을 대신하는 동물을 직접 이용해 용을 현존시키고, 여기에 반복되는 소음과 주문을 가함으로써 강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대룡기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찍이 중국 당·송대에 보편화된 석척기우는 조선 초기에 시행된 이래 국가 및 지방의 기우의례로 확대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행기우제의 12제차에 경회루, 모화루, 춘당대의 석척기우가 공식화되었다. 모화루의 석척기우는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석척기우에 사용된 주문은 용신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언어로 용을 압박하고 재촉하는 의례적인 수단이었다. 강요의례적 성격을 지니는 석척기우문은 가뭄에 처한 인간의 절박한 심정과 용신에 대한 호소를 담은 기원의례의 내용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祈雨祭禮錄, 기우제등록과 기우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용부림과 용부림꾼(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 1938), 中國シャマニズムの研究(中村治兵衛, 刀水書房, 1992).

필자 최종성(崔鍾成)

어변성룡도

魚變成龍圖

잉어가 용으로 바뀌는 내용을 도상화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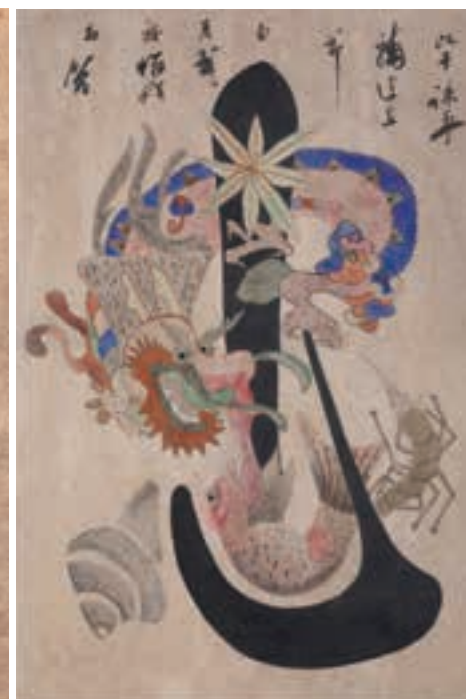
내용

어변성룡도魚變成龍圖의 정확한 명칭은 어리변성룡도魚鯉變成龍圖이나 이보다는 약리도躍鯉圖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림 소재가 물고기여서 어해도魚蟹圖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고사故事에 바탕을 둔 연원이 오랜 그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존하는 그림에 앞서 고려청자 등 도자기의 표면을 장식한 무늬에서 먼저 살필 수 있다. 이에 늦어도



약리도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문자도 8쪽 병풍 중 충 | 일제강점기 | 국립민속박물관

고려시대에는 이 소재의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선 말기에 제작된 민화를 통해 그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민화 전시회를 통해 ‘뛰는 잉어’란 의미로 약리도나 어변성룡도란 명칭으로 공개되었다. 하지만 민화에 앞서 일반 감상화 범주에서도 선호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예는 많지 않으나 조선 후기 몇몇 문인화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확인된다. 19세기 조선 말 백자 접시 문양에서도 어변성룡도의 일정한 유형을 살필 수 있다.

‘용문龍門에 오르다.’라는 뜻인 등용문登龍門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거나 또는 관문官門을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잉어가 중국 황허[黃河] 강 상류의 급류인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설화에서 비롯한다. 과거급제로 벼슬 살이인 관직에 나아감, 즉 출세를 뜻한다. 이에 연원을 둔 조형미술은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이른 시기 공예와 회화에서부터 살필 수 있다.

용문은 황허 상류의 협곡 이름이다. 이 근처는 매우 급히 흐르는 여울에, 급류를 뛰어 오르는 물고기들은 드물다. 반면 오른 물고기는 용으로 변모한다는 전설이 있다. 이에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입신출세 가도에 오름을 ‘용문에 오르다’라고 했다. 중국에서는 진사進士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출세의 제일보라 하여 등용문이라 했는데 등용문에 반대되는 말은 점액點額이다. 점點은 상처를 입

는다는 뜻으로, 액額은 이마이니 용문에 오르려는 도전에 실패해 바위에 부딪쳐 이마가 깨져 피를 흘리며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칭한다. 낙방자落榜者나 생존경쟁의 패배자를 뜻한다.

환관宦官의 횡포가 심한 후한後漢 말 환제桓齊 때 이러한 환관들에게 저항한 정의과 관료 중 두드러진 이응李膺(110~169)은 혼탁한 궁정 안에 있으면서 항상 몸가짐을 조심했다. 고결한 삶의 자세로 당시 '천하의 모범 이원례(원례元禮는 이응의 자字)'라는 칭송이 자자했다. 특히 젊은 관료들은 그를 경모해 그의 추천을 받음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으니 이를 등용문이라 일컬었다.

특징 및 의의

약리도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민화 특별전이나 현대 민화전을 통해 다양한 시도로 여러 패턴이 알려졌다. 주류는 대체로 백자 접시와 같은 구성과 구도이다. 도자 문양과 민화의 상관관계는 이 주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며 정형화된 백자의 무늬보다는 민화가 더욱 다양한 구성과 구도를 보인다. 산 대신 떠오르는 붉은 태양에 넘실대는 파도를 배경으로 그 중앙에 잉어를 등장시킴이 일반적이다. 때로는 연꽃 좌우에 대칭으로 등장시키는 등 한 마리만이 아닌 둘을 같이 나타내거나 세 마리가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기도 한다.

민화 영역에선 짙은 채색에 긴 제사題詞를 적은 것, 화면을 상하로 양분해 하단에 주인공인 잉어를 그리고 상단에 붉은 태양과 구름 좌우로 괴석과 대나무를, 상단에 괴석과 소나무 및 매화를 같은 비중으로 등장시킨 것, 붉은 태양과 푸른 물 이 두 채색과 함께 그린 잉어의 채색 등은 변화와 배경 소재로 응용이 가능해 오늘날 현대 민화에서도 자주 그린다.

무엇보다도 임신출세라는 좋은 상징성과 표현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 즐겨 그려진 소재로 사료된다. 어해도 범주에서 독립된 한 폭이나 일괄 병풍에 한 요소로도 등장한다. 출세의 기원에서 사랑방뿐 아니라 장식적인 성격으로 경축일이나 신혼부부의 방 등에 드리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문헌 後漢書, 김상(국립중앙박물관, 2012), 십이지신 용(이여령, 생각의나무, 2010), 용 불멸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중국문화 중국정신(C.A.S. Williams, 이용찬 외 역, 대원사, 1989), 한국의 문양 용(국립대구박물관, 2003).

필자 이원복(李源福)

어부심

정월 열나흘날 밤이나 대보름 새벽 또는 밤에 강이나 바다에서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인 여성이 물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집안이 잘되는 것 등을 용왕에게 비는 의례.

역사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1819) 상원조上元條에 “깨끗한 종이에 흰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것을 어부심[魚臯施]이라고 한다.”라는 매우 간단한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어부심이라는 글자의 뜻은 물고기나 오리[臯]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는 대보름날에 그해의 액막이를 위해 조밥을 강물에 던져서 고기가 먹게 하는 일이다. 물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어부심은 1970~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보름 전날 밤에 한강 변에서 성행하였다. 특히 제1한강교 남쪽이 성대하였다. 열나흘날 저녁에 한강을 지나는 사람들은 해마다 어두운 강물에 비치어서 아롱지는 무수한 불빛이 빚어내는 기이하고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현재에도 정월 열나흘날이나 대보름 새벽에 어부심을 하는 이들을 간혹 목격할 수 있다.

내용 어부심은 정월 열나흘날이나 대보름날에 주부가 냇물, 강, 바다, 집안의 우물 등에 밥, 과일, 떡, 나물, 술, 시루떡, 미역국, 생쌀, 조 등 제물을 마련하여 용왕에게 절을 올리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일이다.

어부심은 어부슴, 어부시魚臯施, 어부식魚付食, 용궁맛이, 용왕제, 용왕먹이기, 용왕산제, 물산제, 액막이 등으로도 불린다. 앞의 셋은 물고기와 관련되어 물고기에게 베풀어 먹인다는 뜻이고, 나머지 뒤의 명칭은 모두 용궁이나 용왕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우물이나 내, 하천, 강, 바다 등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용궁이나 용왕과 관련시켜 생각한 관념이 어부심에도 적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용어가 통용될 수 있는 것은 물고기가 사는 곳과 용궁, 용왕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부심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에 존재하고, 강이나 바다가 없는 곳에서는 냇물이나 집안의 우물에서도 행해진 용왕신앙이다. 어부심은 물을 관장하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반영된 신앙이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용왕의 노여움을 산 탓이기에 이를 막기 위해 용왕을 달래고 위해 준다. 용왕은 신격으로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정 단원에서 나타난 것이 어부심이다. 어부심은 용왕에 대한 신앙이 마을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정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어부심의 주체는 집안의 여자에게서 여자에게로 전승된다. 기원의 내용은 가족들이 잘되게 해 달라는 것, 탈 없게 해 달라는 것, 병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것, 자식들이 무사하게 해 달라는 것 등이다. 더욱 일차적인 기원 내용은 바로 앞이 물가이니 물가에서 아이들이 별 탈 없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이다.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강은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흔히 말한다. 강 마을 아이들은 강을 제집 마당처럼 생각하고 놀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고 일 년 내내 무사하게 놀게 해 달라고 빈다.

주로 정월 열나흘날 밤이나 대보름날 새벽 어부심을 한다. 이는 부정이 타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때에 정성스럽게 하려는 것이다. 어부심에 쓰는 바가지를 만들 때 화장실 지붕에 올린 박은 쓰지 않고 행랑지붕처럼 깨끗한 곳에 올린 박을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박은 따로 보관해 놓을 정도로 정성을 들이기도 한다. 또한 새 밥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왕신앙은 우리나라의 여러 신앙 가운데 오랜 기원을 보인다. 용궁, 용왕, 물에 대한 신앙의 기록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된다. 용왕신앙은 물의 풍요와 기우祈雨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였지만, 제액초복除厄招福 신앙도 함께 작용하였다. 용왕에 대한 기원은 단순히 물의 풍요와 정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물을 위하는 사람들의 액운 제거와 풍운 순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데까지 이어졌다.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어부심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용왕을 달랠으로써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차적인 기능이 ‘날마다 물에 나가 노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용왕에 대한 인식이 투사된 것이 온 집안이 아무 탈 없이 잘되고 무사한 것이다. 이는 용왕에 대한 신앙이 단순히 ‘물’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민속 전승 주체자의 모든 생사를 관여하는 신격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어부심은 그 기원의 목적이 순전히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하는 것, 집안이 잘되는 것이라는 가정신앙의 기본 개념과 일치한다. 어부심은 가정신앙과 그 기원의 내용이 같지만 그 신격이 가정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신앙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는 ‘여성신앙으로서 가정을 위한 의례’라 할 수 있다. 가신과 어부심은 모두 유교적 제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행해진 주체적인 의식이라는 데서 여성신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1984),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3대 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2-한강(경기도박물관,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선무속의 연구-하(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정선군지(정선군, 1978),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민속의 세계(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연구(임동권, 집문당, 1993), 한국의 세시풍속(장주근, 형설출판사, 1984), 한국의 세시풍속1-서울·경기·강원·충청도(국립민속박물관, 1997), 해신이 지켜온 어촌(문화체육부, 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1996).

필자 이성희(李聖熙)

영노

야류·오광대에서 양반을 질타하는 해학적 성격의 상상 속 동물.

개관

영노가 등장하는 민속극은 가산오광대, 고성오광대, 김해오광대, 마산오광대, 통영오광대, 동래야류, 수영야류 등이다. 영노는 양반 99명을 잡아먹고, 한 명을 더 잡아먹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상 속 동물이다. 영노는 양반을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면 공세적으로 양반에게 달려든다. 영노가 등장하는 영노 과장은 사건의 발단과 첨예한 갈등, 이어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까지 보여 준다. 양반은 갖은 핑계를 대며 영노의 공격을 회피하지만, 곤경에 빠진다. 영노의 공세가 지닌 내면적 의미는 양반에 대한 비판이다. 야류·오광대에서 영노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양반 한 명을 더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영노도 있고, 승천 등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영노도 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영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노도 있다. 양반을 잡아먹는 영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노도 있다. 꼭두각시놀음에도 영노가 등장하지만 야류·오광대의 영노와는 성격이 다르다.

내용

영노는 야류·오광대의 영노 과장에 등장하는 해학적인 상상의 동물이다. 영노는 양반을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면 양반을 몰아붙인다. 몰아붙이는 태도는 일방적이며,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는다. 신체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승천하기 위해 잡아먹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양반에 대한 정신적 압박도 일방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해학적으로 표현된다. 영노의 공격으로 양반은 죽거나 죽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다. 영노와 양반이 만나고, 양반의 공격으로 갈등이 형성된 다음, 양반이 죽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하는 해결단계까지 연회가 이루어진다.

영노는 영노 과장에 등장한다. 영노 과장에는 영노와 양반만 등장하고, 내용은 영노가 양반을 거칠게 조롱하는 행동으로 구성되어서 해학적이다. 영노 과장은 양반 과장과 영감·할미 과장 사이에 연회가 되는데, 가산오광대만 오방신장무 과장과 문둥이 과장 사이에 연회가 된다. 양반 과장에서 말뚝이가 양반을



통영오광대의 영노 | 경남 통영 | 2023 | 심상교

풍자적으로 비판하였다면 이어지는 영노 과장에서는 영노가 양반을 해학적으로 비판한다. 영노가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 민속극의 흥미로운 요소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영노 과장 앞뒤의 양반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의 연희속도가 완만하다면 영노 과장의 연희속도는 급박하다. 완만과 급박함의 조절을 통해 민속극의 연희적 완성도를 올리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 영노 과장이다.

야류·오광대의 영노는 ① 어느 곳으로부터 온 존재이며 ②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으며 ③ 양반을 잡아먹

는 것이 목적인데, 잡아먹으면 승천하거나 승천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④ 양반을 잡아먹기 위해 거칠고 공세적 움직임으로 양반을 공격하며 ⑤ 공격 과정에 부채를 연희의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⑥ 양반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죽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⑦ 양반도 죽고 영노도 죽는 경우가 있다.

고성오광대, 동래야류, 수영야류의 영노 과장에서 양반이 자신을 거칠게 몰아세우는 영노에게 “넌 대체 뭐꼬?”라며 정체를 묻자 영노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노다.”라고 답한다. 통영오광대의 영노는 ‘구렁’에서 내려왔다고 하며, 김해오광대와 마산오광대의 영노는 대국에서 왔다고 하며, 가산오광대의 영노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배고파서’ 왔다고 한다. 영노는 무엇이든지 잘 먹는 존재이다. 영노의 일방적 공격에 양반은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 쇠뿔치, 그림자, 똥, 돼지, 소, 풀썰기, 구렁이, 뱀, 개구리, 늑대, 말, 개, 멸치, 갈치, 콩치, 상늬, 호랑이, 닭보라고 한다. 다양한 동물의 이름을 대면서 양반 자신의 존재를 은폐한다. 양반이 똥, 돼지, 개구리 등이라면서 자신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영노는 이러한 것들도 잘 먹는다면서 자신이 못 먹는 것이 없는 존재라 답한다.

〈다양한 민속극에 등장하는 영노의 특성〉

	가산오광대	고성오광대	김해오광대	마산오광대	통영오광대	동래야류	수영야류
승천의 여부	×	○	×	×	○	○	○
은 곳	밝히지 않음	하늘	대국	대국	구렁	하늘	하늘
양반의 죽음	○	×	×	×	○	×	○
부채의 활용	×	○	○	○	○	○	○
영노의 죽음	○	×	×	×	×	×	×

영노는 결정적으로 양반 99명을 잡아먹었는데, 한 명만 더 잡아먹으면 승천(득천)한다고 주장한다. 고성오광대·통영오광대·동래야류·수영야류의 영노는 승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가산오광대·김해오광대·마산오광대는 승천하려는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 배고프거나 뭐든지 잘 먹기 때문에 양반도 먹는 것이 승천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 승천의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반을 비판하려는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비판의 대상을 제거하였을 경우 영노에게 승천 정도의 큼직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은 모든 야류·오광대에서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영노의 양반 공격은 거친 행동으로 구성된다. 호랑이가 사냥할 때 달려들듯이 영노는 양반에게 달려든다. 이 과정에서 양반이 넘어지거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양반의 상징인 부채나 지팡이를 놓쳤다가 이를 다시 잡으려고 애쓰는 동작을 반복하기도 한다. 양반은 상층계급이기에 계급사회에서 하층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없다. 따라서 하층민의 괴롭힘 속에서 당황해 신체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다. 영노 과장의 앞뒤에 배치된 양반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은 연희속도가 완만하다. 그런데 영노 과장은 급박한 속도로 연희된다. 양반을 잡아먹으려는 영노의 신체적 공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반이 목숨을 부지하려면 영노보다 빨라야 한다.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양반으로서는 빠르게 행동하는 일이 힘들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허겁지겁 도망 다니며 신체적 한계로 내몰리는 양반은 해학적 조롱의 대상이 된다.

가산오광대의 경우는 부채를 잡지 않으나 나머지 야류·오광대에서는 모두 부채를 소품으로 활용한다. 양반은 영노의 신체적 공세를 받으면서도 부채와 지팡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부채와 지팡이는 양반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부채는 더욱 그렇다. 부채와 지팡이를 놓친 양반은 자신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듯이 다시 주우려고 한다. 영노는 부채와 지팡이를 주우려는 양반의 노력을 방해한다. 부채와 지팡이를 다시 확보한 양반은 목숨을 되찾은 듯 안도한다. 이후에

계속 양반을 공격하는 영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노도 있다. 그 때문에 양반이 영노에게 잡아먹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산오광대, 통영오광대, 마산오광대, 수영야류의 양반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야류·오광대에서는 죽지 않는다. 마산오광대의 경우 영노의 공격이 다른 지역보다 공세적이고 집요한 편이라 양반이 죽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영노가 죽기도 한다. 가산오광대의 경우는 영노가 오방신장인 황제장군과 대결한다. 영노가 양반을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라 밝히지는 않지만, 양반도 잘 먹는다고 하면서 오방신장을 양반으로 가상하고 잡아먹는데, 이때 포수가 나타나 영노를 총으로 쏘아 죽인다. 야류·오광대의 영노와 다른 성격의 등장 동물이지만 꼭두각시에 등장하는 영노도 이십이(이무기)한테 잡아 먹힌다.

영노는 입에 호루라기처럼 소리가 나는 갈대 피리를 물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 소리는 ‘비비’ 혹은 ‘삐삐’로 들린다. 비비라는 소리 때문에 비비새 혹은 영노새로 불리기도 하며, 상대역인 영노양반을 비비양반으로 부르기도 한다. 영노의 생김새는 몸통은 비늘이 크게 그려진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머리는 호랑이 모양이거나 부리가 커다랗게 돌출된 신이神異로운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영노가 등장하는 영노 과장은 영노와 양반이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첨예한 갈등이 형성되는 내용으로 발전되었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까지 연회한다. 발단—절정—해결로 구성된 점에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보이는 과장이다. 영노 과장은 양반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 사이에 배치되었다. 양반 과장과 할미·영감 과장은 양반을 완만한 속도로 비판하는데, 영노 과장은 급박한 속도로 양반을 비판한다. 절정으로 치닫는 갈등의 내용을 급박하게 전개하면서 앞뒤 과장들과의 완급 조절을 통해 비판이라는 하나의 기조 위에 속도를 통해 긴장과 이완을 보여주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영노는 양반 한 명을 더 잡아먹으면 승천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용이 되려는 존재로 해석되거나 신이로운 괴수적 존재로 해석된다. 설화에서 용이 되려는 존재는 구렁이나 이무기 같은 존재이다. 구렁이를 당신으로 모시거나 집안의 지킴이로 여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무기나 구렁이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양반도 일반 백성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이무기나 구렁이는 일반 백성의 내면을 억압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양반은 현실적으로 억압하는 존재였다. 그런 점에서 영노 과장은 내면과 현실의 삶 모든 부분에서 억압적 대상을 물리치려는 백성들의 희망이 반영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노가 보여 주는 해학적 성격은 양반에 대한 공격에서 드러난다. 영노는 양

반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압박한다. 일방적 공격을 이어가는데, 이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점잖은 양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똥이나 돼지라고 하는 등 스스로 은폐하는 행동에서 해학적 특징이 드러난다.

참고문헌 민속극(전경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민속극에서 웃음의 의미 연구(심상교, 공연문화연구 42, 한국공연문화학회, 2021), 민속극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심상교, 공연문화연구44, 한국공연문화학회, 2022), 오광대와 들놀이연구(정상박, 집문당, 1986).

필자 심상교(沈相敎)

오룡쟁주놀이

충남 천안시에서 각 동의 지세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축제 형식의 놀이.

내용 오룡쟁주놀이의 유래는 서기 936년 9월 후백제의 신검神劍과 용검龍劍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기 위해 8만 7,000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천안에 주둔하였을 때, 이 지역이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섯 마리 용이 싸우는 지세임을 알아냈다. 이후부터 천안은 오룡쟁주의 지세라고 불렸으며, 오룡쟁주놀이의 기원 역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유래담은 놀이의 역사성을 왕건과 연계하기 위한 허구일 뿐이다. 천안이 오룡쟁주 혹은 구룡쟁주의 지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왕건과는 무관하게 근래에 향토사가들이 명명한 풍수상의 용어이다. 더군다나 이 놀이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승놀이가 아니라 천안시민의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출된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에 천안의 향토사가였던 고故 오수창 선생이 천안의 지리적 특징과 왕건 설화를 배경으로 오룡쟁주놀이를 창안하여 시민의 날 행사에 선을 보인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 당시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작품에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2~3년간 천안시의 문화체육 행사에서 연출되었으나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오룡쟁주놀이에 등장하는 다섯 마리 용은 동청룡, 남적룡, 서백룡, 북흑룡, 중앙황룡으로 오행五行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천안의 지세에 적용하면 남산은 여의주를 뜻하고, 동청룡은 장대산, 서백룡은 일봉산, 남적룡은 청수동의 수도산, 북흑룡은 천안초등학교의 정봉을 각각 일컫는다. 그리고 중앙의 황룡은 지금의 천안시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뻗은 산맥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세에 착안하여 남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마을이 오룡五龍에 비

정되어 여의주를 다룬다. 경쾌한 농악에 맞춰 놀이가 시작되면 다섯 마리 용은 붉은색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입에서 불을 내뿜고 몸과 꼬리를 마구 흔들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다. 오룡의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 구경하는 주민들도 자기 마을의 용이 여의주를 빼앗도록 응원에 열을 올리는데, 그 합성과 풍물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바야흐로 오룡쟁주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몇 차례의 세찬 싸움 끝에 상처를 입었거나 지쳐 버린 용은 모두 그 자리에 쓰러지고, 오직 갱탈전에서 이긴 최후의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입에 물고 당당하게 운동장을 돌며 승리를 과시한다.

참고문헌 내고장 전통가꾸기(천안시, 1981), 충남의 민속예술(한상수, 충청남도, 1995),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강성복(姜成福)

용경 龍耕

동지^{冬至}쪽을 전후하여 못에 언 얼음의 갈라진 방향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알아보는 농사점.

내용 못에 언 얼음이 마치 극쟁이로 받을 갈아놓은 듯이 얼음장이 양쪽으로 넘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용의 짓’이라 하여 이것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 월내조를 보면 “충청도 홍주洪州 합덕지合德池에 매년 겨울이 되면 용이 땅을 가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 그 갈아 찢힌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를 향하여 있으면 흉년이 들며, 혹 동서남북이 온통 갈아 찢혀져 있으면 평년작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상남도 밀양密陽의 남지南池에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태종실록太宗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는 황해도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의 와룡지[臥龍池, 南大池]에 나타난 용경龍耕과 관련한 현상, 그리고 이에 대한 농사점을 경기도 관찰사 안노생安魯生이 태종에게 보고하자, 태종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매년 춘추春秋로 연안부 남지에 제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1475년(성종 6) 8월 28일조에 이르기를, 세조世祖 때 남대지南大池를 터서 전지田地로 개간하자 제언별감堤堰別監 이신지李愼之가 “남대지는 다만 눈에 물을 대어 모자람을 보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못에는 용龍이 있어 매년 겨울에는 얼음이 저절로 갈라지므로 사람들이 이를 용경이라 이르는데, 이것으로써 연사年事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게 됩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쌓아서 제방堤防을 보존하게 하였다고 한다.

성종 또한 “용경이란 말은 괴이하고 허망虛妄하여 믿을 수가 없지만, 백성을 위하여 눈에 물을 대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제방을 유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 1489년(성종 20) 10월 30일조에 정석건鄭錫堅이 와룡지를 없애지 말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문종文宗 때 이곳을 흥왕사興王寺에 주어 논으로 개간하여 그해에 가뭄이 들었는데 제방을 다시 쌓으니 흉년이 나타나며 큰비를 내려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용경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어 저수지로 그대로 두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용경이라는 농사점을 이용하여 풍흉을 예상하면서, 농업 생산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의 원활한 공급을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용경과 관련된 저수지는 와룡지 외에도 경상북도 상주시의 공검지恭儉池, 충청남도 당진시의 합덕지, 황해도 안악安岳군의 석통지石筒池, 경상남도 밀양시의 남지가 있다. 이 중 공검지와 관련하여 고상안高尙顔의 『태촌집泰村集』에 “얼음이 얼면 용이 얼음 위에서 발갈이를 하여 얼음이 갈라 터지는 현상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쳤다.”라는 용경설화가 전한다.

합덕지에서는 매년 결빙기인 음력 정월 14일 밤 빙면氷面이 마치 논밭을 간 것처럼 갈리는데, 방죽 가운데 부분이 갈리면 풍년이요, 주변만 갈리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도깨비가 방죽 간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일대 각 가정에서는 정월 14일 밤에는 반드시 소에게 밤참으로 소죽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밤참을 먹는 소들은 항상 땀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이를 합덕방죽에 가서 눈을 갈고 왔기 때문이라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용경은 농경사회에서 풍농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과 겨울 기후와 관련된 민속으로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경험에 의해 풍흉을 점치면서 독창적으로 유지되어 온 자생적인 민속이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成宗實錄, 輿地勝覽, 燃藜室記述, 太宗實錄, 泰村集, 공검지(권태을 외, 상주문화원·상주산업대학교, 1995), 당진군지-상(당진군, 1997),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민속종합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69~1981), 한국의 세시풍속1(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세시풍속2(국립민속박물관, 1998),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3).
필자 김도현(金道賢)

용기 龍旗

용 문양이 있는 대형기로, 마을의 중요 행사에서 마을을 표시하는 기.

개관 농악에서 용기龍旗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농기農旗가 1749년 『영조실록英祖實錄』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용기도 비슷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어가행렬에서도 용기가 사용되었는데, 이때 황룡과 청룡이 그려진 용기는 각 영을 지휘하는 기능을 하였다. 농악에 사용되는 용기가 어가행렬의 용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용기 가운데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되었다. 충청남도 홍성 구수마을의 용기(1982년 충남 민속자료 지정)는 1891년(고종 28)에 제작되었다. 이웃 마을 주교리의 용기가 제작된 해는 1824년이다. 전라북도 전주 중평마을의 용기에는 ‘을미년 조성’이라고 묵서해 놓아 1895년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용기를 비롯한 농기는 정부가 주도한 문화재 보호제도에 힘입어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간헐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졌다. 1981년 충남 홍성 형산리 마을은 ‘용대기놀이’로 제22회 전국민속예술대회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과 전주 지역에서도 2000년을 전후로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물론 지역축제 등에서 용기놀이를 소재로 하여 용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내용 용기는 농기 가운데 하나로 농악의 기수단에 편성된다. 기폭에는 용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용당기龍堂旗’와 ‘용대기龍大旗’ 등으로도 불린다. 일부지만 전남 곡성의 죽동농악처럼 기폭에 문자 ‘龍(용)’을 써 넣은 곳도 있고, 경남 하동의 화촌 마을처럼 호랑이와 용을 같이 그려 놓은 곳도 있다.

마을 기에 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기의 정확한 분포는 아직 분명히 밝힐 수 없다. 다만 용기는 두레 활동이 활발한 한반도 서쪽 지역 전반에 두루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 평화·삼천동 일대의 마을들에서 용기가 집단 군락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용기는 기폭에 나타나는 형상이 용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농기의 깃봉·깃대·기폭의 기본 요소를 따르고 있다. 용기의 기폭 형상은 주로 용을 단독으로 그려 넣은 것과 용의 형상을 기폭 중앙에 그리고 부수적인 내용을 주변에 그려 넣은 기들로 구분된다. 한편 색깔에 따른 용의 형상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황룡과 청룡이 주를 이룬다. 근래에 제작된 기들은 색깔을 달리하여 그리는 경우도 있



충남 홍성 광천읍 광천리 용대기 | 2022 | 정연학

다. 용의 그림을 그린 이들은 전문 화가나 스님 또는 재주가 좋은 마을 사람 등으로, 그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북 부안 장신마을의 용기는 현존하는 용기 가운데 가장 큰 기로 추정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를 ‘용대기’ 또는 ‘용당기’라고도 부른다. 기폭에는 황룡만이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에 구름 문양이 있다. 기폭의 재료는 광목천이며, 가장자리에는 황색 지네발이 달려 있다. 기폭 크기는 가로 785cm에 세로 210cm로, 세로 폭이 좁고 가로 폭이 넓은 형태이다. 용기의 기폭은 깃대에 매단 쪽에는 검정 색포色布를 이어서 채봉하고, 흰색 붓글씨로 4괘卦를 적어 넣었다. 괘와 괘 사이에는 마을 이름과 기증자, 마을 두레의 좌상, 공원 등 주요 인물의 이름과 제작일인 1936년 7월 16일[丙子秋七月 既望]이 적혀 있고 화가 조중태가 그렸다고 전한다.

전남 강진 용소마을의 기는 흰색 무명예 400cm 정도의 정방형 기폭에 연조(1933년 제작)와 붉은색의 지네발이 달려 있다. 기면에는 청룡의 형상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살포를 들고 있는 신농씨가 용에 올라탄 모습을 하고 있다. 용형상의 아랫부분에는 작은 거북 형상을 한 귀룡龜龍과 큰 잉어, 사각도형, 구름 형상이 고루 배치되어 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매우 해학적이고 소박하며 풍농을 기원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36년에 중수된 경남 밀양 신희마을의 쌍룡기는 영남 일대의 기들에는 없는 지네발이 붙어 있고, 용이 그려져 있어 마치 두레기를 연상케 한다. 기폭은 가로 420cm에 세로 355cm의 정방형 기로서 기폭 중앙에 있는 여의주를 두고 황

룡과 청룡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형상이다. 아주 옛날 낙동강이 범람할 때 마을로 떠내려온 껌속 속에 기가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질 뿐 이 기의 기원은 찾기가 어렵다. 신호마을의 용기는 전설에 따라 마을 수호신인 '서낭할배'로 불리고 있다. 근래에는 용기가 지닌 형상성과 위용을 놀이 또는 공연으로 만들어 지역문화상품화를 꾀하는 등 용기의 전승 방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특징 및 의의 용기는 여러 농기 가운데 변별적 특성을 가진다. 주로 경기·충청·전라도 등 두레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특히 전주·익산 등 전북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용은 농업 사회에서 물을 다스려 풍농을 관장하는 수신의 성격을 지닌 상징물이다. 마을마다 용기의 형상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용을 형상화하여 치수를 통한 풍농을 기원하며, 각 마을공동체의 위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곡성 죽동농악(송기태 외, 민속원, 2016),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2009), 농악(정병호, 열화당, 1986), 두레 농민의 역사(주강현, 들녘, 2006), 두레연구(주강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삼천지역 문화공간화를 위한 문화자원조사보고서(전북민예총, 컨티뉴, 2007), 한국 마을기의 존재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김선태, 민속원, 2016).

필자 김선태(金善泰)

용놀이

우환과 병을 일으키는 악한 용을 퇴치하는 제주도 큰곳의 굿놀이.

내용 제주도 큰곳의 젓상계와 제오상계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연행한다. 이공맞이에 서 연행한 사례도 있다. 이로 보아 이미 오래전에 적절한 제차를 잃은 듯하다. 본래 젓상계와 제오상계는 초상계에 대응하는 제차이면서, 연행 방식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승되는 용놀이를 포함하는 젓상계는 어느 모로 보아도 이들 제차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 젓상계는 시왕맞이에 앞서 행하던 것이다. 현재 젓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공맞이와 본래의 젓상계 사이에 별도로 연행하던 맞이곳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전승에 따라 용놀이는 젓상계에서 연행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젓상계는 그런대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몇 대목으로 짜인다. 그 가운데 연희적인 성격이 강한 대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풍류로 시작하여, ② 병이 생겼으니 굿을 해야 한다며 방아를 짚어 제주

를 마련하고, ③ 온몸의 질병을 찾아낸 다음, ④ 그 원인이 되는 용을 죽여 골을 내고, ⑤ 그것을 뱀 장수 흉내를 내면서 판다고 하다가 바깥으로 내치고, ⑥ 대신 복록을 물어다 주는 용을 불러들인다.

① 심방은 두루마기를 입고 송낙을 쓴다. 어깨와 몸에 당베를 얹어맨다. 머리에 무명으로 수건을 쓴 듯이 한다. 무악에 맞추어 “니나난니 난니야.”라는 사설을 거듭하면서 노래한다.

② 굿을 해 가면서 소미가 가루를 심방의 얼굴에 쳐바른다. 심방의 모양새가 더욱 우스꽝스럽게 된다. 록이 일어 신병이 났다 하고 굿을 해서 풀어내자고 한다. 굿을 하려면 제주가 필요하다고 하고 제주를 만든다. 사발에 물을 붓고 떡을 조각내어 함께 놓아 버무린다. 떡을 조금 뜯어 먹고, 이어 제청에 있는 사람마다 먹이려 든다. 사람들이 피하기 바쁘다. 다시 앉아 떡을 물에 섞어 손으로 조물락거린다. 그러다가 그릇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물었다가 가래 뱉듯이 그릇에 내뱉는다. 코를 풀어 놓는 모양도 한다. 다시 그릇의 물을 한 모금 물었다가 내뱉는다. 더럽기 그지없다. 다시 한 모금 물었다 뱉으며 제청을 돌아다닌다. 얼굴을 닦아 내고 신칼로 점을 본다.

③ 이어 고리동반떡을 들고 춤을 춘다. 고리동반떡을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 곳곳을 대며 병명을 대기 시작한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쓰임새에 따른 명칭을 대며 웃음을 유발한다. 소미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온갖 록을 내놀리자는 내용의 노래를 한다. 이어 베풀이—돈지마을굿—만당가득임—군병지사귀 등을 연속적으로 연행한다.

④ 본격적인 용놀이를 시작한다. 청룡 머리 갈룡 머리를 마련하자며 무명천의 양 끝부분에 고를 만들어 그 부분을 어궁과 시왕당을 위로 던져 올린다. 이것은 용 혹은 대망이 머리는 하늘에 있고 꼬리는 땅에 닿은 모양을 나타낸다. 용질을 돌아보아 치우는 이른바 ‘질침’을 한다. 다시 돌아보니 친구아구 대망이 얽혀 있다고 한다. 술을 먹여 잠재운 뒤에 용을 끌어 내린다. 당클에 걸쳤던 무명천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모아 입으로 깨물고 힘껏 밟아 죽인다. 신칼로 용의 골을 파낸다.

⑤ 뱀 장수 흉내를 내면서 골을 좋은 약이라고 팔러 다닌다.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 갈룡의 골은 악한 기운이 잔뜩 모인 것이어서 내다 버리지 않을 수 없다.

⑥ 당베인 무명천을 풀어 놓고 휘돌린다. 모진 록을 바깥으로 내치자고 하며 무명천을 들고 바깥으로 쓸어내듯이 한다. 온갖 복록을 물어다 줄 용을 모시자고 하고, 문전으로 가서 무명천의 끝을 목에 걸고 끝면서, 입에 천문을 문 채로 여자 기주 앞으로 기어가서 치마폭에 천문을 뺏어낸다. 심방이 용의 모양새를

하고, 용이 여의주를 물어다 주듯이 하는 셈이다. 이 대목은 일부 마을의 잠수굿에서 용올림이라는 제차로 차용되고 있다. 용올림은 심방이 눈·코·입 부분에 구멍을 낸 무명천을 가면처럼 쓰고, 무명천을 길게 늘어뜨린 채 바닷가에서부터 기어서 제장까지 이른 다음 입에 물었던 천문을 기주의 치마폭에 뱉어내는 방식으로 연행한다.

용놀이의 용은 갈룡, 아궁이, 대망大蟒(천구아구 대망이), 삼두구미三頭九尾 등 여럿으로 지칭한다. 이무기와 같은 존재이면서 뱀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갈룡이 서리어 우환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기에 퇴치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굿에서 용이나 뱀은 신앙의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모신다. 바다와 물을 관장하는 신을 ‘다서용궁’이라 하여 상위의 신으로 삼는다. 또한 뱀을 칠성이라 하여 가신家神으로 모시는가 하면, 드렛도라 하여 당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이때의 뱀은 단순한 뱀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 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가 하면 뱀을 해치는 것을 극히 꺼릴 뿐만 아니라 뱀을 해친 일로 인하여 우환이 생기면 뱀을 살려내는 ‘칠성새남’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용과 뱀은 신성한 존재로 제향의 대상이지, 퇴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갈룡만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든 퇴치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선한 용은 복록을 물어다 주는 존재지만, 악한 용은 재앙을 주고 질병을 준다는 것이다.

갈룡과 같은 존재는 특히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갈룡은 흔히 혈기가 막혀 응어리지는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 지역 굿에서 흔히 연행하는 ‘방울푼’ 사설에서 이러한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요건 보난 청룡 머리 갈룡 머리 들었고나 나사나며 좃아들며 풀어 내자.”

사설에서는 청룡과 갈룡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악한 용의 존재, 그 존재의 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방울푼’은 뱀신으로 널리 알려진 토산드렛도와 관련된 의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징 및 의의

용놀이는 제주도 굿놀이가 대개 그러하듯 오락성이 강하다. 췌상계라고 한 것이 전체적으로 오락성이 강한 특성을 공유한다. 대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노래와 춤을 곁들이며, 심방은 소미는 물론 청중 모두를 대화의 상대로 삼아 놀이로 끌어들이는다. 대화에는 언어유희가 따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을 찾아내면서 신체 부위와 병명을 흥미롭게 나열한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기능을 빌미로 이름을 붙여 놀이로 삼는다. 성적인 표현이 난무하기도 하며, 음상이 유사한 말이 나올 때마다 성적인 농담을 일삼는다. 일상을 벗어나는 충격적인 행위를 연출

하기도 한다. 제주를 마련한 뒤에는 거기에 침을 뱉어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다가 스스로 마시기까지 한다. 뱀 장수 흉내를 그럴듯하게 해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방의 예능적인 능력에 따라 놀이의 흥미도가 좌우된다. 심방은 자기능력을 극대화해서 연행하고 청중을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하는 데 힘쓴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민속극(문무병, 각, 2003).
필자 강정식(姜晶植)

용단지

용 또는 용신을 형상화한 것.

개관 용단지는 이름 그대로 신체가 용기로 된 단지 형태이다. 한 개나 세 개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두 개를 모신다. 두 개는 각각 꺼칠용과 쌀용으로, 여자를 상징한다는 쌀용은 안용이라고도 하며, 이 안에는 쌀을 넣어둔다. 남자를 상징한다는 꺼칠용 단지에는 나락을 넣어두며, 건용 또는 터용이라고도 한다.

용단지는 터줏가리나 업가리와 같이 해마다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용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단지 안에 있는 곡물만 해마다 갈아준다. 혹시 실수로 인해 용단지를 깨트렸을 경우 새로 용단지를 봉안할 수도 있지만 없는 채로 그 자리에서 비손만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체가 없이 ‘건궁 용단지’를 섬긴다.

용단지를 처음 봉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례가 행해진다. 방법은 가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주부가 직접 봉안하기도 하지만 무당과 같은 사제자가 와서 봉안해 주기도 한다.

주부는 ‘용왕님’을 모시기 위해 용기로 된 단지를 사 온다. 이때 장에 가서도 첫눈에 들어오는 것을 골라 용기장수가 값을 부르는 대로 주고 절대 깎지 않는다. 물건을 고른 뒤에는 다른 물건을 보지 않는다. 용단지를 모셔 놓고 빌 때 주부는 목욕계하며 가족들도 모두 금기하여 조심하게 행동한다. 각별히 무당이 용단지를 모시는 의례를 주관할 때에는 주부가 제물을 차린 뒤에 무당이 “용왕님, 용왕님 계시는 데 성심으로 가져왔습니다.”라고 축원을 하면 주부는 그 곁에서 성심껏 빈다. 용단지를 구입할 때부터 제물 차리기, 비손하기 등이 모두 용단지를 섬기는 중요한 의례이다.

용단지를 봉안하기 위해 큰 물에 가서 용을 받아오기도 한다. 용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 길일을 잡아 큰 물의 소궤에 가서 용을 맞이해야 한다. 이때 무당이 해주기도 하지만 주부가 직접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가 직접 용맛이를 하는 경우 흰밥, 미역국, 과실 등 제물을 장만하여 강가에 있는 소로 간다. '용머리'라는 곳에 제물을 진설하고 빌면서 용왕을 맞는다. 용을 맞아 한지에 싸 집으로 가지고 온 뒤 쌀과 함께 단지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는 뚜껑 위에 다시 한지를 덮고 그 위를 돌로 눌러 놓는다.

보살이 용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실에 돈을 달아 물에 떠내려 보내다가 용을 맞게 되면 그 실을 다시 끌어 올린다. 이때 실과 함께 용이 끌려오므로 무척 무겁다. 단지에 쌀을 찧어서 넣고 물을 부어 놓는다. 이튿날 단지에 물이 불어 있으면 용이 들어왔다고 하고, 이후 용단지를 모시기 시작한다.

용단지는 무작정 모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정신앙이 대체로 주부들에 의해 전승되듯이 용단지 역시 시어머니 또는 시할머니 등 여자 상어른이 모셨기 때문에 새로 시집은 며느리가 그대로 모신다. 이 밖에 정월에 신수를 보아 용단지를 모셔야 한다는 점괘에 의하거나 현몽에 따라 새로 모시는 경우도 흔하다. 꿈에 용이 나타나면 모신다. 용을 모시려면 다른 가신을 모실 때와 마찬가지로 무당에게 청하여 길일을 잡아야 한다. 길일이 잡히면 용을 모실 단지부터 준비하고 용맛이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내용 1980년대 중반에 부엌을 입식으로 하는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기 전에는 마루 실경(시렁) 위에 쌀 한 말들이 큰 버지기(자배기)에 쌀을 담아 쌀용으로 모셨다. 그러나 가옥 개조 후 쌀용의 신체를 단지로 바꾸고 고방(광) 안 깊숙한 곳으



용단지 | 경북 안동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로 옮겼다. '터용'이라고도 하는 꺼칠용은 예나 지금이나 뒤꼍 굴뚝 아래에 모시고 있다. 단지 안에는 나락을 넣어두고 뚜껑 위에 돌을 올려놓아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햇곡식이 나면 용단지에 으레 수지(처음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올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쌀용단지에는 수지쌀, 꺼칠용단지에는 수지 나락을 각각 갈아 넣는다.

용단지는 아무에게나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무척 꺼린다. 이 때문에 집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을 각별히 조심할 정도이다. 단지를 바가지나 고리(주로 버들고리) 형태로 대용하는 경우도 있다. 곧 가신의 신체가 단지 이외에 삼신바가지나 삼신고리처럼 바가지와 고리 형태도 있는 것이다. 이들 신체를 바가지—단지—당세기(고리)로 계보화하는 연구자도 있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등 명절과 음력 10월 추수 때에 행한다. 이때 정갈한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을 올린다. 또는 봄에 햇보리가 나면 용단지의 곡물을 갈아 주고 다시 가을에 햅쌀이 나왔을 때 갈아 넣고 나서 간단히 의례를 행하는 가정도 있다. 이 밖에 봄에 풍농을 위해 용단지에 제를 지내거나 오랜 가뭄 또는 심한 홍수 때에도 임시체로서 용단지에 의례를 올려 비가 오기를 기원하거나 비를 알맞게 조절해 줄 것을 기원한다.

용단지는 점괘나 현몽에 따라 봉안하는 경우가 많다. 가신의 신체와 가신을 모시기 전후해서는 내력담이나 영험담이 있다. 내력담은 주로 어른이 모시거나 집안의 우환이 있어서 모신다는 내력이 중심이 된다. 반면에 영험담은 현몽, 이를테면 종교체험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성을 띠는 경우가 흔하다. 가정신앙 관련 체험에서 꿈, 이를테면 현몽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현몽에 따라 용단지를 모시게 된 사례로 시집은 지 얼마 안 되어 커다란 누런색 구렁이가 사흘 내내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부엌에서 맑은 샘물이 흐르는 꿈을 꾸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무당에게 물으니 친정에서 시집으로 복귀를 가져온 것이라며 용단지를 모시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연으로 길일을 잡아 용을 맞고 귀하게 섬기고 있다.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가 신과 같은 존재를 볼 경우 흔히 환시(幻視)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환시가 아니라 실제로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 이후 집안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과거 시어른과 함께 살 때에는 시어머니가 용단지를 모셨다. 남편이 차남이어서 분가(分家)하면서부터 별도로 용단지를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제보자가 계속 몸이 아프자 시어머니가 권해서 1970년대 후반에 뒤늦게 용단지를 모시게 되었다. 그후 건강이 좋아지고 용단지가 늘 마음의 기둥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용단지는 신줏단지로서뿐만 아니라 곡식을 저장해 둔다는 의미도 있어서 필요할 때 쓰기도 하였다. 특히 모심기 철이나 논매기 철에 용단지에 들어 있는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그때 용단지 안의 곡물을 쓰기도 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용단지는 집안의 농사를 비롯하여 재물을 불게 해 주고 집을 지켜 주며 가내의 평안을 도모하는 가신이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이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흔히 용단지는 '용이 드는 자리'에 모신다고 한다. 용이 드는 자리란 재산이 들고 그 재산을 지켜 주는 곳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용단지의 자리는 대체로 곡물을 취급하는 부엌이라든가 고방, 안방 위 다락을 비롯하여 뒤뜰이나 처마 밑 또는 뒤란 등지가 된다. 이는 가옥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용단지의 자리는 용단지의 신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곧 용단지는 이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자리함으로써 재복과 관련된 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정신앙 관련 종교체험 사례 일고(김명자, 한국무속학18, 한국무속학회, 2009), 안동지역의 용단지(김명자, 국립문화재연구소, 1993),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보7, 한국민속학회, 1996), 용단지가 두드러진 가신신앙(김명자, 까치구멍집 많고 도둑없는 목현마을,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가정신앙-하(김명자 외, 민속원, 2005).

필자 김명자(金明子)

용단지모시기

용단지를 섬기는 신앙.

내용

전통사회에서 재물의 기본은 곡물이며, 용단지는 곡물을 관장하는 농경신으로 받아들여진다. 1930년대 안동의 용단지 사례도 바로 용단지가 지닌 농경신으로서의 성격을 말해 준다.

용단지는 대체로 두 개를 모신다. 각각 꺼칠용과 쌀용으로, 주로 여자를 상징한다는 쌀용은 '안용'이라고도 한다. 이 안에는 쌀을 넣어 둔다. 남자를 상징한다는 꺼칠용 단지에는 나락을 넣어 둔다. 이 용단지를 '건용'이나 '터용'이라고도 한다.

용단지 안의 곡물은 주로 음력 10월 추수기에 햇곡식이 나면 갈아 넣는다. 이 안에 넣은 쌀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내가지 않으며, 밥을 짓거나 떡을 찌 가족



용단지 | 경북 안동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꺼칠용(터용) | 경북 안동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록을 주는 신성물神聖物로서 밖으로 내가는 것은 곧 재복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용단지에 대한 의례는 가정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가신과 마찬가지로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동지 등의 명절과 추수 때에 올린다. 이때에는 정갈한 밥 한 그릇과 정화수 한 그릇, 또는 명절식을 올린다. 특히 동짓날에 팔죽을 쑤면 성주, 조왕, 삼신, 용단지 등 주요 가신에게 각각 떠 놓고 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용단지에는 가장 큰 그릇을 떠 놓고 한 해의 농사를 기리고 이듬해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역시 명절식인 찰밥(오곡밥)을 용단지에 올려 풍농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한다. 또는 봄에 햇보리가 나면 용단지의 곡물을 갈아 주고 다시 가을에 햅쌀이 나왔을 때 갈아 넣은 뒤 간단한 의례를 올리는 가정도 있다. 이때에는 밥과 정화수를 한 그릇씩 떠 올리고 주부가 수확을 기리고 농사가 잘되기를 빈다. 이 밖에 봄에 풍농을 위해서 용단지에 제를 올린다. 가뭄이 오래 들거나 홍수가 심할 때에도 임시제로서 용단지에 빌어 비가 오기를 기원하거나 비를 알맞게 조절해 줄 것을 기원한다. 이는 용이 농경신이자 수신水神으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농사에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모심기 철이나 논매기 철에 용단지에 들어 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한다.

가신은 독자적인 기능을 하거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대체로 중층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신의 고유 기능이 있다. 용단지는 기본적으로 농경신이면서 재복신財福神으로서 업신神과 동일시되며, 터주신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아울러 조상신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안동 지역의 용단지는 특히 업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용단지를 업계통으로 보기에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용단지를 섬기는 전승 현장에서는 용단지와 업신을 거의 동일시한다. 이들을 구별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

지 않으며, 용단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용단지가 곧 업신이라 생각한다.

용단지는 집 안의 우물에 있는 정신井神(우물신)과 관련되어 수신으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용=물’이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우물신은 가신으로서의 위상이 용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실상 우물신은 수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용단지와 직접 관련시키지는 않는다. 용단지와 동일하게 친연성이 있는 가신으로는 터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신에 비해서는 약하다.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신은 업신이다.

업신은 광이나 곳간과 같은 은밀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재복을 준다는 가신이다. 업·업왕신王神·업왕·업위신位神이라고도 하지만 민간에서는 업이라는 말과 함께 지킴이·지킴·집지킴이로 불린다. 업신은 그 대상을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으로 상정한다. 이 밖에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는 인업도 있다.

집에서 위하던 업구렁이라든가 업족제비가 가족들의 눈에 띄거나 집에서 나가면 재물이 사라지고 가족에게 우환이 생겨 폐가敗家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업구렁이를 새로 받아들여 부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안동 지역의 많은 제보자가 용단지의 용이 구렁이 같은 것이며, 이것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재물이 불어난다고 한다. 용은 재산을 일으키는 집지킴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혹시나 용이 나가면 살림이 줄어든다고 한다. 곧 재물이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업신은 재복신으로 상당히 비의성을 띠고 있으며, 안동 지역에서도 용단지를 각별히 외경시하여 남이 보는 것을 꺼리는 가정도 있다. 용왕업의 은거처도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솔갑(솔가지) 아래나 뒤주, 곳간, 고방, 뒤꼍, 용단지 안 등 어두컴컴하고 습한 곳으로 생각한다. 용왕업 역시 업구렁이와 마찬가지로 가산家産, 가운家運, 가택수호를 맡고 있다.

이처럼 용단지는 업신과 동일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곧 업신으로 여긴다. 용단지와 친연성이 있는 터주(또는 터주신) 역시 집터와 더불어 재복을 맡은 신인데, 용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안의 쌀은 해마다 햇벼가 날 때 갈아 넣는다. 이때 단지 안에 들어 있던 쌀 역시 남을 주지 않고 가족끼리만 먹는다. 용단지 안에 들어 있던 쌀이 그렇듯이 터줏단지 안의 쌀 역시 신성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터주 역시 용단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터주의 대상을 업신의 대상처럼 구렁이로 여기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용단지모시기는 용 또는 용신을 모시는 의례이다. 여기에서 용단지는 이 신을 형상화한 신체명이며, 용신신앙을 의미하기도 한다. 용단지는 농사의 풍요와 재복의 기원뿐만 아니라 업신과 터주의 기능도 한다.

주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인근 청송·의성·문경·예천·영주·상주·대구 등지에서도 섬긴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북 편에 따르면 용단지 사례가 조사된 곳은 안동 지역뿐이었다. 물론 조사 지역의 한계는 있겠지만 용단지라는 명칭으로 모시는 것은 그만큼 안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안동 지역의 용단지신앙에 대해서는 1930년대 자료에도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석전·기우·안택釋奠祈雨安宅』에는 “경북 안동 지역에서는 농가 각호에서 농번기 또는 명절에 성주 또는 용단지에 청수淸水나 음식물, 햇곡식, 햇보리 등을 올리고 그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농신제農神祭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안동 지역의 용단지모시기는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성행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가신신앙의 역사(김명자, 한국민속사입문, 지식산업사, 1996), 안동지역 용단지 신앙의 양상과 용단지의 성격(김명자, 한국의 가정신앙-하, 민속원, 2005), 업신의 성격과 다른 가택신과의 친연성(김명자, 한국민속학보7, 한국민속학회, 199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한국의 가정신앙-경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 1938).
필자 김명자(金明子)

용대기
龍大旗

용 그림을 새긴 의장기 또는 농기로, 왕실의 권위와 마을을 상징하는 기.

개관 『표준국어대사전』은 용대기龍大旗를 “임금이 거동할 때 행렬의 앞에 세우던 기. 누런 바탕의 기면旗面에 용틀임과 운기雲氣가 채색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붉은 화염이 그려져 있는 아기牙旗이다. 임금이 친열親閱할 때는 각 영營을 지휘하는 데 쓰였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시대 의장기는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五禮」(1454), 『국조오례國朝五禮』 「서례書例」(1474) 등 의례서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중요한 의례를 거행하거나 왕을 비롯한 왕실 성원이 행차할 때 행사 격을 높이고 주인공의 위엄을 드러내는 의장기는 28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용을 새긴 의장기는 홍문대기, 교룡기(대기), 황룡기, 청룡기(중기) 등 4종이다.

홍문대기는 홍색 바탕에 청룡을 그린 깃발로, 왕의 의장 행렬 선두 좌우에 하나씩 배치하여 신성한 구역과 왕의 의장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고려시대에도

사면령赦免令을 선포할 때 홍문대기 두 개를 좌우에 세웠다. 여기서 홍문紅門이란 능陵·원園·묘廟·대궐·관아의 정면에 기둥 두 개를 세우고 붉은 칠을 한 문으로, 신성한 구역임을 나타낸다.

교룡기는 바탕에 두 마리의 용을 엇갈리게 그린 깃발이다. 그 형태는 여의보주를 사이에 두고 황룡 두 마리가 위·아래로 교차하는 모습이다. 조선 전기에는 형명形名, 즉 군영에서 깃발과 북으로 군사 교련을 지휘하던 군기軍旗였으나 영조英祖 때부터 왕을 상징하는 의장기에 포함되었다. 본래 왕이 친열하면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던 기치였으며, 왕이 갖는 군 지휘권을 통해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냈다. 따라서 교룡기는 다른 의장기와 달리 제위 중인 왕만이 사용할 수 있다. 왕이 행차할 때는 군복을 입은 장교가 말을 타고 교룡기를 받쳐 들고 4명의 군사가 깃대에 묶은 끈을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이 한 가닥씩 잡고 행진한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으로 행차하는 <화성원행반차도華城園幸班次圖>와 궁으로 돌아오는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에 등장하는 용대기가 바로 교룡기이다.

황룡대기는 고려시대 팔관회와 우왕 때 이성계의 도성 진군에 사용된 것을 보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의장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동仲冬의 팔관회八關會 의식이나 왕이 문묘·선농단 등에 행차하는 법가노부法駕鹵簿, 그리고 상원上元 연등회燃燈會 및 사면령을 선포할 때 용대기를 갖추었다.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의 대표기도 용대기라고 일컬었다. 조선 후기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1749)에 따르면, “좌측에 청색기, 중앙에 황색기, 우측에 백색기를 세운다. 각 기치에는 용과 운기를 그렸으며, 화염이 있다. 왕이 지휘하는 교룡기의 명령에 호응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문헌과 현존 자료를 통해 민간의 용대기는 19세기경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관료이자 문장가 김윤식金尹植(1835~1922)이 충청남도 당진 면천면으로 유배를 왔다가 1891년 7월 목격한 두레패의 용대기 기세배를 기록으로 남겼다. 다만 기록에서 ‘예부터 오랜 마을의 풍속’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그의 기록 시기보다 앞선 시기에 용대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용은 왕권의 상징이기에 민간에서 용 의장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민화적 요소를 가미하고, 기우祈雨를 열망하는 농민의 심성을 그림으로 반영함으로써 왕권과 차별화하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용대기에 비구름과 수신水神인 용과 함께 거북·잉어, 농사의 신인 신농씨神農氏, 물 관리 도구 살포가 등장하는 것이 그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19세기 말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1897~1910)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의장기는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민간에서 조선시대 사각형 의장기를 용대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대기는 민속예술경연대회나 축제의 장에서 등장하며, 당진·예산·서산 등 내포문화권과 진주·김제·진안·임실·부안 등 전라북도 서쪽 평야지역과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마을제의 때 마을회관이나 우물 등에 세워 두기도 한다. 용대기를 제당의 당자에 넣어 ‘용당기龍堂旗’라고 부르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내용 왕실의 의장기와 현존하는 민간의 용대기는 깃봉, 깃대, 기폭 등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 정조의 화성 행차를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궐圖幸乙卯整理儀軌』(1795) 중 반차도班次圖에서는 군병들이 용기龍旗 등 왕을 상징하는 의장기를 세워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이나 기잡이와 줄잡이가 등장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반차도의 용대기 끝에는 삼지창을, 민간의 용대기는 평장목을 단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의장기는 성격에 따라 청룡·황룡·교룡 등이 단독으로 등장하지만, 용대기는 기폭 양면에 각각 황룡과 청룡을 그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깃발의 제작 시기를 적은 ‘연조’는 민간의 용대기에서만 보인다.

용대기는 ‘용 그림을 그린 큰 깃발’이라는 뜻으로, 현존하는 깃발은 충남과 전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용대기가 산간지역에 등장하지 않고 모내기과 김매기와 관련 깊은 두레 깃발로 사용한 점, 기우제 때 용대기를 세웠다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에 근거하면 용대기에는 용에게 물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이양법에서 비는 절대적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양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기존 방식인 산파법을 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용대기의 기면에는 제작 시기, 후원자, 제작자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독특한 형태의 민화풍 그림 등이 담겨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 서산 동문동 향교골 용대기는 1899년 6월에 제작되었고, 1970년대 초까지 서산 읍내에서 가장 ‘어른기’ 대접을 받았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용대기를 제작할 때는 향교골의 용대기를 참조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재질도 비싼 명주를 사용하였다. 용은 황룡을 그려 넣었고, 당시 31명에 달하는 두레의 역원과 참여자를 모두 기록한 점은 용대기 중 유일하다. 즉 영좌(두레 총책임자), 이좌·영좌(영좌 보좌 원로), 공원(현장 작업반장), 유사(김매기 순번제로 새참과 간식 준비), 문서(김매기 출결 및 면적, 품삯 기록), 각총영좌(총각 중 우두머리) 등이 명기되어 있고, 문서 담당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충남 서산 고북면 장선리 용대기에는 청룡과 그 아래에 잉어가 등장하며 우측에는 태극, 팔괘, 지역명(瑞山郡 高北面 長善里元新善里), 용도(農旗), 제작연도(檀君紀元後四千二百七十九年丙戌七月初二日), 기증자(본 마을 金日



충남 서산 고북면 장선리 용대기 | 가로326 세로212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삼), 악기 기증자 김정현金正賢(장구)·김운경金雲經(징)·김성룡金成龍(징) 등이 목서로 적혀 있다. 위의 연조에 근거하면 장선리의 용대기는 1946년에 제작되었으며, 악기 기증자 명단이 나오는 것은 장선리 용대기가 유일하다.

충남 서산 덕지천동 덕지내 용대기는 기면에는 용틀임하는 청룡이 그려져 있으며, 기폭에 “천하대본대정오년병진음육월신비天下大本大正五年丙辰陰六月新備”라고 목서한 연조를 통해 1916년 음력 6월에 새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구름 속을 나는 청룡의 모습을 신비롭게 그렸으며, 그림 수준이 매우 높다. 위 용대기는 1940년대까지 실제로 사용되었다.

충남 홍성 장곡면 옥계1리 등대실마을 용대기는 오랜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용 꼬리 부분의 천이 잘렸다. “소화십년을해삼월농자천하지대본昭和十年乙亥三月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적은 연조를 통해 1935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장 이용배(1960년생)의 말에 따르면, 용대기는 참봉 벼슬을 한 여주이씨驪州李氏 이 두형이 화공을 청해 화공이 두 달간 이두형의 집에 머무르면서 용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용대기는 두레와 상관없이 여전히 마을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월 14일 용왕제(샘제) 때 우물 한편에 세워 두고 제의를 거행하며, 보통은 제의 전부터 끝난 다음 날까지 걸어 두었으나 현재는 제의 전에 걸고 끝나면 바로 내려 정리해서 보관한다. 옥계리 용대기에는 ‘왕방울’을 부속물로 달아 바람이 불면 방울 소리가 울려 퍼진다.

충남 홍성 광천읍 광천리 삼봉마을과 신대마을 용대기는 농악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하사기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일찍이 광천은 농악으로 이름을 떨

쳤는데, 삼봉리의 용대기가 광천 지역에서 받은 우승기라면 신대리의 용대기는 광복 이후 전국대회 우승기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삼봉리에서는 1949년과 1959년에 제작된 청룡기 두 점을 소유하고 있다. 신대리의 용대기에는 황룡·잉어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1948년 전국대회 우승 하사기임을 알 수 있다 大韓民國三年八月十五日政府樹立紀念農樂競演大會 優勝 槽紀四二八〇年. 신대리의 용대기는 매년 정월 초이튿날 산신제가 거행되면 당주 집에 3일간 세워 두었다고 한다. 현재는 산신제 때 마을회관 앞에 걸어 두며, 군대 입대 등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용대기에 안녕을 기원하기도 한다.

충남 홍성 갈산면 갈오리 용대기는 1913년 처음 제작되었고, 1940년에 용봉선인龍鳳仙人 이해운李海雲이라는 사람이 다시 황룡 그림을 그렸다. 기면의 흐릿한 또 다른 큰 글씨 흔적을 통해 기존의 천을 중수하면서 재사용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연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대본기 명문과 등용문을 나타내는 ‘어변성룡魚變成龍’ 문구도 새겼다. 충남 지역의 용대기 그림에는 대본기 문구 혼합형이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그 점을 갈오리 용대기가 잘 보여 준다. 용대기를 현지에서는 ‘용포’라고 불렀으며, 6·25전쟁 이전에 마을 공터에 용대기를 세우고 동네 주민들이 김매기를 하러 갔다. 용대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논으로 들고 가지 않았으며, 용대기를 세울 때는 세 줄을 걸어 고정하였다. 갈오리의 용대기는 중수 이후 단기만 사용하였기에 상태가 양호하며, 과거 평장목은 여타 지역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깃털도 상당히 많다. 특히 장대를 끼우는 통 부분에는 모란 등 길상 문양을 넣어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두레 소멸 이후에도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나 2월 초하루 머슴날 풍물을 칠 때 용대기를 마을 공터에 세우기도 하였으나 마을의 풍물패가 사라진 이후에는 그런 풍속이 사라졌다.

충남 공주 우성면 도천리 용대기는 기면에는 황룡이 그려져 있고, 기폭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을 목서하였다. 용대기 중 6중수까지 표기한 것은 우리나라 용대기 중 유일하나 초기의 농기가 용대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충남 보령 청라면 황룡리 용대기는 제작 당시 인물이 생존하고, 제작 내력이 정확하다. 또한 기면 양쪽에 각각 청룡(앞)과 황룡(뒤)을 그린 쌍룡기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1934년 김완태가 작고한 후 꽃상여를 제작할 때 화공이 용대기를 제작해 주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본 이창룡이 2022년 조사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었다. 2022년 당시 노인회장인 김종호에 따르면, 자신이 어릴 때 마을의 두레패가 사라졌지만 모내기 내내 큰집 마당에 용대기를 세워 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즉 황룡리의 용대기는 모내기 철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대본기를 앞에 세우고 논으로 나갔다. 용대기는 현재도 정

월 대보름이나 추석에 지신밟기, 풍물을 칠 때 마을회관 앞에 세워 뒀 용대기가 마을의 상징임을 알린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청라면 용뚝뚝 기우제 때 용대기를 연못 근처에 세워 두고 제의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이영섭은 “기우제를 하면 꼭 빗방울이 떨어졌다.”라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용대기에 새긴 연조(昭和九年歲甲戌秋七月既往登龍) 중 ‘소화昭和’는 먹칠을 하였는데, 이는 소화라는 일본 연호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보령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홍성의 용대기에도 일본 연호를 먹칠한 사례가 많다.

전북 임실 신평면 피암마을 용대기는 연조에 근거하면 임실 읍내의 선전관 진필기晉必琪의 후원으로 1905년 음력 1월 15일에 제작되었고, 그림은 화공 지사 범치土凡이 그렸다. 당시 피암마을 두레의 좌상座上은 최봉학崔奉學, 공원公員은 김한수金漢洙이었다. 기면 중앙에는 민화풍의 용이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잉어와 낙서洛書 표식이 있는 거북이 묘사되어 있다. 낙서는 고대 중국 하야나라 우궤임금이 황하의 범람을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있었다는 45개의 점으로 구성된 아홉 개 무늬를 뜻한다. 용대기에 그려진 용·잉어·거북은 수생동물로, 기우에 자유롭게 비를 내리고 멈출 수 있게 하는 운행우시雲行雨施의 능력을 지닌 신으로 묘사한 것이다. 용의 화상을 그려 놓고 비를 기원한 풍속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628년(진평왕 50)에 이미 등장한다.

전북 김제 신평동 편강마을 용대기는 전문 화원畫員의 솜씨가 엿보일 정도로 그림 수준이 돋보인다. 기면 좌측에는 대본기 문구(農者天下之大本也)와 함께 용대기 기증자와 두레패 중심인물, 제작연도 등이 묵서墨書로 자세히 적혀 있다. 연조에 따르면 용대기는 무오년戊午年(1918년 추정) 8월 12일생인 곽안순郭安洵이 소원성취所願成就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평동에 기증하였다. 당시 이장은 서귀환, 좌상은 김재복, 공원은 양민식이다. 그림은 경기도 광주廣州에 거주하는 화공 난곡蘭谷이 그렸으며, 용대기는 정유년丁酉年 7월 15일 제작하였다. 농협 농업박물관에서는 정유년을 1957년으로 추정하였으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편강마을 용대기도 ‘사흘에 한 번 비가 오고, 밤에는 비가 내리다가 낮에는 맑아지고, 구름이 일어서 안개를 토하니,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三日一雨 夜雨晝晴 興雲霧吐 變化莫測.’라고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노래하였다.

전북 진안 마령면 강정리의 용대기 기면에는 청룡이 그려져 있다. 기폭의 연조를 통해 1835년에 제작되고 1924년, 즉 갑자년甲子에 다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자 연조는 ‘대정大正 13년’을 지우고 다시 갑자로 쓴 것인데, 이는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일제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지우고 다시 적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기를 ‘용대기’라고 불렀음도 명기하였다. 강정

리 용대기에는 깃대 쪽으로 머리를 향한 커다란 황룡 한 마리가 머리 위쪽 발에 여의주를 쥐고 하얀 구름 속에서 용틀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깃발의 왼쪽 상단에는 거북, 오른쪽 상단에는 잉어가 그려져 있다. 용이나 거북, 잉어는 모두 물과 관련되거나 알을 대량으로 방사하는 동물이기에 물의 관장과 풍요 및 다산을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대기는 2016년 11월에 다시 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 강진 군동면 용소부락 안지마을 용대기는 남외리에 거주하는 경신생 박경채라는 사람이 기증한 것으로, 계유년 7월 상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長興郡長興面南外里庚申生朴敬采 祝 癸酉七月上旬始造. 안지마을 김이선 이장에 따르면 박경채는 인근 마을인 남외리에 거주하던 부호의 아들이며, 그의 부친이 안지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용대기를 만들어 기증하면서 아들 이름을 농기에 적어 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고 한다. 박경채라는 사람이 1920년 무렵에 출생하였다고 하므로 용대기가 제작된 계유년은 1933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안지마을 용대기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용을 그려 넣었고, 기면에 용·신농씨·잉어·거북 등 여타 용대기보다 민화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용대기 중앙에는 하늘을 나는 청룡의 등에 살포를 들고 있는 신농씨가 올라앉아 있고, 아래쪽에는 잉어와 거북이 자리 잡고 있다. 신농씨에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용·잉어·거북 등을 통해 비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특징 및 의의

용대기는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던 전통시대에 마을문화의 표상이었다. 농사 현장에 기치를 세우는 것은 두레를 집행한다는 의미이고, 공동체의 명령에 따라 구성원들을 소집하여 논매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유로 용대기는 공동체에서 신성하게 만들어 기치를 함부로 땅에 눕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는 금기였으며, 두레패가 이동할 때 깃발이 빠뜨어지거나 제대로 들지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용대기는 평소 보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총 7점의 농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충남 논산 상월면 주곡리의 신농기[神農遺業]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대기이다. 용대기 연조에 근거하여 제작 시기를 보면 1957년(추정) 제작된 전북 김제 신평동 편강마을 용대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19세기 전후의 것이다. 그 가운데 충남 홍성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마을의 용대기가 1824년 제작되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광복 후 두레는 사라졌지만 용대기는 여전히 마을의 상징물로 이용되고 있다. 충남 보령 청라면 황룡리에서는 정월 대보름과 추석 등 세시 명절에 용대기를 마을회관에 세워 두고 지신밟기나 풍물놀이를 즐긴다. 홍성 장곡면 옥계1리에서는 음력 정월 14일 용왕제(샘제) 때 우물 옆에 용대기를 세워 둔다. 홍성은

하면 장터마을과 광천읍 신대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2일과 3일 산신제 때 마을 회관 앞에 용대기를 걸어 두며, 제의를 준비하는 당주 집 앞에는 용대기를 세웠다. 광천읍 용암마을에서는 정월 초 당제 때 당제 앞에 용대기를 걸어 두고, 새 우젓 축제(9~10월) 때도 용대기를 걸어 마을의 위상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高麗史, 國朝五禮序列,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續陰晴史, 叢璣錄, 농기(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2009), 농기문화(강성북, 당진의 무형문화유산, 국립무형유산원, 2016), 농기의 역사적 전통과 하사 농기(강성북, 비교민속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비교민속학회, 2017), 두레 용대기의 연원과 그 특징(정연학, 민속학연구 50, 국립민속박물관, 2022), 왕실문화도감-의장(국립고궁박물관, 2018), 한국 마을기의 존재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김선태, 민속원, 20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정연학(鄭然鶴)

용떡

용왕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용 모양의 떡.

내용 용왕龍王에게 올리는 무속제의의 한 거리인 용왕굿에서는 별도의 상을 차려 용왕에게 바치는데, 특히 용 모양의 떡을 만들어 올린 것을 용떡이라 한다. 절편을 만들 때처럼 쌀가루를 이용해 만드는 용떡은 손으로 용 모양으로 빚은 후 식용 색소를 입히는 식으로 만든다. 대개 용떡은 쌍으로 만들어 바치기 때문에 색이 다른 두 개의 떡을 만들어 굿상에 올린다. 용떡의 크기나 모양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같은 지역의 굿에서도 용떡의 모양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용떡이 용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뿐 고정된 용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용떡을 실제 제의에 사용하는 곳으로는 서울굿과 동해안굿이 있다. 서울의 마포구 한강 변에서는 해마다 음력 5월을 맞아 마포나루굿을 여는데, 한강의 용왕신을 주신령으로 모신다. 굿상 정면에는 용왕을 그린 무신도巫神圖를 봉안하고 그 앞 좌측에 용떡을 올린다. 마포나루굿의 용떡은 황색과 녹색으로, 지름 20cm의 절편을 용이 꼬리를 트는 모양으로 감아 놓았다. 용의 몸통에는 비늘을 새겼고, 입을 벌린 용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용의 이빨, 헛바닥, 수염까지도 모두 떡으로 만들어 놓아 정면에 봉안한 무신도의 용과 상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포나루굿에는 용왕모시기 굿거리가 있어 배를 타고 한강에 나가 용왕을 모셔온다. 무너는 황금색 철릭에 면류관을 써서 용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용왕을 모셔와 굿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용왕 공수를 내린다. 마포나루굿이 진행되어 종반부가 되면 이 용떡을 한강 중심부로 가져가 물에 던져 용왕에게 바친다.



마포나루굿의 용떡과 용왕도 | 서울 마포구 | 2005 | 홍태한

동해안별신굿 중에서도 용떡을 만들어 용왕에게 바치는 곳이 있다. 대표적 인 사례가 포항의 구룡포 별신굿이다. 여기에서는 절편을 40cm 정도 길이로 등글게 감아 뱀 모양으로 만든다. 눈, 코, 입을 만들어 접시에 담고 꽃을 꽂는다. 홍색과 청색의 용 한 쌍을 만들어 배 위로 옮긴다. 용떡 앞에 과일 몇 개와 쌀을 담은 양푼을 놓은 후 선주가 술을 올리고 절을 하여 용왕에게 용떡이 나감을 아뢴다. 이후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차려 놓은 과일과 용떡을 바다에 던져 용떡이 용왕에게 갔음을 보여 준다.

서울굿과 동해안굿에 사용하는 용떡은 용의 형상에 맞게 만든 떡으로, 형태 상 공통점은 없다. 각 굿거리는 용왕과 관련한 굿거리여서 누구나 쉽게 그 떡이 용떡임을 알아볼 수 있다. 마포나루굿과 구룡포별신굿 이외의 지역에서도 용떡이 다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2년 조사된 경상남도의 통과의례通過儀禮 내용을 보면 혼례상에 용떡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 1970년대까지는 무당 굿이 아닌 의례에도 용떡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형태에 대해서는 기록 되어 있지 않아 짐작하기 어렵다.

특징 및 의의

용떡은 용의 형상으로 만든 떡이라는 데에서 신성성을 가진다. 다른 떡들은 굿상에 올려져 굿이 진행된 후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용떡은 용왕에게 바치는 인간의 공물이다. 따라서 용떡은 신성한 떡이자 용왕의 대리로 간주하여 굿상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신다. 용왕은 상상의 존재로서 대개 용으로 형상화된다. 그러한 용은 굿판에 나타날 수 없는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용



동해안별신굿의 용떡 | 경북 포항 | 2017 | 홍태한

떡을 굿상에 올려 용왕이 실제 굿판에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용떡은 떡의 차원을 넘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굿상에 올라가는 떡 중에서 특정한 신령을 상징하며, 신성성이 인정되어 각별한 대우를 받다가 직접 신령에게 바쳐지는 떡으로는 용떡이 유일하다. 신성한 존재를 상징하는 여러 도구나 깃발이 있지만 음식 가운데 하나인 떡이 신령을 상징한다는 점에 용떡의 의의가 있다. 떡의 여러 모양 중에서 실재하지 않는 존재를 형상화한 유일한 떡이 용떡이고,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여러 존재 중에서 특정 존재를 형상화한 떡 역시 용떡이 유일하여 그 가치가 남다르다.

참고문헌 마포나루굿(마포나루굿보존회, 마포문화원, 2006), 통과의례(이광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2).

필자 홍태한(洪泰漢)

용알뜨기

정월 대보름이나 새해 첫 용날에 부인들이 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서로 앞을 다투어 우물물을 길는 세시풍속.

개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황해도와 평안도 풍속에 보름 전날 밤 닭이 울 때를 기다려 집집마다 바가지로 가지고 서로 앞다투어 우물에서 정화수를 길어온다.

이것을 용알뜨기라 한다. 맨 먼저 물을 길는 사람이 그해의 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라고 하였다.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에는 이 물 한 그릇 길는 것을 노룡자라고 하였다.

내용 정월 대보름이나 새해 첫 용날 새벽에 부인들은 닭이 우는 것을 기다렸다가 남들보다 먼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는데, 이를 용알뜨기라고 한다. 우물은 그 전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알을 낳은 곳이며, 이 용의 알을 제일 먼저 건져 감으로써 집안으로 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보통 ‘용알’을 먼저 떠간 사람의 집에는 그해 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먼저 물을 떠 갔다는 표시로 짚으로 띠리를 틀어 우물에 띄워 두거나 오곡밥이나 약밥을 뭉쳐 던져 넣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벌써 닭이 떠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자어로 ‘노룡란(撈龍卵)’ ‘노룡자(撈龍子)’라고 한다. 이는 우물에 있는 용의 알을 떠다는 뜻으로 정월 대보름달은 둥근 알의 모양과 닮았다. 특히 남들보다 먼저 이른 새벽에 이 물을 떠오는 것은 집안에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복(福)·수복수(壽福水)·복물뜨기·복물떠오기·용물뜨기·새알뜨기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모두 같다.

지역사례 경기도에서는 부인들이 정월 대보름날 첫닭이 울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다. 닭이 길어 가기 전에 먼저 물을 길어야 하므로 열나흔날 밤 열두시만 넘으면 동이를 들고 우물 옆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물을 길는 극성파도 있었다. 용이 정월 열나흔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는다고 믿는데, 처음 이 물을 길는 사람의 물에 용의 알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용알을 건져간 집은 운수 대통을 하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한편 정월 대보름날 남들보다 늦게 물을 길어오면 농사일을 하고 있을 때 비를 맞는다고 하며, 새벽에 일찍 길어온 물로 정화수를 올리고 아침에 쌀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새알뜨다.’고 하며, 이른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 먹는다. 강원도에서는 ‘용알을 줍는다.’고 하여 우물에 약식(藥食)을 주먹 크기만 하게 뭉쳐 넣고 물에 푼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주부들이 바가지로 우물을 처음 떠서 거기에 찰밥을 띄우는 ‘복물뜨기’를 하였다. 강원시의 학산마을에서도 대보름날 저녁, 전설이 깃든 학천 샘터에서 용알뜨기를 하였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용물을 뜨면 좋다고 하여 찰밥을 해 놓고 닭이 울 때 우물에서 물을 떠다. 특히 제일 먼저 뜨는 것을 좋게 여겨서 부녀자들은 우물에 두레박을 늘어뜨리고 닭이 울기를 기다려 물을 퍼 올렸다. 우물



장독에 떠놓은 정화수 | 충북 단양 | 2003 | 국립민속박물관·김준기

용알뜨기 | 가로13 세로19 |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의 물을 떠 와서는 집 안 네 귀퉁이에 물을 뿌려 부정을 물리고 얼굴을 씻은 다음 성주 앞에 용물을 떠 놓고 절을 한다.

특징 및 의의

용알뜨기는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용이 우물에 내려와 알을 놓고 간 것을 떠 온다는 속신 행위로, 농사에 필요한 물과 관련되어 있다. 즉 비를 상징하는 용과 마르지 않는 우물에 대한 기원에서 유래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샘이나 우물은 매우 신성한 장소였고,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예고하는 영험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대보름의 달은 둥근 알과 같은 모양으로, 용물뜨기·용알뜨기 등 용과 알 그리고 우물이 관련된 이러한 속신은 물·달·알·여성·대지 등이 지닌 음의 원리로 생산이나 풍요의 주술적 상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測陽歲時記, 강릉의 민속문화(장정룡, 대신출판사, 1991),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경기민속지3(경기도박물관, 2000), 동작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1994), 서울민속대관3(서울특별시, 1993), 평창군 민속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2002),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 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한국민속대관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의 세시풍속(김성원, 명문당, 1987).

필자 김지욱(金志昱)

용왕굿

용왕 또는 용신에게 개인 또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비는 굿.

개관 용왕굿은 하나의 독립된 굿으로 여러 부속 굿거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 신을 모신 굿거리 중 하나로 용왕굿이 존재하기도 한다. 용왕굿은 용왕에게 개인 또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빌거나 익사자의 혼을 달래기 위한 굿이다.

내용 전라북도 군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위한 용왕굿은 군산의 해상을 오가는 모든 사람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다. 군산 용왕굿은 부정굿과 대내림굿—당산제—넛건짐굿—액맥이의 띠뱃놀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부정굿과 대내림굿은 모든 신에게 인간들의 부정함을 사하여 달라는 부정풀이가 끝나면 신을 불러 대나무에 강신시키고, 오방대에 내려 마을을 돈다.

부정굿과 대내림굿을 마치면 당집 앞에서 당제를 지내는데, 무녀들이 비손을 한다. 넛건짐굿은 수중고혼이 된 넛을 건지는 굿이다. 무당이 용사슬(물동이) 위에 올라가서 신께 기도하고, 망혼이 달린 넛배(긴 줄에 그릇을 묶은 것)를 잡아당겨 혼백을 끌어온다. 이후 백지로 만든 넛대와 넛발로 이승 사람과 저승 사람의 편을 갈라 용선에 실어 저승으로 인도한다.

마지막으로 액맥이의 띠뱃놀이에서는 마을의 모든 나쁜 액과 근심, 걱정, 수중의 넛(허수아비)을 띠배에 싣는다. 이때 띠배를 끌고 가는 모선 위에는 무당이 승선하고, 도무당이 액풀이와 덕담 등을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도무당의 노랫가락에 맞춰서 띠배를 바다에 띄운다. 마을 사람들은 재액을 소멸해 달라고 기원하고, 풍어와 안전을 비는 뒤풀이를 하고 마친다.

법성포 단오제의 용왕굿은 용왕제의 절차 중 하나이다. 용왕굿은 사해용왕을 불러 법성포 어민의 무사함과 풍어를 비는 무속의례이다. 용왕굿의 절차는 안당—선부리—용왕굿—놀음굿—용왕고풀이—혼건지기—띠배 띄우기 순서로 진행된다.

그중 안당은 굿판을 정화하고 용왕신을 청하는 거리이다. 우선 용왕신에게 굿을 하는 연유에 대해 아뢰고 복을 청한다. 안당은 당풀이 제상 앞에서 홀로 앉아 징을 치고 구성하는 절차이지만 마을굿 형태로 연행하는 용왕굿에서는 서서 진행하며, 기악 반주가 따른다.

선부리는 조상을 청하여 기원하는 굿거리이다. ‘선’은 먼저라는 의미이고, ‘부리’는 조상을 의미한다. 용왕굿에서는 조업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수사자와 조상신을 청하여 대접한 후 어민들의 복을 기원한다. 조상신을 청할 때는 느린



거제 양화리 용왕굿 | 경남 거제 | 1986 | 국립민속박물관

진양조장단에 맞춰 조상맛이를 하고, 조상신을 놀리는 대목에서는 굿거리장단에 맞춰 지전을 들고 춤을 춘다.

용왕굿에서 가장 중요한 용왕굿거리리는 사해용왕신을 청하여 대접하고 복을 비는 것이다. 또한 사고로 죽은 수사자와 객사자의 혼백을 불러 대접하고 달랜 후 어민들의 재수와 복을 축원한다. 놀음굿은 용왕굿에 없는 절차이지만 관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편성한 거리이다. 이때 관소리의 한 대목이나 살풀이춤을 추며 주민들과 호응한다.

용왕고풀이는 수사자가 원과 한을 풀고 극락으로 천도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당골은 뱃머리에 서서 일곱 매듭의 고를 풀며 안당살풀이장단에 맞춰 무가를 부른다. 혼건지기는 당골이 용왕고를 풀 뒤 고를 묶은 곳베의 한쪽 끝을 바다에 던져 수사자의 혼건지기를 한다. 용왕에게 수사자의 혼을 돌려 달라고 빌고, 그 혼을 건져 영혼이 실린 조상옷을 들고 춤추며 극락으로 가기를 비는 것이다.

띠배 띄우기는 마을의 액을 띠배에 실어 보내고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띠를 엮어 배 모양을 만든 뒤 용왕제의 축원문과 마을 사람의 명단을 넣는다. 당골이 띠배를 향해 축원하면 현관들이 띠배를 바다에 띄우며 복을 기원한다.

제주도에서는 용왕과 영등신을 맞이하여 해상 안전과 풍어를 비는 굿을 '요왕맛이'라고도 한다. 제주 사람은 요왕(龍王)을 유왕 또는 유왕이라고도 한다. 용왕맛이는 바다를 차지한 요왕을 맞이하여 축원하고, 요왕의 길을 치위 닦는 '요왕질치기(용왕길닦이)'이며, 거칠고 험한 바다 밑의 바위와 들복(바다 잡초)을 걷어 내고 바다 밭(海田)을 갈아 씨를 뿌리는 모의적인 해전 경작의례(耕作儀禮)이다.

요왕맛이를 하기 위해서는 용왕신과 영등신이 오는 길인 '요왕길'을 만들어야 한다. 요왕질이란 우선 1m쯤 되는, 잎이 붙은 대나무 가지 8개씩을 제당으로

들어오는 길옆에 나란히 꽂아 둔다. 이 댓가지에 백지, 지전, 돈 등을 걸어 요왕문을 만들어 놓는다. 이 댓가지 하나하나가 바로 용왕신과 영등신이 오시는 문이고, 그 댓가지 사이의 길이 신이 제당으로 오는 길인 셈이다. 이와 같이 제당의 요왕길 설치를 마치면 심방이 험하고 거친 요왕길을 닦아 나간다. 요왕맛이는 배포도엮—날과국섬김—연유닦음—제청신도엮—군문열림—분부사뽀—새드림—오리정—신청괘—방광침—공신가신—주잔권잔—요왕질침 순으로 이루어진다.

바다에서 죽은 익사자를 천도하기 위한 시왕맛이에서 요왕맛이는 용왕이 영혼을 건져 천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다. 요왕질침을 통해 용왕뿐만 아니라 익사자의 영혼이 오는 길도 닦는 것이다.

동해안별신굿에서 용왕굿은 수신(水神)인 사해용왕에게 해상어업의 안전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굿거리이다. 무녀는 치마저고리 위에 쾌자를 입고 연두색 가슴띠를 두른 다음 오른손에 부채, 왼손에 수건을 들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무가를 구연한다. 용왕굿은 바로 정보장단에 신을 청하고 축원하는 굿으로 용신풀이를 하고 모름채장단에 춤을 춘다.

무녀는 선주나 어민들을 불러서 굿당에 앉게 하고, 한지를 머리에 상투처럼 맨다. 선주의 머리카락에 묶은 한지는 만선을 하였을 때 꽃은 풍어기를 상징한다. 무녀는 제당으로 어민들을 수용·암용·거복이로 분장시키고, 용궁문을 여는 열쇠를 마을 사람에게 판다. 이후 무녀는 선주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게 한 다음 살풀이를 하고 굿을 마친다.

동해안별신굿에서는 용왕굿을 할 때 선주와 어민이 있는 집은 용왕상을 따로 차린다. 굿당에 차린 용왕상 앞에서 빈다. 무당이 축원을 마치면 어민들은 밥을 한지에 싸서 여러 개의 몽텅이로 만든 용왕밥을 바다에 던진다. 여기에는 수사자를 풀어먹이고 위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집안 식구 중에 삼재가 들거나 운수가 좋지 않은 집에서는 무당에게 따로 부탁하여 바닷가에서 비나리를 한다. 비나리를 할 때는 대상자의 이름과 생기를 적은 쪽지를 가져와서 무당에게 부탁한다. 준비물은 찹쌀·소금·고춧가루·속옷 등인데, 소금과 고춧가루는 비나리를 할 때 사용하고 속옷은 가지고 나와 태운다. 찹쌀 또는 쌀은 비나리를 마친 뒤 무당이 가져간다.

남해안별신굿에서는 굿거리를 갖춰 굿을 하면 '용왕굿'이라 하고, 간단하게 하면 '용왕맛이'라 한다. 용왕굿을 할 때면 배를 가진 선주들은 용왕상을 준비한다. 대금으로 청신하여 닦을 청하는 닦노래를 부르며 승방이 큰머리에다 쾌자를 입고 나와 사방에 허배한다. 대너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말미장단에 무가를 구송한다. 이후에는 불림—법성—수부 순서로 진행된다. 용왕굿을 마치면 한지

에 밥을 썬 ‘용왕밥’을 바다에 던진다.

위도띠벳놀이에서는 원당에 올라가 제물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온다. 마을을 돌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한다. 띠배를 제작한 선착장에서 풍어를 위한 굿을 하고, 부녀자들이 용왕밥을 바다에 뿌린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제작한 띠배를 바다에 띄운다. 모선이 끈으로 연결해 바다로 끌고 간 다음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나아가 연결된 줄을 끊는다. 마을에 있던 주민들은 띠배가 무사히 용왕님께 가기를 기원한다.

특징 및 의의

용왕굿은 지역에 따라 독립적인 굿으로 하기도 하고 동해안별신굿이나 남해안별신굿, 강릉단오제나 법성포단오제, 위도띠벳놀이의 굿거리 중 하나로 행된다. 바닷가에서 해사海事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용왕은 생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신이다. 용왕굿은 다른 굿거리에 비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아울러 용왕굿은 수신을 모시고 안녕과 풍어를 비는 굿인 동시에 역사자의 혼을 달래거나 잡귀를 풀어먹이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참고문헌 경북 포항 다릿돌별신굿4(윤동환·정연락·손정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남해안굿 연구(김형근, 민속원, 2012), 법성포단오굿 음악의 특징(김미영, 2023 굿음악축제 학술회의 자료집, 국립남도국악원, 2023), 위도의 민속(국립민속박물관, 1984), 제주칠머리당영등굿(국립문화재연구소, 민속원, 2008),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동환(尹東煥)

용왕기
龍王旗

백지나 천을 뗏가지에 묶어 용왕의 신체를 나타내는 깃발.

내용

흔히 용왕을 ‘요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왕기라고도 한다. 백지로 용왕을 나타내는 신체를 오려 책지(백지의 한쪽 끝을 접은 것)와 함께 뗏가지에 엮어매어 만들기도 하고, 조금 끊어낸 물색을 뗏가지에 엮어매어 만들기도 한다.

용왕상에 놓여 용왕신의 신체를 나타내며 용왕을 청해 들일 때 심방이 들고 춤을 추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요왕질을 칠 때 용왕이 들어오는 길목에 꽃아 놓기도 한다.



수용포 범굿 신대 | 경북 포항 | 2009 | 국립민속박물관

용왕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모양이다. 선왕기처럼 하나만 만들어 쓰기도 하고 색깔별로 여러 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여러 개 만들어 쓰는 사례는 워낙 드문 것이어서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깃발 형태라는 점에서는 어디서나 같다. 대체로 하나로 만들어 쓴다. 용왕상에 세워 신체를 대신하는 용도로 쓴다. 신청례를 할 때는 용왕기를 들고 춤을 추면서 용왕이 들어오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신체가 특정한 형상으로 통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필자 강정식(姜晶植)

용왕당
龍王堂

용왕龍王 또는 용신龍神을 모신 신당神堂.

역사

용왕당龍王堂은 대체로 냇물이나 우물 곁에 위치한다. 용왕龍王 또는 용신은 수신水神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용왕당의 성격은 용에 대한 문헌 기록과도 일치한다.

용과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시조혁거세거서간조나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혁거세왕조에서 찾을 수 있다. 혁거세의 배우자 알영關英에 대해 “사랑리 알영정關英井 또는 아리영정娥利英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계룡鷄龍이 나타나서 왼쪽 옆구리로부터 동녀童女를 낳으니 자색이 뛰어나게 고왔다沙梁里關英井 一作娥利英井邊有雞龍現, 而左脇誕生童女 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우물에서 용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용과 관련된 신앙의 일면을 보인다. 용은 문헌 기록에서 보듯이 기원전부터 신앙되었다.

『삼국유사』 「기이」 진성여왕거타지조에는 신라 진성여왕의 아들 양패良賈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궁사로 따라가던 거타지가 서해 용왕의 부탁을 받아, 승려로 변신하여 용왕 가족을 괴롭히던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이고 용왕의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 전한다. 『고려사高麗史』에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할아버지 작제건作帝建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타지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 용과 관련된 설화가 이후로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을 모신 용왕당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탑상塔像」 전후소장사리조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 말기 보요선사普耀禪師가 창건한 해룡왕사海龍王寺 안에 용왕당

이 있었다. 보요선사가 처음으로 남월南越에서 대장경大藏經을 가지고 돌아올 때 용이 따라와서 머물렀던 곳이다. 보요선사의 용왕당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이 절에는 용왕당이 있는데, 자못 신령하고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 당시 대장경을 따라와서 머물렀던 것인데 지금도 남아 있다寺有龍王堂 頗多靈異乃當時隨經而來止者也 至今猶存.”라고 하였다.

『속동문선續東文選』 권21 「유송도록遊松都錄」에서는 고려시대 개성 북부 박연 폭포朴淵瀑布 주변에 용왕당이 있는데, 가뭄 때 비를 빌면 바로 영검이 있다 하였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1611) 「한정록閑情錄」 권17 병화사瓶花史에는 용왕당의 물을 화병의 물로 쓰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 후기의 문신인 잠곡 김육金瑬(1580~1658)이 쓴 『잠곡유고潛谷遺稿』 권9에는 ‘용왕당에 제사 지내면서 올린 제문’이 있다. 그 제문은 아래와 같다.

바람 불고 구름 서린 그 가운데서風雲之中
용이 하늘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利見飛躍
이제 마침 용궁을 지나게 되니今過珠宮
마음 절로 엄숙해지옵나이다中心自肅
예 올려서 공경하는 마음 바치며禮宜致敬
한 잔 술로 감히 전을 올리옵나니敢奠一酌
신령께선 이 정성을 흠향하시사神其享誠
저의 축원 굿어살펴 주시옵소서庶鑑斯祝

김육은 해로海路 사행使行을 하면서 제문을 짓기 3일 전 바다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636년 8월 3일 용 한 마리가 솟구쳐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8월 5일 삼산도를 지나 용왕당에서 묵었다. 6일 4경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지은 제문인 것이다. 이 외에도 홍익한의 『조천항해록朝天航海錄』(1625), 김육의 『조경일록朝京日錄』(1636), 김상헌의 『청음집淸陰集』(1671), 김경선의 『연원직지燕巔直指』(1832) 등에 용왕당이 나타난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1849)를 보면 충청북도 진천군 풍속에 3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 여자들이 무당을 데리고 우담당牛潭堂, 동서용왕당東西龍王堂, 삼신당三神堂에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러한 풍속은 일제강점기 무렵에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에 오면서 복원되었다. 용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놀이로 재구성한 것이 소두머니牛潭 용신놀이이다. 용왕당은 물과 관련된 신이 있는 곳으로, 여전히 민중 속에 전승되고 있다.



용왕당 | 경북 영덕 | 2008 | 국립민속박물관



용왕당 신위 | 강원 평창 | 2023 | 윤동환

내용 용왕은 호수, 강, 개울, 연못, 우물, 바다 등 물과 관련된 신이다. 물(水)과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비를 관장한다고도 여긴다. 기우뿐만 아니라 풍어·풍년·안전 등을 담당하고, 때로는 망자의 영혼을 달랠 때 섬기기도 한다.

용왕당에 모시는 신격은 용왕님, 용궁불사, 용왕제석, 용궁부인, 용궁칠성, 용궁천왕, 용자신, 용궁대신, 사해용왕, 사해용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용왕부인’ ‘용신할머니’ ‘용궁애기씨’ ‘용궁부인’ 등으로 칭할 경우 여성신 성격이 드러나고, 바다와 접한 지역에서는 방위 개념을 결합한 사해용왕을 섬기기도 한다.

내륙지역에도 용왕당이 존재한다. 대관령 용왕당, 평창군 계방산 용신당, 팔공산 관암사 용왕당 등이 있다. 대관령 용왕당은 산신당 뒤에 칠성당과 접해 있다. 계방산 용신당을 보면 산에 방아다리 약수터가 있고, 그 옆에 작은 용신당이 있다. 당 안에는 ‘용신할머니’라고 불리는 신상이 목판 위에 그려져 있으며, 여자들이 치성을 드린다. 팔공산 관암사 용왕당의 경우 누각이 없는 단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용왕당이라고 한다.

삼면으로 둘러싸인 해안지역에는 용왕당이 존재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큰물당’ ‘문수물당’ ‘돈깃당(갯당, 개할망당, 어부당)’ 등이 있어서 용왕부인을 모시고 있다. 해변을 접하고 있는 제주도는 용왕을 모시는 당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구룡암은 ‘동해용왕당’으로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나곡리 봉화산 자락에 위치한 동해용왕당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해맞이 기도를 올리고, 특히 방생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용왕을 모시는 신자들 사이에서는 동해용궁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통도사 말사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오봉사에도 용왕당이 있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에도 용왕을 모시는 당집인 용왕당이 있다. 해안에 접한 각 사찰이나 기도처에 용왕당이 존재한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에는 용왕당과 충혼각이 있다. 구룡포 용왕당은 구룡포 어민들의 풍어와 안전조업을 기원하기 위한 제당으로 남신인 사해용왕을 섬기고 있다. 용왕당 건물은 일본인들이 구룡포에 정착하며 건립하였던 신사를 헐고 1956년에 건립하였다가 건물이 낡고 노후가 심하여 2008년에 철거한 뒤 새로이 한옥으로 신축하였다.

특징 및 의의

용신앙은 오래전부터 전승되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용왕당과 민속신앙과 관련된 용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찰에서 용왕 또는 용신을 모시는데, 불교가 전파된 이후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신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에서 용은 천왕팔부신중天王八部神衆의 하나로, 흔히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교에서 용은 주로 법당 안팎에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렸는데, 별도로 단을 두고 상像을 만들어 모시기도 한다. 특히 해안이나 섬에 있는 사찰에는 용왕당 또는 용왕단을 둔 경우가 흔하다.

용왕 또는 용신은 물을 신격화한 신앙에 불교와 도교의 용신이 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용신은 호법신과 호국신으로서 불교적·국가적 차원의 제향 대상이 되었다. 또한 풍년과 풍어, 기우와 풍파, 무사 안전의 기원 대상으로서 민속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용왕당은 농사의 풍작뿐만 아니라 바다의 안전과 풍어, 기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가족의 안위를 보장하는 신앙처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논고(장주근, 계몽사, 1986),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윤동환(尹東煥)

용왕도
龍王圖

바다를 지배하는 신령인 용왕을 그린 무신도.

내용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신령은 용왕龍王이다. 용왕은 바다의 절대자로 인식되어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豐漁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용왕은 그림이나 깃발 등 다양한 상징물에 표상된다. 이 중 용왕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을 용왕도龍王圖라 하며, 용신도·용궁할아버지라고도 불린다. 대부분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어 무신도巫神圖의 하나로 간주한다. 바다와 관련이 있는 신령을 그린 무신도에는 용태부인·용궁부인 등도 있으나 이들은 여성신으로 간주되고, 용왕은 남성신으로 간주되어 용왕도는 대부분 남성의



용왕도 | 충남 당진 | 2008 | 홍태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용왕도의 형태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인물을 전혀 그리지 않고 용만을 그린 그림으로, 해안의 마을당에 봉안奉安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안섬풍어제당에 있는 용왕도이다. 안섬은 풍어굿을 오래전부터 이어 왔으며, 무당이 제당에서 굿을 진행한다. 제당의 전면 벽에 용 하나를 커다랗게 그려서 마을 풍어굿의 주신령이 용왕임을 나타내며, 풍어굿 의례 대부분을 용신 그림 앞에서 진행한다. 마을 주민들은 용왕을 자신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형태는 용왕을 의미하는 남성을 그린 그림으로, 바다와의 연관성을 알려주는 어떤 표상도 없는 경우이다. 이때는 불안하는 사람의 설명이 없으면 용왕과 관련이 있는 신령임을 알기 어렵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큰한강부군당에는 용궁할아버지가 봉안되어 있는데 의자에 앉은 인물 형상으로, 부군당에 봉안된 부군 신령과 동일한 형상이어서 구별이 어렵다. 한남동 큰한강부군당은 부군당과 용궁당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수호하는 부군당과 마을 앞의 한강을 수호하는 용궁당을 구별할 수 있다. 용궁할아버지는 별도의 건물인 용왕당에 봉안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은 이를 용왕으로 인식한다.

셋째 형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가 결합된 모습으로, 인물과 용이 한 화폭에 함께 그려져 있다. 서울 용산구 청암동 부군당에는 용왕이 봉안되어 있는데, 상단에는 익선관과 비슷한 관을 쓴 인물이 그려져 있고 파도가 인물을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는 용이 그려져 있다. 용의 출현으로 해당 인물이 용왕임을 분



서울 용산구

서울 마포구

부군당의 용궁할아버지 | 2016 | 홍태한

해신도 | 가로50 세로79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명하게 드러냈지만 실상 인물에서 용왕의 특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이 유형의 그림을 용왕도로 판단하는 이유는 인물이 아니라 인물 아래 그려진 파도와 용 때문이다. 인물보다 바다의 특성을 드러내는 도상圖像으로 인해 용왕도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 마을당이나 무속인의 개별 신앙에 봉안된 용왕도가 대부분 세 번째 형태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용왕도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무신도 중에서 이 유형의 수가 가장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징 및 의의

용왕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용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表象은 용임이 분명하다. 인물과 함께 용을 배치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그림이 용왕도임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용만을 그려 용왕도로 봉안하다가 대부분의 무신도가 인물 중심으로 도상화되면서 인물이 중심부에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 그림은 주변부로 밀려 전체 도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용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용왕도임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바다를 상징하는 신령으로 용왕을 설정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봉안한 용왕도에는 바다를 신성시한 우리 민족의 심상이 반영되어 있다. 용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용왕도라고 명명함을 통해 무신도는 명칭이 도상보다 우선시함을 나타내며, 용을 그려서 용왕도를 보여 주는 점에서 무신도의 전형성이 보인다.

한국 무신도는 특정 도구나 도상을 통해 그림 속 신령의 존재를 드러낸다. 용왕도도 용이나 파도 그림을 통해 용왕임을 나타내고 있어 무신도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무신도라는 점에서 서도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서울의 마을제당과 무신도(서울 마을제당 무신도 조사연구단, 민속원, 2021), 한국의 무신도(홍태한·박우택, 민속원, 2008).
필자 홍태한(洪泰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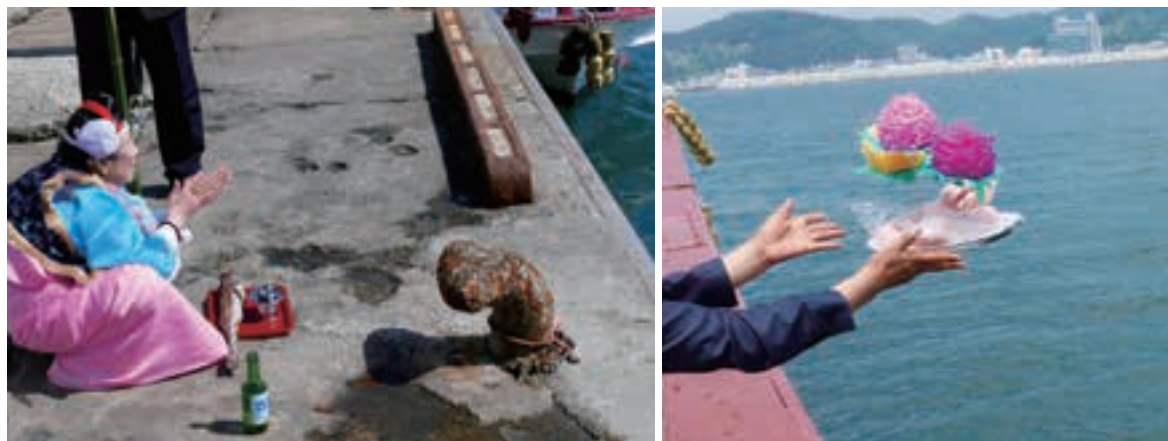
용왕먹이기

물을 관장하는 신령인 용왕에게 올리는 제의 혹은 제의 중에서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올리는 것.

개관 용왕龍王에게 올리는 제의祭儀는 전승 주체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 마을 공동체가 함께 제의를 올리기도 하고 가정마다 주부가 주관하여 제를 올리기도 하여 형태나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주관하는 용왕제龍王祭를 용왕먹이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체 제의에서도 ‘용왕굿’을 통해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용왕먹이기라고 한다. 용왕먹이기는 ‘용왕+먹이기’로, 용왕에게 정성을 올리고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공동체 제의는 용왕만을 위해 제의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왕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용왕먹이기라고 부른다.

내용 용왕뎌이기, 용왕공, 요왕공, 용왕제, 용신제龍神祭라고도 하는 용왕먹이기는 용왕에게 올리는 제의이다. 넓은 의미로는 공동체 제의에서 마을의 평안平安을 위하여 용왕을 모시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집안의 평안을 빌고 자식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행하는 개인 제의를 가리킨다. 공동체 제의가 바다나 강에서 주로 이뤄지는 반면 개인 제의는 개울과 샘 등 물이 있는 곳에서 이뤄지거나 물을 떠서 장독대에 올리고 진행하기도 한다. 용왕을 대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먹인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개인 제의가 용왕먹이기에 더 부합한다. 공동체 제의는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여러 신령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용왕과 관련된 제의가 일부이지만 개인 제의는 용왕만을 모시기 때문에 용왕먹이기가 주가 된다.

용왕먹이기는 제의를 받는 신앙 대상인 용왕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제의를 여는 기원자祈願者를 통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제물인 음식이 있



용왕맞이 | 부산 수영구 | 2018 | 흥태한

용왕에게 용떡보내기 | 경북 포항 | 2017 | 흥태한

다. 제물을 통해 용왕과 기원자는 서로 연결되고, 먹이기라는 행위를 통해 소망이 이뤄지기를 구체적으로 표명한다. 공동체 제의의 제물은 매우 풍성하지만 개인 제의로 용왕먹이기의 제물은 대부분 소박하여 팔떡·나물·쌀·정화수 등을 올리며, 형편에 맞춰 정성껏 준비한다. 제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준비한 제물의 일부를 물을 향해 던져 용왕을 먹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역사례 우리나라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용왕먹이기가 존재한다. 먼저 공동체 제의로 존재하는 용왕먹이기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에서는 해마다 정월 초사흘날에 원당(願堂)에서 제를 올린 후 바닷가에 내려와 용왕굿을 거행한다. 원당 제에는 여성이 거의 참가하지 않고 남성 중심으로 제의가 진행되는 데 반해 용왕제에는 여성도 다수 참가하여 양상이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을 부녀자들이 장구·징·소고 등을 치면서 흥겹게 놀기도 하였고, 탈을 쓴 여인이 나와 춤을 추기도 하였을 정도로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는 의례였다. 용왕제에서 제관(祭官)이 독축(讀祝)을 한 후 무당은 바다의 용왕을 정비(講拜)하여 바다에서의 안전 귀환과 마을의 풍어(豐漁)를 기원한다. 그리고 줄밥과 가래밥을 뿌린 후 띠배를 띄우면서 끝난다. 여기에서 줄밥과 가래밥을 뿌리는 것이 용왕을 먹이는 행위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구동호 마을에는 용왕할머니와 세 딸이 그려진 무신도를 봉안(奉安)하고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드는 당집이 있다.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올리는 제를 용왕제라 부른다. 제의는 유교식(儒敎式)으로 거행하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준비한 제물을 던져 용왕을 대접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이 역시 용왕먹이기의 모습이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는 가야진용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제당

에서 제의를 유교식으로 올린 후 용신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모든 참석자가 용소(龍沼)로 간다. 희생으로 쓸 돼지를 배에 싣고 용소에 가서 '용신님 이 제물을 바치니 부디 흠향하소서.'라고 한 후 침하돈(沈下豚)을 세 번 외치고 돼지를 용소에 넣는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모시는 용신제여서 침하돈이라고 외치지만 이 역시 용왕먹이기의 하나이다.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는 서낭굿을 올릴 때 바닷가에 가서 용신굿을 거행한 후 제물을 바다에 던진다. 제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용왕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는 용왕먹이기라 할 수 있다. 남해안별신굿의 용왕굿에서는 메와 제물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를 일러 '용왕밥'이라 한다. 이처럼 공동체 제의에서 용왕먹이기는 차린 제물을 용왕에게 바쳐 먹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 제의로서 용왕먹이기 사례는 전국에 산재한다. 몇몇 지역 사례를 정리한다.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상동 금봉리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주부가 샘에서 아들을 얻기 위해 치성(致誠)을 드리는데, 이를 일러 유왕공이라 한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도 비정기적으로 주부가 나물과 밥을 마을 앞 방죽에 차려 놓고 가족의 평안을 빌고 음식을 방죽에 던진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에서도 용왕먹이기를 한다. 정월 보름 전날 지은 찰밥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전, 자식을 어렵게 가졌거나 출산할 때 고생을 많이 한 집에서 짚에 찰밥을 싸서 집 담 밑에 가져다 놓는데, 이를 일종의 고수레로 인식한다.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지사마을에서는 농사용왕과 내가 위하는 용왕을 위한 제물을 각각 올린다. 뒷산 골짜기로 정월 대보름에 밥·나물·사과·밤·복어를 가지고 가서 제를 올리는데, 이를 '농사용왕'이라고 한다. 아들들이 잘되라고 수시로 올리는 것을 '내가 위하는 용왕'이라고 한다. 마을 앞 개울에 가서 용왕먹이기를 거행하기도 한다.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우물에 가서 치성 드리는 것을 '용왕먹이기'라고 한다.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샘에 가서 짚을 '十'자로 깔고 제물을 진설한 후 가정의 태평과 자식의 건강을 비는 용왕제를 올린다.

이처럼 용왕먹이기는 개인 제의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행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하다. 용왕을 대접하고 소원을 비는 개인 제의로서의 용왕먹이기는 전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왕먹이기는 결국 용왕을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공동체에서 마을의 평안을 위해 용왕을 대접하여 먹고, 개인 제의에서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용왕을 대접하고 먹인다. 이것은 용왕이 가지고 있는 물의 상징성을 제의에 수용한 결과이다. 용왕이 관장하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根源)으로, 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에 따라 물이 가진 생명력을 얻기 위한 제의로 용왕먹이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용왕에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기원하고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단순하게 기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용왕을 먹임으로써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받는다 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용왕을 받드는 것은 초월적 존재 앞에서 인간이 가진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용왕을 먹여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신과 인간이 나뉘는 수평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을 대접하고 그 대가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상호 수혜受惠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비록 용왕에게 제의를 올리고 기원하고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용왕먹이기에는 이처럼 절대적 존재를 받 드는 인간 나뉘는 방편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는 용왕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어 개인 제의는 대부분 사라졌다. 공동체 제의로 용왕굿이 존재는 하고 있지만 제 의로 존재하기보다 일종의 공연물로 행해지는 사례가 많아 과거처럼 제대로 된 의미를 지닌 용왕먹이기를 보기는 이제 어렵다.

참고문헌 가야진·가야진사·가야진 용신제(이용범 외, 민속원, 2018), 삼척의 무속(윤동환, 삼척시립박물관, 2011), 위도의 민속-대리원당제(국립민속박물관, 1984), 한국의 가정신앙-경상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 의 가정신앙-전라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청북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현지조사자 료(김상원, 전북 부안, 2008.2.9; 정영만, 경남 통영, 2007.2.20.).

필자 홍태한(洪泰漢)

용왕밥

용왕제(용왕굿)를 할 때 바다에 헌식하기 위해 만든 제물.

내용 용왕제를 할 때 바다에 헌식하는 용왕밥은 찜밥, 김밥, 물밥, 지 등으로도 불린 다. 마을 단위로 진설한 용왕상의 제물을 내려 용왕밥으로 헌식하거나 개인의 용왕상에 진설된 제물로 용왕밥을 만들어 헌식한다.

기장 두모포 풍어굿에서 당맞이굿을 지낸 후와 속초시 외옹치 별신굿, 영덕 군 구계리 별신굿, 위도띠벳놀이 등 굿거리 중의 용왕제에서는 마을 단위로 만 든 용왕밥을 무녀나 제관이 헌식한다. 거제도 수산마을 용왕굿, 제주도 칠머리 당 영등굿 중 영감놀이에서는 개인 단위로 만든 용왕밥을 개인이 바다에 헌식 한다.

마을 단위로 용왕밥을 헌식하는 마을에서 마을 공동의 용왕상과 함께 개인 용왕상(조상상)을 차려 내오는 예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용왕밥을 헌식하는 마 을은 용왕굿 제차에서 개인이 차린 용왕상을 바닷가에 진열한 후 용왕굿을 진

행하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용왕밥을 헌식한다.

용왕제를 지낼 때 바다에 제물을 헌식하는 유형은 별도로 만든 용왕밥 헌식 유형, 용왕상에 올린 제물을 그대로 바다에 헌식하면서 이를 용왕밥이라 부르 는 유형, 용왕밥과 함께 물밥을 헌식하는 유형, 물밥만 헌식하는 유형, 용왕밥을 헌식한 후 좁쌀 등을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물밥은 지역 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용왕상에 올린 제물을 바다에 헌식하기 위해 큰 대야나 바가지에 담은 것을 일반적으로 이른다. 바가지 등에 담지 않고 짚으 로 제물을 싸서 이를 '물밥'이라 부르는 마을도 있다.

용왕밥을 헌식하는 유형은 속초 외옹치 별신굿, 영덕 구계리 별신굿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용왕밥을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한지나 짚으로 싸서 만들 어 바다에 헌식한다. 거제도 수산마을에서는 용왕굿이 펼쳐질 바닷가에 각 가 정의 조상상을 차리고 굿을 하며, 굿이 끝난 후 상에 차려진 메와 기타 제물을 바다에 헌식한다. 이때 헌식하는 메를 용왕밥이라고 한다.

용왕밥과 함께 물밥을 헌식하는 유형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에 열리는 위도띠벳놀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도띠벳놀이의 동편 용왕제와 서편 용왕제 에서 각각 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용왕제 에서는 바다에 나가 수중고혼水中孤魂이 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고루 풀어먹인다는 의미에서 줄밥 뿌리기를 한다. 이때 선창자가 '가래질 소리' '에용 소리' '술배 소리' 등의 앞소리를 메기면 여러 사람이 뒷소리로 받아 뒤따르며 함지박에 담 은 '줄밥(가래밥)'을 바가지로 퍼서 바다에 뿌린다. 물밥 헌식 유형은 통영시 당 포마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용왕제를 지낸 후 물밥(용왕밥)을 바다 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헌식한 후 좁쌀 등을 헌식하는 유형은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용왕밥을 헌식함에 있어 용 왕과 수중고혼을 위하여 용왕밥을 헌식하는 '지드림(지아뵈)'을 하고, 바다에서 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좁쌀을 뿌린다.

물밥을 별도로 헌식하는 마을에서는 객귀나 수사자水死者를 풀어먹이기 위 해 만들었으며, 좁쌀이나 쌀을 별도로 헌식하는 사례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함 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형이 나뉘는 것은 용왕제를 지내는 목적인 용왕 위 함, 풍어 기원, 수사자를 비롯한 객귀 위함을 용왕밥이나 물밥을 만들어 헌식함 으으로써 각종 염원을 묶어 기원하거나 각각의 목적에 맞게 헌식하는 방법을 구 분하여 기원하기 때문이다.

용왕밥은 용왕상에 올린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만든다. 용왕밥의 형태 나 내용물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형은 밥을 그대로 헌식하는 유 형, 메(또는 쌀)나 용왕상에 올린 제물 일부를 한지에 싸서 만드는 유형, 한지



용왕밥 헌식 | 경북 포항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수릉동 당제 용왕밥 만들기 | 충남 홍성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에 김과 함께 제물을 싸서 만드는 유형, 제물을 짚에 싸서 만드는 유형, 밥을 비롯한 용왕상 제물 모두를 대야나 바가지에 담아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왕밥은 마을에 따라 만드는 수량에 차이가 난다. 유형은 마을 단위로 한 개를 만드는 유형, 마을 단위로 여러 개를 만드는 유형, 용왕굿의 하위 제차로 개인별로 용왕밥을 여러 개 만들어 헌식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두모포 풍어굿에서는 한 개, 속초 외옹치에서는 세 개를 각각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위도띠뱃놀이에서는 서편 용왕제에서 한 개, 동편 용왕제에서 한 개를 각각 헌식한다. 동제 형태로 지내는 마량리에서는 용왕밥 세 개를 만든 다음 파도가 들어오는 곳까지 나가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오른쪽으로 각각 던진다. 개인별로 여러 개를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집안별로 2~5개를 만들어 헌식한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각의 지(용왕밥)가 용왕신 뒹, 선왕신 뒹, 집안에서 죽은 영혼의 뒹 등으로 집안에 따라 위해야 하는 대상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용왕굿의 하위 제차로 개인별로 차려 온 상에서 용왕밥 4개씩을 만들어 명태 한 마리와 함께 각자가 바다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만들어 헌식하는 제차는 일반적으로 용왕굿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헌식한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당맞이굿을 하면서 용왕님을 모시거나 굿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가장 두모포 풍어굿에서는 당맞이굿을 끝낸 뒤 용왕님께 드릴 물밥을 장만 하여 매바위에서 바다에 헌식한다. 위도띠뱃놀이에서도 모든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용왕제가 아닌 제관과 풍물패만이 참여하는 동편 용왕제와 서편 용왕제에서 용왕밥을 바다에 헌식한다. 즉 용왕밥 헌식을 동·서편 용왕제로 여긴다. 이

들 마을에서의 용왕밥 헌식은 용왕님에게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며, 별도의 용왕굿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수사자나 객귀를 위하는 의례를 행한다. 동해안의 일부 마을에서는 '나리맥이'라고 하여 예전에 배를 댄 곳이나 선착장에서 당맞이굿을 한 후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한다.

용왕밥을 헌식하는 장소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바닷가이다. 가장 두모포와 위도 등지에서는 마을 내 특정한 바위 위에 올라가서 헌식한다. 영덕 구계리,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서 헌식한다.

세습무들이 수살굿(수망굿)을 주재할 때 용왕상에 올린 밥을 한지에 싸서 용왕밥 네 개를 만든 후 사해四海 바다의 용왕님을 위하여 바다에 헌식하고, 이어서 용왕상에 올린 나머지 제물들을 객귀와 수사자들을 위해 헌식한다. 마을 단위로 굿을 하는 과정에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내는 당제 중 하위 제차로서의 용왕제, 가정 단위로 지내는 용왕먹이기, 뱃고사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용왕밥을 만들어 바다에 헌식함으로써 용왕을 위하고, 바다에서 죽은 조상을 위하여, 바다에서의 안전과 집안의 평안 및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사례 또한 많다.

특징 및 의의

용왕밥은 형태나 만드는 방법, 수량 등에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용왕밥을 헌식하는 1차적인 목적은 용왕을 잘 대함으로써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염원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바다에서 죽은 자와 객귀를 잘 풀어먹임으로써 이들의 해코지를 막아 바다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 당맞이굿을 하면서 용왕님을 모시거나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과정에서 용왕밥을 헌식한다. 이 밖에 일부 지방에서는 용왕밥을 헌식한 후 생쌀이나 좁쌀 등을 바다에 뿌림으로써 각종 어류나 해초의 풍요를 함께 기원한다.

참고문헌 경남 어촌민속지(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2002), 남해안 별신굿(하효길,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무·굿과 음식3(임승범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김도현, 역사민속학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서천의 당제(이필영, 서천문화원·충청민속학연구소, 2004),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하효길, 화산문화, 2002), 영덕 구계리 굿과 음식(김도현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위도띠뱃놀이(김익두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문무병 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 민속과 용(홍태한,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필자 김도현(金道賢)

용왕상

龍王床

수신수神·해신海神이라 하여 농민과 어민들에게 유력한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용왕을 위한 음식상.

내용 용왕은 신라시대에 호국신이 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문무왕文武王이 동해의 용왕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유언함에 따라, 그의 사후에 동해 어구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왕이 화化하여 용이 되었다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 하였다.

고려왕조에 들어서서도 국왕 왕건王建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서해용왕의 왕녀와 혼인하여 나라의 기초를 열었고, 왕위는 거드랑이 밑에 용의 비늘이 있는 왕자에게 물려줌으로써 용의 혈통을 중하게 여겼다는 등의 전설이 있다. 조선왕조에 와서는 용왕이 국가 차원의 기우제 대상신이기도 하였으며, 해상 안전의 수호신이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는 용이 물속에 있다고 하는 관념에서 수신수神 또는 정신井神이기도 하였다. 정월 대보름 새벽에 아직 아무도 마시지 않은 우물물을 길어 사용하면 행복이 온다고 믿었다. 또 새벽의 우물물에 달이 비칠 때, 비친 달은 용알龍卵이라고 하여 이 용란이 비친 우물물을 길어서 얻는 사람은 용이 승천하는 것과 같이 행운아를 낳고, 그 아이는 부자가 된다고 여겼다.

대체로 민간에서의 용왕제 목적은 앞서 기술한 기자祈子和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임신출세 외에 재해를 없애고 복을 비는 것에 있다. 즉 집안 식구의 행복과 무병장수 및 복록福祿, 소원성취, 다남출산多男出產, 병의 쾌유, 수난 예방, 수재 예방, 해상 안전, 농산물 풍작, 기우, 어획량의 풍작 등 다양한 제재초복除災招福을 기원하는 것이다.

용왕제를 가장 크게 벌이는 곳으로는 어획량의 풍작을 기원하는 풍어제 행사장을 들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욕구에서 시작된 마을 공동의 별신굿 형태는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는 바다가 육지보다 무서운 자연재해를 많이 일으킨다는 점에서 어부들의 무사 귀환과 풍어라는 목적에 맞게 마을 공동의 축제적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따라서 풍어제에서 가장 중하게 모시는 신은 용왕이며, 풍어제는 바로 용왕제이다.

특징 및 의의 마을 공동으로 올리는 용왕상이 화려하고 풍성하면서도 무속·도교·불교·유교가 습합된 모습을 보여 주는 반면, 관에 등록된 선박을 소유한 각 가정집에서 올리는 용왕상은 지극히 소박한 모습을 보여 준다. 가정집마다 쌀, 북어, 나물, 밤, 대추, 인절미, 술 등으로 차리지만 품수는 3품에서 5품으로 각기 다르다. 생쌀



경정리 별신굿 용왕상 | 경북 영덕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을 올리는 것은 공통적이다. 상단에 올린 공양미와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무녀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관장하는 사해용왕을 모셔와 공터에 모여 있는 선박 소유주 아내들에게 만선과 해상 안전을 축원한다. 제액을 위해 팔죽을 제공하고 굿의 끝 무렵에 각 가정에서 차려 온 제물을 조금씩 떼어 바닷물에 던져 ‘용왕먹이기’를 한다. 이것이 끝나면 음복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海槎錄, 무·국과 음식3(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음양오행사상으로 본 조선왕조의 제사음식 문화(김상보, 수학사, 1995), 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 1938).
필자 김상보(金尙寶)

용왕제

龍王祭

물이 있는 우물, 샘, 개천, 계곡, 강, 바다 등에서 용왕에게 개인 또는 공동체의 염원을 기원하는 의식.

역사 용왕제는 용왕 또는 용신의 존재와 용신을 모신 신당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용은 기원전부터 신앙되었고, 용을 모신 신당은 신라 말기 보요선사普耀禪師가 창건한 사찰인 해룡왕사海龍王寺 안에 용왕당龍王堂이 있었고, 이후로도 존재하였다.

신라시대 사해제四海祭와 사독제四瀆祭,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된 사해사독제四海四瀆祭, 조선시대 각처에서 행하였던 용신제는 용을 대상으로 한 제의였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1241) 권38에 따르면 ‘임진臨津·사평沙平을 통행하면서



강문진또배기 풍어제의 풍어기 | 강원 강릉 | 2022 | 윤동환



용떡을 바다에 바친 후 합장배례하는 주민과 무녀들 | 경북 울진 | 2018 | 김형근



용왕굿(남해안별신굿) | 경남 거제 | 2022 | 김형근



용왕굿의 용왕상(남해안별신굿) | 경남 거제 | 2022 | 윤동환

용왕龍王에게 올리는 제문祭文'을 지었고, 황지원黃池院에서도 용왕에게 올리는 제문을 지었다. 앞의 제문은 용왕에게 풍랑의 진동을 거두어 가는 길을 편리하게 하고 교량은 평탄케 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뒤의 제문은 왕명을 받들고 역적을 토벌하는 데 도움을 주면 용왕 역시 공이 있어 국가의 제사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명용徐命膺의 『고사신서故事新書』(1771) 권6의 국조축전國朝祝典을 보면 “동해 양양, 남해 나주, 서해 풍천, 북해 경성에서 중사中祀인 해신제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 용신을 위한 용왕제는 전 시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며, 현재에도 각처에서 전승되고 있다.

내용 용왕제는 지역에 따라 요왕제(유왕제, 유황제), 용신제, 해신제, 갯제, 용왕먹이기(요왕먹이, 용왕밥주기), 어부습(어부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개인 또는 집안 단위로 우물이나 계곡·강가 등지에서 하는 고사, 배나 어장을 가진 사람의 푸닥거리, 사찰에서 하는 방생 등이 있다. 또한 마을제사인 동제의 일부로 용왕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당산제와 별도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라

남도 지역 당산제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에게 지내는 제의이고, 용왕제는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용왕제는 집안에 격정거리나 우환이 생겼을 때 따로 날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 용왕제의 경우 안전과 풍어, 풍농, 아이 점지, 아이의 수명장수, 우순풍조 등 제의의 목적이 다양하다.

용왕제는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한강 변의 많은 나무에서도 지냈다. 선주나 선원들이 수신水神인 용왕께 올리는 제사로 단양의 용왕제가 유명하였다. 단양은 제천과 영월로 끊임없이 장삿배가 다니던 길목이었다. 또한 배를 직접 부리던 사람들이 많아서 용왕제를 성대하게 지냈다. 이 외에도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조사된 다양한 지역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서 용왕제는 유왕제·유황제·요왕제·샘고사 등으로 불린다.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는 물과 관련된 곳, 즉 마을의 공동우물을 비롯하여 샘이나 시냇물·방죽·계곡 등 매우 다양하다. 용왕제는 부녀자들에 의한 가정 신앙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고, 마을제사로서 용왕제 사례로는 부적면의 반송리 구정마을 샘고사와 강경포구 용왕제 등이 있다.

강경포구 용왕제는 매년 가을 강경발효젓갈축제(현재 강경젓갈축제) 기간에 지낸다. 강경은 군산, 부여, 공주 등을 연결하는 수상 교통의 요지이다. 서쪽으로 금강이 흐르고 곡창지대인 논산평야·호남평야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운을 통한 상거래가 발달하여 대구·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하였다. 강경포구 용왕제는 원래 음력 정월 월나흘날에 한 해가 평안토록 주민들이 인근의 냇가에서 지낸 소박한 제의였으나 2006년부터 강경발효젓갈축제의 식전 행사로 거행되었다.

충남 당진에서는 생활과 농사에 필요한 물이 풍족하기를 기원하며 강이나 못·우물 등지에서 용왕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왕제가 사라졌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공동우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년 우물을 관리하면서 물을 다스리는 용왕에게 마을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현재는 기지시줄다리기를 하기 전에 당제·용왕제·시장기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용왕제의 잔영을 보여 준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는 정월 용날에 가족의 안녕과 집안의 무탈함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다. 정초에 무당에게 신수점을 보아 그해 액운이 낀 사람이나 용왕살이 있는 사람이면 용왕제를 지낸다. 집안에 따라서는 보살이나 선거리를 하는 무당을 부르기도 한다. 초청되어 온 무당은 부정풀이를 하고 간단하게 굿을 한다. 제일은 정초의 첫 용날로 정하는데, 이는 용왕제의 대상이 용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정초에 안택安宅을 하는 날 용왕제를 별도로 지내기도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유왕제’ ‘유황제’ ‘요왕제’ 등으로 부른다.

대산읍 독곶리에서는 정초에 안택을 하면서 용왕을 함께 위한다. 만일 따로 날을 잡아 용왕제를 지낼 경우에는 우물 앞에 열십자(十)로 짚을 깔고 그 위에 떡시루와 과일 등의 제물을 차린다. 대개는 보살을 청하여 간단하게 비손을 하는데, 이때 보살은 징과 북을 가지고 온다. 보살이 용왕 앞에서 비손과 축원을 하는 동안 주부主婦는 그 옆에서 계속 절을 하며 치성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부부터 차례로 가족의 소지를 한 장씩 올리며 한 해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용왕살을 모두 거두어 달라고 기원한다. 보살이 축원을 마치면 제물로 차린 쌀을 조금 집어서 우물에 넣는다.

읍암면 유계리에서는 샘이나 냇가에서 주로 용왕제를 지냈다. 이는 정월의 용날을 잡아 집안의 무고를 비는 의례로, 주부 혼자서 지내기도 하고 선거리를 하는 보살을 불러 비손을 청하기도 한다. 제상을 차리고 용왕에게 비손하고 나면 백지나 김으로 제물을 싸서 식구 수대로 물에 던진다.

해미면 저성리에서는 정초가 되면 용날을 택해 용왕제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이 마을은 대동샘이 네 곳이나 있었는데, 각 가정에서는 평소 사용하는 가까운 우물을 택해 용왕제를 지냈다. 그 절차는 우물 앞에 열십자(十)로 짚을 깔고 무당과 팔시루떡 등의 제물을 차린 다음 가정이 무탈하게 해 달라고 비손한다. 간혹 법사를 데려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부와 식구들이 우물에서 지낼 때가 많았다.

충남 아산시의 여러 마을에서도 용왕제를 지내고 있다. 이를 샘고사, 우물고사라고도 부른다. 도고온천으로 유명한 도고면에서는 특히 우물제를 지내는 곳이 많다. 시전2리, 시전4리, 금산2리, 기곡2리, 봉농리 등이다. 이 외에도 음봉면 동암1리와 소동1리 등은 ‘우물제’를 지내고 신희3리, 쌍암1리, 쌍암2리, 산동1리 등은 샘고사를 지낸다. 음봉면 삼거리에서는 우물고사(유황제)를 지낸다. 둔포면에서도 운용1리와 신창면 황산2리에서는 우물고사를 지내고 있다. 또한 선장면의 대흥3리, 신동1리, 대정리, 가산2리 등에서 ‘용왕제’를 지냈던 내력이 전해진다. 영인면 백석포리에서는 용신제로 부르며 지낸다.

아산시 도고면 시전4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우물제를 지내며 고사떡과 음식을 올렸다. 고사를 마치면 마을 풍물패가 풍물을 치며 놀았다. 풍물패를 따라 주민들이 샘가를 지날 때 제물로 쓰인 떡이나 과일 등을 주민들이 나누어 먹었다. 도고면 기곡2리에서는 자라를 우물에 넣고 “뚫으셔 뚫으셔 물구멍만 뚫으셔.” 하며 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였다. 도고면 봉농리는 정월 대보름날이면 우물에 금줄을 두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우물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제를 간단하게 마치면 풍장을 치며 놀았다. 도고면 기곡2리, 시

전4리, 금산2리는 현재 우물제를 지내지 않는다. 도고면 봉농리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전승되었으나 이후 사라졌다.

염치읍 석정2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용왕제를 지낸다. 2012년 ‘마을 용왕제 계승발전위원회’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주최하였는데,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200여 명이 함께 참여 용왕신에게 자신의 소원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정월 대보름에 냇가나 제방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수해를 막기 위해 제물을 차리고 무녀가 제문을 외우며 지내기도 하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원리 용산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용왕제와 장승제를 지낸다. 용산마을은 용이 산에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용산龍山이라고 불렸다. 용산마을 용왕제에서는 마을 안에 있는 공동우물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모두 유교식으로 우물 앞에서 용왕제를 지낸 후 장승 앞으로 이동하여 장승제를 지낸다.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서는 음력 2월 초하룻날 공동우물에 용왕제를 지낸다. 이를 유왕제, 샘제, 시암제 등이라고도 한다. 금과면 매우리 신매우마을에서는 음력 2월 1일 오전에 우물 청소를 한 후 정오 무렵에 마을의 안녕과 가족의 번성을 비는 축문을 읽고 정결하게 제를 모셨다. 용왕제를 지내고 풍물을 치며 놀았으나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공동우물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용왕제도 지내지 않는다.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신학리에서는 가뭄이 들어 샘에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산속에 있는 깨끗한 샘에 가서 용왕제를 지낸다. 이때 조롱박을 준비해 깨끗한 물을 담고 솔잎으로 조롱박 구멍을 막는다. 용왕제를 지낸 뒤 이 조롱박을 거꾸로 들고 온다. 거꾸로 들린 조롱박에서는 솔잎 사이로 물이 흘러내리며, 이 물줄기를 따라 물이 따라온다고 믿는다. 그리고 남은 물을 마을에 있는 샘에 부어 주면 가뭄 샘에서 다시 물이 차오른다고 여긴다.

진도군 고군면 벽파·원포·금호마을과 의신면 모도·수품마을 등에서는 오늘날에도 용왕제를 모시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진도의 동남단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들이다. 이들 마을에서 모시는 용왕제는 당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음력 정월에 모시고 있다. 당제가 마을을 지켜 주는 수호신에게 올리는 제의인 반면에 용왕제는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모두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기능과 연행 방식에서는 내용을 달리한다. 당제의 제장은 당집이나 마을 뒷산이며, 용왕제의 제장은 선착장이나 바다가 바라보이는 마을 앞 또는 우물이 되기도 한다. 간혹 마을에 따라 용왕제를 거리제, 갯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의신면 모도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당집에서 당제를 지내고 이를

날 새벽에 마을 어귀의 독샘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미리 제물을 장만하여 독샘 앞의 바닥에 차려 놓는다. 이때는 당집에 올린 제물 외에 돼지머리도 함께 올려 놓는다. 제관은 미리 메를 많이 해서 일일이 빈 그릇에 메를 담아 준다. 이렇게 제관이 차려 놓은 제물 외에 제장 주변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개의 상을 줄줄이 놓고서 함께 제를 지낸다. 지금은 간소화되어 각 가정에서 상을 가져 오지 않고 제관이 준비한 제물로만 제를 지내고 있다.

영광군 법성포에서는 단오제를 지내는데 난장트기를 한 다음 산신제, 당산제, 용왕제, 무속수륙제, 선유놀이를 한다. 법성포단오제의 용왕제는 농악대가 길굿을 연주하고 용왕제가 시작되면 모듬굿—질굿—오방돌기—인사굿 순서로 진행되며, 인사굿을 치며 퇴장한다.

유교식 용왕제사는 전향례—독축—아헌례—중헌례—침작—헌작—합렴의 순서로 진행하고, 용왕 제사를 마치면 당골이 용왕굿을 주재한다. 용왕굿의 절차는 안당—선부리—용왕굿—놀음굿—용왕고풀이—혼건지기—띠배 띄우기 순서로 진행된다. 용왕굿 후에 제전위원회에서 용왕신을 보내는 유교식 제사 사신례, 분축, 소지, 음복례를 지내고 농악대의 대동굿이 펼쳐진다.

여수의 어촌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낸다. 손죽도巵竹島의 경우 출어할 때 선주집에서 막걸리를 한 단지 담아 김치와 함께 올려 주면 선원들이 선상船上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올리고 굿을 치며 출어하였다. 이 외에 평도平島와 광도에서도 용왕제를 지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용왕제를 용왕먹이기(용왕멕이), 용왕공드리기 등으로 부르다. 이 지역에서는 용왕제의 목적을 주로 아이의 점지 또는 무병장수와 관련 짓는다. 특히 아이팔기와 용왕제가 복합되어 아이팔기를 한 장소에서 용왕제를 지내는데, 각 가정에 따라 용왕제를 지내는 장소가 달랐다.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음력 2월에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냈다. 용왕제에서는 배의 고장 방지, 개인의 소망과 가정의 평안 등을 기원한다. 울릉도에서는 선주나 선장이 한 해의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왕제를 지내는데, 시기는 비정기적이지만 대체로 음력 2월에 풍어제 형식으로 지낸다.

용왕제는 어업을 시작하는 연초에 부두, 구석진 바닷가, 방파제 끝 등지에서 이루어진다. 제주선장이나 선주가 맡고, 선장실이나 배 위에 촛불을 켜 놓고 메·건포 등 간단한 제수를 마련하여 용왕제를 지낸다. 굿을 하는 무당이나 경문쟁이를 모셔다 지내기도 하였는데, 주로 먼바다로 나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항구 근처에서 지낸다. 무당이 제물을 차려 놓은 뒤 용왕에게 ‘사고가 나지 않고 풍어가 되게 해 달라’고 축원하고, 바닷가에서 지낼 경우 제물을 용왕님께 드린 다음 바다에 넣고 온다. 지금은 무당을 불러 지내는 용왕제는 거의 사라지고 개

인고사 형식으로 지낸다.

강원도 삼척 근덕면 양리에서는 집안의 액운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하여 용왕제를 지낸다. 정월 대보름에 조상제사를 지낸 뒤 진설한 음식 일부를 떼어 바가지에 담아 물가로 가서 물에 던지며 1년 동안의 액운을 없애 달라고 기원한다. 근덕면 동막리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오탁밥을 바가지에 담아 개울에 가서 헌성한 뒤 깨끗한 물을 떠 온다. 이때 1년 동안의 액막음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한다. 노곡면 여삼리에서는 서낭고사 후 샘터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을 위하는 이유는 마을에 가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수도나 지하수 관정이 보급된 이후에는 용왕제가 점차 사라졌다.

강원도 삼척 해안지역 용왕제의 경우 선주가 주재한다. 용왕제는 풍어와 해상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낸다. 예컨대 다른 배는 조업이 잘되지만 본인 소유의 배는 어업이 잘되지 않을 때 용왕제를 지낸다. 때로는 선원이 초상집을 갔다 와서 탈이 나거나 짐승이 죽는 것을 본 경우에도 선주가 부정을 없애고 풍어를 빌기 위해 용왕제를 지낸다.

용왕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동네 서낭에 먼저 들른 다음 바다로 가야 한다. 우선 서낭에 가서 부정을 치고 차려 온 음식을 바친 뒤에 용왕제의 시작을 고한다. 동네 서낭을 위해서는 돼지머리를 올리기도 하지만, 바다의 용왕을 위해서 차리는 제물에는 돼지머리를 쓰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서낭고사가 끝나면 새로운 음식을 차려서 바다로 간다. 음식이 차려지면 다시 부정을 친다. 풍어와 해상 안전을 위한 비손을 한 다음 퇴송하고 마친다.

특징 및 의의

용왕제는 평야·산간·해안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제의이다.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전승하고 있다는 것은 용신앙이 보편적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은 용왕 또는 용신에게 안과태평, 제액, 풍요, 자녀의 출산과 무병장수 등을 기원한 것이다. 용신앙에 따른 용왕제는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하여 인간의 의식이 반영된 문화양상으로 현재까지 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삼척의 무속(윤동환, 삼척시립박물관, 2011), 한국의 가정신앙(국립문화재연구소, 2005~2008),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grandculture.net).

필자 윤동환(尹東煥)

용인 용줄다리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무리 산정동에 대보름의 놀이로 전승되는 줄다리기.

개관 용인 용줄다리기가 언제부터 전해지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놀이와 함께 보존되던 깃발에 갑자년이란 표기가 있고, 2004년 당시 생존한 100세 노인의 “소싯적부터 줄다리기를 하였다.”라는 증언으로 보아 20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전승되는 바에 의하면 봉무리 주변 12개 마을의 두레 농악대와 주민들이 산정동 줄다리기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당시 줄의 굵기는 1.6m, 길이는 70m였고 한창 성행하였을 때는 3일간이나 줄을 당겼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늠할 만하다. 6·25전쟁 당시 정월 대보름에서 2월로 미룬 외에는 한 번도 거른 일이 없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이를 수호신으로 여기며, 협동정신 고취와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 전승하고 있다.

내용 산정동 마을 뒤 용당에 암수 한 쌍의 줄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용줄이라 부른다. 이 놀이를 시작하기 위하여 용당에서 제를 올리고 이영을 벗긴다. 그리고 농악대가 흥을 돋우며 앞장서면 뒤를 따라 용줄이 이동하는데, 숫줄이 앞서고 암줄이 뒤를 따른다. 줄다리기에 앞서 숫줄과 암줄을 나란히 놓고 보수를 하는데, 마을의 여인들이 용줄을 타고 넘어가는 일은 금하며, 출산한 여인은 출산일로부터 3일, 초상난 집의 사람은 일주일 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보수가 끝나면 합궁식을 하고 줄을 당기는데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승부가 끝난 다음에 용줄을 용당에 보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용줄다리기의 모든 행사는 마을 공동으로 주관한다. 마을의 수호신이 발원하였음을 알리는 농악대가 흥을 돋우며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액을 몰아내고 추렴을 한다. 용줄다리기는 여덟 마당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① 용줄내리기: 용당에서 용줄을 내리기 전에 간단한 제례의식을 행한 후 이동한다.

② 용줄보수: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해 보수한다. 이때 쓰이는 새끼는 반드시 원새끼여야 한다.

③ 췌불놀이: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날 봉배산 정상에 모인다. 각자 준비한 췌불로 자기 나이만큼 매듭을 짓듯 묶고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달이 떠오르면 췌대를 높이 들어 크게 절하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현재는 마을 큰 마당에서 화투불을 피워 놓고 달을 맞이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다.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행사 | 2019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행사 줄 | 2023

독바위 민속줄다리기 행사 | 용인특례시

④ 우물고사: 보름달이 중천에 떠오르면 농악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큰 마당으로 모인다. 이어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상을 차려 놓고 우물을 향하여 “뿔려라! 뿔려라! 물아, 팔팔 솟아라!” 하고 소리를 크게 외친다.

⑤ 용줄고사: 다시 용줄 있는 곳으로 모여 고사상을 차려 놓고 각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 후 안주와 술을 마신다. 이어 농악대가 흥을 돋우어 최고조에 달하면 줄을 당길 준비가 된 것이다.

⑥ 용줄다리기: 미혼남녀와 부녀자는 암줄을, 기혼 남자는 숫줄을 잡는다. 농악대를 선두로 하여 암줄은 마을 위에서 아래로, 숫줄은 마을 아래에서 위로 마을을 돈다. 마을 돌기가 끝나면 숫줄은 큰 마당 동쪽에 서고 암줄은 서쪽에서 마주보게 된다. 이어서 서로 용두를 치켜들고 암줄이 숫줄을 향하여 세 번 절하면, 숫줄은 한 번 반 절하여 답례를 한다. 숫줄이 암줄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덤벼들면 암줄은 “우~” 하며 뒤로 물러섰다가 숫줄을 향하여 돌진한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며 합궁하는 순간, 재빠르게 비너를 끼워 고정한다. 이때 모든 사람은 암수가 결합하였음을 기뻐하며 축하의 환호성을 터뜨린다. 합궁한 용줄은 비너와 일직선으로 중심선을 그어 3판 2승으로 승부를 가린다. 이때 암줄이 이기면 벼가 서 말, 숫줄이 이기면 보리가 서 말이라 하지만 항상 암줄이 승자가 된다. 승자를 확인한 후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네, 풍년이네.” 하며 더듬실 춤을 추며 기뻐한다. 그리고 용줄은 용당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고, 마을 사람들은 화합과 단결을 확인하며 밤늦도록 흥겨운 잔치가 계속된다.

⑦ 용줄쌓기: 날이 밝으면 원래대로 용줄을 쌓는다. 바닥은 밤나무로 깔고 암줄을 타래 짓듯 감아올리면 그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긴다. 여기에 수줄의 용두를 놓고 둥글게 쌓아 빈 공간에 꼬리를 넣어 암줄과 숫줄이 교합한 상태로 보

관한다. 이는 곧 마을의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며 마을을 수호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용줄 쌓기가 끝나면 다시 이엉을 덮고 간단한 제를 지낸다.

⑧ 뒷놀이: 용줄다리기가 끝나면 마을의 큰 마당에서는 옷놀이가 진행된다.

특징 및 의의

마을 사람들은 이 용줄을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고 있다.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이 놀이를 통하여 일 년에 한 번 모두 한자리에 모여 친목도모와 공동체임을 다진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줄다리기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에게 마침 우환이 생겨 그 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 놀이의 부당성을 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주변의 넓은 장소에서 시연하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마을의 수호신인 용줄을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의례로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참고문헌 산정동 줄다리기에 대하여(박종수, 인문사회는총5,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용구문화(용인문화원, 1987),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박종수, 태학사, 1998), 한국농경세시의 연구(김택규,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한국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장주근, 대한기독교서회, 1974).

필자 박종수(朴鍾洙)

용줄다리기

정월 대보름에 벼짚으로 용 형상의 줄을 만들어 줄다리기를 하는 민속놀이.

개관

한국의 줄다리기는 민속놀이이지만 문헌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에 음력 8월 보름경에 남녀가 줄을 잡아당기는 조리지희照里之戲가 연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上元 민속놀이에 혈하회黎河戲로 묘사되었다. 이 혈하회는 ‘검은 승복 입은 스님[緇徒]’들이 즐겼다 하여 불교민속의례에서 파생되었음을 시사한다. 문헌 기록을 볼 때 우리나라 줄다리기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도 불교가 당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공견삭관음신앙不空羂索觀音信仰이 전파되었고, 밧줄[羂索]을 잡아당기는 줄다리가 당나라에서 성행하였다. 당의 현종이 관리들의 줄다리를 참관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성대한 줄다리가 연행되었다. 밧줄은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울가미로, 인도의 뱀신앙과 결합하여 줄다리에 등장한다. 인도의 줄다리기는 선신과 악



용줄 들고 당산들기



용줄잡기



당산옷 입히기

용줄다리기 | 전북 고창 | 2010 | 송화섭

신이 바수키Vasuki를 메루산에 걸어서 잡아당기는 그림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인도의 뱀줄다리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뱀줄다리가 용줄다리로 변화한 것이다.

내용

한국의 줄다리기는 외줄다리, 쌍줄다리, 게줄다리가 있다. 외줄다리는 용줄다리, 쌍줄다리는 고싸움놀이, 게줄다리는 게[蟹] 형상 줄다리기를 말한다. 용줄다리는 기본적으로 줄다리의 줄을 용 형상의 외줄로 만들어 잡아당기는 방식이다. 용줄은 줄의 앞부분을 용머리龍頭 형상으로 만들고, 줄의 꼬리 부분을 용꼬리처럼 만든다. 마을주민들은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마을 공터에 모여서 3개의 장목으로 삼발대를 세워서 용줄을 만들기 시작한다. 용줄 만들기는 마을주민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며, 용을 마을에 출현시키는 신화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용줄이 만들어지고 나면 마을 공터에 길게 늘어놓는다. 이후 마을주민들은 용머리에 비손을 하거나 제물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마을주민들은 용줄을 신성시하여 용의 몸체인 용줄을 넘어 다니는 것을 금기시한다.

용의 출현의례(또는 강신의례)를 마치고 나면 마을주민들은 용줄을 어깨에 메고서 마을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이 의례를 '당산돌기'라고 한다. 평야지대 마을 주민들은 용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관행에 따라 새해맞이 마을 수호와 안녕을 기원하면서 당산돌기를 거행한다. 당산돌기는 마을 주변에 위치한 당산을 한 바퀴 도는 의식이다. 당산돌기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용줄다리기를 거행한다.

용줄다리기는 남자들이 용머리 부분을 잡고, 여자들은 용꼬리 부분을 잡아 주관자가 치는 징 소리에 따라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용줄다리기에서 남녀 대결은 오랜 관행이지만, 15세 미만의 사내아이는 여자 편에 속하여 잡아당긴다. 여자 편은 할머니들이 싸릿대를 들고 남자들을 후려치며 힘을 빼는 과정을 연출하여 여자들의 승리를 지원한다. 용줄다리기는 삼판양승제로 진행된다. 여자들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에 따라 여자들이 승리하는 게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줄다리기를 마치면 마을주민들은 용줄을 들고 마을 입구의 당산나무 또는 당산입석으로 이동하여 줄을 감는 의례를 거행한다. 용줄감기는 용꼬리부터 잡아올리기 시작하여 용머리 부분을 상단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용줄감기 의례는 용줄다리기를 마치고 천룡天龍을 승천시키는 의식이다. 평야지대 사람들은 당산에 벗짚 용줄을 감는 의식을 '당산웃입히기'라고 말한다. 당산줄감기는 줄다리기 마지막 과정으로, 평야지대 정월 대보름 당산굿의 끝맺음이다. 줄다리기에서 불교민속 요소는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여성의 생식력을 고조시키는 신안과 신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는 당산웃입히기라는 현의獻衣 민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 생식력을 강화시키는 줄다리기는 인도 힌두교의 샹티 shakti신앙과 흡사한 면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용줄다리기는 마을주민들이 벗짚으로 마을에 용을 출현시키는 과정, 용줄을 들고 당산돌기와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 용줄을 당산에 감는 과정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이 세 과정에서 용줄다리기를 살펴보면, 마을주민들이 섬기는 용은 천룡임을 알 수 있다. 삼발을 세워 용줄을 만드는 것은 천룡의 마을 출현을 상징하는 강신降神 과정이고, 용줄다리기는 용의 유희 행위로서 오신娛神 과정이며, 당산나무에 용줄을 감는 것은 송신送神 과정이다. 이 세 단계(강신—오신—송신)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평야지대 농민들은 천룡신天龍神을 마을에 불러내려 풍년 기원 의식을 관습적으로 거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 벼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농업국가였다. 벼농사의 핵심 요소는

우순풍조雨順風調이다. 그리고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은 천룡이다. 농민들은 하늘에서 천룡이 조화를 일으켜 농사짓기에 좋은 비바람을 가져온다고 믿어 왔다. 평야지대 농민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신년 의례로 천룡 형상의 용줄다리기를 거행해 온 것이다. 따라서 용줄다리기는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新增東國輿地勝覽,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계통 연구(송화섭, 역사민속학4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송화섭, 비교민속학38, 비교민속학회, 2009),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송화섭, 역사민속학3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필자 송화섭(宋華燮)

용호문배도

龍虎門排圖

정월 초하루에 한 해 동안 액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기를 소망하면서 대문의 문짝 양쪽에 붙인 용과 호랑이 그림.

개관 통일신라 이후 세시풍속으로 정월 초하루에 대문에 그림을 붙이는 문배도門排圖의 풍속이 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문배도로 처용, 종규鐘虯, 신도神荼, 울루鬱壘 등과 함께 용호가 활용되었다. 이 가운데 처용문배도와 용호문배도는 한국적인 문배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은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호랑이는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이들 문배도를 통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가꾸기를 소망한 것이다.

내용 집안에 들어오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대문에 붙이는 그림이나 글씨를 문배라고 부른다. 문배는 세시풍속인 세화의 일종이다. 세화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사용된 그림을 가리킨다. 문배를 비롯하여 창에 붙이는 창첩窓帖, 연하장처럼 서로 주고받는 그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배는 통일신라시대 처용상을 붙이는 풍속에서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신도와 울루, 종규 등 중국의 문신門神과 함께 용호도가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처용문배도와 용호문배도가 한국적인 문배도라 할 수 있다. 대문 문짝의 향좌에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향우에 용 그림을 붙였다. 그림 대신에 마름모꼴 종이에 虎(호)자와 龍(용)자를 붙이기도 하였다. 호랑이 그림을 붙인 이유는 호축삼재虎逐三災, 즉 호랑이가 삼재를 쫓는다는 의미로 액막이 역할을 한 것이다. 용 그림을 붙인 이유는 용수오복龍輸五福, 즉 용은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로 길상



용호 입춘첩 | 경북 안동 | 2002 | 국립민속박물관

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대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나쁜 잡귀를 쫓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복을 불러들임으로써 가정이란 공간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이다.

호랑이는 전통적으로 벽사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중국 후한後漢 말의 학자 응소가 쓴 『풍속통의風俗通義』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한다. 집의 대문 앞에 복숭아나무 두 그루를 세워 놓고 신도와 울루라는 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귀신들을 모든 검문하였다. 사람들에게 이로운 귀신은 통과시키지만, 해로운 귀신은 갈대 끈으로 묶어서 옆에 있는 호랑이 울에 던져서 잡아먹히게 하였다. 이러한 철통방어를 통해서 가정이란 공간을 보호하였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복숭아나무, 신도와 울루, 갈대 끈, 호랑이는 귀신을 잡는 액막이의 상징으로 여겼다.

용은 여러 가지 상징을 지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가뭄에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 때 용 그림 혹은 흙으로 용의 형상을 빚어서 제사를 지냈다. 수신水神인 용의 기능을 활용한 풍속이다. 용은 통치자인 왕이나 왕족을 상징하였다. 『광야廣雅』에 “용은 임금이다龍君也.”라고 하였다. 용상·용안 등 왕과 관련된 모든 물건이나 신체에 용이란 글자가 들어가고, 궁궐에서도 건축·가구·도자기·복식 등에 용 문양을 널리 활용하였다.

용과 호랑이를 함께 그리는 용호도의 형식은 조선 전기의 그림에 등장한다. 신잠申潛(1491~1554)의 작품으로 전하는 <용호도>, 이정李穰(1578~1607)이 그린 <용호도> 등 16세기의 그림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에 용호도가 문배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비교적 사실적 화풍에 충실하거나 문인화풍으로 그 형세를 살려 나타내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용호도가 문배라는 세시풍속과 결합

하면서 용호문배도로 성행하였다. 이 시기의 용호문배도는 용과 호랑이를 사실적이거나 회화적으로 그리는 경향에서 벗어나 해학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서 중의적인 특색을 갖게 되었다. 용이나 호랑이가 가진 길상과 벽사의 기능에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각색하였다. 용과 호랑이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그려질 정도로 다양화되었다. 민간의 세시풍속인 용호문배도는 사찰에도 영향을 주어 사찰 벽의 측면 한쪽에는 용 그림, 다른 한쪽에는 호랑이 그림을 그렸다.

특징 및 의의

용호문배도는 전통적인 용호도가 문배의 풍속으로 채택되면서 정립된 한국적 문배도이다. 이는 조선 말기에 유행한 민화가 세시풍속인 문배에 반영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풍속은 다시 사찰 벽화에도 영향을 미쳐 사찰 벽화의 제재題材로 즐겨 활용될 정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민화와 민간연화(정병모, 강좌미술사7, 한국미술연구소, 1995), 민화의 원류 조선시대 세화(김용권, 학연사, 2008), 조선 중기의 세화 풍습(김윤정, 생활문화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필자 정병모(鄭炳模)

우물제

우물에 있는 용신龍神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제의.

역사

우물제와 관련된 용신은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수렵채취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용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종교사적 측면에서 보면 용신은 고려시대에 중요한 신격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용신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고려시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의 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용의 영험성·신성성 등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용을 신앙적으로 인식한 시기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우물과 용의 관계성은 용과 관련된 우물설화에 무수히 나타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용 두 마리가 금성 우물 속에 나타났다. 이때 소낙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며, 성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백제 무왕인 서동은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지변南池邊에서 살던 중 그 연못의 지룡池龍과 교통하여 출생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용왕제가



우물제 풍물놀이



우물제 제사상

백중 우물제 | 전남 나주 | 2003 | 국립민속박물관

삼국시대 초기부터 계속 전승되어 왔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려시대에 와서도 고려 건국주인 왕건의 가계도를 보면 왕건이 용부인에 얽히는 <개성대정설 화開城大井說話>에 우물과 용의 복합 관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용왕제인 우물제의 역사는 원초 이래로 유구한 전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우물제는 정월 세시풍속의 하나로 거행되는 경우가 많다. 우물에 음식을 차려 놓고 물의 풍족함을 기원하기 위해 가정 단위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을 단위로 우물제를 지내기도 한다. 우물제의 신격은 용신이며, 물을 신격화한 수신水神이다. 용은 못이나 강 또는 바다와 같은 물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물고 다닌다고 여겨져 왔다.

이처럼 용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용을 위한 제사가 모두 물가라는 점도 용의 수신적 성격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수신이 마을의 공동우물을 지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의 동신洞神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용신이 본래 수신으로서 물의 풍족함을 관여하는 신격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격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급기야는 가정의 복록을 주관하거나 무병장수, 부귀다남, 무사안녕, 만사형통을 주관하는 신격으로서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정월에 풍물굿으로 반드시 샘굿을 쳤다.

가정과 마을로 나누어 우물제의 제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정 단위의 제사 내용이다. 정월 열나흘날에 집 안의 우물을 다 퍼내고 밤에 부인이 목욕제제한 뒤 상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절을 하며 집안의 행운을 빈다. 제물은 밥, 미역국, 정화수 한 그릇이다. 우물 앞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려 촛불을 밝혀 놓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와 같은 우물제는 집 안에 샘이 없는 경우 공

동우물에서 물을 길어 와 하기도 하고, 집 안이 아닌 마을의 공동우물이나 냇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마을 단위의 우물제는 제의적인 절차와 풍물굿이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풍물굿으로만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제사와 풍물이 어우러지는 우물제의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암 시종면 정동마을 정호제를 들 수 있다. 정호제는 ‘우물제’라고도 부르며,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마을의 재난 예방과 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샘굿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당산굿을 펼치며 우물제를 올리고 샘굿을 친다. 샘굿이 끝나면 2월 초하루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뱃기를 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우물제는 단순히 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물을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이 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뿐이지 샘이 지니는 신앙적인 의미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물제가 용신신앙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용신신앙의 일환으로 거행되기 때문에 용신을 모실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우물제나 용왕제를 지낼 수 있다. 따라서 우물제는 단순히 샘이라는 장소성보다도 물과 관련되어 용신을 모실 수 있는 곳에서 벌이는 용신신앙의 실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제는 마을의 샘에서 지내는 제사로만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을의 냇가나 깊은 산속의 샘, 바닷가 등지에서 지내는 용왕제로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물제는 주로 정월 대보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기풍제의적인 의미와 세시의례적인 의미가 있다. 단순히 농경사회에서 용이 지니는 풍요의 대상으로서 종교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녕과 만사형통 등을 보장해 주는 신적 존재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물제가 용의 영험성과 신성성을 구현하는 의례적인 실천으로써 가족 중심의 신앙 형태에서 마을신앙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상징사전(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대관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의 가정신앙-강원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한국의 가정신앙-경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전남(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가정신앙-충남·충북(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필자 표인주(表仁柱)

운룡도

雲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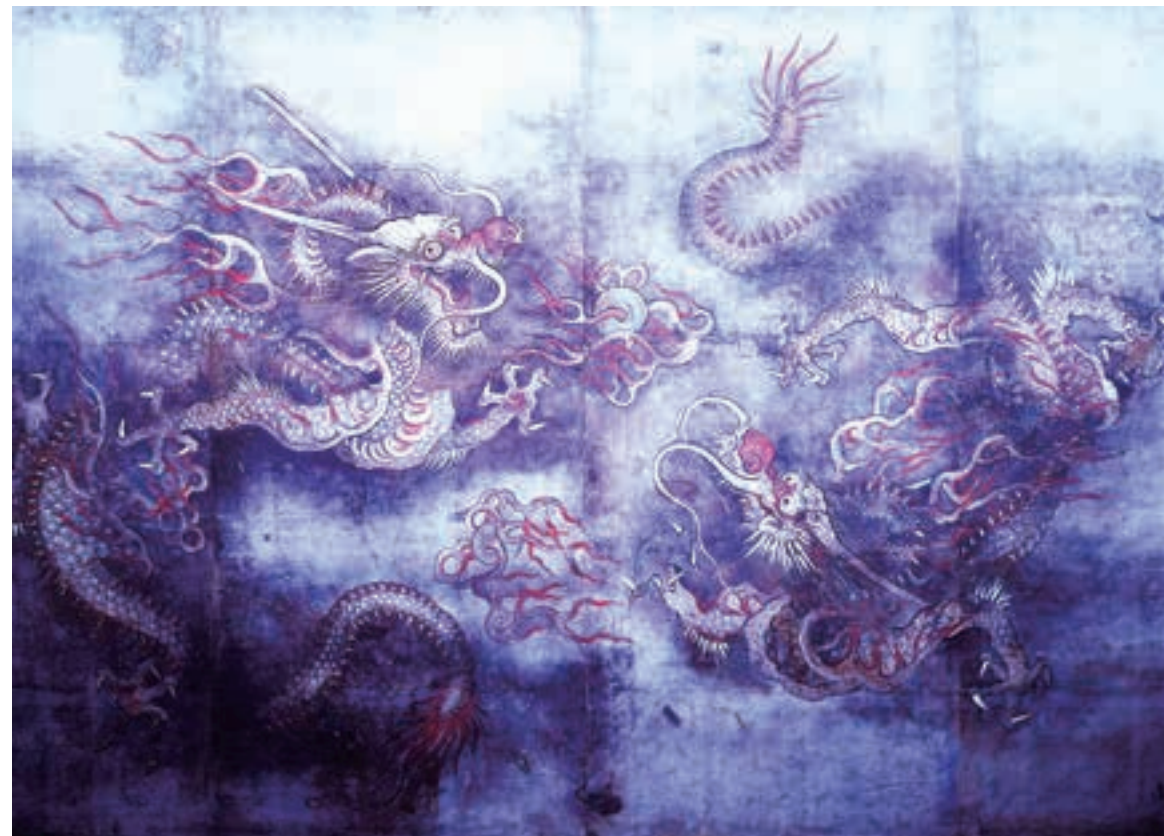
구름 속의 용을 그린 그림.

개관 운룡은 뱀·사슴·낙타·매 등을 합성한 상상의 동물로, 신수를 대표하는 용과 오묘한 조화력을 지닌 구름이 결합된 모습이다. 고대에서부터 각종 공예품과 부도 등 불교미술품의 문양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의 곤룡포를 비롯해 청화 및 철화 백자 등에 그려지며 계승되었다. 이러한 운룡 모티프가 다양한 용 그림의 화제 가운데 하나로 수립된 것은 10세기 오대 남당의 후주 이욱李煜과 도사여귀진厲歸眞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남송의 사대부 화가 진용陳容이 상고시대의 기룡夔龍에서 시작하여 고대의 응룡應龍을 거쳐 오대 무렵 대두된 금룡인 황룡을 구름과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생동하는 모습을 정묘한 수묵으로 표현하여 후대의 전형을 이루었다.

10세기에 화제로 대두된 운룡도는 11세기 후반의 고려 중기에 초조대장경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의 부록 격인 권21의 「불부佛賦」 삽도로, 송대 화풍을 일부 반영하여 영지구름에 감싸여 머리만 내민 용들이 묘사된 바 있다. 고려 말에는 원나라 진재震齋의 〈운룡도〉가 유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룡도의 본격적인 전개는 조선 초기부터였으며, 이후 말기까지 전 시기를 통해 그려졌다. 석경石敬과 신잠申潛, 이정李楨, 윤두서尹斗緒, 정선鄭勳, 심사정沈師正, 박지원朴趾源, 정철조鄭結祚, 김유성金有聲, 김응환金應煥, 이인문李寅文 등의 화원화가와 문인화가들이 수묵풍으로 운룡의 신묘한 조화술과 영이함을 표현하였다. 이에 비해 채색풍은 경복궁 사정전 어좌 위의 궁중회화를 비롯하여 비를 오게 하기 위하여 제사 지내는 '화룡제畫龍祭'나 정초의 문배용과 화재를 막는 무속용 같은 기복벽사용 그림에 주로 사용되었다.

내용 운룡은 용이 지닌 다양한 신령스러운 상징성이 구름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강화된 것이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운룡설에 의하면, 자연의 영물인 구름은 용이 기운을 토해 이루어진 것이나, 용이 구름을 타지 않으면 그 영이함을 신묘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왕인 용은 어진 신하인 구름의 충성을 통해 왕조를 육성할 수 있으며, 승천한 용은 구름을 일으켜야 비를 내려 만물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운룡이 문양으로 형상화되어 대두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지만, 화제로 형성되어 본격적으로 그려진 것은 조선시대를 통해서였다. 628년(진평왕 50) 여름에 가뭄이 심하자 구름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용을 그려 놓고 비가 오기를



경복궁 사정전 벽화 | 국립고궁박물관

빌었던 '화룡기우畫龍祈雨'의 전통을 계승하여 개국 초부터 화룡제를 빈번하게 거행하였다. 그런데 송나라 제도를 따른다고 한 것으로 보면 남송 운룡도의 대가 진용의 화풍을 토대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

석경의 〈운룡도〉는 여의주를 앞발로 잡고 있는 구름 속의 용을 그린 것이다. 구도와 눈이 붙쭉 튀어나온 사실적인 용의 양태, 미묘한 발목풍 구름의 표현은 진용의 운룡도 화풍을 변용한 것으로, 후대 양식의 전형을 이루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종군하여 전공을 세운 깃카와 히로이에吉川廣家が 탈취해 간 이정의 〈운룡도〉는 〈송호도〉와 쌍폭으로 그려진 것이다. 용의 극적인 동세와 소용돌이치는 물결과 발목풍의 구름이 자아내는 격렬한 화풍은 일본 에도시대의 운룡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의 수묵풍 운룡도는 석경과 이정의 화풍을 토대로 전개되었는데, 이인문의 〈운룡도〉는 전자를, 김유성의 〈운룡도〉는 후자를 대표한다. 기록으로 전하는 정철조의 그림 속 〈화룡〉이 실물을 보는 듯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박지원의 〈송암운룡도松岩雲龍圖〉가 질풍처럼 붓을 휘둘러 이룩되었다고 한 것에서도 이러한 양자의 화풍을 토대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운룡도 | 가로55 세로98 |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채색풍 운룡도는 구름을 수목풍과 유사하게 발목풍으로 표현한 것과, 문양처럼 도안풍으로 나타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867년(고종 4)에 중건된 경복궁의 편전인 사정전의 어좌 양쪽 기둥의 상부에 벽면을 만들고 설치한 부벽화(附壁畵)의 운룡도는 흰색 구름을 발목풍으로 그렸다. 사조룡(四爪龍)의 흰색 쌍룡이 화염에 싸인 여의주를 잡기 위해 격동하는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하였으며, 붉은색을 곁들여 서기를 나타냈다.

관우상이 봉안된 동관왕묘 감실 벽면의 아홉 마리 용은 일곱 마리의 황룡 외에 백룡과 청룡으로, 도안화된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 감실 배후의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를 떼어낸 뒷벽에 붙어 있던 대

형 그림인데, 이를 다시 떼어내자 나무 판벽에 직접 그린 청룡과 황룡이 여의주와 함께 도안풍의 구름에 싸인 운룡도가 발견되었다. 이들 오조룡의 운룡도는 19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월오봉도> 이전에 그려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름을 문양처럼 묘사한 도안풍의 운룡도가 민간양식으로 구사되며 확산되었다. 구름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장식성을 높였으며, 호림박물관이 소장한 <운룡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의 비중이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특징 및 의의

용 그림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운룡은 가장 널리 다루어진 화제이고 제재였다. 제왕의 표상이면서 길상벽사의 상징으로 애호되기도 하였다. 수목화와 채색화로 많이 그려졌는데, 특히 채색화의 민간양식에서 친근한 구름의 비중을 확대하며 변화무쌍한 형상을 다양하게 도안화하여 장식성을 높인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참고문헌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정병모, 들베개, 2012), 유물보존총서7-삼국지연의도(국립민속박물관, 2016), 한국의 문양 용(국립대구박물관, 2003), 한국회화통사2-고려회화(홍선표, 한국미술연구소CAS, 2022), 鳳麟龜龍考釋(杜而未, 臺灣商務印書館, 1996).
필자 홍선표(洪善杓)

이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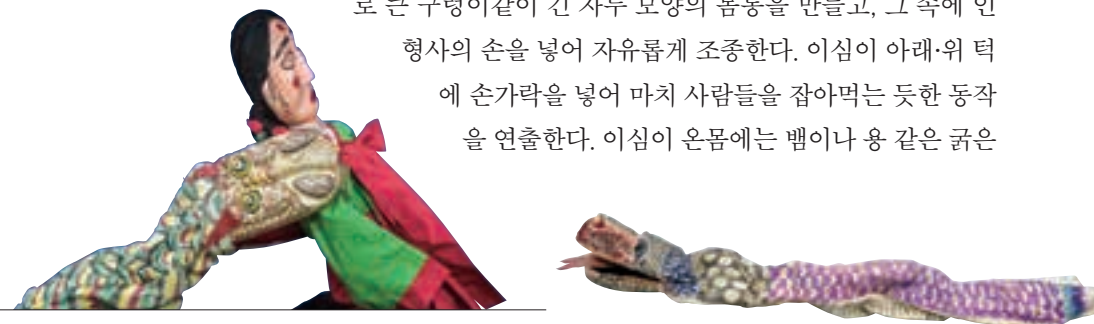
꼭두각시놀음에 나오는, 뱀도 용도 아닌 이상한 동물.

내용 이십이는 ‘이시미’라고도 하며, ‘이무기’의 사투리로 알려졌다. 이무기는 일반적으로 뿔이 없는 용, 또는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를 이른다. 이십이는 꼭두각시놀음에서 흥동지와 다투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이십이가 등장하는 장면을 통칭 이십이거리 또는 흥동지거리라 부른다.

채록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십이거리에는 청조새, 박첨지 손자, 박첨지 조카, 피조리(기생), 피조리 언니, 영노, 흥백가, 귀팔이, 표생원, 동방삭, 목대사 등이 차례로 등장해 이십이에게 잡아먹힌다. 이들은 박첨지의 눈에 새를 쫓으러 나왔다가 주변의 냇물에 사는 이십이에게 변을 당한다. 다만 영노와 목대사만이 지혜를 발휘해 살아남는다. 영노는 이십이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도망하고, 목대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외우고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박첨지는 뒤늦게 눈으로 나왔다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 아울러 그 역시 이십이의 공격을 받는다. 박첨지는 힘이 장사로 알려진 조카 흥동지를 불러낸다. 박첨지는 흥동지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흥동지는 ‘아저씨의 인생이 불쌍하니 살려 놓고 보자’며 구원해 준다. 흥동지는 이십이를 때려잡고, 그길로 인천 제물포시장에 달려가 이십이 가죽을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된다.

꼭두각시놀음에서 이십이를 통칭 ‘용강 이십이’라 부른다. 용강(龍江)은 특정한 강이기보다 용이 산다는 전설이 깃든, 일반적인 강을 이른다. 이십이를 이무기로 여길 수 있는 근거로는 ① 형태(인형)가 큰 구렁이를 닮은 것 ② 물속에 사는 것 ③ 용이 되지 못해 화풀이로 심술을 부리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꼭두각시놀음 인형의 구조적 형태는 막대기인형(杖頭形), 주머니인형(布袋形), 줄인형(懸絲形, 마리오네트), 줄타기인형(捷線形)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주머니인형은 천을 자루

또는 장갑같이 만들어 조종하는 방식이다. 이십이 인형은 천으로 큰 구렁이같이 긴 자루 모양의 몸통을 만들고, 그 속에 인형사의 손을 넣어 자유롭게 조종한다. 이십이 아래·위 턱에 손가락을 넣어 마치 사람들을 잡아먹는 듯한 동작을 연출한다. 이십이 온몸에는 뱀이나 용 같은 굽은



이십이(꼭두각시놀음) | 2015 | 국립민속박물관

이십이 인형 | 전체길이89 너비10 |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비늘을 그려 넣고, 주둥이에는 긴 수염을 붙여 실물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넓적한 입을 벌리면 붉은 속내가 드러나 무섭고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십이가 논 주변의 냇물에서 나타나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사실은 인형사의 대사를 통해 알려진다. 그러나 이십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까닭은 꼭두각시놀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직 용이 되지 못한 데 대한 화풀이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화풀이라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살생이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애초에 이십이를 등장시켰을 때 인형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자비한 살생의 이유는 아마도 작품 전승 과정에서 약화된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러한 약화는 이십이의 성격 약화와 더불어 이십이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품에서 이십이는 막연하지만 '주민들을 괴롭히는 적敵'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흥동지는 '힘의 상징'이다. 그는 사악한 대상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그들을 물리치는 젊은 정의의 역사力士 모습이다. 그러나 흥동지가 이십이의 가족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역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후대에 인형사에 의해 첨가된 화소로 여겨진다.

특징 및 의의 아시아에 전승된 인형극을 총괄해 보면 음양陰陽 갈등, 수화水火 갈등, 불의不義와 정의正義의 갈등으로서 상대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이십이와 흥동지의 갈등 역시 이런 신화적 원형성을 지닌, 상징적인 인물의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꼭두각시놀음의 역사와 원리(서연호, 연극과인간, 2001), 꼭두각시놀이(서연호, 열화당, 1990), 남사당패 연구(심우성, 동화출판공사, 1974), 조선민간극(권택무, 예니, 1989), 조선연극사(김재철, 청진서관, 1933), 조선의 민간오락(김우·이영무, 학우서방, 1955), 한국가면극(이두현, 한국가면극연구회, 1969), 한국인형극의 연구(최상수, 정동출판사, 1981), The Cambridge Guide to Asian Theatre(James R. Bra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필자 서연호(徐淵昊)

줄다리기

동아시아권 음력 신년의례로서 마을공동체의 민속놀이.

개관 줄다리기는 동아시아권에서 음력 새해맞이 신년의례로 전승되는 집단적 민속놀이이다. 줄다리기 문화의 발상지는 인도로 알려졌다. 인도의 힌두사원에서 천년우유바다젓기 신화에 근거하는 줄다리기 조각과 조형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줄다리기는 중국의 티베트와 윈난雲南, 미얀마·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한국 등 불교

문화권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벵골사문화권에서 전승력이 강하다. 즉 인도의 줄다리기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과 벵골사 문화권의 신년의례의 세시풍속으로 정착되었다. 보편적으로 줄다리기는 정월보름(음1.15)에 거행되지만 음력 8월 중추절에 행해지기도 한다.

줄다리기는 집단적인 편싸움 방식이며, 사찰과 마을에서 주로 전승되었다. 사찰에서는 불교수행의례로, 마을에서는 풍농기원의례로 전승되었다. 줄다리기의 줄은 밧줄과 올가미줄로 구분되는데, 밧줄은 외줄다리기, 올가미줄은 쌍줄다리기에서 사용한다. 또한 줄다리기 방식은 남녀 또는 지역 대결로 벌어진다.

내용 줄다리기는 인도의 힌두신화인 천년우유바다젓기에서 태동하였다. 천년우유바다젓기 신화에서 악마와 선신이 코브라cobra의 몸체를 잡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방식이 줄다리기의 원형이다. 인도 힌두문화의 줄다리기는 밧줄을 잡아당기는 나가Naga 형과 올가미줄을 잡아당기는 견삭繫索형으로 구분된다. 나가가 뱀이라면, 견삭은 올가미줄이다. 올가미줄은 줄머리에 고와 고리를 만들어 동물을 사냥·포획할 때 사용하는 줄이다. 나가형 줄다리기는 대마·취녕쿨로 만든 밧줄pasha을 잡아당기는 외줄다리기이고, 견삭형 줄다리기는 두 올가미줄을 연결하여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고싸움놀이이다. 이러한 인도의 나가형 줄다리기와 견삭형 줄다리기는 인도차이나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전파되었다. 이에 따라 투룬견삭繫索觀音像이 『열반경涅槃經』에 등장하고, 올가미줄과 밧줄이 불공견삭관음상不空繫索觀音像과 다면다비불상多面多臂佛像에 지물持物로 등장하였다.

동아시아 벵골사 문화권에서는 견삭형 줄다리기와 나가형 줄다리기가 함께 나타난다. 견삭형 줄다리기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게鬮줄다리기, 코끼리줄다리기, 고싸움형 줄다리기이다. 고싸움놀이는 양편에서 줄머리의 올가미(고)를 연결하고 장목으로 결합한 후, 서로 마주보고 서서 잡아당기는 방식이다. 그리고 게줄다리기는 사람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땅에 엎드려 반대편 쪽으로 기면서 줄을 당기는 방식이고, 코끼리줄다리기는 올가미를 사람의 목에 걸고 코끼리처럼 엎드려서 서로 반대편 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이다.

이들 세 유형 가운데 고싸움형 줄다리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전승력이 강하다. 고싸움형 줄다리기는 줄의 규모가 크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중소 도시에서 전승력이 강하다. 게줄다리기는 한국의 밀양 감내 게줄당기기가 대표적이다. 게는 탈피脫皮하는 생물로서 해탈解脫을 추구하는 불가佛家에서 수행의례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코끼리줄다리기는 게줄다리기와 흡사한 줄다리기로 티베트고원에서 전승되고 있다.

나가형 줄다리기는 세 가닥으로 굵고 견고하게 꼰 동아줄을 잡아당기는 방

식으로, 동아줄 줄다리기와 벗짚줄 줄다리기가 있다. 동아줄 줄다리기는 인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줄다리기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는 벗짚으로 만든 줄을 사용하며, 벗짚줄 줄다리기의 전승력이 강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통 줄다리기로 견삭형 줄다리기와 나가형 줄다리기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견삭형 줄다리기는 중소 도시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농촌 마을에서는 대체로 나가형 줄다리기가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 줄다리기는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점풍(淸風)민속놀이라면, 고싸움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 중소 도시에서 오락 조장과 동화주의 정책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중소도시의 줄다리기는 점풍민속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나가형 줄다리기는 용줄(龍繩)줄다리를 말한다. 인도의 나가형 줄다리가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뱀이 용으로 변화한 것이다. 용줄다리기의 줄은 벗짚으로 용머리와 용꼬리를 갖춘 용 형상으로 만든다. 천년우유바다짓기 신화에서는 악마와 선신이 뱀을 잡고 당기지만, 한국에서는 남녀가 용을 붙잡고 당기는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용줄다리기는 호남 평야지대의 농촌 마을에서 전승력이 강하다. 그 배경에는 평야지대 농민들이 하늘에서 조화를 부러 비를 내려 주는 천룡(天龍)을 숭배하는 신관념이 깔려 있다. 농민들은 새해를 맞이하여 정월 대보름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천룡당에서 당고사를 지내 천룡을 마을에 강신(降神)시킨다. 이튿날 아침 마을주민들은 벗짚줄로 천룡을 제작하여 마을에 출현시키는 신화적 행위를 세시풍속으로 전승해 왔다.

용줄다리기는 천룡이 하늘에서 십우오풍(十雨五風)의 조화를 일으켜서 농사의 풍년이 이뤄지도록 기원하는 농민들의 집단적 제사의식이다. 용줄다리기의 과정은 우선 정월 열사흘날 마을의 모든 길목에 금줄을 내걸어 마을공간을 정화하고 청정한 공간으로 성역화한다. 성역화할 때는 마을의 천룡당과 당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치며, 제관과 화주집 대문에 황토를 뿌려 부정거리를 한다. 그리고 정월 열나흘날 밤 마을에 천룡을 강신시킨 후에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마을주민들이 벗짚으로 용줄을 만들어 마을에 천룡을 출현시킨다.

이후 마을주민들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마을주민들이 용줄을 어깨에 둘러멘 채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당산돌기를 한다. 해 질 무렵이 되면 마을주민들은 남녀로 나뉘어 용줄다리를 한다. 남자가 용머리 쪽을 잡고 여자들이 용꼬리 쪽을 잡는데, 15세 미만 어린 사람은 여자 편에 서서 잡아당긴다. 여자 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여 여자 편이 이긴 다음 진쌍기놀이를 즐긴 후에 당산나무와 당산입석에 줄을 감아 놓고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에 줄을 감는 방식은 용줄 꼬리를 감기 시작하여 용머리를 제일 높은 상단에 올려놓는다. 이



용줄머리 | 전북 정읍 | 2023



줄다리기 | 전북 정읍 | 2023



암줄과 솥줄 비녀목으로 연결 | 전북 고창 | 2012



할아버지 당산 옷 입히기 | 전북 고창 | 2012

줄다리기 | 송학섭

리한 줄감기는 천룡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는 승천(昇天) 의식인데, 이 과정을 당산옷입히기라고 한다. 이처럼 용줄다리기에서는 천룡의 강신—오신(娛神)—송신(送神)의 절차가 확연하게 목격된다. 이와 달리 경기만 지역에서는 줄다리기 후에 벗짚줄을 하천 변에 늘어 놓아 용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해양계 용왕신앙의 송신의식도 엿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중소 도시에서 전승되는 견삭형 줄다리기는 유래와 성격이 불분명하다. 견삭형 줄다리기는 올가미줄을 서로 연결하여 잡아당기는 고싸움놀이 방식이다. 견삭은 동물을 사냥·포획하는 도구이지만, 불가에서는 윤회와 번뇌의 고통을 없애 버리는 수행의례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원 줄다리기에서도 불가수행의례 내용이 등장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상원조(上元條)에 “치도(繼徒)들이 또한 이 놀이를 즐겼다(繼徒又有此戲)”라는 기록이 있다. 치도는 검은 옷을 입은 재가 승도(僧徒)를 가리키는데, 치도들이 출가수행의례(出家修行儀禮)로서 번뇌와 윤회의 고통을 끊어 버리고 해탈하려는 수행의례로서의 줄다리를 즐겼던 것이다.

줄다리기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중국 티베트와 윈난, 쓰촨(四川) 등을

거쳐서 동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으로 전파되었다. 중국 당대唐代의 상원절 견삭형 줄다리기와 불공견삭관음신앙이 일본에 전파되어 고싸움 줄다리기인 쓰나히키綱引き가 일본에 정착하여 전승되어 오고 있다. 쓰나히키는 그물망 올가미를 잡아당긴다는 뜻이다. 일본의 견삭형 줄다리기에는 용신신앙이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어 온 나가형 줄다리기에서는 용신신앙이 분명하게 발견된다. 인도의 나가형 뱀줄다리가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전파되면서 용줄다리로 변화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줄다리는 용줄다리를 원형으로 하여 전승되어 왔지만, 견삭형 줄다리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동화정책同化政策에 따라 일본에서 전래하여 중소 도시에 정착한 후 점차 농촌마을까지 파급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줄다리기에는 동아시아 줄다리의 다양성 요소가 깃들여 있다. 당산줄감기에서는 당산옷입히기, 암줄과 수줄 결합의 성신앙,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힌두신앙 요소가 발견되는가 하면, 상원절 줄다리기와 용신신앙 같은 중국문화의 요소도 깃들여 있고, 해안가에서 줄다리를 하거나 줄을 하천 변에 늘어 놓아 해룡海龍으로 돌려보내는 등 해양문화 요소도 깃들여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우리나라의 줄다리는 필리핀·베트남·감보디아 줄다리와 함께 등재되었다. 우리나라 줄다리는 영산줄다리기(쇠머리대기),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삼척기줄다리기, 밀양 감내계줄당기기, 의령 큰줄맹기, 남해선구줄긋기가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줄다리는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동아시아의 대륙적인 요소와 해양적인 요소가 발견되고, 농사의 풍농기원의례와 불가의 출가수행의례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풍농기원의례로는 용줄다리가 있으며, 출가수행의례로는 견삭줄다리와 게줄다리가 있다. 견삭줄다리는 치도들이 번뇌와 윤회를 끊기 위한 해탈수행의례로 행해졌다. 해탈수행으로는 탈피의 상징인 게형[蟹形] 줄다리를 거행하였으며, 줄다리기 후에 줄감는 의식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舊皮脫服新皮著衣.’는 탈피착의민속脫皮着衣民俗으로 남아 있다. 게는 구각舊殼을 탈피하는 생물로서 해탈수행을 추구하는 사찰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형 줄다리는 인도의 뱀신앙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용신앙과 융합하여 한국의 용줄다리로 정착하였는데, 호남 평야지대에서 미륵신앙과 결합하면서 천룡을 형상화한 용줄다리로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줄다리는 인도 힌두신앙, 불교미륵신앙, 해양신앙, 농경신앙 요소가 깃든 불교민속의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1920년대 한국 전통줄다리의 일본화와 지역적 전승(김민욱·송화섭, 로컬리티 인문학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의 유형과 계통 연구(송화섭, 역사민속학 4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의 발생과 전개(송화섭, 비교민속학38, 비교민속학회, 2009), 영산줄다리기(한양명,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용신앙과 농경의례(송화섭,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필자 송화섭(宋華燮)

진쌍기놀이

용줄다리기에서 줄다리를 마치고 천룡에게 향응을 베푸는 방식의 용놀이.

개관 평야지대의 줄다리는 대체로 용줄다리기이다. 용줄은 천룡天龍을 형상화한 벗짚 줄이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주민들은 벗짚으로 천룡을 만들어 마을에 출현시킨다. 마을주민들은 열나흘날 새벽에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금줄을 치고 마을 공간을 성역화한다. 그리고 성역화된 마을에 천룡을 출현시킨다. 마을주민들은 마을에 출현한 천룡에게 향응響應을 베푸는 놀이로 진쌍기놀이를 즐긴다.

정월 대보름 당산제의 진쌍기놀이는 농악과 줄다리가 결합되어 있다. 농악은 줄다리기 당산굿을 견인하면서 반주하고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줄다리의 본질은 천룡을 벗짚으로 형상화한 용줄에 대한 제사 행위를 말한다. 줄다리는 천룡과 마을주민이 신인일체神人一體된 제의 방식이다. 줄다리기 당산제의 핵심은 줄다리기와 진쌍기놀이이다. 진쌍기는 농악의 진법陣法에서 차용되었다. 진쌍기놀이는 줄다리기 과정에서 천룡의 장엄함과 위용을 보여 주는 용놀이라 할 수 있다. 우도농악의 진법에서 방울진굿과 되풀이진굿을 차용하여 세 번의 진쌍기놀이를 거행한다. 진쌍기놀이는 줄다리를 마치고 용줄을 당산나무에 감기 전에 용의 위용을 보여 주는 박친감 넘치는 용놀이이다.

내용 전라도는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우도右道와 좌도左道로 구분된다. 우도는 평야지대, 좌도는 산간지대를 지칭한다. 우도와 좌도는 자연환경이 다르듯이 문화생태 및 문화환경도 다르다. 우도 평야지대는 논농사 중심이고, 좌도 산간지역은 밭농사 중심이다. 우도와 좌도는 생업 방식과 생활문화가 다르고, 그에 따른 마을문화에도 차이가 있다. 우도 마을문화는 당산제·당산입석·당산나무가 마을신앙과 농경문화의 중심이고, 좌도 마을문화는 탐제·돌탑·산제당·산신제가 마을신앙과 생활문화의 중심에 있다. 정월 세시풍속과 마을신앙에서도 좌도 산간지대에서 달집태우기를 하는 관행이 전승되어 온다면 우도 평야지대에서는 줄다리를 하는 관행이 관습화되어 있다.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은 가락과 진법, 복식, 고깔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선동리 줄다리기 당산제 진쌍기놀이 | 전북 고창 | 2010 | 송화섭



정월 대보름 당산제 진쌍기놀이 | 전북 정읍 | 2017 | 송화섭

용줄다리기는 전북 김제·정읍·고창·부안 지역 평야지대에서 전승해 오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이다. 평야지대 농민들은 하늘의 용인 천룡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관습이 있다. 이러한 관습은 불교의 호법신을 천룡으로 섬기는 관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천룡을 철룡으로 부르는 사례가 있는데, 철룡의 어원은 천룡이 맞다. 우도문화권 농민들은 정월 열나흘날 밤, 마을 주산 또는 마을 뒤 천룡당에서 천룡을 강신시키는 천룡제를 지낸다. 천룡제를 지낸 다음 날 마을주민들은 벗짚으로 용을 만들어 마을에 천룡을 출현시켜 용줄다리기를 즐긴다. 평야지대 주민들은 줄다리기 중심의 당산제(또는 당산굿)를 거행한다. 당산제 과정은 용줄만들기—당산돌기—용줄다리기—진쌍기놀이—용줄감기 과정으로 줄다리기 당산굿을 마친다.

줄다리기 당산굿 과정에서 진행된 진쌍기놀이는 천룡의 장엄한 모습의 위용을 보여 주는 용놀이라 할 수 있다. 진쌍기놀이는 용줄다리기를 마친 후 줄감기 사이에 펼쳐진다. 진쌍기놀이는 농악대가 이끈다. 농악대가 선두에 서면 용줄을 든 주민들이 뒤따른다. 농악대는 우도농악의 진법 가운데 방울진법(나선형으로 에워싸는 진법)으로 감아지면, 다시 되풀이진법(방울진에서 반대로 나선형으로 풀어 나오는 진법)으로 풀어 나오는 방식의 용놀이를 진행한다. 진쌍기놀이는 세 번에 걸쳐 줄다리기 진陣이 나선형螺旋形으로 에워싸는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진쌍기놀이는 진을 싸면서 감아 들고, 감아진 진을 풀어내는 진쌍기놀이라 할 수 있다. 농악의 진법은 조선시대 군사훈련의 진법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불교민속의례 연행에서 나왔다는 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용줄다리기에 진쌍기놀이는 호남우도 평야지대인 전북 고창·정읍 일대 용줄다리기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용놀이이다. 이 진쌍기놀이의 절정은 용줄다리기를 마친 주민들이 용줄을 들고 되풀이진으로 돌면서 용줄 꼬리를 잡은 젊은 장정들이 용꼬리를 거꾸로 감아 돌리는 용꼬리치기이다. 진쌍기놀이의 용꼬리치기는 마치 용이 하늘로 비상하는 듯한 박진감 있는 용놀이를 연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용꼬리치기 놀이는 전북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당산굿 줄다리기에 매우 장엄한 광경으로 연출된다.

특징 및 의의

진쌍기놀이는 평야지대 정월 대보름 줄다리기 당산굿에서 연행되는 용놀이이다. 평야지대 농민들은 천룡제를 지낸 후 벗짚으로 천룡을 마을에 출현시켜 용놀이를 즐긴다. 농민들은 천룡을 하늘에서 비바람을 관장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 오고 있다. 매년 정월, 벼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의 수호신인 천룡에게 제사와 향응을 베푸는 의식을 거행해 왔다. 줄다리기 당산굿은 천룡신의 강신降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세 과정 중 ‘오

신 과정'에서 줄다리기와 진쌍기놀이가 연출된다. 줄다리기가 마을주민들이 용 줄을 잡고 풍농과 소망을 비는 행위라면 진쌍기놀이는 마을주민들이 용줄을 들고 용의 장엄함과 위용을 보여 주는 용놀이이다. 우도 평야지대 농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 당산굿을 거행하면서 마을주민과 마을의 수호신인 천룡의 신인일체 방식으로 풍농기원의례를 관습적으로 전승해 오고 있다.

참고문헌 풍물굿과 군 진법의 상관성 연구(성운선·배소심, 한국무용기록학회지17, 한국무용기록학회, 2009), 한겨레음악대사전(송방송, 보고서, 2012),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송화섭(宋華燮)

차귀본향놀이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옛 이름 차귀) 마을에 전하는 민속놀이.

내용 차귀본향놀이는 음력 8월 16일 밤에 베풀어지는데, 마을의 수호신을 받들어 풍요를 기원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도 즐기며 제액초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놀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햇불을 든 햇불잡이가 맨 앞에서 심방(무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고, 농기農旗와 영기令旗를 든 기수가 따르며 그 뒤로 용과 거북 그리고 범성이라는 목동이 탈을 쓰고 따르고, 농악대가 줄지어 본향당에 이른다. 이들이 본향당에서 제의를 베푼 다음, 풍물을 치고 마을의 공터로 돌아오면서 놀이가 무르익게 된다.

놀이의 중심을 이루는 이들의 차림새를 보면, 대개 용은 꼬리를 드리운 모습의 가면을 쓰고, 거북은 그 모양을 만들어 등에 지며 탈을 쓴다. 그리고 목동은 농부 차림의 갈중이(갈옷), 갈적삼(갈옷), 정당벌립에 탈을 쓴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차림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로써 놀이는 흥미를 끌게 된다. 용, 거북, 목동 사이에 오가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북이 용의 부탁을 받고 폭풍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목동이 그 소리를 듣고 거북에게 애원하여 폭풍우를 몰아치지 못하게 한다. 곧 용이 거북을 향해서 “거북아” 하고 부르면 거북은 “예” 하고 앞으로 나선다. 목동은 무슨 일인가 싶어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다. 용은 거북에게 “거북아, 오늘 밤에 석 자 다섯 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폭풍을 불게 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훨훨 날아오르는 시늉을 한다. 한편 이 말을 엿들은 목동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석 자 다섯 치의 비와 폭풍이 불면 홍수가 날 것은 물론이고 가축과 곡식이 성할 리 없기 때문

이다. 그래서 목동은 거북을 설득하기로 하고 거북에게 말한다. “비는 다섯 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 그러자 거북은 알았다는 듯이 경충경충 상하도약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북은 준비된 허벅(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식수 운반도구)의 물을 바가지로 사방에 뿌린다. 범성의 말대로 비는 알맞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은 것이다.

결국 용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노하고 거북에게 화풀이를 한다. 거북과 목동은 한패가 되어 용과 시비를 가리다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다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용과 거북의 대화는 처음엔 안정된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고받는다. 그러나 거북이가 목동과 한 패가 되어 용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용이 알게 되면서 용의 노여움은 불같이 터져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여움도 가라앉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결국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운명임을 깨달아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함께 더덩실 춤을 춘다. 평안과 위기, 폭풍 뒤의 고요, 결국은 미움도 고움도 없는 체념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과 삶의 철학을 보여 주는 듯한 한 과정이 지나간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끝나면 동네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심방이 나서서 긴 노끈으로 용을 매 거북과 함께 목동을 대동하고 동네의 부잣집을 방문한다. 용·목동·거북 뒤에는 농악대의 북·장구·허벅장단 등의 악기들이 늘어서고, 그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 따라가면서 걸궁(걸립) 노래를 부른다. 부잣집을 방문한 심방은 용과 거북 그리고 목동을 앞세우고 “한집님이 이 주당을 도왜 염시메 인정이나 겹서(‘수호신이 이 집을 돕고 있으니 도와 주십시오’라는 뜻).” 하면서 덕담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집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돈이든 떡이든 술이든 쌀이든 무엇이든 들고 와서 내준다.

마당에 모여든 농악대가 춤을 추며 땀뿜기를 계속하고, 목동이 그 집에서 내어 준 인정을 받아들고 “예, 고맙습니다. 압(예, 고맙습니다. 예).”이라고 하면, 거북과 용은 뒤따라 감사의 표시를 하며 그 집을 나온다. 이로써 그 집에서는 그해의 재액을 모두 이 용과 거북이 쓸어가 버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큰 집마다 돌면서 음식을 모으며, 넓은 공터에 모두 모여 밤이 새도록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진성기(秦聖麒)

천룡당 天龍堂

천룡을 강림시키기 위하여 마을의 주산 및 집 뒤곁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장.

개관 평야지대 농민들은 하늘에서 비바람을 관장하는 천룡天龍을 숭배하는 민간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불교의 미륵신앙에서 도솔천 내원궁 밖에 용궁이 있고, 그 용궁에는 하늘의 용인 천룡이 상주한다. 불전佛殿의 용 그림은 천룡과 구름 문양雲紋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를 운중발룡雲中發龍이라 한다. 운중발룡은 구름 가운데에서 용이 조화를 부려 비바람을 내리게 해 준다는 강우신降雨神의 표현이다. 운중발룡 그림을 통해 천룡이 불교의 호법룡護法龍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의 호법룡이 민간계층으로 내려와 마을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평야지대 마을 주민들은 미륵신앙의 토착화 과정으로, 마을로 내려온 천룡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며 매년 벼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천룡제를 연중행사로 지내는 관행이 있다.

내용 『미륵하생성불경彌勒下生成佛經』에 “도솔천에는 시두말성이 있는데, 그곳은 장엄하고 청정하며 복 있는 사람들이 성에 가득 차 있어 풍부하고 쾌락하고 안온하라.”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큰 힘을 가진 용왕이 성 근처 못에 있는데, 용왕의 궁전이 바로 이 못 속에 있어 항상 밤중에 가는 비를 내려 흙을 축축하게 하므로, 그 땅이 윤택하기가 마치 기름을 바른 것 같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시두말성 근처 못에는 용왕의 처소인 용궁이 있고, 이 용궁의 용왕이 천룡이다. 이 천룡은 항상 밤중에 가는 비[細雨]를 내려 대지의 흙을 축축하게 적서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평야지대의 농민들은 농사짓기에 앞서 좋은 대지의 흙을 축축하게 해 주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주는 천룡을 정월 대보름날 마을에 불러내려 향응響應을 베풀고 농사의 풍요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천룡제를 지냈다. 시두말성 용궁의 용왕은 미륵보살의 출현에 앞서 가는 비를 내려 흙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늘에서 가는 비가 내리는 것은 미륵보살이 염부제闍浮提의 세계에 하생한다는 진조前兆이다. 평야지대 농민들은 미륵신앙의 민간신앙화 과정에서 천룡이 조화를 부려 농사짓기에 알맞은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을 차용하여 천룡제를 지내 온 것이다. 이러한 천룡제는 미륵신앙권 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불교민속의례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의 배산입수背山臨水를 차용한다면 천룡당은 마을의 배산背山, 즉 주산主山에 위치한다. 평야지대 농민들은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 당산굿을 지내



천룡당 | 전북 고창 | 2012 | 송화섭

기 위하여 정월 열나흘날 밤 천룡당에 천룡을 강신시키는 천룡제를 거행한다. 천룡제는 줄다리기를 동반하는 당산제를 전제로 한다. 천룡제가 하늘의 용왕을 마을로 불러 내는 것이므로 마을에 천룡 형상의 용줄을 만든다. 그러나 줄다리기를 동반하지 않는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천룡당과 천룡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천룡제는 줄다리기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당산제 전날 밤 천룡당에서 지내는 마을 공동 제사이다. 줄다리기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천룡제와 당산제의 이중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천룡당은 마을 공동의 천룡당과 개인 가정의 천룡당이 있다. 마을의 천룡당은 마을 주산에 위치하고, 개인 가정의 천룡당은 가옥 뒤곁 장독대 옆에 위치한다. 마을 공동의 천룡당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장을 관리하고 공동제사를 지낸다면, 개인 가정의 천룡당은 가정주부가 제사장으로서 정화수를 떠 놓고 치성을 올리거나 햇나락을 단지에 넣고 짚주저리를 씌워 놓아 천룡신체로 삼기도 한다. 정월 대보름 이전에 마을 공동의 지신밟기(매귀굿)를 할 때 마을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안의 천룡당 앞에서 천룡굿을 쳐 준다. 마을의 천룡이 집안의 천룡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집안에도 천룡당이 있고, 그곳을 집안의 당산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지신밟기에서 집의 뒤곁, 장독대 앞에서 치는 천룡굿을 천룡굿이라고 부르고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자 발음이다.

지역사례 호남 평야지대 중 천룡당에서 천룡제를 지내는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북도 고창이다. 고창 지역에서 미륵신앙의 민간신앙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창 지역

에서 미륵신앙의 민간신앙화는 오거리당산제나 마을 단위의 마을미륵 입석과 줄다리기 당산제에서 확인된다. 고창군 고창읍 오거리당산에서 중앙동 석주형 미륵당산이 등장하고, 고창군 공음면 건동리와 무장면 도곡리에 마을미륵불(하체매몰불, 불두형미륵불)이 조성되어 있고,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당산입석에는 미륵불형 당산입석이 조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고창 지역에서는 미륵신앙이 토착화하여 마을공동체신앙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신앙의 마을신앙화는 천룡당과 천룡제가 말해 준다. 대표적으로 고창군 신림면 임리·가평리에는 마을 뒤쪽에 천룡당의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고창읍 죽림리 송암마을에는 마을 주산에 천룡당이 위치하고 있다. 줄다리기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에서 천룡당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용줄다리기의 정통성을 가진 마을에서는 천룡의 강신의례로 천룡당에서 천룡제를 지내는 마을곳(동계)이 보편화되어 있다. 당산제의 제당 구조를 살펴보면, 천룡당은 마을 주산 중턱에 위치하고, 천룡당은 평지형 마을의 경우 마을 뒤쪽에 조성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대체로 마을 뒤쪽에 천룡당·천룡단이 위치하고, 마을 앞에는 당산입석·당산나무 등 당산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징 및 의의

천룡당과 천룡제는 미륵신앙권에서 전승해 오는 마을신앙으로 보아야 한다. 천룡제는 평야지대인 전북 정읍과 고창 지역에서 전승력이 강하며, 이 또한 기본적으로 미륵신앙의 토양에서 생성되었다. 백제 무왕 대 익산 미륵사가 창건되면서 한국 미륵신앙의 효시가 되었다. 익산 미륵사의 미륵신앙이 전북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천룡제와 천룡당의 지역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전북 지역의 미륵신앙은 백제시대 익산 미륵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김제 금산사로 이어졌으며, 고려 중기 이후 고창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로 미륵신앙이 변천되어 갔다. 고창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은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을 암벽에 양각으로 조각해 놓은 것이다. 이 마애불이 미륵보살이란 점은 마애불 뒤쪽 산마루에 도솔천 내원궁을 조성해 놓은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도솔암 마애불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배꼽이 가슴에 장식되어 있다. 이 배꼽에는 전북 고창군 무장면 중심으로 활동한 동학대접주 손화중포(孫華仲包)와 관련된 〈석불비결설화〉가 깃들여 있다.

익산 미륵사,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산 도솔암 마애불의 미륵신앙 구도는 미륵상생신앙과 미륵하생신앙이 가람 배치에서 확인된다. 미륵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염부제 세계로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3회 설법한다는 미륵하생신앙이 미륵도량에 구조화되어 있다. 천룡신앙은 미륵하생신앙에 포함되

어 있다. 천룡은 미륵하생에 앞서 가는 비를 내리게 하여 대지를 축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 후기 말법시대에 평야지대 농민들이 미륵 출현을 간구하였던 심성이 천룡제에 담겨 있다고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이 전북 정읍과 고창에서 발생하였던 것처럼 천룡제 전승의 집중 지역도 정읍·고창이다. 이처럼 천룡당과 천룡제는 정읍·고창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말법시대에 미륵신앙과 마을신앙이 결합하면서 마을 단위로 미륵불 조성과 천룡당 및 천룡제가 정읍·고창 지역에서 강렬하게 전승되어 온 것이다. 고창 지역 농민들이 천룡제를 지내는 것은 우순풍조의 풍농기원의례로 볼 수 있으나, 조선 후기 미륵신앙이 민간신앙화하면서 미륵불이 마을에 출현하여 미륵정토세계가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천룡제를 거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부농민봉기와 미륵신앙·미륵신앙(송화섭, 한국민속학7, 한국민속학회, 1996), 미륵경전(이종익·무관역, 민족사, 1996), 조선후기 마을미륵의 형성 배경과 그 성격(송화섭,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서문문화사, 1994), 한국의 용신앙과 미륵신앙(송화섭, 한국문화의 전통과 불교, 논총간행위원회, 2000).

필자 송화섭(宋華燮)

철룡

凸隆

뒤란 또는 장독대에 있다고 하는 가신(家神).

내용

철룡(凸隆)을 모시는 곳은 집 뒤란 또는 장독대이다. 장독대가 흔히 집 뒤란에 있어 이런 관념이 형성되었다. 철룡은 집 뒤란이 산자락과 바로 접해 있거나 집터가 센 집에서 주로 모신다.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논곡리 성암마을에서는 안방의 뒷문을 열어서 바로 보이는 곳을 철룡이라고 한다.

철룡의 신체는 특별한 형태가 없는 것과 오가리 형태로 된 것이 있다. 오가리형은 오가리에 주저리를 씌워 뒤란에 두거나 땅에 묻은 형태이다. 이 신체를 ‘철룡단지’(전북 무주군)라고 일컫기도 한다. 단지 속에는 쌀(또는 벼, 그 밖에 콩, 팥, 조, 메밀, 옥수수 등 오곡)을 넣어 둔다. 매년 가을에 이 쌀을 갈아 넣는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한 벼를 찢어서 오가리 속에 가득 넣고 한지(韓紙)로 그 위를 막은 후 뚜껑을 덮고 주저리를 씌운다. 묵은쌀은 이튿날 가족들이 밥을 해 먹는다. 전북 부안군 계화면 상리 계상마을에서는 이 항아리 속에 깨끗한 물을 가득 넣어 두기도 한다.

이례 일시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등 명절 아침에 가장 많이 행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월 유두, 칠월 칠

석, 매월 초이렛날 등을 비롯해 삼월삼진날, 구월 중구일, 시월 모일, 동지, 매일, 매월 초사흔날, 기제사 때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행하기도 한다.

상을 차리는 방법도 다양하다. 제물은 밥·떡·나물 등이 기본이지만 여기에 술·생선·물 등을 차리고 촛불을 켜 놓는 곳도 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 한 그릇이나 밥만 떠 놓는 곳도 있다. 장독대에서 깨끗한 곳을 택하여 짚을 깔 후 그 위에 상이나 채반을 놓고 제물을 차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짚만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차리는 곳도 있다. 제물을 차리고 나면 간단히 비손을 하면서 가족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원덕신마을에서는 새벽 일찍 머리를 감은 뒤 물을 길어와 항아리의 물을 갈아 주고 동서남북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식이 잘되고 집안이 편안하기를 기원한다. 떠 놓은 물 위에 짚을 ‘열 십+’ 자 형태로 놓고 그 위에 돈을 놓은 다음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면서 공을 들이는 집도 있다. 철룡 앞에 차린 음식은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여자가 먹으면 사나워지기 때문에 남자들만 먹는다는 곳(전북 고창 성송면 암치리 암치마을)도 있다.

철룡은 성주·조왕 등 다른 가신들과 함께 섬겨지면서 가신 가운데 기氣가 가장 센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번 모시기 시작하면 계속 모셔야지 중단하면 큰일이 난다고 한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에서는 ‘자주 섬기면 귀신이 달라붙으므로 대충 섬겨야지 자꾸 공을 들이면 풀에도 귀신이 붙는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심지어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원덕신마을에서는 철룡에게 공을 잘못 들여 정신 이상이 생겼다는 말도 있다.

철룡이 있는 곳은 신성 공간이어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면 큰 탈이 생긴다. 전라남도 진도 진도읍 교동리 북상마을에서는 어떤 아이가 철룡을 들여다본 후 눈이 빠지게 아파서 고생하다가 아이의 부모가 제물을 차려서 빌고 난 뒤에야 나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또 집 뒤란에 큰 나무가 있으면 흔히 그 아래에 철룡을 모신다. 이런 나무에 대해서는 금기가 철저한 편이다. 어떤 사람이 철룡 근처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가 미치고 그 집도 망하였다고 하는 구비전승이 있다. 일반적으로 철룡을 모시는 집에서는 개고기도 먹지 않으며, 평소에도 근신한다.

전남 함평군 나산면 나산2구 방하마을에서는 철룡 아래에 있는 나무를 부득이 베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베고 난 뒤에 고추를 태워 예방하였다고 한다. 또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수문마을에서는 철룡이 있는 나무를 꼭 베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미리 나무 앞에서 빌거나 여자의 속옷을 걸어 놓고 사흘 정도 지난 후에 베면 뒤탈이 없다고 한다. 역시 이 마을의 강갑순 씨는 시숙이 장독대 위의



충남 공주 | 1998 | 국립민속박물관



충남 서천 | 국립민속박물관·황현만

철룡

참나무를 베 뒤로 다리가 매우 아파서 점을 쳐 보았더니 나무를 베어서 탈이 생긴 것이라고 하여 굿을 세 번이나 하고 나서야 나았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철룡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다. 명칭은 청룡靑龍의 와음諷音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터주신, 장독신, 산신, 용신 등의 성격을 띠는 가운데 가내 평안과 자식의 안녕을 위해 모신다. 이 신격의 수호 영역은 집터이지만 특히 장독대가 위치한 뒤란이 중심 영역이다. 그래서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서 주로 철룡을 모신다. 철룡의 성별은 뒤곶각씨(전남 구례 산동면 외산리)와 같은 표현이 있어 여성성이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전남 무안 해제면 송석리에서처럼 남신男神으로 인식하는 곳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설, 정월 대보름, 추석 등 명절 아침에 집 뒤란 또는 뒤란의 장독대에 상을 차려서 떡, 밥, 나물, 어물, 과일 등을 진설한 다음 비손을 한다. 지역에 따라 철룡신, 천룡신天龍神, 철령할마이, 뒤곶각시, 철룡지신, 지신 등으로 불린다.

참고문헌 가신신앙의 성격과 여성상(김명자, 여성문제연구13,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4), 공간과 문화(이영진, 민속원, 2007), 민간신앙1(한국민속학회, 민속원, 2008), 한국 터주신앙의 쌀 봉안 의례와 문화권역(서해숙, 지방사와 지방문화12, 역사문화학회, 2009), 한국민속대관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한국민속대사전2(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호남지역 철룡신의 성격(김명자,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필자 류중목(柳鍾穆)

침호두

沈虎頭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키는 기우법.

내용 침호두는 용의 형상물을 만들거나 용을 대신하는 생물체를 동원하지 않은 채 용이 거하는 처소에 호랑이 머리를 집어넣어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잠연해 있는 용을 승천하도록 자극하는 의례이다. 이에 따라 호두虎頭는 용신을 위무하는 희생제물이라기보다 용신을 자극하는 대항적 주물呪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용의 움직임에 따라 구름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전제로 부동의 잠룡을 일으키기 위해 용이 선호하는 것으로 유인, 용이 꺼리는 것으로 위협, 용의 처소를 더럽히는 부정화의 방식 등이 기우제로 활용되었다. 침호두는 용이 꺼리는 적대적인 맹수를 이용해 위협하는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오잡조五雜俎』 권9 물부物部1에는 “사나운 동물들은 서로 가까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중에 잠겨 있는 용에게 호랑이 머리를 투척하면 반드시 용이 경악과 분노로 용솟음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서역인들은 우물 옆 나무에 사자를 매달아 바치기도 한다. 사자는 곧 이리저리 움직이며 괴로워한다. 잠시 뒤에 비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서 용이 우물로부터 날아오른다. 이는 사자와 용이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랑이[虎頭, 虎骨] 또는 사자가 용을 위협하는 맹수로 이용될 수 있었겠지만 동아시아의 기우제 전통에서는 호두가 활용되었다.

침호두의 기우법은 1416년(태종 16)의 사례에서도 등장한다. 당시 침호두를 거행한 장소는 한강이었으며, 이후에는 한강 이외에 박연[朴淵]과 양진[楊津]에서도 거행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미 한강·양진·박연 등지에서 국행기우제의 일환으로 침호두를 실행하는 것이 공식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용지[龍池], 용연[龍淵], 용소[龍沼], 용추[龍湫], 용택[龍澤] 등지에서도 침호두가 거행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에 따르면 밀양의 구연[白淵], 함안의 도장연[道場淵], 은산 진악산[進樂山]의 석혈[石穴], 고산의 용연, 홍천 가리산[加里山]의 용연, 맹산의 원지[圓池] 등지에서도 가물 때 침호두를 거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확립된 국행기우제의 12제차 가운데 제6차에 한강의 침호두가 편제된 이래 조선 말까지 한강의 침호두가 지속적으로 거행되었으며, 20세기 초엽까지도 지방의 용추에서 침호두를 실행한 사례가 『기어[紀語]』 1928년 7월 10일 기록에서 확인된다.

특징 및 의의

침호두에 쓸 호랑이를 단시간에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혹 호랑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미 사용한 썩은 호두를 다시 쓰기도 하였으나 제물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침호두에 사용하는 호랑이 머리는 용신을 위협하는 매개물이지만 유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경건한 희생제물로 간주하려 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토룡기우, 화룡기우, 석척기우 등이 의례경건주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축소되거나 개정된 것에 비해 침호두는 국가와 지방의 기우제에서 한발부족을 타개하는 기우법으로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祈雨祭禮錄, 국행기우제와 민간기우제의 비교연구(최종성, 종교학연구16, 한국종교학연구회, 1997), 기우제등록과 기우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용부림과 용부림꾼(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 1938).

필자 최종성(崔鍾成)

통기

창호지를 오려 통 모양으로 만든 깃발.

내용

통기는 그 모양이 통 모양의 깃발인 데서 비롯되었다. 크기에 따라 대통기와 소통기로 나뉘지만 통기라고 하면 대개 대통기를 말한다.

통기는 본래 용 모양이었다고 하며, 한때 원통형의 깃발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로 바뀌었다가 오늘날에는 천을 길게 늘어뜨리는 형태의 월덕기로 다시 바뀌었다. 창호지를 원통형으로 길게 늘어뜨린 형태이며, 큰 굵을 할 때 마당에 높이 세우는 큰 대에 매달아 용 모양으로 장식한다.

통기는 길게 만들어 큰 대의 위쪽에 매단다. 큰 대 끝에 다른 댓가지와 그 아래 묶는 동백 사이에 매단다. 동백 아래 버릿줄을 매어 큰 대를 고정하는 것이어서 통기의 위치는 그 길이나 버릿줄과의 얽힘을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이로 만드는 장식인 기메 가운데는 가장 큰 것으로, 요즘에는 월덕기로 대



통기 | 제주 서귀포 | 2006 | 국립민속박물관

체되어 통기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종이로 만들면 비에 훼손되고 오래 보존하기 어려운 탓에 일찍이 월덕기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필자 강정식(姜晶植)

화룡제

畫龍祭

용을 그려 놓고 기우하는 의례.

내용 화룡기우의 유래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평왕 50년조에서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시장을 율기고 용을 그려 비를 빌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이어 1086년(선종 3)에 가뭄이 오래 지속되자 민가에서의 화룡기우가 제안되어 수용되었고, 3년 뒤에도 화룡기우가 선행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진楊津과 저자도楸子島에서 화룡기우가 거행되었으며, 당시 송나라에서 반포된 화룡기우법이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대의 화룡기우 법식은 『문헌통고文獻通考』 권77 「교사고郊祀考」 10 우騫에 실려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물과 관련된 용·물고기·거북 등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는 제단에 수조水鳥인 거위의 피를 바치고, 수목水木인 버들가지로 용에 물을 뿌리는 유감주술을 거행하되 비를 얻은 뒤에는 화룡을 수중에 넣는 것으로 의식을 마무리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용산강과 저자도에서 화룡제를 거행하는 것이 점차 국행기우제로 공식화되었으며, 비로소 18세기 초에 확립된 국행기우제 12제차에 저자도와 용산강의 화룡기우가 제2차와 제7차에 걸쳐 두 번씩 반복되었다. 정조 대에 완성된 『춘관통고春官通考』 권42 「길례吉禮」 우騫 기우祈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조선 후기에 거행된 화룡기우제의 경우 용산강에는 백룡, 저자도에는 청룡이 각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화룡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 용의 그림을 거꾸로 걸어 놓는 관례였다. 특히 의례경건주의적 입장에 있던 영조는 이러한 관행이 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용산강과 저자도의 화룡기우제에 설치된 거꾸로 된 용의 이미지[畫龍倒掛]가 승천의 방향升觀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화룡기우와 관련된 두 번째 논란은 의례를 마치고 나서 화룡을 처리하는 방

식이었다. 일반적으로 화룡제를 마치면 거위와 제물을 화룡과 함께 싸서 침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것이 신을 업신여기는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 망료의 방식으로 화룡을 처리케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화룡제 종료 후 화룡을 봉안하는 것으로 법식이 정해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을 거쳐 날아오르는 화룡의 이미지가 채택되고, 수중으로 투기되던 화룡이 태워지거나 다시 봉안됨으로써 용을 굴복하는 강요의례적 화룡제의 모습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화룡제는 지방의 기우제에서 여전히 성행하였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경상남도 울산 지역에서는 시장 터에 토룡을 만들고 화룡을 걸어 놓고는 사나흘 동안 무당이 비를 빌고, 용에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아울러 1930년대 경주 지역에서도 무당이 토룡과 화룡에게 무악을 연주하며 기우제를 거행하였다고 한다.

특징 및 의의 화룡제는 회화적 양식을 통해 용을 현존시키고 거기에 기원과 주술적 행위를 가하는 유서 깊은 의례였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선행될 정도로 국가나 지방 및 민간에서 널리 애용된 기우제 방식이었다.

참고문헌 祈雨祭禮錄, 기우제등록과 기후의례(최종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용부림과 용부림꾼(최종성, 민속학연구6, 국립민속박물관, 1999), 釋奠·祈雨·安宅(朝鮮總督府, 1938), 中國シャマニズムの研究(中村治兵衛, 刀水書房, 1992).

필자 최종성(崔鍾成)

호국과 호법

Patriotism and loyalty

간룡법	수신과 벽사의 상징	용왕제
감은사	아래자설화	용인 용줄다리기
개구리알먹기	어변성룡도	용줄다리기
갯제	어부심	용추폭포
겨타지설화	여의주보	용호
견훤	영노	용호문배도
계룡산	오룡거	우물제
곤룡포	오룡쟁주놀이	운룡도
공갈못	용	운문사
구룡사	용 못 된 이무기	울돌목
구룡포	용 승천	원성대왕
귀면	용 싸움	유금이들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용경	이무기
금산 청징연 기우제당	용궁	이심이
기우제	용기	잉어의 보은
기우제등록	용꿈	작제건설화
김부대왕	용놀이	주몽신화
나룻배싸움놀이	용단지	줄다리기
남원 용마놀이	용단지모시기	지내와 구렁이의 승천 다름
동김녕 잠수굿	용대기	진쌍기놀이
만파식적	용두	차귀분향놀이
무왕	용두암	창녕조씨 시조신화
문무왕	용떡	처용
물부리굿	용띠	천룡당
미륵사	용마루	철룡
밀양 용호놀이	용머리고개	청룡
박혁거세신화	용무늬	침호두
반야용선	용소	통기
백룡	용신	통도사
백마강	용알뜨기	형산강
벽골제 쌍룡놀이	용오름	혜통
보양	용왕	호국과 호법의 상징
부석사	용왕굿	호국룡
비 내린 이무기	용왕기	호법룡
상진일	용왕당	화룡계
석척기우	용왕도	황룡
석탈해신화	용왕먹이기	황룡사
선운사	용왕밥	회룡포
설화 속 용	용왕상	

호국과 호법의 상징

천진기 | 전 국립민속박물관

시대에 따라, 사회 환경에 따라 용의 모습이나 조화 능력은 조금씩 달리 묘사되고 인식되었다.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무기와 기능을 골고루 갖춘 것으로 믿어져 온 우리 문화에서 용은 용비와 비상, 지상 최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로 숭배되어 왔다. 운행운우運行雲雨를 자유롭게 하는 물의 신, 불교의 호교자, 왕권을 수호하는 호국룡 기능을 발휘하면서 여러 용신앙을 발생시키고, 많은 기록과 설화의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제왕·왕권의 상징, 씨족시조

설화에서 용은 물의 신, 시조의 아버지·제왕, 호국·호법의 신, 예시·예언자적 존재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¹ 『문헌비고文獻備考』(1770)에서는 신라 시조 원년으로부터 조선시대의 숙종 때까지 29차례 용의 출현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록 뒤에는 거의 빠짐없이 거국적인 대사가 잇달아 기록되어 있다. 용은 기린, 봉황, 거북 등과 함께 사령四靈이라 하여 본래 태평성세나 성현의 출현에 때맞춘 상서로운 조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왕의 상징인 용이 사라진 후 왕의 죽음이 잇따른다는 것과 같은 흉한 예시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용이 출현하고 나서 성인이 탄생한다든가 농사의 풍년, 변방 군사의 동태, 민심의 흥흥 등 국가적 길흉사가 잇따르기도 한다. 용의 출현은 태평성세나 성인의 출현에 때맞춘 상서로운 조짐, 국가의 흥망, 인간사의 길흉 전조가 된다.

신화 속 수신인 용과의 혼인을 통해 국조國祖, 군주, 씨족조氏族祖 등 귀인의 아버지로 나타난다. 신라 국조 박혁거세의 왕비를 낳는 것은 계룡鷄龍이고, 석탈해는 용성국 왕과 적녀국 왕녀의 소생이다. 백제 무왕 서동은 어머니가 과부로서 서울 남지 변에 살던 중에 그 연못의 지룡과 교통하여 출생하였고, 후백제 시조

1 장덕순은 용의 성격을 “至尊者로서의 性格, 물을 支配하는 者로서의 性格, 豫示者로서의 性格, 人間的 性格.” 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용전설과 <용기>의 용』,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111~113쪽.)



어좌 | 가로92 세로100 |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견훤은 광주 북촌의 부잣집 딸이 구렁이와 교혼하여 태어났다. 고려 태조 왕건은 작제건과 용녀 사이에서 태어난 용건의 아들이다. 창녕조씨昌寧曹氏 시조 조계룡은 용의 후예라고 하는 씨족의 시조 신화로 나타난다.

이런 사례들은 용이 국가권력의 신성성을 보증하는 상징물로, 고려 이전에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여 준다. 『고려사高麗史』 고려세계高麗世系에서 5대 작제건의 이야기가 가장 중심이 된다. 상징 동물인 용이 용왕이나 용녀라는 인격적 구성체를 띠고 고려세계에 떠오른 것은 이미 보편화된 상징성의 힘 때문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 작제건은 어려서부터 용기가 있고 총명하며 궁술弓術이 능하였다는 무용담을 남기고 있다. 성장하여 아버지가 당나라의 숙종이라는 것을 믿고 16세가 되어 아버지를 찾아 중국으로 가는데, 어느 곳에 이르자 배가 나아가지 않았다. 뱃사람들이 점을 치더니 고려 사람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해서 작제건이 바다에 남게 되었다. 그때 서해용왕이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처로 변신해 괴롭히는 여우를 물리쳐 달라고 하였다. 이후 활을 쏘아 그 여우를 퇴치한 보답으로 여러 가지 보물을 얻고, 용녀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 용궁에서 얻어온 돼지를 따라가 집터를 잡고 살았으나, 아내



보광사 대웅보전 반야웅선벽화 | 경기 파주 | 2023 | 파주시

가 용이 되어 영영 가 버리고 말았다. 작제건과 용녀 사이의 아들 넷 가운데 장남인 용건은 꿈에서 배필이 되기로 약속했던 미인을 길을 가다가 만나서 드디어 혼인하였다. 도선道謙이라는 풍수가 예언한 대로 과연 왕건이 출생하여 삼한의 주인이 되었다.

천후天候를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농경 문화권에서 군왕과 용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 그래서 군왕과 관련되는 사물이나 비범한 인물에게까지 용은 상징적으로 작용한다. 용이 가진 장엄하고 화려한 성격 때문에 흔히 용은 위인과 같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권이나 왕위가 용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임금의 얼굴을 용안龍顔, 임금의 덕을 용덕龍德, 그 지위를 용위龍位라 하였다. 이울러 임금이 앉는 자리를 용상龍床·용좌龍座, 임금이 입는 의복을 용의龍衣·용포龍袍, 임금이 타는 수레를 용가龍駕·용거龍車, 임금이 타는 배를 용선龍船이라 하였다. 심지어 임금이 흘리는 눈물을 용루龍淚라 하였다. 특히 임금이 즉위하는 것을 용비龍飛라 하는데, 세종 때 목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선조 여섯 대의 행적과 공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제목과 내용도 이러한 맥락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처럼 임금과 관계된 것에는 예외 없이 용과 관련시켰으니, 이는 용의 경이로운 조화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외경심과 신비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비상한 인물을 용으로 불러 미화하고 신성화하였다. 조간趙簡은 나

면서부터 양쪽 어깨에 용의 비늘이 있었는데, 바로 벽골제磬骨堤 용의 정령이라고 하였다. 그가 군의 하급 관리가 되어 하루는 느티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사또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나무 위에 쌍룡이 얽힌 것을 보았다. 꿈을 깬 뒤 사람을 시켜 알아보고 즉시 공부를 시키니 나중에 과거科擧에 1등으로 급제하게 되었다. 여기서 조간은 탁월한 인물로서 용에 비유되고 있다. 용의 비늘, 용의 정령, 용꿈 등이 모두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수호신守護神 — 호국·호법의 신

신라인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룡護國龍을 탄생시켜 우리 사상사에서 빛나는 호국정신의 극치를 이루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용의 상징으로는 호국·호법 등 수호신으로서의 상징이 있다. 우리나라 불교가 이러한 호법룡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용이 수호신의 위치를 굳히는 것은 진흥왕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호교護敎·호왕護王·호국신護國神 등 수호신으로서의 용 이야기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世宗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수왕은 죽어서도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지금까지 동해를 지킨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만파식적萬波息笛, 수로부인水路夫人, 망해사望海寺, 거타지居陀知, 황룡사皇龍寺 등 『삼국유사』만 하더라도 상당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불가에서도 지혜와 덕망이 높은 고승을 용상龍象이라 하고, 그런 인물이 머무는 사원을 용상굴龍象窟, 법력을 용상지력龍象之力 등으로 불렀다. 또 불상을 모신 감실은 용감龍龕, 사원을 용궁龍宮, 부처의 좌세坐勢를 용좌라 하는 것을 보면 부처를 용으로 비유함을 알 수 있다. 큰 물건을 용으로 부르는 관습도 있다. ‘용주龍舟’란 큰 배를 지칭하고, 용가자미·용가시나무·용트림·용가마 등에서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비범하고 탁월한 것은 용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다.



용문사 공포 위에 조각한 용머리 | 경남 남해 | 2000 | 국립민속박물관

용은 수호신으로서 호법신護法神 또는 호국신 역할을 한다. 호국룡의 경우 『삼국유사』 문무대왕(문호왕 법민,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에서 볼 수 있다. 문무왕은 죽은 후에 호국룡이 되어 불교와 국가를 수호하겠으니 시신을 동해 중의 큰 바위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하였다.

왕이 평시에 항상 지의법사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죽은 후에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오.”라고 하였고, 법사가 말하기를 “용은 짐승의 응보인데, 용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만파식적은 전반적으로 호국룡에 대한 내용이다. 즉 문무대왕의 현신으로서 등장한 용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만파식적을 왕에게 준다. 또 내용을 살펴보면 문무대왕이 바다의 용이 되었다든지, 점을 쳐 보니 문무왕이 용이 되어 삼한을 다스린다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삼국유사』에는 호법신에 관한 예도 많다.

- 금광사金光寺: 명랑사明朗師가 입당하여 도를 닦다가 돌아올 제 해룡의 초청을 받아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시주 받은 뒤 지하를 잠행하여 본택本宅의 우물로 나와 이에 절을 창건하였다.(『삼국유사』 권5 제6 신주편)
- 망해사望海寺: 신방사新房寺 동해의 해룡을 위하여 절을 지었다.(『삼국유사』 권2 기이편)
- 용왕당龍王堂: 해룡사海龍寺에 용왕당이 있는데 영이靈異가 많았다. 당시 용왕이 장경藏經을 따라와서 머물렀던 것인데 지금도 남아 있다.(『삼국유사』 권3 탑상편)
- 천룡사天龍寺: 속전俗傳에 이르기를 옛날 단가檀家가 있어 두 딸을 두었는데, 이름이 천녀天女와 용녀龍女였다. 부모가 두 딸을 위하여 절을 지었다.(『삼국유사』 권3 탑상편)
- 황룡사皇龍寺: 신인이 말하기를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맏아들이다.”라고 하였다.(『삼국유사』 권3 탑상편)
- 월성 동쪽에 신궁을 건축했더니 황룡이 나타났다.(『삼국유사』 권3 탑상편)
- (문수보살이) 혹은 청룡의 모양으로 나타난다.(『삼국유사』 권3 탑상편)
- 배나무가 쓰러졌으나 용이 그것을 어루만지니 살아났다.(『삼국유사』 권4 의해편)

사찰 연기설화 이외에도 불교의 건축, 조각, 공예, 불화 등에 등장하는 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호법룡이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의 벽화는 아미타 삼존과 인로왕보살, 지장보살 등 5존의 불보살이 용선을 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용선의 중앙에 장막을 치고 위에는 연꽃을 얹어 놓아 장식하였으며, 사면 기둥에 번을 드리웠다. 용선 아래에는 흰색과 먹으로 음영을 표현하여 파도가 일렁이는 넓은 대해를 실감하게 표현하였다. 용은 나라를 보호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국신이자 호법신이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고려건국신화 고려세계의 신화사적 고찰(조현설, 한국고전학회 제199차 정례 학술발표회 발표문, 한국고전학회, 1999), 용사상과 한국고전문학(이혜화, 깊은샘, 1993), 용전설과 용가의 용(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곤룡포

袞龍袍

왕·왕세자·왕세손의 상복(上服)으로, 옥대·익선관·흑피화와 함께 입던 옷.

역사 곤룡포(袞龍袍)는 명나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따르면 둥근 깃에 좁은 소매가 달린 황색 포(袍)이다. 포의 앞뒤와 양어깨에는 직금반룡(織金盤龍)으로 장식하였으며, 허리에는 옥대(玉帶)를 띠고, 발에는 피화(皮靴)를 신었다. 관은 절각(折角)이 위를 향한 오사모(烏紗帽)로, 이를 익선관(翼善冠)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1444년(세종 26) 사은사(謝恩使) 유수강(柳守剛)이 칙서와 함께 관복(冠服)을 가지고 왔다. 북경에서 온 포복(袍服)은 저사대홍직금(紵紗大紅織金) 곤룡포, 사대홍직금(紗大紅織金) 곤룡포, 나대홍직금(羅大紅織金) 곤룡포 등 세 벌이다. 앞가슴과 등, 양어깨에 부착하는 용무늬 보(補)에 관한 기록은 이때 보이지 않는다. 다만 1449년(세종 31)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이 “예전에 나는 사조룡의(四爪龍衣)를 입었는데 뒤에 듣자니 중국에서는 친왕이 오조룡복을 입는다가 나 또한 이를 입고 천사(天使)를 대접하였는데, 그 뒤에 황제가 오조룡복을 하사하였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사조룡복을 입게 하면 내게도 혐의가 없고 중국의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1449년에 오조룡보 곤룡포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경기전(慶基殿)에는 청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태조와 홍색 곤룡포를 입은 영조, 황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고종의 어진이 남아 있다. 세종 이후에는 왕의 곤룡포 색이 대홍색으로 바뀌었으나 그 이전에는 정해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조가 청색의 곤룡포를 입은 것은 동방의 길색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태조의 자주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초기에는 곤룡포에 부착하는 용보(龍補)가 직조된 것이었으나 후기에는 수를 놓은 보를 포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내용 곤룡포는 왕의 시사복(視事服), 왕세자의 서연복(書筵服), 왕세손의 강서복(講書服)에 해당하는 옷으로 각 신분과 역할에 맞게 옷의 명칭을 달리한다. 왕의 곤룡포가 시사복인 이유는 곤룡포를 입고 정무를 보기 때문이며, 왕세자의 곤룡포가 서연복인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이기 때문이다. 강서복 역시 왕세손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외에 곤룡포는 임금이 중국으로부터 온 조서와 칙서를 맞이할 때, 정조(正朝)(설날 아침)와 동지(冬至)에 회례할 때, 매달 초하루와 5·11·21·25일 조회에 참석



영친왕 윤보문사 홍룡포 | 전체길이120 | 국립고궁박물관

할 때, 상참(常參)할 때, 문과·무과의 과거시험을 볼 때, 생원 방방의(放榜儀) 때, 양로의(養老儀) 및 일본과 유구국 등 주변 국가로부터 서폐(書幣)를 받을 때와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 때, 사단(射壇)에서 활을 쏘거나 활 쏘는 것을 관람할 때, 군사훈련에 친히 참석하여 열병을 받을 때 착용하였다.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 도설을 보면, 왕의 시사복으로 익선관·대(帶)·화(靴)와 함께 목이 둥근 곤룡포가 일습을 이룬다. 왕의 곤룡포는 대홍단(大紅緞)으로 만드는데 여름에는 대홍사(大紅紗)로 하고, 포의 앞·뒤·양어깨에 금(金)으로 된 오조원룡보(五爪圓龍補)를 붙인다. 왕세자의 곤룡포는 흑단(黑緞)으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사(黑紗)로 만들며, 제도는 임금의 포와 같다. 포의 앞과 뒤, 좌우 어깨에는 사조원룡보(四爪圓龍補)를 붙인다. 왕세손의 곤룡포 역시 왕세자와 같은 흑단으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사로 만들며, 제도는 왕세자의 포와 같다. 다만 포의 전후에 삼조방룡보(三爪方龍補)를 붙이는데 어깨에는 붙이지 않는다. 곤룡포의 복색은 황제는 노란색, 임금은 홍색, 왕세자와 왕세손은 흑색(아청색)이다. 고종이 황색 곤룡포를 입은 것에는 대한제국의 황제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외에 현전하는 유물 중 자적색 용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데, 이는 영친왕 이은(李垠)(1897~1970)의 상복으로 삼다(三多)를 상징하는 복숭아·석류·불수가 어우러진 자적도류불수문단(紫的桃榴佛手紋緞)으로 만들어져 있다.

왕의 대는 옥에 용무늬를 조각하여 대홍단으로 짠 다음 금으로 다섯 선을 그렸다. 이때 용은 투각하여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왕세자의 대는 옥



고종 어진 | 가로104 세로180 두께9 | 국립중앙박물관

을 조각하지 않은 채 흑단으로 싸고 금으로 그렸다. 왕세손의 대는 조각하지 않은 수정을 청단靑緞으로 싸고 금으로 그렸는데, 왕세자라도 관례 전에는 수정대를 띠었다.

왕의 화靴는 흑제자피黑麋子皮로 만들고, 여름에는 흑서피黑黍皮로 만들었다. 왕세자와 왕세손의 화는 모두 왕의 것과 같았다. 화는 발목이 올라온 신발로 발목이 없는혜鞋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었다. 특히 화를 신으면 진흙이 옷에 튀는 불편함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었다.

익선관은 모정帽頂이 두 층으로 된 형태이며, 귀 같이 생긴 양 각이 관 뒤에 붙어 있다. 관은 모라帽羅로 싸고 양 대각에 양 소각을 뒤에 붙여 위로 올린 형태이며, 시대에 따라 세부적인 형태가 변하였다. 영조 대의 익선관은 태조 대에 비해 모정의 위치가 높아지고 뒤에 붙은 양 날개의 크기도 커졌다. 그러나 고종 대가 되면 모정의 높이가 다시 낮아지고 양 대각의 크기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시대에 따른 양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한편 왕세자와 왕세손이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쌍상투

인 쌍동계를 하고 쌍옥도를 잠簪으로 꽂은 다음 익선관 대신 공정책空頂幘을 썼다. 관례 전 장복章服을 입을 때 쓰는 책幘의 제도는 면류관과 같으나 판版과 류旒가 없으며 모라로 쓴다. 지금紙金으로 장식하며 양쪽 옆에 붉은색 끈인 주조朱組가 있다.

곤룡포는 소매의 형태를 비롯해 옥대를 매는 위치, 단령의 깊이 등이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태조는 좁고 긴 소매의 곤룡포를 입었으나 영조와 고종의 곤룡포는 두리소매이다. 대를 매는 위치도 태조는 배꼽 아래에 옥대를 두고 있는 반면 영조와 고종은 가슴에 옥대를 매고 있다. 이는 곤룡포가 매일 입을 짐부복이므로 면복이나 원유관복과 달리 고례를 따르기보다는 왕의 체형과 시속時俗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징 및 의의

곤룡포의 특징은 앞가슴과 등, 양어깨에 놓인 용무늬이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늬로, 임금의 용보는 용의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원룡보이고 왕세자의 용보는 발톱이 네 개인 사조원룡보이다. 왕세손은 네모난 형태이면서 용

의 발톱이 셋인 삼조방룡보를 가슴胸과 등背에만 달고 있어 흉배胸背라고 해야 옳을 것 같지만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는 방룡보로 기록되어 있다.

용보에 나타나는 용의 형상은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태조의 곤룡포에 그려진 용은 S자로 몸을 틀고 움직이는 비룡이며, 힘찬 발톱 다섯 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용의 입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초창기 개국을 알린 왕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반면에 영조의 곤룡포에 그려진 용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 역시 발톱 다섯 개를 서리고 있으나, 정면을 바라보는 용의 얼굴이 시선을 빼앗아 활동성을 드러내기보다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문화적 황금기였던 당시의 시대성이 반영된 것으로 조선 왕실의 르네상스를 느끼게 한다.

조선 초 곤룡포는 직조 과정에서 금사를 넣어 오조원룡보를 표현하였으나, 고종의 곤룡포에는 금사로 수놓은 오조원룡보를 별도로 만들어 붙였다. 특히 고종의 오조원룡보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여의주가 있어 다른 용보와 다른 양상을 띤다. 가슴과 오른쪽 어깨에는 해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여의주가 있고, 등과 왼쪽 어깨에는 달을 상징하는 흰색의 여의주가 있다. 용의 몸통은 아주 정교하게 비늘을 수놓았으며, 보의 가장자리는 능선으로 마감하여 왕·왕비의 것과는 차등을 두었다.

참고문헌 觀射于射壇儀,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大閱儀, 武科殿試儀, 文科殿試儀, 射于射壇儀, 常參儀, 生員放榜儀, 受隣國書幣儀, 養老儀, 宴隣國使儀, 迎詔書儀, 迎勅書儀, 五日朝參儀, 王世孫講書服制度, 王世子書筵服制度, 殿下視事服圖說, 正至會儀, 朝鮮王朝實錄, 곤룡포(이은주, 조선왕조실록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필자 이민주(李民周)

김부대왕
金傅大王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과 그의 아들 마의태자에 얽힌 설화.

내용 줄거리

〈김부대왕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그중 〈김부대왕 호국룡〉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설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경상북도 울릉도 부근에 섬이 많아 왜구들이 그 섬을 기지로 하여 쳐들어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또한 포항 부근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 물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그러자 김부대왕은 자신이 죽어 용이 되어 섬들을 없애겠다고 하였다. 김부대왕이 죽은 후 손살맥이에 큰 뱀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모두 뱀이라고 하였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뱀 구경을 갔는데, 등에 업힌 손자 유금이 용님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 큰 뱀은 용이 되어 산과 섬을 쳐서 없앴다. 용이 울릉도까지 없애려 하자, 하늘에서 나라의 수구맥이니 치지 말라고 해서 멈췄다. 울릉도 밑으로 보면 그때 없어진 섬의 흔적이 보이고, 산을 쳐서 만들어진 평야는 할머니 등에 업혀 용님이라고 하였던 아이의 이름을 따서 '유금이들'이라고 한다.

변이

〈김부대왕설화〉는 대부분 경순왕을 주인공으로 한다. 초기 설화는 호국룡 계통이고, 이어서 미륵세계·신비담·서낭당신화 등으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경주시와 그 인근 지역에는 김부대왕이 죽어 왜구의 근거지인 섬들을 없애고, 산을 뚫어 유금이들을 만든 내력을 중심으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이때 중요한 화소는 뱀을 용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의 입장을 알아본 것이다.

충청남도 보령시를 중심으로 전하는 설화는 미륵신앙으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보령시에 살고 있는 김씨가 꿈을 꾸었는데, 황룡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바다에 가서 자신을 건지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씨가 바다에 가 보니 '호서옥마산김부대왕지기湖西玉馬山金傅大王之旗'라는 깃발과 '경순대왕김부신주敬順大王金傅神主'라는 위패가 있어, 그것을 가져와 집에 모셨더니 집안이 풍족해졌다.

경기도 시흥시 주변에는 김부대왕을 모신 서낭이 있는데, 그 서낭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설화가 전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렇다. 김부대왕은 나라의 운명이 다하자 시흥시 군자동에 와서 안씨 부인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고, 안씨 부인도 남편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다가 죽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서희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안씨 부인의 영혼이 서희의 뱃길을 보호해 주었다. 그 은공으로 서희가 서낭을 지어 주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하는 〈김부대왕설화〉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 대부분 마애미륵불과 지명 유래를 중심으로 변이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두드러진 점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설화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김부대왕설화〉는 원주시의 미륵산과 귀래면, 황산이라는 지명 유래들에 얽혀 있는데 이는 이규경의 〈김부대왕변증설〉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규경은 인제군에서 김부대왕을 모시며 제사한다는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인제군에는 경순왕 이야기도 전하지만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그것을 학자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국권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이

처럼 건강부회한 것 같지만 심상치 않은 면도 있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김부대왕에게 의탁해서 자식을 낳고 대왕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옥새를 보전하고 있다는 옥새바위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일찍부터 학자들은 〈김부대왕설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호국룡설화의 계통을 잇고 있으며, 그 변이가 새롭기 때문이다. 설화의 중심은 사람들이 큰 뱀이라고 칭할 때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유금이 용님이라고 말하자 바로 일어나 용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왕이 아무리 비약을 피하고 큰 뜻을 품어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칠 때 백성들의 뜻으로 행하였음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 설화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곧 조상신과 미륵불 조성자 그리고 자녀, 서낭신으로서의 김부대왕이 그것이다. 조상신은 후손에 의해 지어진 사당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미륵불은 사찰을 중심으로 그의 자손들과 같이 설화로 전승되며, 서낭신은 김부대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 나라를 잃은 왕, 그래서 한을 품고 죽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으로 모셔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낭신으로 모셔지는 것은 무속신앙의 일종이다. 인제군에서 김부대왕각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설화는 일제강점기 때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마의태자로 전이돼서 전한다는 의견이다. 그 때문에 김부대왕金富大王으로 한자를 쓰는 〈마의태자설화〉는 대궐터, 산성, 군사훈련, 전투, 옥새의 모티프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마의태자설화〉는 민중의 시대적 욕구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김부대왕설화〉가 많이 전하는 까닭은 인구에 회자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였고, 한이 많은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부대왕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의미, 변이, 유형, 전승양상을 비롯해서 제의, 지명설화의 정착, 문화 콘텐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마의태자에 대해서는 소설과 희곡과 노래들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징 및 의의

경순왕과 그의 아들인 마의태자의 설화가 같이 전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유형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언급된 내용과 일치한다. 곧 경순왕을 주축으로 전승하는 것은 백성의 안위가 주요 모티프이고, 마의태자를 주축으로 전하는 것은 구국에 있다. 경순왕과 마의태자 둘 다 김부대왕이라 일컬었으나 한자 표기가 다르다. 또 〈문무왕설화〉에서 볼 수 있는 호국룡 모티프가 등장하나 유금이들, 서낭신, 미륵신앙 등으로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五洲衍文長箋散稿, 강원외설화(강원일보사, 2007),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전신재, 강원민속학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김부대왕제 연구(이학주, 동아시아고대학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김부사적기(리태두,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8), 내고장 안산(내고장안산편찬위원회, 안산문화원, 1990),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인제조상의 얼(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태백의 설화(강원일보사, 1974).

필자 이학주(李學周)

만파식적

萬波息笛

신문왕^{神文王}이 바다의 용에게 얻은 신기한 대나무 피리인 만파식적에 관한 전설.

내용 해관 박숙청이 신문왕께 “한 작은 산이 감은사를 향해 떠 온다.”라고 보고하였다. 일관이 점을 쳐서 “이는 용신 문무왕과 천신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대보를 줄 징조”라고 아뢰었다. 왕이 그달 이렛날 이견대로 거둥하고 심부름 간 사람이 돌아와서 “산 모양은 거북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 막대가 한 개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였다. 왕이 감은사에 묵던 이튿날 대가 합쳐서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레 동안 캄캄하다가 16일이 되어서야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자 용이 검은 옥대를 가져와 바치고 “이 대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으시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금과 옥으로 시주하고 칙사가 대를 꺾어 바다에서 나왔다. 왕의 행차가 돌아와 그 대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방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나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졌으므로 이름을 ‘거센 물결을



이견대 | 경북 경주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지게 하는 대(萬波息笛)’라 하여 국보로 일컬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 부래섬, 대, 피리, 피리의 명칭, 피리의 기능은 항체로 전승되고 있다. 반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대체로 생략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만파식적설화>가 증여담의 보편 구조로 기억·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 및 의의

발생학적으로는 국가적 제의에 근거한 설화 혹은 용신국의 구술상관물로 볼 수 있다. 신앙적으로는 토착룡·호법룡·호국룡이 결합한 한국 고유의 호국불교신앙과 관계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신문왕 당대의 국내외 문제 해결과 김씨 왕족의 정통성 확립과 관련된다. 사상적으로는 예악을 강조하는 유교 정치이념의 표방을 나타내며, 음악적으로는 신라 나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만파식적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박진태, 국어교육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만파식적설화의 역사적 의미(김남형, 한국학논집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만파식적설화의 연구(장장식, 국제어문6-7, 국제어문학회, 1986),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김상현, 한국사연구34, 한국사연구회, 1981),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서정범, 한국민속학8, 한국민속학회, 1975).

필자 김화경(金和經)

문무왕

文武王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로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왕에 관한 전설.

내용 문무왕^{文武王}은 죽으면서 동해 가운데 큰 바위 위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였다. 왕이 평상시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떠받들고 국가를 보위하리라.”라고 하였다. 이에 법사가 말하기를 “짐승으로 태어나서 용이 되어도 좋겠나이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 영화를 싫어한 지가 오래되었다. 만약에 내가 나쁘게 태어나 짐승이 된다면 나의 소망에 꼭 맞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문왕은 부왕인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 변에 감은사를 지었다. 절 기록에 이르기까지 문무왕이 일본 군사를 진압하기 위하여 처음 이 절을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어 용이 되었으며,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682년에 내부 장치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절 문지방 아래 동쪽을 향하여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서릴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한다. 유언에서 뼈를 간직하라는 곳이 대왕암이요, 절 이름이 감은사며, 현신한 장소를 이견대라 하였다



문무대왕릉 | 경북 경주 | 문화재청

고 한다.

〈문무왕설화〉에서 용은 전승 과정에서 전통신앙의 용과 호국룡으로 나타난다. 유금이들과 문무왕의 득천은 풍요 혹은 농업신의 용으로, 열두 개의 섬과 문무왕의 득천은 호국신의 용으로 현신한 예이다.

특징 및 의의

〈문무왕설화〉는 불교의 윤회사상에 기반을 두면서도 문무왕이 스스로 사후死後에 용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왜 문무왕이 스스로 용이 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 답하기는 간단치 않다. 다만 불교에 기초한 호국룡으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용은 전래 신앙 대상으로서 용과 불교의 호법룡이 조화하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호국룡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호국룡설화를 계승하면서도 문무왕이 자임하여 호국룡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에 기반을 둔 다른 호국룡과도 구별된다. 이에 따라 이 설화가 한국적 호국룡설화라는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기린굴신화 연구(전관수, 동방학지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만파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김남형, 한국학논집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문무왕 호국용 설화의 교육적 의미(이동철, 한민족 문화연구16, 한민족문화학회, 2005), 문무왕의 사상과 대왕암전설(영전정지,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문무왕의 산골 처와 문무왕릉비(김창호, 경주문화연구9,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필자 김화경(金和經)

미륵사

彌勒寺

전라북도 익산시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내력을 밝힌 전설.

내용 부여의 한 과부가 용과 정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집이 가난해 산에서 마를 캐어 생계를 꾸려 갔기에 마동 또는 서동甝童이라 불렀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경주로 갔다. 그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서동요〉라는 이 노래는 곧 경주에 퍼졌는데,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을 몰래 만나 정을 통한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은 깜짝 놀라 선화공주를 멀리 귀양 보냈다. 이때 왕비가 공주에게 황금 한 말을 주었다. 공주의 귀양 길을 뒤따르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서동이였다. 공주는 운명으로 알고 서동을 따라갔다. 공주가 황금을 내놓자 서동은 그것이 산에 많다고 하였다. 공주가 따라가 보니 과연 황금이 널려 있었다. 지명법사의 도력으로 황금을 신라의 진평왕에게 보내 인심을 얻어 서동은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 어느 날 무왕과 공주가 용화산의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는데, 산 아래 큰 연못에 이르자 미륵삼존이 출현하였다. 두 사람은 경배하였고, 못을 메우고 절을 짓기로 하였다. 진평왕도 많은 일꾼을 보내 도움을 주었는데, 이때 완공된 절이 바로 미륵사彌勒寺이다.

〈미륵사전설〉은 향가 〈서동요〉의 배경설화로 유명하다. 백제의 무왕과 왕비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륵사 창건주이자 당시의 왕은 무왕이 아니라 백제의 동성왕東城王(재위 479~501) 또는 무령왕武寧王(재위 501~523)이라는 주장이다. 동성왕은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해 493년 신라에 혼인동맹을 요청하여 신라 왕족 이찬 비지比智의 딸과 혼인하였다. 백제의 왕이 신라 왕족과 결혼한 예는 동성왕뿐이어서 동성왕이 이 전설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이병도의 설이다. 또 사재동은 무왕이 무강왕武康王이라는 기록도 있고, 무령왕의 출신과 관련한 전설이 〈무왕전설〉과 비슷하며 그와 같이 주장한다. 〈서동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라의 고승 원효일 것으로 추론하여 주인



미륵사지석탑 | 전북 익산 | 문화재청

공이 원효라고 하는 김선기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다른 역사가 최근에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9년 1월 19일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굴한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에 따르면 미륵사를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한 사람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 한다. 건립 연대도 기해년(639)으로 나와 있어 무왕의 재위기간인 600~641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로써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음이 증명되었다.

특징 및 의의

〈미륵사전설〉은 신화, 민담, 전설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 구조이다. 앞부분인 서동 탄생설화는 마한을 세웠다는 〈무강왕신화〉이고, 중간에 마를 캐는 산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것은 〈내 복에 산다〉 민담 구조와 같으며, 끝으로 미륵사의 창건 동기는 전형적인 사찰연기전설이다. 전설은 기억되는 역사로 가변성이 강하다. 익산 지역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준왕(무강왕)이 마한을 세웠던 땅이며, 백제시대의 별궁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하나의 전설 속에 뒤섞여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에 바탕을 둔 〈미륵사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東國輿地勝覽, 三國遺事, 마한신화(나경수, 민속원, 2009), 서동설화 연구(사재동, 장암지현영선생 학갑기념논총, 1971), 서동요(나경수·서해숙, 한얼미디어, 2005), 서동요 연구(김승찬, 국어국문학35,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8), 싹뚱 노래(김선기, 현대문학151, 현대문학, 1967).

필자 나경수(羅景洙)

백마강

白馬江

당나라 장수가 용으로 변신한 백제왕을 죽여 백제 침공에 성공하였다는 백제 멸망에 관한 전설.

내용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용이 되어 사비강을 지키는 백제왕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은 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백마라는 걸 알아내고 백마를 낚싯대에 꿰어 사비강가 바위에서 용을 낚아 잡았다. 이때부터 그 강을 백마강白馬江이라고 하고, 용을 낚은 무릎 자국이 남아 있는 바위는 조룡대라고 부른다.

각편에 따라 사비강을 지키는 왕이 의자왕과 무왕으로 나뉜다. 의자왕인 각편에서는 의자왕이 낮에는 인왕人王, 밤에는 용이 되어 백제를 지킨다. 무왕인 각편은 의자왕이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자 그의 부왕인 무왕이 분노하여 강에



백마강 | 충남 공주 | 한국관광공사

비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개된다.

용과 대립하는 인물로는 주로 소정방이 등장하는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백제왕의 사위로 설정해 이색적이다. 이런 각편에서는 백마에 대해 알려 주는 인물로 백제왕의 딸이 설정되어 비극성이 가미된다. 무왕인 각편에서는 백마에 대해 알려 주는 인물이 애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용의 죽음은 단지 백마강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확장되어 공주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특징 및 의의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 지역에 전승되는 백제의 대표 설화로 백제 멸망에 관한 지역민의 의식을 지역의 산천을 증거물로 삼아 진실성 있게 표출하고 있다. 백마강 주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명전설로 남아 있는 곳이 다수인데, 용이 날아갔다는 용전리, 낚인 용이 용전리에 떨어지자 검은 연기가 자욱하였다는 거문내, 용이 썩어 냄새가 났다는 공주 구린내 등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부여군지(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의 구비설화(김군태, 보경문화사, 1995), 부여의 전설집(김석기, 화산출판사, 1989), 의자왕 관련 전설의 전개 양상(황인덕, 백제문화3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4), 전설과 지역문화(최운식, 민속원, 2002).

필자 이상희(李尙姬)

용두 龍頭

용머리 모양의 마루장식기와.

내용 용두龍頭는 양질의 점토로 조각하여 높은 온도로 구워 만든 장식기와로, 용의 머리를 형상화하였다. 용은 수신水神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벽사의 상징으로, 용머리인 용두는 고려 후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목조건물의 각 마루에 이어졌고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고려의 용두는 개성 만월대開城 滿月臺와 파주 혜음원지坡州 惠陰院址에서 출토되었는데, 입을 벌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두 눈동자가 튀어나온 무서운 모습이다. 조선의 용두는 고려의 용두를 계승하였는데, 취두鸞頭·잡상雜像·토수土首 등과 조합되어 궁궐 건축의 위상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호와 길상·벽사를 나타냈다.

조선 전기의 용두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楊州 檜巖寺址와 서울 경복궁景福宮 및 진관사津寬寺에서 출토되었다.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용두는 힘차고 정제되었으며, 경복궁에서 출토된 청유용두靑釉龍頭는 파손되었으나 궁궐 건축의 화려한 장식성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용두는 궁궐과 관아, 능원과 사원 등의 각 마루에 현재까지도 이어져 중요한 자료가 된다. 용두는 취두가 설치된 용마루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 내림마루 끝에 이어지며, 잡상이 배치된 추녀마루에는 맨 안쪽에 놓인다. 취두가 설치되지 않는 용마루에는 망외望瓦가 용두와 함께 이어져 그 끝을 막음한다.

조선 후기의 용두는 이마의 뿔 장식과 머리에 돋은 박산博山, 즉 척목尺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이마에 뿔이 돋지 않는 용두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도설圖說된 용두와 같은 모양이다. 입에는 이빨이 드러나고 윗입술이 들려 있으며, 후두에는 머리털이 뭉쳐 뽕뽕했다. 종묘 어재실宗廟 御齋室의 내림마루와 창경궁 통명전昌慶宮 通明殿의 추녀마루, 동구릉 건원릉의



종묘 어재실

봉은사 판전

문경 관산지관

용두 | 2014 | 김성구



창경궁 명정전 마루장식기와 | 서울 종로구 | 2014 | 김성구

정자각 등에 이어진 용두는 뿔이 생략되었으나 입을 벌려 이빨이 드러나고 두 눈이 돌출한 무서운 모습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마에 뿔이 돋은 용두로, 매우 다양하다. 이마의 뿔은 굽었거나 직립하였는데 경기도 파주 보광사坡州 普光寺의 대웅전大雄殿, 안성 죽산향교安城 竹山鄉校의 대성전, 경상북도 문경관아의 관산지관冠山之館 등의 용마루 등에 이어진 용두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머리에 돌기와 같은 박산, 즉 척목이 장식된 용두이다. 중국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용의 각 부위 특징을 적고 “머리에는 박산이 있는데, 이를 척목이라고 한다. 용에게 이 척목이 없으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라고 설명한 대목이 있다. 이를 통해 용에게는 척목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 봉은사奉恩寺의 판전板殿과 동구릉 원릉 비각의 용마루, 안성 칠장사安城 七長寺의 대웅전 용마루와 경복궁 천추전景福宮 千秋殿 용마루 및 내림마루 등에 이어진 용두는 머리에 삼각형 또는 원형의 돌기와 같은 척목이 돋아 있다.

이 외에 용두 상단에 오지창五枝槍이 설치된 것과 퇴화된 모습의 용두가 약간씩 제작되어 다양한 변화를 보여 준다. 오지창은 조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경복궁 광화문光化門과 근정문勤政門, 창덕궁 돈화문敦化門 등의 각 마루에 이어진 복제된 용두에 오지창이 설치되었다. 퇴화된 용두는 종묘 정전의 서문과 동구릉 원릉의 비각 등의 용마루에 이어졌는데, 입을 벌린 채 얼굴의 각 부위가 간소화되어 조선 말기의 작례作例를 보여 준다.

특징 및 의의

용두는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내고 윗입술이 들린 형태를 하고 있다. 두 눈은 눈동자가 튀어나와 귀목鬼目과 닮았으며, 이마에는 뿔이 돋고 척목이 돌기해 있다.

용두는 건물 외곽을 경계하는 무서운 모습으로 각 마루에 이어지면서 물을 다 스리는 수신 형상화를 통하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벽사와 위엄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마루장식기와(양주회암사지박물관, 2014), 조선 궁궐의 막새기와 문양과 장식기와(김홍식, 민속원, 2009), 조선시대의 왕실 마루장식기와(김성구, 동아시아 중·근세 왕실마루장식기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 2023).
필자 김성구(金誠龜)

유금이들

경상북도 경주와 인근 지역에서 <유금이들>의 유래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용이 된 임금이 처수를 완성하고 이를 알아본 유금이에 힘입어 승천할 수 있었다는 전설.

내용 신라 김부대왕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주의 절반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큰비가 오면 경주가 자주 물에 잠겼다. 산(형제산)을 뚫어 물꼬를 트기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해도 물이 차 있어 쉽지 않았다. 김부대왕은 천년의 도읍지가 될 자리가 경주 터인데, 그런 장소로 못 만드는 것을 아쉬워하며 “내가 죽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할 적에 물꼬를 막고 있는 산을 쳐내어 물꼬를 트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김부대왕이 죽어 큰 구렁이(이무기)가 되어 경주 어느 들에 엮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용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에 유금이라는 영리한 아이가 구렁이를 보고 “아, 용님 나오신다.”라고 외쳤다. 구렁이가 꼬리로 동해 열두 섬을 치고서 울릉도를 치려고 하자, 아이가 “울릉도는 용의 것이니, 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열두 섬을 친 구렁이는 용이 되어 형제산을 둘로 갈라놓고 승천하였다. 이후 대왕이 용이 되어 승천하게 도와준 유금이라는 아이를 기려 용이 승천한 들을 ‘유금이들’이라 하였다. 또한 나누어진 두 산을 형산(兄山)과 제산(弟山) (아우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유금이들> 이야기의 주요 모티프는 ‘용이 된 임금’과 ‘임금(용)을 알아본 백성’이다. 유금이들이란 지명의 유래를 밝히는 지명 유래담이지만, 용이 백성을 위해 농사지를 땅을 만들고 백성이 용을 알아본다는 설정이 중심 모티프인 셈이다. 문무대왕을 주인공으로 하여 경주 지역에서 전승되는 전설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의 열두 섬을 쳤다는 식으로 호국 의식이 강조된 반면,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서 채록된 유금이들 이야기는 왕이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민중 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용 관련 전설은 이

후 청룡과 황룡, 혹은 청룡과 백룡 등의 싸움에 인간이 관여하여 많은 토지를 얻거나 화를 입게 된다는 도조 유형의 전설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및 의의 <유금이들> 이야기는 경주 지역에서 다수 채록되었는데, 구미 지역에서 채록된 것에는 왕의 이름이 없으나, 경주 지역에서 채록된 것에는 왕의 이름이 김부대왕(경순왕)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주시 감포의 대왕암·수중룡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전승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9), 용 싸움에 끼여든 도조유형 설화의 서사구조와 갈래 차이의 현장론적 분석(김진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 조정현(曹鼎鉉)

호국룡

護國龍

나라를 수호해 주는 용.

개관 호국룡(護國龍)은 나라를 수호해 주는 용(龍)으로, 불법을 수호해 주는 호법룡(護法龍)에서 발전한 호국신앙(護國信仰)을 보여 준다. 신라의 불교가 호국불교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호법동물(護法動物)인 용이 개입되어 호국룡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선덕여왕(善德女王) 때 황룡사(皇龍寺)를 지키던 호법룡이 있었는데, 구충탑을 세워 나라를



문무대왕릉 | 경북 경주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보호하고자 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무왕文武王은 삼국을 통일한 후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하였으며, 유언으로 바다에 장사지내라 해서 나중에 호국룡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문무대왕릉 전설로 남았다. 이후 호국룡은 왜구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형태의 설화를 낳았으며, 김부대왕과 호국룡이나 유금이들의 형성처럼 변이 형태가 생성되었다. 문무왕의 호국룡 이야기는 고려시대의 <작제건설화>,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처럼 호국 또는 왕의 상징으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드러낼 때 쓰였다.

내용 호국룡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상징적인 용이다.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호국룡은 불법을 수호해 주는 호법동물이다. ‘명랑신인조明郎神印條’에 의하면 명랑법사明朗法師가 당나라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바다 용이 청하여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금광사金光寺를 지었다고 한다. 훗날 당나라 군사가 신라를 치려 하자 문무왕이 법사를 불러 비법을 써서 물리쳤다. 이후 호법룡은 나라를 수호해 주는 호국룡으로 발전하게 된다. 호국룡은 ‘황룡사구층탑조皇龍寺九層塔條’에도 등장한다. 자장법사慈藏法師가 당나라에 유학하였을 때 태화지太和池라는 연못에서 신인神人이 나타나 대화하는데, 신인의 아들이 황룡사를 지키는 호법룡이며 호법룡을 위해 구층탑을 세우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선덕여왕은 자장법사의 말을 듣고 호법룡이 있는 황룡사에 용을 위해 구층탑을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였다. 또 ‘원성대왕조元聖大王條’에도 나라를 지키는 호국룡 이야기가 나온다.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河西國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신라를 지키는 호국룡 세 마리를 잡아가서 작은 고기로 바꾸었다. 그러자 용의 아내가 임금에게 상소해서 용을 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호국룡은 『삼국유사』 ‘문호(무)왕법민조[文虎武王法敏條]’에서 두드러진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이루는 큰 공적을 남겼으나 항상 나라 걱정이 심하였다. 이에 그는 지의법사智義法師에게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숭배해서 나라를 수호하려 하오.”라고 하였다. 지의법사가 “용은 짐승의 응보인데 어찌 용이 되신단 말씀입니까.”라고 하자 왕은 다시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가 오래되오. 만일 추한 응보로 내가 짐승이 된다면 이야말로 내 뜻에 맞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그런 연유로, 문무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인



문무왕룡비편 | 가로40 세로66 | 경북 경주 |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681년에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 동해 중東海中の 큰 바위에 장사를 지냈다. 이 고사는 ‘만파식적조萬波息條’에 이어진다. 신문왕 때 동해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감은사感恩寺를 향해 온다고 하자, 일관日官에게 점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일관은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진호鎮護하고 계십니다.”라며 김유신도 천신天神이 되어 신라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감은사에 가서 보니,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배를 타고 섬으로 가서 대나무 옥대를 얻었다. 이 대나무는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내렸는데,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고 하였다. 피리는 신라의 보물로, 적병을 물리치고 병을 낮게 하는 등의 신통함을 보였다. 이는 문무왕과 김유신의 혼령이 준 대나무로 만든 피리인 만파식적萬波息笛이 생긴 유래이며, 문무왕이 용이 되어 가는 것을 봤다는 이견대利見臺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뜻에 감사하여 지은 절인 감은사로 이어진다.



용비어천가 | 조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처럼 호국룡 이야기는 호법룡에서 전승되었으며, 호법룡은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용이었다. 신라가 불교를 신봉하면서 나타난 조화의 동물 용이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룡으로 발전한 이야기이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스님이었기에 호법룡과 호국룡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김부식金富弼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짧게 기록되었다. 이는 대왕암大王岩이 생긴 유래인데, 문무왕이 죽은 후 화장하여 대왕암 부근에 뿌려 장사지낸 일에 기인한다. 곧 “7월 1일 왕이 돌아가시니, 시호를 문무라 하였다. 군신이 유언에 따라 동해 대왕암에 장사지냈다. 속전에는 왕이 용으로 변하였다 하여 그 돌을 대왕석大王石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문무대왕릉文武大王陵이 생긴 유래를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新羅本紀」 문무왕 21년(681)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김부식은 호국룡 이야기에서 불교와 관련된 사실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신라의 호국룡 이야기는 고려 건국과 조선 건국에도 이어졌다. 용은 작제건作帝建을 도와 훗날 고려를 건설하고 임금이 되게 하였다. 조선의 건국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는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로 시작한다. 호국룡을 있게 한 호법룡과 호국신앙은 임진왜란 때 승군의 출병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승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는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호국룡 이야기의 원형을 간직한 경주 문무대왕릉은 현재 사적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해중릉과 이견대 등은 용신앙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승리를 기원하는 용신제가 열렸고, 경주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문무대왕 춘추향사, 추모예술제, 방생제, 무속의 용신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학계에서는 호국룡 이야기의 정치성, 변이설화의 의미, 문화 콘텐츠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호국룡 이야기의 대표격은 문무대왕릉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이야기를 분석한 임재해에 따르면 문무왕의 호국룡 이야기가 설화로 전승하면서 그 주인공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변이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원형과 가장 가까운 문무왕형文武王型, 둘째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김부대왕형金傅大王型, 셋째는 유금有琴이라는 아이의 정직과 관련하여 이야기되는 유금이들형이다.

문무왕형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삼국통일을 한 문무왕이 왜구의 침입이 걱정되어 호국룡이 되어 왜적을 막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 문무대왕릉에 묻혔다. 신문왕이 선왕의 유언이 이루어지도록 감은사에서 축수하고 이견대를 쌓아 용의 승천을 보았다. 문무왕이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왜구가 있는 동해 열두 섬을 쳤고, 울릉도는 수구맥이라서 섬을 치지 않았다.

김부대왕형은 왜구가 동해 열두 섬에 주둔해서 노략질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부대왕은 죽어서 용이 되어 왜적을 막고자 하였다. 김부대왕이 죽어 큰 뱀이 되어 안강들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뱀이라고 하는데 할머니 등에 업혀 있던 유금이라는 아이가 용이라 하였다. 그러자 용이 된 김부대왕은 강을 막고 있는 산을 뚫었고, 이어서 동해 열두 섬을 쳐서 왜구를 무찔렀다. 울릉도는 수구맥이라서 그냥 두었다.

유금이들형은 둘째 김부대왕형과 비슷한데, 왜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형산강을 막고 있는 산을 쳐서 육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할머니 등에 업혀 있던 유금이 구렁이를 용이라고 하자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유금이들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문무왕의 호국룡 이야기가 설화로 전승되면서 상징체계와 주인공이 바뀌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용을 뱀으로 보지 않고 용으로 보아주면 인간에게 도움을 주듯 남을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풍토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낸다.

특징 및 의의

신라의 호국룡은 불교의 윤회사상, 호국불교, 호법룡과 용 상징에 기초하여 탄생하였다. 이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나라를 수호하는 용으로 탄생하고, 용은 불법을 수호해 주고, 강력한 힘의 소유자로서 불교 신장神將 역할을 하였다. 용이

가지고 있는 수신水神 역할에서 나아가 강력한 힘의 소유를 상징하는 왕의 지도력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이처럼 신라의 호국룡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호법동물, 용신앙과 호국신앙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문무왕 호국용 설화의 교육적 의미(이동철, 한민족문화연구16, 한민족문화학회, 2005), 문무해중릉의 문화원형과 가치활용(이창식, 신라문화4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4), 용비어천가(김상익 주해, 을유문화사, 197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해중릉 주변의 민속신앙과 문무대왕 문화제의 필요성(강석근, 온지논총37, 온지학회, 2013), 호국용설화의 전승양상과 신인관계(임재해, 한국민속학13-1, 한국민속학회, 1980), 한국민속대백과사전(folkency.nfm.go.kr).

필자 이학주(李學周)

호법룡

護法龍

불교의 가르침(佛敎)을 수호하는 존재로 자리한 용.

개관

불교에서 용은 불교를 지키는 성중聖衆으로 수용되었다. 고대 인도에는 독사의 위험이 많아 일찍이 뱀Naga을 신격화한 사신승배蛇神崇拜 신앙이 있었다. 사신은 용신·용왕에 해당하는 존재로, 킵코브라의 형상을 지녔다. 이러한 사신이 불교 성립과 함께 대립 투쟁을 거쳐 마침내 불법 수호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러 온 대중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여덟 용왕의 명칭을 나열하고 이들이 각각 백천권속百千眷屬과 함께 있었다고 하였다. 불교와 대립하던 악신으로서 8대 용왕이 설법에 교화되어 부하들을 이끌고 불교의 호법신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아울러 불교에서는 천天·용·야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那羅·마후라摩睺羅를 ‘팔부신중八部神衆’이라 하여 불법을 지키는 여덟 종류의 신으로 수용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도 이미 민간신앙에 물을 다스리는 상상의 동물로 용이 존재하고 있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팔부신중인 인도의 용 관념이 수용된 가운데 그 모습은 중국 전통 용의 도상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나라는 박혁거세朴赫居世·석탈해昔脫解 등 개국시조와 왕의 신화에 용이 관련되어 있듯이 일찍부터 용신신앙이 깊었다. 이에 불교 수용과 함께 용의 신묘한 능력과 신성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불교가 융성하였던 신라에 들어와 한국 특유의 호법룡으로서 위상을 뚜렷이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호법룡신앙이 깊어 오늘날까지 사찰 곳곳에 용을 조형화하여 불법 수호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내용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는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상으로 삼아, 이를 굳건



매년 단옷날 구룡지에서 올리는 통도사 용왕제 | 경남 양산 | 2016 | 구미래



의상대사 조사당에 함께 모신 선묘 | 경북 영주 | 2015 | 구미래

히 하기 위해 호법룡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 『송고승전宋高僧傳』 등에 무수히 등장하는 신라의 용은 불법을 수호하고 불사를 돕는 호법룡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아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평안을 위한 호국룡護國龍으로 발전시켜, 불법과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 둘이 아님을 나타내었다. 이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을 창건하고 불법을 펼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호법룡이다.

신라 불국토의 상징인 황룡寺皇龍寺와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은 호법룡과 관련 깊은 설화적 배경을 지녔다. 553년(진흥왕 14)에 새로 대궐을 짓다가 그 땅에 황룡이 나타나자, 진흥왕眞興王은 이를 심상치 않게 여겨 사찰로 바꾸어 짓고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 그 뒤 636년(선덕여왕 5)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자장慈藏(590~658)이 태화지太和池 옆을 지날 때 한 신인神人을 만나게 된다. 신인은 황룡사에 있는 용이 자기 아들로써 범왕梵王의 명을 받아 사찰을 수호하고 있음을 밝히며, 그곳에 구층탑을 세우면 나라에 근심이 없고 태평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귀국한 자장은 왕에게 청하여 호법룡이 지키고 있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우게 되었다.

또한 『송고승전』에는 원효元曉(617~686)가 『금강삼매경문金剛三昧經論』을 저술하게 된 유래가 소개되어 있다. 당시 왕이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을 강론할 고승을 찾았으나 승려들의 배척으로 원효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왕비의 중기를 고치기 위해 당나라로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도중에 한 노인이 나타나 그를 용궁龍宮으로 안내하였다. 기다리고 있던 용왕이 사신에게 순서가 뒤바뀐 『금강삼매경』을 주면서 “대안大安에게 순서를 맞추게 하고 원효에게 소疏를 짓게 하면 왕비의 병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원효는 간추린 경전을 받아 논술을 마친 뒤 왕과 승속僧俗이 범당을 메운 가운데 거침없이 그 뜻을 펼쳤다.

이 이야기는 바다속 용궁이 ‘불경을 보관하는 장경각’이라는 경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용수보살전龍樹菩薩傳』에 따르면, 화엄사상의 대가 용수龍樹는 대룡을 따라 용궁의 장경각藏經閣에 가서 수많은 경전을 접하게 된다. 이에 오랫동안 용궁에 감추어져 있던 『화엄경華嚴經』을 석 달간 밤낮으로 읽어 진리를 깨달은 뒤 불법을 펼치고 세상에 유포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라 말의 보양寶瑗은 당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올 때 서해 용궁에 가서 불경을 설하게 된다. 용왕은 감사의 뜻으로 금란가사金欄袈裟를 시주하고 아들 이목璵目을 함께 보내어 모시도록 하였다. 이목은 운문사를 중창한 보양과 함께 절을 지키며 법의 교화를 돕고 단비를 내리는 일도 맡았다. 이에 운문사 옆의 못을 ‘이목소궐目沼’라 부르면서, 가뭄이 들면 운문사 승려들이 이곳에서 기우법회를 올렸다.

둘째, 악룡惡龍이 불법에 교화되어 사찰을 수호하게 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도사 창건설화가 있다. 자장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해 불사리를 얻은 뒤, 영축산에 통도사를 세워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봉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곳의 신지神池에 아홉 마리의 악룡이 살면서 비바람을 일으켜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에 자장이 악룡들을 설법으로 조복하고 계책을 주었는데, 한 마리의 용이 남아 사찰을 지키겠노라 서원誓願하여 작은 연못에 그



황룡사지 | 경북 경주 | 2023 | 국립민속박물관·최지현

용을 머무르게 하였다. 지금도 통도사에서는 매년 단옷날에 용왕이 머무르는 경내의 구룡지九龍池에서 용왕제龍王齋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창건설화에는 이러한 유형이 많이 전한다. 고승이 사찰을 짓기 위해 찾아가던 명당에 악룡이 살고 있어 설법으로 용을 감화시킨 뒤 그 자리에 사찰을 창건하고, 용은 사찰을 지키는 호법신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셋째, 호법·호국의 원願을 세우고 스스로 용이 된 경우이다. 신라 화엄종의 초조 의상義湘(625~702)이 당나라에서 공부할 때 선묘善妙라는 여인이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의상이 귀국길에 오르자 선묘는 ‘용이 되어 스님의 홍법弘法을 도울 것’이라는 원을 세우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용이 되어 신라로 건너온 선묘는 스님을 도와 호법룡의 역할을 다하여, 의상이 창건한 사찰 대부분은 용과 관련한 설화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부석사 창건설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의상이 태백산에 화엄의 중심사찰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들끓고 있던 도적 무리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선묘가 큰 바위로 변해 공중에 뜨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이 흩어져 사찰을 창건하게 되고, 사찰명을 ‘부석浮石’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부석사 우물에 선묘 용이 머무른다고 하여 기도처가 되었고, 사찰에서

는 선묘각善妙閣을 지어 호법룡이 된 선묘를 추모하고 있다.

또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 문무왕文武王은 호법룡이 호국룡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죽은 뒤 동해룡東海龍이 되어 왜구의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소망에 따라, 그의 유골은 동해 입구의 대왕암에 수장되었다. 용이 된 문무왕이 나타나자, 신문왕神文王은 682년 대왕암이 바라보이는 기슭에 감은사를 세우고 동해 쪽으로 구멍을 뚫어 용이 들어와 쉴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용이 일러준 대로 동해에 솟아난 작은 산의 대나무로 피리로 만들어서 불자 천하가 화평해지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룰 수 있었다. 만 가지 파도를 잠재워 평온하게 한다는 뜻에서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른다.

문무왕의 사상은 이후 ‘동해 호국룡신앙’으로 역대 왕에게 계승되어, 효성왕孝成王과 선덕왕宣德王 또한 유언을 남겨 동해에 유골이 수장되었다. 이처럼 호법은 호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호법룡신앙이 ‘불력佛力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호국룡신앙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호법성중護法聖衆으로서 용신의 모습은 사찰 곳곳에서 계승되고 있다. 경내에 용왕각·용왕단을 세워 삼보와 공동체를 지켜 줄 용신을 섬기는가 하면, 의례를 올릴 때 호법성중의 한 존재로 빠짐없이 거론된다. 불보살을 모신 수미단과 단집에서부터 다리와 계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각과 그림으로 등장하여, 불교를 수호하는 용신의 위상을 살필 수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법당 전면의 양 기둥머리에 조각해 놓은 커다란 용두龍頭이다. 이는 법당을 수호하는 뜻이자 법당이 곧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임을 나타낸다. 반야용선은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배로, 이때 용이 배가 되어 망망대해를 헤치며 나아간다고 하여 ‘용선’이라 부른다. 이러한 모습은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 극락보전通度寺 極樂寶殿,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 대웅보전普光寺 大雄寶殿, 충청북도 제천시 신륵사 극락전神勒寺 極樂殿 등 법당의 벽화로 표현된 반야용선도般若龍船圖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불교의 용은 정토로 인도하는 수호자 역할을 아우르고 있다.

특징 및 의의

한국의 용신은 불국정토의 이상 아래 신라인들이 펼친 호법·호국룡 사상의 역사 속에서 뚜렷한 위상을 차지하였다. 신라의 상징인 황룡사와 황룡사구층탑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사상과 기틀을 이룬 고승들과 천년고찰의 역사적 시점마다 호법룡이 소중한 매개자가 된 것이다. 신묘한 능력과 위엄을 지닌 용들은 물론 백성을 괴롭히던 악룡이 설법을 통해 순화되어 불교와 나라를 지키게 되는 신화적 의미의 축적 속에서 용신이 지닌 숭불호국崇佛護國 기능은 점차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라는 이념을 창출하게 된 것은

신라의 독자적인 호법·호국룡의 면모를 잘 보여 준다.

이처럼 한국의 호법룡 관념은 단순히 신화적·설화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의 이상향을 나타내는 불국토사상과 맥을 함께 해왔다. 불교에서 차지하는 용의 위상이 커짐에 따라 용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자연신에서 호법·호국의 존재로 의미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는 신화적 매개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宋高僧傳,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허균, 돌베개, 2000), 용 불멸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한국인의 상징세계(구미래, 교보문고,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구미래(具美來)

황룡사

皇龍寺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황룡사의 연기설화^{緣起說話}.

내용 553년(진흥왕 14) 2월에 용궁 남쪽에 자궁紫宮을 지으려 하니, 황룡皇龍이 나타났다. 이를 이상히 여긴 왕은 궁을 사찰로 바꾸고 황룡사皇龍寺라 하였다. 이곳에 과거 부처인 가섭불迦葉佛이 좌선을 하던 연좌석^{宴坐石}이 있으니, 이 땅이 전불前佛 시대의 절터였다. 인도의 아소카왕이 삼존불상을 주조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철과 금 그리고 불상의 모형들을 배에 실어 보내며, 인연 있는 곳에서 장육존상丈六尊像을 주조하기를 바랐다. 배는 신라 하곡현으로 떠내려 왔고, 574년에 진흥왕은 이 금과 철로 황룡사에 장육존상을 주조해 모시게 하였다. 이듬해 불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땅이 흠뻑 젖었는데, 대왕이 세상을 떠날 조짐이었다.

643년(선덕여왕 12)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慈藏이 왕에게 청하여,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구층의 목탑을 조성하게 하였다. 백제에서 온 공장工匠인 아버지阿非知로 하여금 목재와 석재로 탑을 짓게 하였다. 무열왕의 아버지인 용춘龍春이 이를 주관하였다. 아버지는 꿈에 본국인 백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는 일손을 멈추었는데, 문득 땅이 진동하며 어둠 속에서 노승老僧과 장사가 금당문에서 나와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탑을 완성하였다. 구층탑은 일본, 중국, 오월 등 주변 나라들의 침범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후 탑은 여러 차례 벼락을 맞아 계속 중수되었는데, 1238년(고종 16)에 몽고의 병화^{兵火}로 장육존상, 황룡사 전각과 함께 불에 타 버렸다.

황룡사가 창건되고 멸실되어 간 과정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앞의 줄거리는 『삼국유사』 「탑상塔像」 가섭불연좌석조, 황룡사장육조, 황룡사구층탑조 등에 있는 이야기이다. 일연一然은 『옥룡집玉龍集』 『자장전慈藏傳』 『삼국사기』 『별본別本』 『별전別傳』, 사찰의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서 황룡사지를 직접 취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연이 〈황룡사연기설화〉를 취재할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설화들이 여러 문헌에 실려 전하고 있었으나 이후 문헌에서는 황룡사와 관련된 설화들이 전하지 않는다.

특징 및 의의

〈황룡사연기설화〉는 재래의 용신신앙과 관련을 맺으며 창건되었던 황룡사가 점차 불교의 영향 아래 불교 성지로 변해 간 과정을 보여 준다. 황룡사 관련 설화들은 가섭불이 설법하던 연좌석을 내세우는데, 아소카왕과 관련되거나 자장의 구층탑 건립 요청과 관련된 설화는 용신신앙의 터전을 불교적 인연지로 변모시켜 나간 과정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용신상사설화의 형성과 의미(이준근,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오대혁(吳大赫)

부록

용 문화재
Dragons & Cultural Heritages

민속신앙 속 용
Dragons in Folk Religion

용 이야기
Dragons Tales

우리말 속 용
Dragons Oral Tradition

색인
Index

필자
Author

용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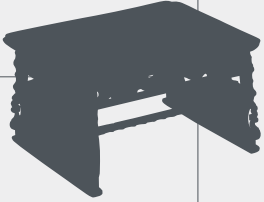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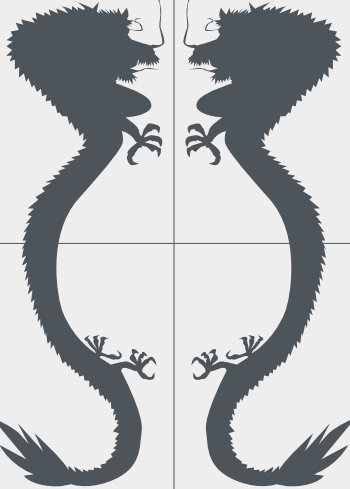

Dragons & Cultural Heritages

용 관련 박물관 소장품

경기도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농협 농업박물관
 세종대학교 박물관
 어진박물관

<p>민속신앙 p.318</p> 	<p>용기 p.324</p> 	<p>일생의례 p.332</p> 
<p>의생활 p.335</p> 	<p>주생활 p.338</p> 	
<p>민속놀이 p.340</p> 	<p>민속예술 p.341</p> 	



무신도



↑ 해신도
海神圖
가로224 세로131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88948



← 용왕도
龍王圖
가로60 세로90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0091



↑ 해신도
海神圖
가로51 세로79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4345



용왕도
龍王圖
① 가로57 세로93 | 민속 045457
② 가로40 세로71 | 민속 072781
③ 가로48 세로79 | 민속 067246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왕도

龍王圖

❶ 가로51 세로 84 | 황춘성 | 민속 072642

❷ 가로55 세로78 | 민속 072761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왕도

龍王圖

❶ 가로55 세로87 | 민속 072787

❷ 가로56 세로82 | 민속 072798

❸ 가로49 세로90 | 민속 077124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용궁부인도
龍宮夫人圖

① 가로51 세로92 | 민속 000081
 ② 가로51 세로96 | 황춘성 | 민속 072696
 ③ 가로52 세로84 | 황춘성 | 민속 072646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 용태부인도
龍態婦人圖

가로77 세로102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11355

→ 용궁삼부인도
龍宮三夫人圖

가로58 세로73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2606



← 용궁도
龍宮圖

가로71 세로97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8033

→ 용궁제석도
龍宮帝釋圖

가로53 세로90
 광복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72592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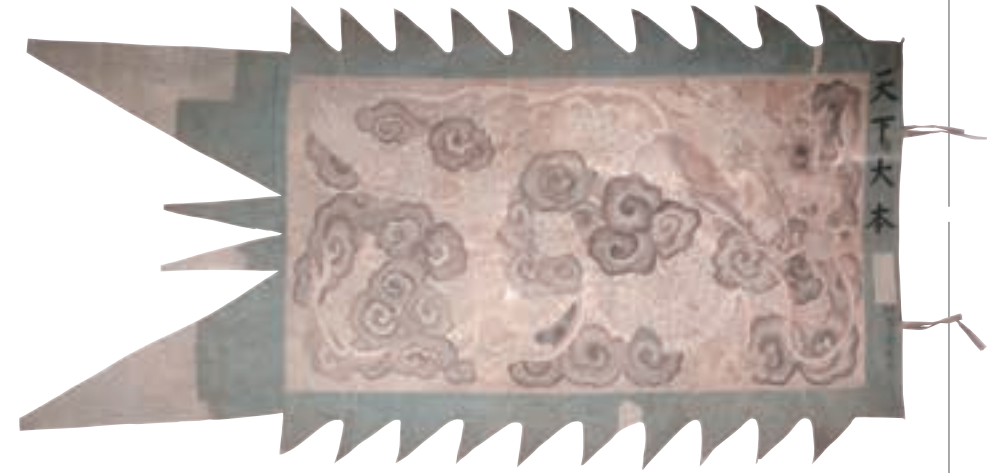
충남 서산 고북면 장선리 농기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9599



전북 임실 신평면 덕암리 피암마을 농기
대한제국 | 국립해양박물관
신해양 140



충남 서산 덕지천동 농기
일제강점 | 농협 농업박물관
농업 77



전남 강진 군동면 용소리 안지마을 농기
일제강점 | 농협 농업박물관
농업 78





전북 김제 신흥동 편강마을 농기
광복 이후 | 농협 농업박물관
농업 79



충남 당진 면천면 삼승리 용대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충남 당진 송악읍 반촌리 농기
광복 이후 |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충남 당진 송악읍 본당리 용대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충남 당진 송악읍 본당리 농기
기지사족다리박물관



충남 당진 신평면 도성리 용대기
대한제국 | 기지사족다리박물관



충남 당진 합덕면 점원리 하궁원 용대기
일제강점 | 기지사족다리박물관



충남 당진 대호지면 적서리 용대기
대한제국 | 기지사족다리박물관



홍문대기

왕의 의장 행렬이 시작됨을 알리는 깃발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79



황룡기

왕이 군대 친영시 명령 전달에 사용한 깃발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76



청룡기

대가나 법가에 따르거나 좌영과 좌위를
지휘하는 군기로 쓴 깃발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70



교룡기

왕이 전체 행렬을 움직이고 통솔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깃발
조선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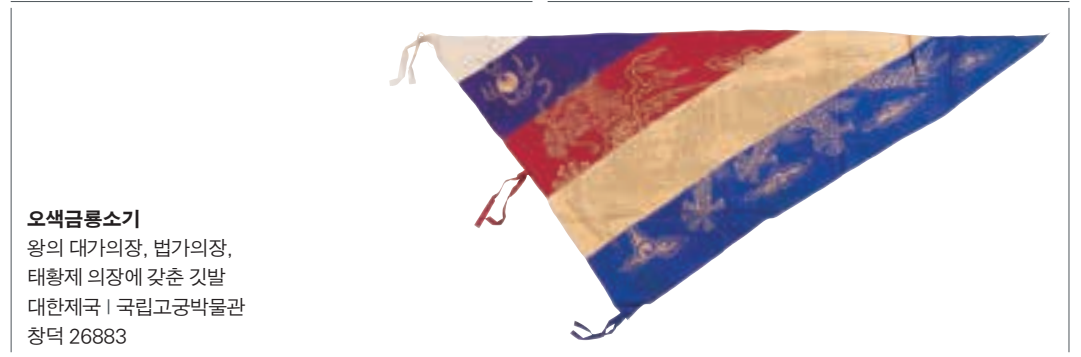
감우기

왕의 대가의장, 법가의장,
태황제 의장에 갖춘 깃발
대한제국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89



청룡기

왕의 대가의장, 법가의장,
태황제 의장에 갖춘 깃발
대한제국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73



오색금룡소기

왕의 대가의장, 법가의장,
태황제 의장에 갖춘 깃발
대한제국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26883



일생의례

상장례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할 때
보호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상여의 앞뒤 또는 상단에 붙이는 장식

↓ 상여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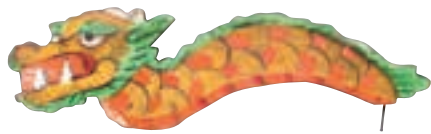
喪輿裝飾

- ① 광복 이후 | 아카이브번호 00167725
- ② 너비61 전체높이50 | 조선 | 민속 024481
국립민속박물관



↓ 용
龍

길이53 너비16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44895



↓ 용두

龍頭

길이59 높이13 너비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64356



→ 정자용

丁字龍

너비106 전체높이11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64376



일자용

一字龍

- ① 길이83 높이27 너비8 | 민속 064374
- ② 길이83 높이32 너비8 | 민속 064375
- ③ 길이177 높이34 너비8 | 민속 064381
국립민속박물관



용수판

龍首板

- ① 길이65 높이38 | 민속 024269
- ② 길이62 높이38 | 민속 024476
- ③ 너비66 높이40 | 민속 064358
- ④ 너비64 높이39 | 민속 064363
국립민속박물관



제례



← 향로
香爐

용을 장식한 향로
입지름 12 푸경지름 13
몸통지름 17 세로 32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0711



→ 용구지

용머리를 장식한
제례용 국자
길이 40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000837



→ 교의
交椅

등받이 상부에
쌍룡을 장식한 교의
가로 48 세로 31 높이 144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5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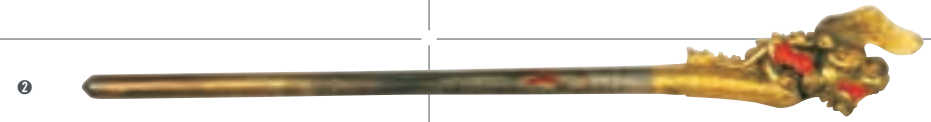
의생활

장신구

용머리를 장식한 비녀

용잠
龍簪

① 길이 32 | 조선 | 민속 001548
② 길이 35 | 조선 | 민속 001146
③ 길이 37 | 조선 | 민속 003985
④ 길이 30 | 광복 이후 | 민속 011986
국립민속박물관



의복

→ 갓집 바닥면



→ 갓집

용과 구름을 장식한 갓집
지름 50 높이 25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1073



↑ 스란단
膝欄段

용과 구름을 장식한 스란단
길이 338 너비 27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4217

→ 흉배판
胸背板

용을 새긴 흉배판
지름 19 두께 3
조선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04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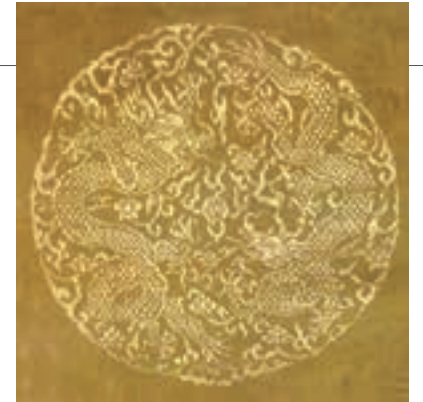
↓ 용보
龍補

태조 어진 중 부분
조선 후기 | 어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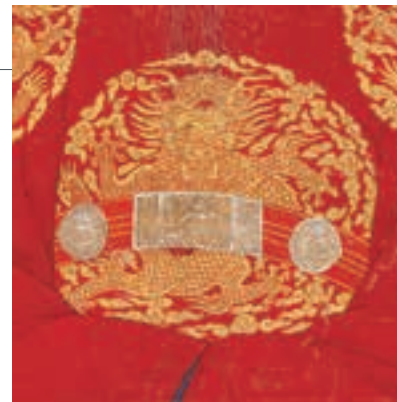
↓ 용보
龍補

이연응 묘 출토 마고자 중 부분
조선 후기 | 경기도박물관
소장품번호 4963



↓ 용보
龍補

영조 어진 중 부분
대한제국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 6363



↓ 용보
龍補

순정효황후 원삼 중 부분
세종대학교 박물관



목가구

↓ 나전용봉문탁자장
螺鈿龍鳳紋卓子箱
쌍룡을 장식한 탁자장
가로73 세로31 높이128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87699



↑ 대모이층농
玳瑁二層籠
용을 장식한 이층 농
가로80 세로39 높이130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9630



→ 용문소반
龍文小盤
용을 장식한 소반
가로45 세로35 높이24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16913

기와장식

↓ 용무늬 암막새
龍文平瓦當
용을 장식한 암막새
너비31 높이5 두께2
통일신라 | 국립중앙박물관
증 1919



→ 용무늬 수막새
龍文圓瓦當
용을 장식한 수막새
지름13 두께3
대한제국 | 국립중앙박물관
증 1919



→ 녹유귀면와
綠釉鬼面瓦
귀면을 새긴 기와
폭29 높이28
통일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1487



↓ 산경귀형문전
山景鬼形文磚
귀면을 새긴 벽돌
가로28 세로29
백제 | 국립부여박물관
부여 223



→ 용두
龍頭
용머리를 장식한 기와
길이51 높이40 너비19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신수 28809



→ 치미
鷗尾
용마루를 장식하는 치미
옆너비105 전체높이182
신라 | 국립경주박물관
황룡 99





↑ **용탈**
 용 모양의 탈
 길이189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4978



← **방패연**
防牌鳶
 용 두 마리를 그린 방패연
 가로60 세로90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34482



↓ **바둑판**
 용장식 바둑판
 가로48 세로48 높이32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7306



운룡도

제왕의 표상이며 벽사와 길상,
 그리고 기우의 대상인 용을 그린 그림

운룡도
 雲龍圖

① 가로69 세로102 | 민속 039051
 ② 가로66 세로119 | 민속 039052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 **운룡도**
雲龍圖
 가로55 세로98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1330



↓ 작가미상 운룡도
作家未詳 雲龍圖
가로57 세로73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증 9975

↑ 심사정필 운룡도
沈師正筆 雲龍圖
가로51 세로114
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5719



↓ 청룡도
靑龍圖
가로217 세로222
국립중앙박물관
남산 1241

↑ 구름과 용
筆者未詳 雲龍圖
가로69 세로121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덕수 2505



문자도(文字圖)- 충(忠)

어변성룡(魚變成龍)의 의미를 담은 문자도

① 문자도 병풍
文字圖屏風

가로33 세로63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17464



② 문자도
文字圖

가로43 세로130
조선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4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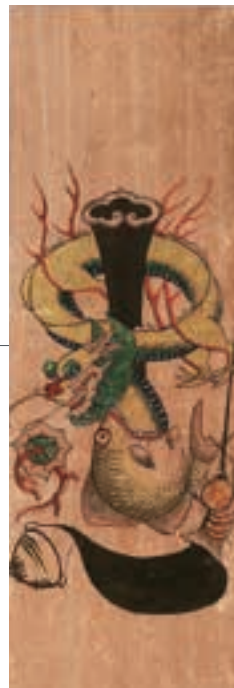
③ 문자도 병풍(효제충신도)
文字屏風(孝悌忠信圖)

가로40 세로142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15131



→ 문자도 8폭 병풍
文字圖八幅屏風

가로35 세로6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29627



→ 문자도 8폭 병풍
文字圖八幅屏風

가로32 세로98
조선 | 국립중앙박물관
신수 13617



↑ 소상팔경도, 옹호도 10폭 병풍

瀟湘八景圖龍虎圖十幅屏風

중국 소상지역의 풍경과
용, 호랑이를 그린 병풍
가로360 세로73
일제강점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9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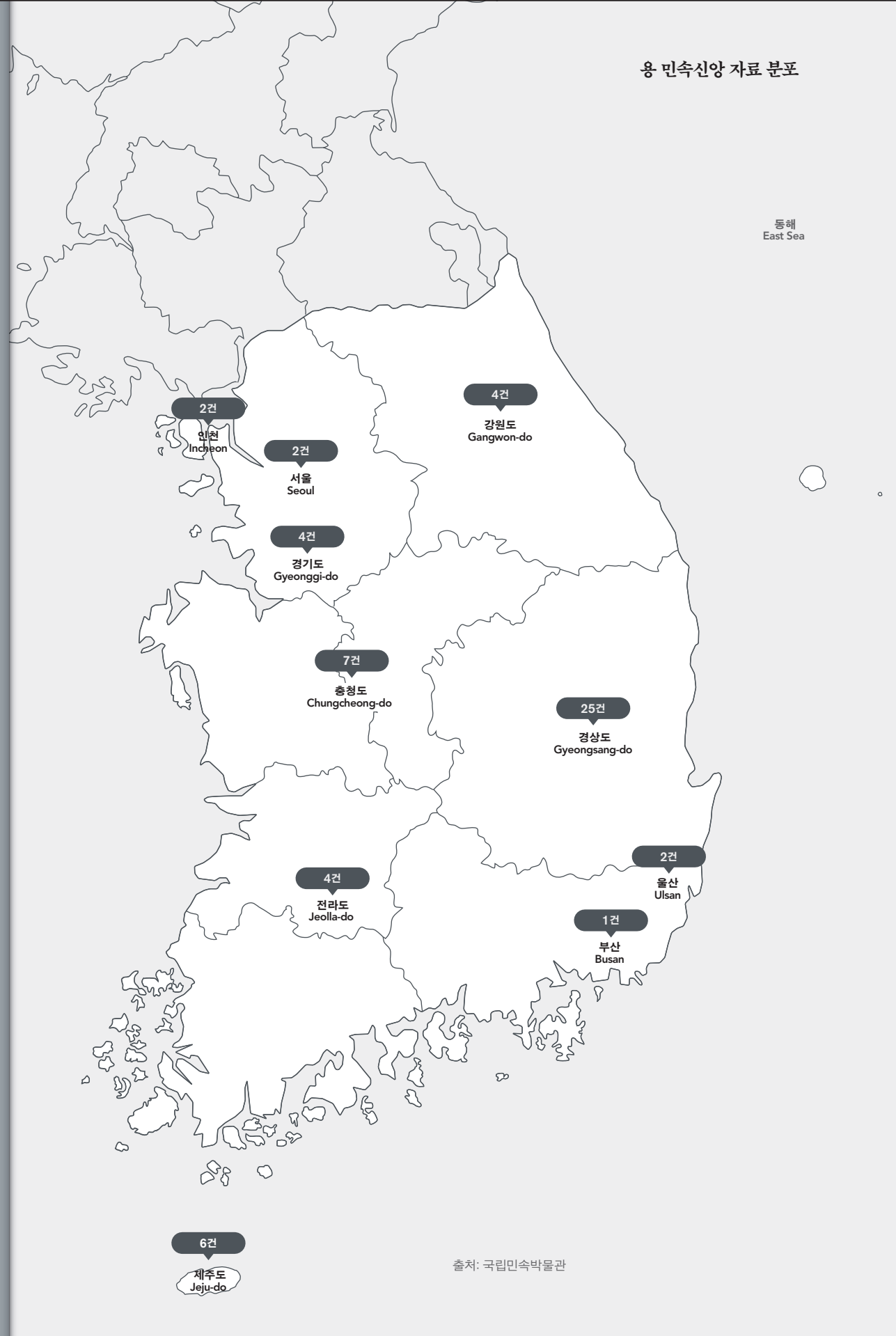
→ 십이지 진상 탁본
十二支辰像拓本

김유신묘의 십이지신상 중
용신상의 탁본
가로49 세로94
광복 이후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051253



민속신앙속 용

Dragons in Folk Religion



서울

→ 서울 마포나루굿
 용떡(정룡, 황룡)
 서울 마포구 | 1998
 아카이브번호 00055494



→ 큰한강부군당굿
 용궁당 굿상
 서울 용산구 | 2009
 아카이브번호 00571208



인천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띠배 보내기
 인천 중구 | 2007
 아카이브번호 00247203



← 소슬굿 용왕당
 인천 연수구 | 1997
 아카이브번호 00046137

강원도



속초 외옹치 별신굿

- ① 용왕굿의 지선 | 아카이브번호 00011672
 - ② 용왕굿 헌식 제물 | 아카이브번호 00011674
 - ③ 축언 | 아카이브번호 00011680
 - ④ 재배 | 아카이브번호 00011682
- 강원 속초 | 1988

→ 우물제
우물에서 비손하기
충남 청양 | 2010



↓ 우물제
제물
충남 공주 | 2009



↑ 홍성 수릉동 당제
① 독경 | 아카이브번호 00079372
② 제사상 | 아카이브번호 00079387
③ 용왕제 | 아카이브번호 00079435
④ 용왕밥 만들기 | 아카이브번호 00079436
충남 홍성 | 2002

→ 철릉
충남 공주 | 1998
아카이브번호 00791253



경상도



← 경주 갑포항 풍어제
 뱃노래굿
 경북 경주 | 2003
 아카이브번호 00083114

↓ 경주 갑포항 풍어제
 용떡 띄우기
 경북 경주 | 2003
 아카이브번호 00083140



영덕 경정리 별신굿
 ① 용왕상 | 아카이브번호 00109986
 ② 용왕밥 던지기 | 아카이브번호 00109991
 ③ 용왕밥 헌식 | 아카이브번호 00110187
 ④ 용떡 | 아카이브번호 00110254
 경북 영덕 | 2002





포항 우목리 풍어제

- ① 용선 | 아카이브번호 00109064
 - ② 용왕굿 소지 올리기 | 아카이브번호 00109067
 - ③ 용떡 | 아카이브번호 00109380
 - ④ 뱃노래굿 | 아카이브번호 00109413
- 경북 포항 | 2002





포항 청진리 풍어제

- ❶ 용왕먹이기 | 아카이브번호 00084008
 - ❷ 용왕밥 던지기 | 아카이브번호 00084015
- 경북 포항 | 2003



가야진웅신제

- ❶ 가야진 사당 | 아카이브번호 00200622
 - ❷ 제단과 제물 | 아카이브번호 00197779
 - ❸ 송막 | 아카이브번호 00197837
 - ❹ 용소풀이 | 아카이브번호 00197741
- 경남 양산 | 1999





거제 수산 별신굿

- ❶ 용왕상 | 아카이브번호 00064154
 - ❷ 용왕굿 소지올리기 | 아카이브번호 00064109
 - ❸ 용왕굿 띠배 | 아카이브번호 00064235
- 경남 거제 | 2000





통영 담포마을 용왕제
 ❶ 조상상 | 아카이브번호 00064528
 ❷ 용왕밥 먹이기 | 아카이브번호 00064534
 경남 통영 | 2000



↑ 용단지
 ❶ 경북 청송 | 1994 | 아카이브번호 00028032
 ❷ 경북 청송 | 1994 | 아카이브번호 00028073
 ❸ 경북 안동 | 1998 | 아카이브번호 00053161

← 터용
 용단지
 경북 안동 | 2007



울산 달곡 물당기
 ❶ 물동이 | 아카이브번호 00721954
 ❷ 복해용소 | 아카이브번호 00722065
 울산 북구 | 2018



동래 은천 용왕제
 용왕 조각상과 제단
 부산 동래구 | 1993 | 아카이브번호 00770085



위도 띠벧놀이

① 용왕제 | 1983 | 아카이브번호 00005494

② 띠배와 용왕상 | 아카이브번호 00252653

전북 부안





① 용알뜨기(용왕뜨기)
전북 고창 | 2001
아카이브번호 00790487



② 철릉
전북 고창 | 1994
아카이브번호 00790512



동김녕 잠수굿
① 굿당 | 아카이브번호 00443094
② 용왕제 | 아카이브번호 00444759
제주 구좌 | 1980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 ❶ 하로산당과 천지월덕기 | 1980 | 아카이브번호 00250781
 - ❷ 용왕맞이 대령상 | 2001 | 아카이브번호 00103051
 - ❸ 용왕다리 놀기 | 2001 | 아카이브번호 00102953
 - ❹ 용왕문 열림 | 2001 | 아카이브번호 00103007
- 제주 성산



한국민속상징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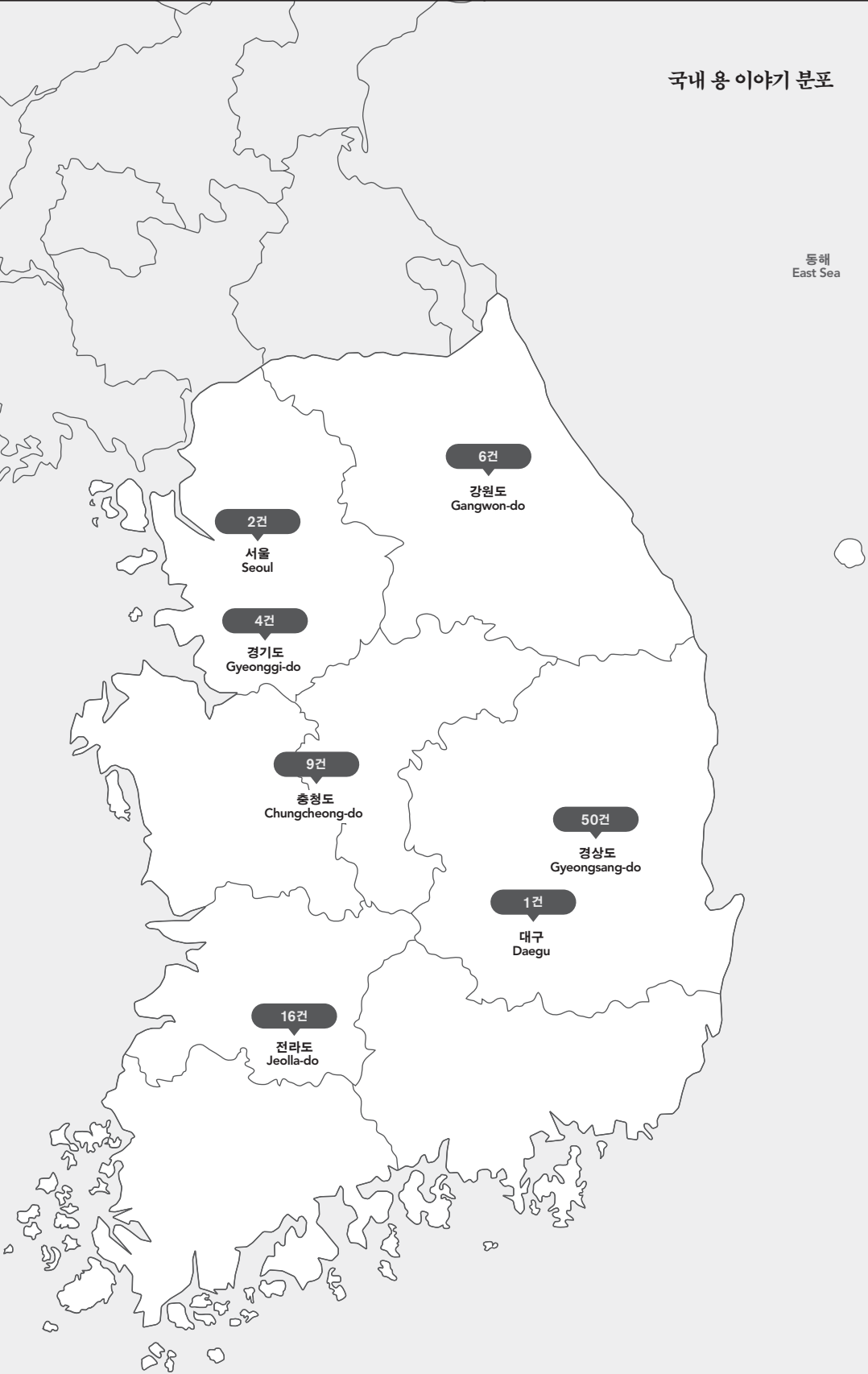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Korean Folk Symbols

용 이야기

Dragons Tales

국내 용 이야기 분포

동해
East Sea



1건
제주도
Jeju-do

출처: 구비문학대계, 동패(東裨), 삼국유사(三國遺事), 소문쇄록(謏聞瑣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어우야담(於于野談), 지봉유설(芝峯類說), 청구야담(靑邱野談), 학산한언(鶴山閑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효빈잡기(效顰雜記)

<p>㉑ 가마못 등천 못 한 용의 심술</p>	<p>아무리 가물어도 못 가운데는 물이 마르지 않는 '가마못'이라는 못에 용이 살고 있는데, 용이 승천하려고 할 때 여자아이(가마)가 용뱀이라고 말해서 용이 승천하지 못하게 되어 심술이 나서 못둑을 때려서 물을 다 빼버렸다는 이야기.</p>
<p>강철江鐵</p>	<p>강철이 지나는 곳엔 반드시 바람과 우박이 동반된다. 계룡산에 용이 내려왔다는 소문에 절에 가서 스님에게 물어보니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더니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져 풀로 덮어두었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비바람에 쌓여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것은 강철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p>
<p>구렁이와 이시미의 용되기 경쟁</p>	<p>어떤 사람이 아들 구형제를 낳고 살기가 힘들어 죽으려고 길을 떠났다. 바다 끝에 다다라서 반석 위에 서 있는데 한 처녀가 나타나 자기가 백일기도 올려서 만나게 된 짝이라며 이 사람을 데려가 잘 대접하고 산다. 마침 아버지 기일이어서 여자에게 말하고 본집으로 돌아왔는데, 대궐같은 집에 아들도 장성해 너무도 잘 살고 있었다. 본 부인은 제사를 지낸 후 남자를 다시 여자에게 돌아가라고 보냈다. 돌아가는 길에 한 장승을 만났다. 장승은 그 여자는 청구렁이가 변신한 것이니 그 여자가 주는 밥을 먹지 말고 침을 세번 뱉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돌아와 몰래 보니 과연 여자는 청구렁이었다. 여자는 남자가 돌아왔다고 밥을 지어줬는데, 이 사람은 여자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 죽어도 여한없겠다 하여 침을 뱉지 않고 삼켰다. 이에 여자가 절을 하며, 장승은 이시미인데 남자가 침을 뱉지 않아 자신이 이겼으며 용이 되었다고 한다.</p>
<p>금강연金剛淵</p>	<p>강릉 오대산 월정사 옆에 있는 금강연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된 폭포가 10척이나 쏟아져 연못을 이루고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기에는 신룡이 자리잡고 있으며 봄이 되면 여항어(餘項漁) 천백(千百) 마리가 떼를 지어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와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데, 성공하여 오르는 것도 있고 반쯤 뛰어올랐다가 중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p>
<p>김부대왕이 용이 된 이야기</p>	<p>옛날에 강의 물이 포항으로 흐르지 않고 모두 울산으로 흘러 경주가 전부 물바다였는데, 김부대왕이 자신이 죽어서 물길을 트겠다고 하였다. 이후 죽어 용이 되어 올라가면서 손살맥을 쳐서 안강들이 생겼고, 물길이 포항으로 흐르게 되어 경주에 물이 고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p>
<p>김육金瑬</p>	<p>김육이 광해군시기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이이첨을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죄를 입고 대과 급제를 포기하고 가평에 가서 숨어살았다. 시골 집앞에 연못이 있어 늘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보통 물고기와 다른 게 있었다. 어느 날 꿈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 자신은 연못의 고기인데 용으로 승천할 것이니 피해 있으라고 일러줘서 다음날 식구들과 피해 있었다니 과연 용이 승천하였다. 이후 일이 있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나 이끌어서는 산에 오르게 되었다. 산을 올라 내려다보니 방금 있던 길이 해일로 인해 바다에 잠겨있었다. 필시 구해준 이가 용이라고 짐작하였다. 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과거 불날이 임박했는데 가지 않는다고 하며 억지로 가기를 청하여 서울로 돌아갔더니 과연 과거 날이 급하게 잡혀 바로 다음날이 과거일이었다.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하였다.</p>

<p>㉒ 날아오르는 용</p>	<p>과부의 자식이 나무를 해서 먹고 살다가 이 모양으로는 살 수 없다고 길을 떠났다. 갑자기 몸이 구멍을 따라 땅 속으로 떨어져 며칠을 그곳에서 지내다보니 벽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용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용신을 취하겠다는 생각에 용이 움직일 때마다 하루에 몇 번 씩 '용신님, 어서 올라가 비를 내려주고 인간세상을 살려줘야 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서 결국 용이 득천하게 했다는 이야기.</p>
<p>㉓ 대왕암과 용등바위</p>	<p>문무대왕 대왕암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용등바위가 있는데 용이 승천했던 바위라고 한다.</p>
<p>대화루大和樓</p>	<p>경상도 울산에는 대화루라는 정자가 있는데 고려 성종이 이곳에 와서 잔치를 베풀다가 바다에서 대어(大魚)를 잡았는데 이후로 몸이 편치 못해 개경으로 돌아가 곧 사망하였다.</p>
<p>도연폭포의 용과 선찰사의 부처</p>	<p>도연폭포에 사는 용과 폭포 위에 있는 선찰사의 부처가 싸움을 했는데 용이 부처를 이겨서 물이 선찰사쪽으로 흐르지 않고 폭포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이야기.</p>
<p>득천하다 추락한 용</p>	<p>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용추라는 폭포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한 여자가 봐서 여자도 죽고 용도 추락했다는 이야기.</p>
<p>㉔ 망해루望海樓</p>	<p>경기도 남양 고당성에 망해루가 있었다. 이색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후기 정을경이 관장으로 와서 망해루를 건축하고 옛날에 있었던 못 자리의 흙을 다시 파내고 물이 고이게 했다. 사람들의 말하기로는 여기에 있던 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완전히 물이 말랐다고 했다. 그래서 정을경이 부임하여 다시 못을 만들었는데 못이 완성되는 날 갑자기 검은 구름이 동남으로부터 일어 바람과 천둥을 동반하고 내려와 못의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두 흔들리는 용의 꼬리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못의 물이 3일 동안 끓었고, 흰 기운이 계속하여 솟아오르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다.</p>
<p>무룡산舞龍山の 용과 선녀</p>	<p>옛날에 무룡산 연못에는 하늘의 칠 선녀와 일곱 용이 짝이 되어 목욕을 하는데 일곱 용 중 한 마리가 장님이어서 짝이 없었다. 선녀 중 맏이가 짝이 되어서 지내다가 칠 선녀가 일곱 용을 하늘로 불러 놓고 싶다고 옥황상제에게 부탁을 하면서 장님 용만 제외하였다. 이에 맏이 선녀는 장님 용이 불쌍하다며 지상에 남았다. 옥황이 맏이와 장님 용이 정답게 노니는 것을 보고 장님 용의 눈을 뜨게 해서 맏이와 함께 승천하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연못의 물이 말랐다는 이야기.</p>
<p>밀양 용담못</p>	<p>밀양에 용담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노복으로 지내다 빠져죽으려고 왔는데 누군가 구해주며 자기 말을 들으면 살게 해주겠다고 했다. 칼을 주면서 곧 청룡과 황룡이 싸우는데, 청룡은 남편이고 황룡은 소실이니 황룡을 죽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기회를 보다가 칼을 휘둘렀는데 잘못해서 청룡을 죽였고,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죽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강을 인룡강이라고 부르고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p>

<p>ㅂ 박근배朴根培</p>	<p>조선 중기 박근배가 나주 용진산 아래 못을 파고 정자를 지어 물고기를 기르며 살았다. 잉어가 있길래 5~6년을 먹이를 주며 길렀다. 언제부터인가 잉어가 안보이길래 5~6년이나 먹이를 받아먹고 몸을 숨기다니 나타나면 활로 쏘아 죽이겠다고 화를 냈다. 이후 연못이 말라 모래밭으로 변했는데, 어느날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폭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못에서 용이 나타나 기둥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올라가면서 꼬리를 쳐서 수십 간의 건물이 사라져버렸다.</p>
<p>백룡白龍</p>	<p>만력 을사(萬曆 乙巳, 1605)에 여산 지역에서 백룡이 강에서 나와 마을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는 대낮이었는데 구름 한점 없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일어나며 벽력이 내리치더니, 백룡이 구름 속으로 날아오르는데, 비늘이 번쩍이는 모습을 인근 수십 리 안 사람들이 다 바라보았다. 그런데 백룡이 들어갔던 집은 사람과 모든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몇 리밖에 가 떨어졌고, 어떤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전라도 감사가 조정에 보고했다.</p>
<p>보양寶壤</p>	<p>보양 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서해를 건너는데 용이 나타나 용궁으로 맞이해 염경을 부탁하고, 금라가사 한 벌을 선물하고 용의 아들 '이목(璃目)'을 딸려 보내면서 작감사(鵲岬寺)를 지어 같이 살면 전란을 피하고 불교를 받드는 군주가 나타나 후삼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했다. 한 지역에 이르니 원광이라는 노인이 나타나 인괘를 주고 사라졌다. 산봉우리에 올라가 옛 절 돌에 5층 탑이 보여 가보니 탑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까치들이 땅을 찌고 있어서 파니 벽돌이 나왔고 그것으로 탑을 완성해서 작감사를 세웠다. 용의 아들 이목은 절 옆 못에 살고 있었는데 심한 가뭄이 든 해에 보양은 이목을 불러 비를 내려 달라고 요청해서 비가 내리게 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 보양에게 이목이 상제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비를 내렸으니 벌을 주겠다며 이목을 내놓으라고 했다. 보양은 이목을 침상 밑에 숨기고 사자에게 돌 앞의 이목(梨木)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이목이라고 했다. 하늘 사자가 그 배나무를 내리치고 올라가자 배나무가 말랐는데, 용의 아들 이목이 나와 만져 주니 다시 살아났다.</p>
<p>부처와 용의 힘내기</p>	<p>금강산에 53불(佛)이 있는데 하루는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였다. 알고보니 용이 조화를 부린 것이었다. 53불이 오리나무에 앉아 용과 힘겨루기를 해서, 불로 용을 혼내주었다. 용이 도망가다가 빠져죽은 곳이 구룡연이고 그 옆에 머리만 나간 곳이 선주암이다.</p>
<p>ㅅ 사명당이 용을 물리치고 무덤을 쓴 이야기</p>	<p>서산대사가 죽자 제자인 사명당이 양산 통도사의 연꽃을 심은 못인 구룡소에 스승의 묘를 쓰려고 하니, 용 아홉 마리가 나와 방해를 하였다. 이에 조화 부리기 대결을 하여 용들을 물리치고 묘를 썼다는 이야기.</p>
<p>숫용이 살았던 용소</p>	<p>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백산마을 뒤쪽에 웅소라는 방죽에 웅 한 쌍이 살고 있었는데 주위가 전부 모래땅이라 모래가 날려서 암용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숫용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늘로 올라갈 텐데 이사를 왜 가냐며 남았다. 그래서 암용만 이사를 갔고, 숫용은 몇 년 후에 하늘로 올라가면서 꼬리를 흔들어서 큰 못을 만들었는데 이 못을 용방죽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p>

<p>ㅇ 양산 용소 전설</p>	<p>경상남도 양산의 사령이 길을 가다가 미인을 만났다. 그 미인이 자신은 남편인 황룡, 첩인 흑룡과 용소에 함께 사는 청룡으로 흑룡을 없애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령이 청룡의 등에 타고 용소로 들어가 흑룡을 죽이려다 실수로 황룡을 죽이게 되어 청룡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p>
<p>어라사연於羅寺淵</p>	<p>영월 거산리에 있는 어라사연에는 조선 세종 13년에 큰 뱀이 이 연못에서 헤엄치며 뛰놀았고, 하루는 물가 자갈 위에 허물을 벗어 놓았는데 길이가 10척이나 되고 비늘이 엽전만 했으며 귀가 있었다고 한다. 고을 사람들이 이 비늘을 거두어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권극화(權克和)를 파견해 확인하게 했다. 권극화가 배를 타고 이 연못에 이르니 갑자기 폭풍이 일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후로 그 뱀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p>
<p>여의주와 용</p>	<p>나라가 기울 땐 백룡과 흑룡이 나타나 싸우는데, 백룡이 이겨서 승천한다. 승천할 때 여의주를 무는데, 입에 물고 턱 밑에 물고 손에 잡고, 이렇게 세 군데 여의주가 붙는다고 한다.</p>
<p>영순들</p>	<p>영순이의 꿈에 소(沼)에서 본처인 청룡과 첩인 황룡이 싸움을 하면서 청룡이 황룡을 죽여주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영순이가 소에 가서 칼로 황룡을 죽이고 들을 얻었는데 그게 영순들이라는 이야기.</p>
<p>영천민永川民</p>	<p>영천의 한 백성이 고기를 매우 잘 잡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수십마리가 쫓겨져 있었다. 하루는 그러고 들어갔는데 많은 잉어떼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 따라 들어갔다가 허리 아래를 엄정 물어뜯었다. 그때 높은 마루의 한 노인이 네 죄를 알렸다고 웃으면서 돌려보내주었는데 와서 수개월을 앓고 완쾌되었다. 들어간 곳이 용궁수부라고 생각된다.</p>
<p>용 못 된 강철이</p>	<p>깊은 산속에 짙둥처럼 생긴 것이 대낮에도 사람을 잡아 먹는데, 한 사람이 밤중에 이 산에 들어가려하자 사람들이 말렸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집을 피우며 산에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잡아먹으려고 하자, 이 사람은 짙둥처럼 생긴 것 밑에서 용이 되어 올라가시라고 빌었다. 그러자 짙둥처럼 생긴 것이 용이 되어 등천했는데, 그것은 사실 용이 되지 못한 강철이었고, 사람들의 염원을 듣지 못해서 용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등천한 강철이는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었다는 이야기.</p>
<p>용 못 된 강철이</p>	<p>바다 바위 밑에 용이 되려는 구렁이가 사는데 용이 되려고 산을 오르려는 찰나에 어떤 여자가 보고 용 올라간다고 말해서 용이 못 되고 강철이가 되었다는 이야기.</p>
<p>용 못 된 이무기의 보은으로 풍수질한 양반</p>	<p>어떤 양반이 시장에서 배를 판 돈으로 구렁이를 잡아먹으려는 나무꾼들에게 술을 사줘서 구렁이를 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무꾼들이 결국 그 구렁이를 죽이는 바람에 구렁이는 용이 되지 못하고 대신 그 양반이 명풍수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보은했다는 이야기.</p>

용개들	청주한씨가 터를 잡고 사는데, 들 가운데 못에 이무기가 산다는 말이 있었다. 하루는 꿈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승천하려는데 이무기 심술로 못 올라가니 명궁인 한씨가 이무기를 잡아달라고 했다. 다음 날 못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시커먼 것이 나오자 활을 쏘았는데 그날 밤 꿈에 할아버지가 찾아와 덕분에 공을 이루었다며, 승천하면 숲이 모두 잠마 저 쏠려 나가 들이 될 것이니 경작을 하라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용개들이다.
용경龍耕	황해도 연안(延安)에는 와룡지(臥龍池)라는 못이 있다. 이 못에는 항상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깨지면 가로나 세로로 금이 가는데, 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용경(龍耕): 용이 밭갈이 함'이라고 하며 얼음의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다음 해의 풍흉을 점쳤다. 가로로 금이 가면 풍년, 세로로 금이 가면 수해, 금이 가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고려 문종 때 이 못 안의 토질이 비옥하여 농토로 만들어서 흥왕사에 하사했는데, 이 해 날이 가물어서 다시 못으로 환원하니, 흑룡이 나타나 공중으로 날아가자 비로소 비가 내렸다.
용경龍耕	황해도 안악에 석통지(石筒池)라는 못이 있어서 겨울에 신룡(神龍)이 '경빙(耕氷: 얼음에 밭갈이 함)'을 한다. 얼었던 얼음이 세로나 가로로 갈라지는데, 가로로 가라지면 그 해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
용경龍耕	검호(儉湖)는 경상도 함녕(咸寧)에 있는 호수이다. 해마다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그 얼음이 갈라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용경(龍耕)'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로로 벌어졌느냐 가로로 벌어졌느냐 하는 것과 그 넓이를 가지고 풍흉이 들 것을 점친다.
용계동 지명 유래	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큰 이시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대룡소 옆에서 소를 방목했는데 이시미가 나와서 소를 잡아먹으려고 들고 들어가 대룡소에 소코뚜레만 동등 뜬 적도 있다고 한다.
용구무	바위에 보면 구멍이 네 개 뚫렸는데 용이 네 마리 승천해서 생긴 것이라 하여 용구멍이라고 한다.
용굴, 구암, 무룡사의 유래	당사리에는 뱀이 있고, 옆 동네에는 거북이가 있었는데 서로 승천경쟁을 하는 중이었고, 용굴에 아구락할매라고 하는 용이 옥황상제의 명으로 와 있었다. 뱀이 와서 계속 아양을 떠니 용은 뱀이 이겼다고 해서 여의주를 주었고, 그래서 용으로 변해 승천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산이 무룡산이고, 거북이는 결국 저서 그곳이 바위가 되어 구암이라고 부른다.
용꿈 해먹고 망한 신씨	아주 잘 사는 영월신씨가 있었는데 하루는 신씨들이 모여서 용꿈을 먹으러 가게 되었다. 신씨들이 숯을 한 가마씩 짊어지고 용이 산다는 연못가에 가서 숯을 달구어 못에 던지자 용이 튀어나와서 자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신씨들이 용꿈을 해 먹은 뒤에 신씨 동네가 망했다는 이야기.
용꿈 해먹으려다 망한 낙양촌 신씨	낙양에 신씨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세력이 아주 커서 용꿈을 해먹겠다고 설쳤다. 불에 별경계 달근 돌을 연못에 수백 개 넣고 쇠고챙이를 불에 달구어 집어 넣자 연못 속에 있던 용이 죽으면서 뇌성벽력을 치고 폭우가 쏟아 내려 신씨네 동네를 쓸어버렸다는 이야기.

용꿈 해먹으려던 이여송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이여송이 상주 공갈못에 사는 용을 잡아 용꿈을 해먹으려고 못에 돌을 달궈 넣었다. 못에 사는 용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강노인이라는 사람의 꿈에 현몽해 밖의 물을 못에 넣어주면 보답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강노인이 병에 물을 넣어 공갈못에 부으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 용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용은 술법으로 강노인에게 공갈못 밑에 들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
용꿈 꾸고 얻은 두 공주	황해도 재령의 어떤 사람이 청룡과 황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좋은 꿈을 꿴다 하니 원님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해서 감옥에 갇혔다. 갇힌 와중에 쥐가 나타나 족족 죽었는데 마지막에 큰 쥐가 나타나 막대기를 쥐서 그걸로 탁 쳐보니 죽었던 쥐들이 살아났다. 막대기를 얻은 사람은 꿈 얘기를 해주고 풀려났다. 이후 나라의 공주가 병이 들어 백악이 무효한데, 찾아가서 막대기로 공주를 살려내 사위가 되었다. 나중에는 중국 천자의 공주가 병이 들어 찾아와 천자의 공주도 살려내 두 공주를 얻게 되었다.
용꿈과 세 아들	정읍군 칠보면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남의 소를 빌려 밭 갈러 가다가 책 들고 가는 사람에게 소를 주고 책을 사왔다. 책을 집안에 숨겨두고는 부인에게 어떻게든 잘 살고 있으라며 길을 떠났다가 더 큰 소를 잡아서 돌아왔다. 그러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데 창고의 책을 꺼내 쌓아놓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본래 양반인 줄 알고 함평이씨 양반이라고 했다. 어느날 내외가 잠을 자는데 꿈에 청룡 세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었다. 놀라서 항아리를 열어보니 지렁이 세 마리가 있어 얼른 꺼내어 먹었는데 이후로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그리고 아들 삼 형제는 잘 자라 모두 벼슬을 하게 되었다.
용동의 지명 유래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목은터(구기)에 머물렀는데, 꿈에 고목나무에서 용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후 과거를 보러 가서 진사벼슬을 하였는데 돌아와서 꿈을 살리기 위해 용동이라고 이름지었다.
용두동 유래	충주 용산 있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천년 묵은 뱀이 용으로 승천하려고 때를 기다리는데 범바위가 있어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달천강 쪽으로 나가다가 승천하려는 찰나 사람들에게 들켜서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머리는 용이고 몸은 뱀이어서 용두동이라고 부른다.
용두리 마을 유래	용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따라오다 보면 이곳은 용의 머리에 해당되어서 용두리라고 한다.
용두리 전설	용두리 마을은 용이 두 마리 살아서 용두리다. 그런데 어느날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중국 용 두 마리가 당진 용두리의 용들을 밀어내고 살려고 모의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를 알고 착한 용에게 알리니 용이 웃으며 그들이 살고자 하면 내주겠다고 했다. 정작 중국 용이 오자 착한 용은 떠나겠다고 하며 떠나는데, 이를 이상히 여겨 중국 용들이 착한 용을 죽여버리려고 쫓았다. 바다 즈음 가서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중국 용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바닷가쪽 산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 이후 착한 용이 다시 와서 살았고, 중국 용들을 위해 제를 지내준다고 한다.

용두모기	어느 장자네 집에 대사가 찾아왔는데 며느리가 동냥을 많이 주면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고 하여, 대사가 산목을 끊어주었다. 본래 그 집터가 용이 물을 먹는 형국인데 용의 목을 끊어버려서 그 이후로 그 집이 망했다고 한다.
용두지 유래	본래 동네가 부촌인데, 노비가 글을 배워서 풍수지리를 알게 되었다. 동네의 용두지라는 못이 있는데 뱀이 들끓고 용이 많이 나오는 연못이었다. 그 연못을 막으면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못을 막아버렸다고 한다.
용뚝병 전설	대흥사 근처에 용뚝병이 있는데, 어느날 나무꾼들이 나무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굵어져서 숨어서 지켜보니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 푹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가서 보니 이무기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무기였다고 한다.
용뚝병 전설	용뚝병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용이 승천한 용바위도 함께 있다. 뚝병이 하도 깊어서 명주실고리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용뚝병	용뚝병은 용이 못 된 강철이가 살다가 용으로 승천한 연못이다. 명주실을 던지면 끝도 없이 들어갈 정도로 깊었다.
용뚝병	마을 뒤에 용뚝병이라는 작은 소가 있고 소 뒷편의 깊은 굴에 용이 살다가 득천했는데, 사람들이 굴에 큰 바위를 굴려놓으면 용이 다시 바위를 밖으로 굴려보내곤 했다는 이야기.
용뚝병골	포항에 보면 용이 승천할 때 짙은 바위가 있다. 지금도 보면 용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용뚝병골의 유래	마을의 용덩이에서 용이 승천하는데 어떤 여자가 보고 "저기 용이 올라간다!"라고 외쳐서 용이 못 되고 다시 숨어들어간 굴이라고 한다.
용바위	용이 바위에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디디고 올라 가면서 발자국을 남겨서 용바위라 부른다는 이야기.
용바위	일운면에 적삼포라는 고랑에 살던 강철이(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기어 올라가면서 움푹 파인 바위가 있는데, 이를 용바위라 부른다는 이야기.
용바위 유래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여자가 용 올라간다고 말하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하고 꼬리는 산에 두고 머리는 물 밑을 내려가는 용의 모양을 한 용바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용바위 전설	굴업이라는 섬에서 용이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더니 용담 쪽에 와서 꼬리로 치니까 서포리 앞의 소나무 숲이 파였다. 나당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농친 용을 용담이라는 곳에서 잡았는데 용을 끌어올리다 파인 자국이 바위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바위를 용바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용바위 전설	백나고 근처 강에 바위가 있는데 구렁이가 구름을 싸고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다고 해서 용바위라 부른다는 이야기.
용바위 전설	상주군 용암동 봉학봉 경계상에 있는 바위가 모양이 용모양으로 도랑 북판에 머리가 있고 굴이 줄줄이 서서 꼬리는 길 건너 편에 푹 튀어 나와 있다. 비가 안 오면 바위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예전에 그 냇가에서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 빠져 죽었는데 물이 흘러갈 때 맑은 날에 보면 장군이 지나가는 발자국 그림자가 보인다는 이야기.

용바위를 깨뜨린 사연	정매창이라는 사람은 광명에 살았는데 좋은 자리를 잘 알았고 그런 자리를 내버려 두면 나라에 반발하는 인물이 태어난다며 좋은 자리를 다 깨고 다녔는데, 그 중에 용바위도 깨뜨렸다는 이야기.
용바위와 주변의 전설	용이 승천하면서 바위를 기어올라가며 만든 발자국이 남아 있는 용바위와 그와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
용바위의 혈을 자른 정매창	역마에 중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자손이 번창을 하자 정매창이란 양반이 시기를 하여 그 마을에 있는 용바위 위에 말뚝을 쳐서 혈을 찔렀다. 그러자 용바위에서 용이 하늘로 날아가려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 마을에서 인물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용방소	온양면 하서 부락에 용이 사는 용방소가 있어 가뭄이 들면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
용소 전설	용소 물가에 사람들이 소를 매 뒀는데 소는 없고 용소에 소 코뚜레와 끈만 보이더니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이야기.
용소골	용소골이라는 곳에 소(沼)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는 몇 백년 묵은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이야기.
용수동 제방 전설	송산면 용포리 용수동에 제방 공사를 하는데 막아 놓으면 다음날 제방이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알고보니 그곳이 용의 목이라 용이 꼬리를 쳐서 그런 것이었다. 노승이 나타나 이곳에 중을 잡아 놓고 막으면 용이 꼬리를 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 사람들이 그 스님을 잡아 넣어서 막았다는 이야기.
용수바위 전설	공근면 학담리 바위에서 용이 나와서 멧강산 등머리로 사흘을 다니다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바위를 용수바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
용신龍神	소금을 실은 배가 용산강에 정박해있는데 갑자기 적룡이 나타나 배를 가로질러 걸쳐서 배가 뒤집어지고 소금이 모두 흩어졌다. 이에 선인들이 성황신에게 제사를 안해 그렇다며 선주를 꾸짖었다. 바다에는 용사(龍蛇)가 많아 이것들이 접근하면 징을 쳐 소리를 내고 닭털을 불살라 뱀새를 피워야 한다.
용신이 된 사령	옛날에 사령이 대국천자에게 전할 시간을 가져가다가 여인으로 변한 황룡의 부탁으로 남편의 다른 부인인 백룡을 낚으러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실수로 황룡의 남편인 청룡을 죽이게 되자, 황룡은 사령에게 하늘로 올라가 자신과 부부로 지내자고 하여 사령은 청룡으로 변해 황룡과 하늘로 올라가 부부로 살았다는 이야기.
용에 얽힌 임실 용진방죽	어떤 가난한 나무꾼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용진방죽 있는 곳에 낚싯대를 넣어두었는데 어느날 보니 자라가 걸렸다. 가져와서 수통에 넣어두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다. 이상하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니 수통에서 웬 처녀가 나타나 밥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 가서 함께 살자 하여 살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처녀가 일 년간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참을 수가 없어 돌아와 보니 용이 아홉마리가 파리를 들고 있었다. 나무꾼이 들어가자 용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자만 사람으로 돌아왔다. 당시처럼 일년 떨어져 살았으면 모두 용이 되어 잘 되었을 텐데 글러버렸다고 하면서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용연분소龍淵噴所	전라도 담양 추월산 동쪽에 두 개의 석담이 있다. 그 아래에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굴이 있어서 물을 공중으로 뿜어올렸다가 떨어뜨려 커다란 못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연분소'라고 한다. 전해 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바위에 뿜어진 굴은 용이 뿜은 것이라하며, 용이 꿈틀거리며 지나간 흔적이 지금도 바위 위에 남아 있다. 옛날에 한 안렴사(按廉使)가 여기에 왔다가 용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용이 그 머리를 나타냈는데 안렴사와 서기(書記)가 용의 눈을 보고 놀라서 기절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안렴사와 서기의 묘가 있다.
용은 물이 있어야 힘을 쓴다	어떤 사람이 노인인 화한 용에게 도랑을 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용이 득천하는 바람에 그 자리는 소(沼)가 되고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용을 도와주고 명당자리 얻다	용이 승천하려면 용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못들어 연못에 누워지냈다. 하루는 어떤 영감이 와서는 용님 때문에 돌아돌아 산에 올라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님소리를 들은 용이 영감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명당을 쓰는 것인데 좋은 자리에 큰 바위가 있어 못쓴다고 했다. 이에 용은 승천하면서 그 바위를 꼬리로 무너뜨려 명당자리를 쓸 수 있게 했다.
용을 쏘아 죽인 사람1	용당에 솟놈인 황룡과 처인 청룡, 첩인 백룡이 살았는데 처첩인 청룡과 백룡이 늘 다투었다. 하루는 백장자 꿈에 청룡이 나타나 첩인 백룡을 없애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청룡과 백룡이 싸울 때 백장자가 실수로 처인 청룡을 쏘는 바람에 그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
용을 쏘아 죽인 사람2	옛날에 백진사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솟놈인 청룡을 두고 암놈인 황룡과 백룡이 싸우면서 황룡이 백진사에게 백룡을 쏘 달라고 하였다. 백진사는 백씨라 백룡을 쏘지 않고 황룡을 쏘려다가 청룡이 맞아 죽게 되면서 황룡이 대노하여 백진사 집을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
용을 쏘아 죽인 사람3	백장단이라는 사람의 꿈에 어떤 노인이 현몽해서 영덕에 있는 용추에서 청룡과 황룡이 암룡을 뺏으려고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아무 용이나 활을 쏘라고 하자, 백장단이 용추에 가서 활을 쏘는데 엉뚱한 용을 쏘서 집이 망했다는 이야기.
용을 퇴치한 처용	신라 때 동해바다에 흑룡이 나타나 소란을 피워 어민들을 괴롭히자 처용량이 용을 물리쳐 바다가 조용하게 되었는데, 용을 처분했다고 해서 '처용량'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용의 치 전설	마을 앞에 칠천도와 거제도 사이에 있는 매미섬은 간조시에는 용의 머리처럼 보여서 '용의 치'라고 한다. 옛날에 그 섬에 용이 살아서 득천을 하려고 올라가는 순간에 여자가 용 올라간다고 말하는 바람에 떨어져서 강철이로 남았다. 마을사람들은 풍우가 심할 때는 강철이가 몸부림친다고 믿는다는 이야기.
용이 되어 득천한 김부대왕	경주는 원래 늘 강이 범람하는 곳이어서 김부대왕은 자신이 죽으면 형산강을 쳐서 육지로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김부대왕이 죽어 용이 되어 독(혹은 산)을 꼬리로 쳐서 물줄기를 바꿔 육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유금이들	경주 안강에 유금이라는 들이 있는데 용이 아무리 등천하려고 애를 써도 이를 본 사람들이 구렁이 바라라고 해서 실패하고 강철이가 되고 말아서 그해에는 흉년이 들었다. 어느 날 유금이라는 아이가 용 바라라고 말해서 결국 용이 등천에 성공해 유금이를 위해 땅을 쳐서 유금이들을 만들어 주었고, 용이 등천한 해에는 비가 많이 내려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
용이 된 구렁이	어떤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고 떠났다가 우연히 여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다. 십년이 지나 집 생각이 나서 가는데, 갑자기 너구리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 그 여자는 구렁이라고 했다. 과연 몰래 보니 구렁이가 맞았고 이 사람은 다시 여인을 찾아 그 말을 전한다. 여인은 그날 밤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뇌성벽력을 세 번 때릴 것이며 그때 너구리도 함께 죽으니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인은 뇌성벽력을 때리고 승천하고 이후에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가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한다.
용이 된 김부대왕	신라 때 경주가 행주형(行舟形)이어서 물이 경주 성내로 달려들었고 동해의 십이 섬들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왔는데, 김부대왕은 자기가 죽어 용이 되어 경주로 역수하는 형산강의 수구백을 끊고 동해의 십이 섬들을 부수겠다고 했고 그때 없어진 섬들이 물 밑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배들이 구룡포를 넘어갈 때는 물이 얇아 배 밑이 물의 바닥에 거의 닿는다는 이야기.
용이 된 김부대왕	옛날에 안강의 양살매기가 강을 막고 있어서 경주가 큰 비가 오면 못이 되었는데, 김부대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양살매기를 꼬리로 쳐서 끊어버려서 물이 안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
용이 된 색시	가난한 총각이 산속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부부로 살게 되었다. 하루는 부인이 떠날 때가 되었다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천둥과 벼락이 쳐서 뒤를 돌아보니 부인이 용이 되어서 승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용이 된 이무기	어떤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고 떠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다. 십년이 지나 집에 돌아왔더니 본집도 여인의 도움으로 아주 잘살고 있었다. 다시 돌아가는데 천년 묵은 여우가 나타나 그 여자는 이무기이니 밥을 주면 침을 세번 빨으라 했다. 과연 몰래 보니 이무기가 맞았으나, 이 사람은 침을 빨지 않는다. 여인은 감사하게 여기며 본인은 천년 묵은 이무기로 용이 못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덕에 용이 될 수 있었다며 절을 하고 떠났다.
용이 보내준 금방석	한 마을의 최고 연장자 노인이 마을사람들에게 용을 구경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하느님한테 공을 드렸다. 그러자 하늘에서 금방석이 내려오고 잠시 후 한 여자가 내려와서 금방석을 잘 받았는지 확인한 후 올라가면서 앞으로 지옥이 오더라도 노인이 사는 나라만큼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용이 승천한 건지	대흥사 근처에 건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용이 승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날 도인들이 와서 바위로 그 못을 메꿔버렸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곳은 물이 고이지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늘 습기가 있다고 한다.

용이 승천한 용난섬	목포 울도와 압해면 장난섬 사이에 용난섬이라고 있는데, 용이 승천한 곳이라고 한다. 용난섬에 용굴이 있는데 안에 큰 구멍이 있어 가다보면 뚝 떨어진다고 한다.
용이 올라간 명당	동래정씨 중시조가 부사의 심부름하는 퇴인으로 있었는데 동래 화지산의 정말 좋은 명당자리를 알았다. 그런데 앞에 칼절벽이 있어 역적이 나올 자리라 묘를 못 썼다. 모시던 부사가 올라가고 새 부사가 오게 되자 그냥 못자리를 쓰고 자주 들여다봤다. 하루는 그리로 가려는데 주막에서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도 가보았더니 웬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용장이 승천을 못하시고 이런 데 있느냐 인사를 올렸더니 그 즉시 광풍이 일면서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하면서 꼬리로 그 절벽을 탁 쳐서 없애버리고 올라갔다. 놀라서 이후 예전 부사를 찾아갔는데 부사는 혹시 모르니 자기 곁에 있으라 했다. 그날 밤에 현몽하기를 용이 다들 자기를 구렁이라 하여서 잡아먹기만 하고 승천을 못했는데 인덕을 얻어 여의주를 찾고 승천했다고 하면서, 동네 맞은편의 섬을 사라고, 본인이 동해에서 서해로 넘어갈 때 산을 쳐서 들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후 그 말처럼 해서 동래정씨가 성공하고 인물이 나서 잘되었다고 한다.
용이 잡아준 집터로 발복發福	용이 잡아준 명당자리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용이 승천하면서 그것을 꼬리로 치고 가서 집을 지어 발복했다는 이야기.
용정리의 용소 전설	옛날에 활을 잘 쏘는 김활량(활을 잘 쏘는 사람을 활량이라 함)이 있었는데 꿈에 누른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자신은 옆에 있는 용소에 사는 황룡인데 젊은 서해 청룡이 자리를 뺏으려 하니 활을 쏘서 죽여달라고 하였다. 김활량이 청룡을 죽여서 그 보답으로 황룡이 산에 구멍을 뚫어 용소의 물을 보내 쓸모 없던 용정벌을 논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야기.
용지봉 전설	진례면 신안이라는 곳에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용지봉에서 쉬고 승천했는데, 지금도 용지봉에 묘를 쓰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용지봉의 묘를 파러가곤 했다는 이야기.
용천에서 신선이 된 사람	인색한 부자가 신선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총각을 새경도 주지 않고 이십 년 머슴으로 부려먹다가 용소 위에서 소로 뛰어내리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총각이 뛰어내리자 용소에서 용이 올라와 총각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자 부자도 신선이 되고 싶어서 뛰어내렸다가 죽고 그 동네가 망했다는 이야기.
용추골전설	보성군 웅치면 요반리 용추 부락 뒷산에 용추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옛날에 용이 목욕을 하고 놀다가 등천한 곳으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암반에 용의 발자국 흔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
용출굴전설	국출도란 섬에 가면 용출동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산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용이 솟아 나왔다고 하여 용출동이라 부른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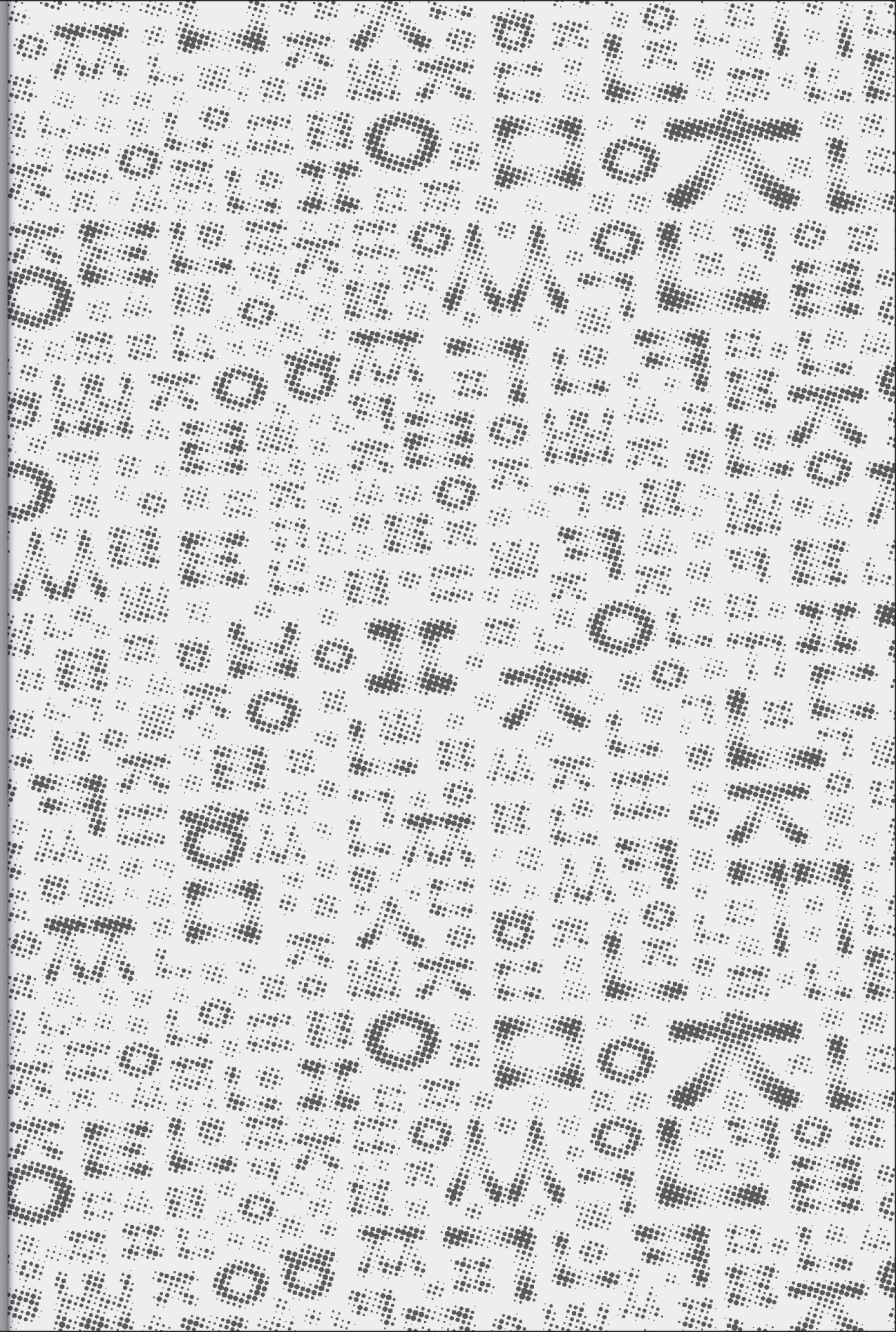
용두龍鬮, 지진地震	정덕무인년(1518)에 지진이 있었는데 서울이 가장 심해 담과 집이 모두 무너졌다. 이후 중국에 사신갔다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 소주에서 흑룡 두 마리와 백룡 한 마리가 싸웠는데 백룡이 더 강했다. 용의 위력이 너무 강해 중국의 배들은 모두 뒤집히고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생긴 것이라 한다.
용포 전설	용은 돌담에서 천 년을 살고, 흙에서 천 년을 살고, 물에서 천 년을 사는데 두 마리 용이 용포에 와서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였다. 그런데 한 마리는 올라가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떤 사람에게 들켜서 하늘로 못 올라가고 떨어져서 그곳을 용포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
용포의 지명유래	갑장산은 용의 머리이고 용포 쪽이 용의 꼬리 모양인데 옛날에 용포라는 폭포에서 용이 갑장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용하리 용굴	용하리에 용굴이 있다. 예전에 용이 살았던 굴이어서 용굴이고, 그 밑으로 배들이 드나들어서 용하리가 되었다. 지금도 뱃사람들은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복을 빌기도 한다. 예전에 수로부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있던 꽃을 꺾어달라해서 어떤 노인이 현화를 부르며 바쳤다. 그 뒤 이틀을 가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수로부인을 납치해갔다. 이에 사람들이 '거북아 나오지 않으면 널 구워먹겠다'고 노래를 불러서 수로부인을 다시 되찾았다고 한다.
원광圓光	원광 스님에게는 서해 용녀(龍女)가 따라와 청강(聽講)하고 있었는데, 크게 가물어 비가 내리지 않자 원광이 용녀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용녀는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데 속여서 비를 내리면 죄를 입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광은 자신이 벌을 면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조금 후에 남산에 아침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가 내렸다. 그런데 하늘에서 뇌성이 울리고 번개가 치면서 용녀를 발하려 했다. 용녀가 스님에게 위급함을 고하자, 원광이 용녀를 강상(講床) 아래에 숨기고 하늘에서 상제의 명령을 받고 온 사자에게는 용녀가 틀 가운데 서 있는 배나무로 변형해 있으니 그 나무를 내리치고 가라고 했다. 사자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치고 떠나니, 용녀는 다시 나와 사레하면서 배나무가 대신 벌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나무를 어루만지니 다시 살아났다.
은혜 깊은 용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죽으려고 길을 가다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 함께 살게 되었다. 잘 살다가 집 생각이 나서 삼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인이 말하기를 밥을 먹을 때 썩 소리 세 번을 지르고서 먹든지 지르지 말고 먹든지 하라고 했다. 남자가 돌아가서 보니 여인 덕분에 가족들이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썩 소리를 지를지 말지 고민하던 찰나에 썩이 먼저 소리를 내며 울어서 썩 소리를 내지 않고 밥을 먹었다. 다시 돌아왔더니 살던 곳이 바다가 되어 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구렁이었다. 같이 살던 여인이 본래 자신은 이무기로 99명이 죽었고 남자가 백 번째인데, 썩 소리를 내지 않아 살아 돌아와 자신이 용으로 승천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하고 남자는 여인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
이맹점理盲帖	경상도 하동에 이맹점이 있다. 옛날 비보산 정상에 용지(龍池)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쇠와 돌을 불에 달구어 용지에 넣으니 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맹인이 생기지 않았다.

이무기 용되기	한 사람이 가족을 봉양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죽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 잘 살게 되었다. 본집으로 갔다 여인에게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노인의 말을 여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따르지 않았다. 결국 노인으로 둔갑한 이무기는 여인과의 승천 싸움에서 져서 용이 되지 못하고, 그 여인만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이 남자도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의남李義男	철산 고을의 통인 이의남이 관장을 따라 서울에 왔다가 용산에서 강에 떠 있는 배들을 구경하다 잠이 들었다.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집을 떠난 지 오래 되었다며 어느 산 아래 큰못에 가서 '유철아'하고 세 번 부르면 물 속에서 남자가 나올 테니 편지를 전해 달라고 했다. 이의남은 꿈에서 깨어 그 못에 찾아가 못에서 나온 한 남자를 따라 물 속으로 들어가 용녀에게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의 내용에 따라 그녀와 결혼해 3일간 머문다. 3일 후 이의남이 세상에 나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이의남 때문에 화가난 관장은 이의남의 부친을 감금했다. 이의남은 관아로 달려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말했고, 관장은 용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의남이 용녀에게 가서 상황을 전하고 날짜를 정하여 관장과 고을 사람들이 용녀를 구경하기 위해 모였는데, 물이 끓고 무시무시한 용의 얼굴이 물 위에 몇 자 높이로 떠오르자 관장은 거의 기절했고, 구경꾼들도 놀라서 눈을 가리고 쳐다보지 못했다. 몇 달 후 날이 몹시 가물자 관장이 이의남을 불러 용녀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이의남은 자기도 비 내리는 모습을 구경하겠다며 용녀를 따라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용녀가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적서 세 방울 뿌리려고 하자 이의남이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물병을 뒤집어 쏟아 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흉수가 났다. 용녀는 천제의 벌을 받아 죽게 될 테니 내일 백각산 아래에 와서 자기의 머리가 떨어지면 거두어 묻어 달라고 했다. 이의남이 백각산 아래에 가니 공중에서 용의 머리가 떨어지기에 묻어 주고 통곡했다.
인룡人龍 이야기	강원도에 황지라는 연못이 있다. 삼 형제의 어머니가 하체만 용으로 된 병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태백산 아래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며 데려다 달라고 했다. 아들들이 데려다주니 "내가 여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으니 절대 돌아보지 말아라."라고 말하고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첫째와 둘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나 막내아들은 어머니가 그리워 돌아보다가 그만 돌미륵이 되어 버렸다.
잠연潛淵	공주의 계룡산 아래에는 두 산봉우리가 마주 보고 높이 솟았는데, 그 사이에 넓이가 30여 척 되는 거북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고 굴이 뚫려 있다. 바위 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그 못 속에 던져 넣으면 이튿날 모두 못 밖으로 도로 나오게 된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 못에는 용이 있어서 구름을 타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날씨가 가물 때 여기에 비를 빌면 문득 호응이 있다고 한다.
주모의 용꿈으로 급제한 전식全湜	옥천전씨 전사서가 과거보러 가는 중에 주막에 들렀는데, 주막 주인이 절구통에서 용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전사서에게 시켜 절구통 위에서 꼬끼오 세 번을 외치게 하였고, 전사서는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천연스님僧天然	천연스님이 은율지방을 지나는데 대낮에 갑자기 황룡과 백룡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 서로 만나 싸우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구름이 사방에서 모이더니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뇌성벽력이 치며 우박이 쏟아졌다. 용들이 싸움을 그치고 물러가니 맑은 하늘이 나왔다. 이에 용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칠곡면 용동의 소	옥씨 마을이었는데 한 처녀가 너무 예뻐서 근처의 총각이 담을 넘어 처녀를 겁탈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총각은 연못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본래 그 연못에 용이 살았는데 더 이상 살 곳이 못된다고 하며 떠나버렸다. 이후 그 동네도 없어지고 옥씨도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피흘린 용소바위	용소에 용배 같이 나온 바위가 있는데 가뭄에 들어 마을 사람들이 물싸움을 하다가 바위를 깨뜨리자 바위에서 피가 나왔다는 이야기.
함유일咸有一	황해도 봉산에는 신훈담이 있는데 '부영이 바위 못'이라고도 부른다. 고려 명종 때 감찰어사 함유일(咸有一)이 행차해 봉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 부영이 바위 아래 못에는 신훈(神籠)이 있어서 고을 사람들이 모두 두렵게 여기고 공경했다. 한 번은 고을 사람이 더러운 물건을 이 못에 넣었더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쳐 사람들이 놀라 엎어지기도 했다. 얼마 후 하늘이 맑아지면서 넣었던 물건들이 모두 튀어나오자 물이 다시 맑아졌다고 한다. 날씨가 가물 때 여기에 제사하고 비를 빌면 꼭 호응이 있었다.
혈 잘린 용두리 지명 유래	용두리는 용머리란 뜻인데, 임진왜란 때 일본사람이 큰 인물이 나지 못하게 혈맥을 끊었다. 하루는 동네사람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머리가 잘려가고 있으니 머리를 이어달라고 울부짖어서 다음날 혈을 이어주었다. 이후에도 누가 몰래 용머리에 묘를 쓰면 가뭄이 들어, 묘를 파내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황신黃愼	황신(黃愼)이 통신사가 되어 배를 타고 일기로 향하는데 바다 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요동치니 모두들 겁에 질렸으나 황신만 의연하게 붓을 꺼내 해신에게 서약의 글을 썼다. 이에 곧 바람이 멎고 잠잠해졌다고 한다.

우리말 속 용

Dragons Oral Tradition



ㄱ

개미떼가 용도 잡는다

약한 사람들도 단결하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뜻.

개천에서 용 난다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르는 말.

검은 용턱에서 여의주 찾듯 한다

용의 턱에 있는 여의주를 훔치려고 하듯이, 매우 위험한 짓을 한다는 뜻.

고기도 목으면 어룡이 된다

빈천한 가정에서 난 사람도 오랫동안 끈질기게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뜻.

교통도 비구름을 얻으면 못 속에서 떠난다

큰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얻으면 성공하게 된다는 뜻.

교통도 비구름을 얻으면 하늘로 오른다

용지(雄志)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할 날이 있다는 뜻.

교통도 비구름을 얻을 날이 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할 날이 있다는 뜻.

교통도 용 될 날이 있다

포부를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날이 있다는 뜻.

구룡소九龍沼 늪은 용이 여의주 어르듯 한다

용은 조화를 부릴 수 있는 여의주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무엇을 매우 애지중지한다는 뜻.

구룡소九龍沼 용이 여의주를 이룬다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는 뜻.

구슬 없는 용

쓸모없고 보람없게 된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겉치레만 한 무능한 존재.

금두金頭 물고기가 용에게 덤빈다

실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려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뜻.

깊은 물도 마르게 되면 어룡도 떠나게 된다

물이 마르면 고기와 용이 살 수 없듯이, 국가도 망하면 위정자나 국민들이 못 살게 된다는 뜻.

피만 있으면 용궁에 잡혀갔다가도 살아나온다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위태로운 일을 만나도 그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처: 동물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7), 속담맛보기(지병길, 코람데오, 2001), 용 불멸의 신화(윤열수, 대원사, 199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ㄴ

냇시에 용 걸린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재물을 너무 밝히다가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뜻.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하게 된다

지위가 최고로 높이 올라가면 퇴직하는 길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는 몹시 서운하게 된다는 뜻.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하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처신(處身)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

늪은 용은 말이 없다

늪에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

늪은 용이 구름을 얻었다

늪에서야 용이 구름을 얻어 하늘에 올라가듯이, 뒤늦게 출세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ㄷ

독 틈에도 용소가 있다

독 틈에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으로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도 정신차려 궁리를 하면 해결할 길이 있다는 뜻.

땅 위에 나타난 용이다

물을 잃고 육지에 나타난 용처럼 세도를 잃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

ㄹ

머리는 용의 머리고, 꼬리는 뱀의 꼬리다

처음 시작은 크고 마무리는 작게 되어 실패하였다는 뜻.

목 마른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다

목 마른 용이 물을 얻듯이, 고생 끝에 성공하였다는 뜻.

목 마른 용이 비 만난 격이다

고생 끝에 좋은 운을 만나서 잘 살게 되었다는 뜻.

못 속 용도 하늘 올라갈 날이 있다

못 속에 사는 용도 여의주만 얻으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

못이 커야 용도 난다

용이 활동할 수 있는 큰 못이라야 용이 나듯이, 모든 일은 여건이 잘 조성되어야 이루어진다는 뜻.

물 얻은 이무기다

- (1) 굶주리던 사람이 식량을 얻었다는 뜻.
- (2) 실업자가 직장을 얻었다는 뜻.

물 잃은 용이다

물속에서 사는 용이 물을 잃듯이, 죽게 된 신세라는 뜻.

물 잃은 이무기다

물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이무기처럼 갈 곳 없는 외로운 신세라는 뜻.

물고기가 용에게 덤빈다

약한 자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강한 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

물고기도 목으면 어룡이 된다

못난 사람도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뜻.

물속에 숨은 용이다

용이 물속에 숨어서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

물을 아껴 쓰면 용왕이 복을 준다

흔한 물건이나 하찮은 물건도 아끼고 절약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은 잘 살게 된다는 뜻.

물이 괴여 큰 못이 되면 용이 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는 걸출한 인물도 있기 마련이라는 뜻.

물이 깊어야 용도 논다

큰 인물은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무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

미꾸라지 용 됐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던 사람이 크게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꾸라지 천년에 용 된다

무슨 일이나 오랜 시일을 두고 힘써 닦으면 반드시 훌륭하게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꾸라지도 용 될 날이 있다

못난 사람도 꾸준히 오랜 세월을 두고 노력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뜻.

뱀

뱀은 용이 되어도 뱀이다

본바탕이 못된 사람은 설혹 훌륭하게 되더라도, 그의 본성은 그대로 지닌다는 뜻.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한다

변변찮거나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어 아니꼽게 큰소리를 친다는 말.

번갯불에 용 구워먹겠다

행동이 매우 민첩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별레는 용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못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뜻.

비 맞은 용대기 같다

장대하고 화사한 용이 그려진 깃발이 비를 맞아 처져 늘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 추레하게 처져 늘어진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뿔 없는 용이다

뿔 없는 용처럼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人

선비 논 데 용 나고 학이 논 데 비늘이 쏟아진다

훌륭한 사람의 자취나 착한 행실은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숨었던 용이 여의주를 얻는다

물속에 숨어 있던 용이 여의주를 얻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목적인 바를 이루었다는 뜻.

시궁창에서 용이 났다

미천한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났다는 뜻.

○

아이 못 낳는 년이 밤마다 용꿈 꾸다

실제로 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허황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안 본 용은 그러도 본 뱀은 못 그린다

눈앞에 있는 사실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안 본 용은 그러도, 본 뱀은 못 그린다

- (1) 무슨 일을 추상적으로 말하기 쉬워도 실제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뜻.
- (2) 눈앞에 벌어진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뜻.

여의주 없는 용이다

여의주가 없어 조화를 부리지 못하는 용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여의주를 얻은 용이다

용은 여의주를 얻어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뜻.

여의주를 잃은 용이다

용이 조화를 부리는 여의주를 잃고 무능하게 되듯이, 권력을 부리던 사람이 몰락되었다는 뜻.

온몸의 힘줄이 용대기 뒤 줄이 되었다

온몸의 힘줄이 임금이 거동할 때 들고 나가는 용대기의 뒤 벌이줄처럼 팽팽하다는 뜻으로, 사람이 극도로 흥분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 가는데 구름 가고 뱀 가는 데 바람 간다

반드시 같이 다녀서 둘이 서로 떠나지 아니할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 노는 데 이무기도 논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다는 뜻.

용 대가리에 뱀 꼬리다

시작은 크게 하고 마무리는 작게 된 실패작이라는 뜻.

용 될 고기는 모이 칠부터 안다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

용 머리에 개 꼬리다

무슨 일을 시작은 굉장하게 하고 마무리는 흐지부지한 것을 비유하는 말.

용 못 된 이무기

의리나 인정은 찾아볼 수 없고 심술만 남아 있어 남에게 손해만 입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 못 된 이무기 방천 낸다

못된 사람은 못된 짓만 한다는 말.

용 올라갔다

(1) 용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없다는 뜻.
(2) 일은 이미 끝났다는 뜻.

용가마에서 삶은 돼지가 멍멍 짓거든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다는 뜻.

용검도 써야 칼이지

아무리 훌륭한 물건이라도 실제로 쓰지 아니한다면 쓸모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

육지에서 가장 강한 범과 바다에서 가장 힘센 용이 싸우듯이, 두 강자가 싸운다는 뜻.

용꿈 꾸었다

매우 좋은 수가 생겼다는 뜻.

용대기 내세우듯

사소한 재주가 있다 하여 특하면 그것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도 개천에서 떨어지면 미꾸라지가 된다

세도가 당당하던 사람도 몰락하면 하나의 평민이 된다는 뜻.

용도 갯가에 나오면 개미가 덤빈다

세도가 당당했던 사람도 몰락하면 민중들이 알보게 된다는 뜻.

용도 맑은 하늘에는 못 오른다

자유자재로 조화를 부리는 용도 구름이 없으면 하늘에는 오르지 못하듯이, 무슨 일이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풀어야 한다는 뜻.

용도 여의주가 있어야 조화를 부린다

용도 여의주가 있어야 마음대로 조화를 부리듯이, 사람도 돈이나 권력이 있어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뜻.

용도 여의주를 얻어야 하늘로 올라간다

용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여의주가 있어야 하듯이, 무슨 일이나 그 핵심고리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뜻.

용도 타고, 범도 탄다

수종의 왕인 용도 타고 산종의 왕인 범도 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뜻.

용도 하늘에 너무 오르면 떨어지게 된다

무슨 일이나 지나쳤을 때는 다시 하강하게 된다는 뜻.

용미에 범 앓은(맞은) 것 같다

위엄이 있어 남을 억압하는 듯한 인상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상에 앉힌다

지극한 후대(厚待)를 받는다는 뜻.

용새끼 못된 것은 미꾸라지 된다

명문집의 못된 자식은 남에게 피해만 준다는 뜻.

용새끼는 작아도 비를 내린다

유업을 물려받은 아들은 일찍부터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게 된다는 뜻.

용은 구름따라 날고, 범은 바람따라 달린다

용과 구름, 범과 바람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동반자라는 뜻.

용은 그리고, 눈동자는 안 그랬다

전체적으로는 다 완성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빠져서 가치가 발생되지 못한다는 뜻.

용은 뿔이 나야 하늘로 올라간다

용은 뿔이 나야 다 자라서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듯이, 사람도 다 자라야 큰일도 할 수 있다는 뜻.

용은 서려 있고, 범은 엮드려 있다

용과 범이 위엄을 보이듯이, 용감성을 시위한다는 뜻.

용은 오복五福을 불러들이고, 범은 삼재三災를 쫓는다

입춘날 때문에 <용호(龍虎)>라고 써붙이면 용은 주인에게 오복을 불러들이고, 범은 수재·화재·풍재를 막아 준다는 뜻.

용은 자야 체신이 나타난다

용은 활동할 때는 동적이 빨라서 본래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고 잠을 잘 때에야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사람도 조용히 담화를 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

용은 죽어도 몸뚱이와 껍질은 남는다

용이 죽어 영혼은 승천하고 거대한 몸뚱이는 남아서 죽은 후에도 위풍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

용의 꼬리보다 닭의 대가리가 낫다

큰 직장에서 하위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작은 직장에서 우두머리로 일하는 편이 낫다는 뜻.

용의 날개요, 범의 뿔이다

용이 날개를 얻고 범이 뿔을 얻은 것처럼 더욱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

용의 새끼가 못 되면 미꾸라지가 된다

성공한 사람은 출세를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뜻.

용의 수염을 만지고, 범의 꼬리를 밟는다

매우 위험한 행동만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용의 알을 얻은 것 같다

아주 귀중한 보배를 얻은 것처럼 좋아서 아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의 알을 얻은 격이다

(1) 용의 알을 얻듯이, 장래성이 있는 아들을 낳는다는 뜻.
(2) 매우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뜻.

용이 개천가에 나오면 개미가 덤빈다

권세가 당당하던 사람도 몰락하면 모두가 깔보게 된다는 뜻.

용이 개천에 빠지면 모기불이 새끼가 엉겨 붙는다

아무리 좋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라도 불행한 경우나 환경에 빠지게 되면 하찮은 사람에게서까지 모욕을 당하고 괘시를 받게 된다는 말.

용이 개천에 있으니까 하루살이가 다 침벌한다.

≡ 용이 개천에 빠지면 모기불이 새끼가 엉겨 붙는다.

용이 날고, 봉이 춤춘다

용이 날고 봉이 춤을 추듯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

용이 날치고, 범이 노려본다

용이 날치고 범이 노려보듯이, 공포 분위기에 있다는 뜻.

용이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한다

성공하면 출세하고, 실패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뜻.

용이 많으면 가뭄이 든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일이 안 되고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뜻.

용이 물 밖에 나면 개미가 침노를 한다

≡ 용이 개천에 빠지면 모기불이 새끼가 엉겨 붙는다.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다

용이 물을 얻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되듯이, 고난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뜻.

용이 물을 잃은 격이다

용이 물을 잃으면 갈 곳이 없듯이,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

용이 물을 잃은 듯

용이 물을 잃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처지가 매우 궁박하여 살길이 끊어진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이 변하여 고기가 된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몰락하여 천대를 받는다는 뜻.

용이 승천하면 비바람이 거세다

용이 승천할 때는 폭풍우를 동반하게 된다는 뜻.

용이 여의주를 얻고 범이 바람을 탐과 같다

무슨 일이나 뜻한 바를 다 이루어, 두려운 것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이 여의주를 얻으면 하늘로 올라가고야 만다

무엇이나 어떤 단계에 이르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이 용새끼를 낳고, 범이 범새끼를 낳는다

부모가 훌륭하면 그 자녀도 훌륭하게 된다는 뜻.

용이 용새끼를 낳는다

용이 용을 낳듯이,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뜻.

용이 용을 낳고, 봉이 봉을 낳는다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들도 본받아서 훌륭하게 된다는 뜻.

이무기 못된 것이 재변災變만 일으킨다

이무기 못된 것은 재변을 일으켜 농민들에게 피해만 주듯이, 못된 세도가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준다는 뜻.

이무기는 심술을 고쳐야 용이 된다

심술 많은 사람은 심술을 고쳐야 사람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

이무기보다 양반이 더 무섭다

이무기는 가상의 동물이지만, 예전에는 횡폭한 양반 때문에 생긴 피해가 더 심했다는 뜻.

잉어국 먹고 용트림한다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 있는 체한다는 뜻.

자

자가사리 용을 건드린다

힘이 약한 것이 자기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강한 것을 함부로 건드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국물에서는 용이 나지 못한다

용도 용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날 수 있듯이, 자식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뜻.

지렁이도 용꿈 꾸다

비록 못난 사람이라도 큰 포부는 가질 수 있다는 뜻.

ㅎ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뱀이 된다

잘 배운 사람은 출세하게 되고, 못 배운 사람은 천대받게 된다는 뜻.

하늘을 올라만 가고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후회하게 된다

무슨 일에서 신축성이나 융통성 없이 일을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뜻.

한 못에 두 용은 못 산다

한 집안에 주인이 둘이면 집안이 안 된다는 뜻.

흑룡이 올라가면 사람이 많이 죽고, 청룡이 올라가면 머리 큰 사람이

살기 좋고, 백룡이 올라가면 농부가 살기 좋다

(제주도) 흑룡이 승천하면 사람이 많이 죽어 불길하고, 청룡이 승천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하고, 백룡이 승천하면 농민들에게 길하다는 뜻.

흙탕물에는 용이 없다

더러운 못에는 용이 살지 않듯이, 부패한 세상에는 청백한 사람이 없다는 뜻.

용 되다

변변하지 못하던 것이
크게 좋아지다.

용을 낳다

훌륭한 인물을 낳다.

용의 초리

폭포에서 내리 쏟아지는 물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전에 처녀나 총각이 길게 땅아서 늘어뜨린 머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이 올라갔다

(어떤 장소에)
물이 하나도 없다.

용트림

거드름을 피우며 일부러 크게
힘을 들여 하는 트림.

객사를 하면 용머리
(상여에 단 장식)
건어 내고 들어온다.

꿈에 금 보면 딸이고
용이나 은을 보면
아들이다.

꿈에 돼지나
용을 보면
재수 좋다.

꿈에 방에서 용이 크게 활동하면
말썽 많은 자식이 태어난다.

꿈에 용과 뱀이
부엌에 들면
벼슬을 한다.

꿈에 용과 뱀이
사람을 죽이면
크게 나쁘다.

꿈에 용과 뱀이
집에 들어오면
재물이 있다.

꿈에 용꿈을 꾸면
태몽이다.

꿈에 용을 보면
재수가 좋다(출세한다).

꿈에 용을 타고 물 속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꿈에 용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꿈에 용을 타고 산에 오르면
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꿈에 용을 타고
집에 들어가면
귀한 벼슬을 한다.

꿈에 용을 타고
하늘에 날아오르면
크게 귀해진다.

꿈에 용이 날면
크게 귀하게 된다.

꿈에 용이
물 가운데서 줄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꿈에 용이 승천하면
과거 벼슬을 할
아들을 낳는다.

꿈에 용이 죽으면
다 된 일이 흠어진다.

꿈에 용이
우물 가운데 들어가면
관가에 옥을 보인다.

꿈에 용이 죽으면
귀한 벼슬에 오른다.

돼지꿈과
용꿈을 꾸면
좋다.

꿈에 흉룡을 보면
옥동자 낳는다.

돼지나 용꿈을 꾸면
그 날 운수가 좋다.

부인이 꿈에서
용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산으로 용이 오르는 꿈을 꾸면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된다.

아기를 낳을 때
청룡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

여자가 용마루를
타 넘으면 재수없다.

오월 용띠는
구설수가 많다.

용 올라가면
비 온다.

용꿈을 꾸고
딸을 낳으면
팔자가 기구하다.

용꿈을 꾸고
자식 얻으면
훌륭한 자식이
된다.

용꿈을 꾸면
아들 낳고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

용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
(경사난다, 출세한다).

용꿈이나 돼지꿈을
꾸면 횡재한다.

용날 아침에는 칼을
쓰지 않는다.

용날 정월(正月)의 진일(辰日)에 물을 길으면
그 해엔 가뭄이 든다.

용날과 뱀날에 장을 담그면 구더기가 끓는다.

용날에 칼질하면
생손을 앓는다.

용마 나고 큰 소가 나면
집안이 잘 된다.

용뿔에 구슬 달린 태몽을 꾸면
꿈자랑 하지 않는다.

용을 타고 하늘로 날면
입신출세한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날면
승진하고
벼슬에 오른다.

용의 날 물을 길으면
비가 자주 온다.

용이
승천하는 날
물 길으면
큰 잔칫날
비가 온다.

용이 올라갈 때 손가락질하면
용이 떨어진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꿈을 꾸면
행운이 겹칠
징조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면
바다가 끓는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할 때 임신한 여자가 보면
용도 승천 못하고 애도 떨어진다.

임산부가 꿈에
배, 잉어, 용을 보면
아들을 낳는다.

임산부가 용꿈을 꾸면
만아들을 얻는다.

임산부가 용꿈을 꾸면
총명한 아이를
낳는다.

임신중에 있는 여인이
구렁이가 용이 되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린애가 떨어진다.

임신한 여자가
용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용이 떨어진다.

장군 나면
용마 난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용알이 든 우물물을
먼저 퍼가면
재수가 있다.

제비집을 성춧대(용마루)에다 지으면
남편 몸이 무겁다.

천 개의 돛대를 펴면
용이 된다.

태몽에 용이나 뱀 보면
아들 낳는다.

태몽이 용꿈이면
출세한다.

고사성어

ㄱ	거수마룡車水馬龍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의 움직임은 하늘을 오르는 용과 같다는 뜻으로 수레와 말의 왕래가 많아 매우 떠들석한 상황, 즉 행렬이 성대한 모양을 비유한 말.
	교룡득수蛟龍得水	교룡이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를 얻음을 이르는 말.
	교룡득운우蛟龍得雲雨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어 하늘에 오른다는 뜻으로, 영웅이 때를 만나 큰 뜻을 이룸을 비유해 이르는 말.
	구룡토수九龍吐水	석가모니가 탄생할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물을 뱉어 목욕을 시켰다는 일.
ㄷ	담천조룡談天彫龍	천상을 이야기하고 용을 조각한다는 뜻으로, 변론이나 문장이 원대하고 고상함을 이르는 말.
	도룡지기屠龍之技	용을 죽이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용이 이 세상에 없는 동물이므로 세상에 쓸모 없는 기술을 이르는 말.
	독안룡獨眼龍	애꾸눈인 용이라는 뜻으로, 애꾸눈의 영웅.
	등용문登龍門	용문(龍門)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
ㅂ	반룡부봉攀龍附鳳	훌륭한 임금을 좇아서 공명을 세움. 용과 봉은 임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백룡어복白龍魚服	흰 용이 물고기로 모습을 바꾸었다는 뜻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슬그머니 나다니다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됨을 비유하는 말.
	복룡봉추伏龍鳳雛	엎드린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뜻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수한 인재를 이르는 말.
	비룡재천飛龍在天	성인이나 영웅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 있음을 비유하는 말.
ㅅ	섭공호룡葉公好龍	섭공이 용을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만 좋아할 뿐 사실은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빈말을 이르는 말.
ㅇ	어룡장화魚龍將化	잉어가 용으로 화한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함을 이르는 말.
	어변성룡魚變成龍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었다는 뜻으로, 아주 곤궁하던 사람이 부귀를 누리게 되거나 보잘것없던 사람이 큰 인물이 됨을 이르는 말.
	어질용문魚質龍文	용과 같이 위엄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은 물고기라는 뜻으로, 외양과 실질이 대단히 다름을 이르는 말.
	오룡쟁주五龍爭珠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얻으려고 서로 다투는 일.
	외룡臥龍	누워 있는 용이란 뜻으로,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의 비유.
	외룡봉추臥龍鳳雛	누운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뜻으로, 누운 용은 풍운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봉황의 새끼는 장차 자라서 반드시 봉황이 되므로, 때를 기다리는 호걸을 비유해 이르는 말.
	외룡장자臥龍壯字	도사라고 누워 있는 용처럼 힘 있는 글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외룡지재臥龍之才	제갈량과 같이 마음대로 하는 재주.

출처: 우리말 샘·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조기형·이상익, 이담북스, 2011)

용검龍劍	용검도 싸야 칼이지라는 뜻으로, 아무리 값있는 것이라도 실용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다는 말.
용나호척龍拏虎擲	용과 범이 맞붙어 싸운다는 뜻으로, 영웅들이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
용동봉경龍瞳鳳頸	용의 눈동자와 봉황의 목이라는 뜻으로, 매우 잘생긴 귀인의 얼굴을 형용해 이르는 말.
용두사미龍頭蛇尾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
용문점액龍門點額	용문 아래에 모인 물고기가 뛰어들면 용이 되고, 오르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입게 된다는 뜻으로, 과거에 낙방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용미봉탕龍味鳳湯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뜻으로, 맛이 매우 좋은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반龍蟠	용이 서렸다는 뜻으로, 호걸이 민간에 숨어 있음을 이르는 말.
용반호거龍蟠虎踞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웅장한 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봉지자龍鳳之姿	용과 봉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모습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을 이르는 말.
용비봉무龍飛鳳舞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춘다는 뜻으로, 산천이 수려하고 맑아 생동하는 신령한 기세를 이르는 말.
용사비등龍蛇飛騰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같이 아주 활기 있는 필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안호미龍顏虎眉	위엄 있는 용모를 이르는 말.
용양호박龍攘虎搏	용처럼 세차게 물리치고 범처럼 세차게 친다는 뜻으로, 맹렬히 싸우는 모양을 이르는 말.
용양호시龍驥虎視	용처럼 날뛰고 범 같은 눈초리로 쏘아보라는 뜻으로, 기개가 높고 위엄에 찬 영웅의 태도를 이르는 말.
용행호보龍行虎步	용이나 호랑이의 행보라는 뜻으로, 위풍당당한 행동을 이르는 말.
용호상박龍虎相搏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두 강자가 서로 승패를 다투는 말.
운룡정외雲龍井蛙	구름 속 용과 우물 속 개구리라는 뜻으로, 지위의 고하나 현우의 현격한 차이를 이르는 말.
운룡풍호雲龍風虎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용과 바람을 타고 달리는 범이라는 뜻으로, 의기와 기질이 서로 맞거나 성주(聖主)가 현명한 신하를 얻음을 이르는 말.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는 뜻으로, 마음과 뜻이 서로 맞는 사람끼리 서로 구하고 좇음을 일컫는 말.
운증용변雲蒸龍變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뱀이 변하여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다는 뜻으로, 영웅호걸이 기회를 얻어 일어남을 이르는 말.
유운경룡游雲驚龍	헤엄치듯 날아가는 구름과 놀란 용이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잘 쓴 글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육룡六龍	수레를 끄는 여섯 마리의 말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여가를 이르는 말.

색인

	응준용인 隆準龍眼	우뚝한 코와 용의 눈.
	일룡일사 一龍一蛇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거나 뱀이 되어 못 속에 숨는다는 뜻으로, 태평한 시대에는 세상에 나와 일을 하고 난세에는 은거하여 재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시대에 잘 순응함을 이르는 말.
	일룡일저 一龍一猪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다는 뜻으로, 배우고 안 배움에 따라 사람의 능력이 크게 달라짐을 이르는 말.
ㅈ	주룡시호 酒龍詩虎	술 마시는 용과 시 짓는 범이라는 뜻으로, 시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ㄷ	천리행룡 千里行龍	어떤 일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유래를 말하여 차차 그 일에 미치도록 하는 것.
ㅎ	항룡 亢龍	하늘에 오른 용이라는 뜻으로, 썩 높은 지위를 이르는 말.
	항룡유회 亢龍有悔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후회할 때가 있다는 뜻으로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자가 겸손히 은퇴할 줄 모르면 반드시 패가망신(敗家亡身) 하게 됨을 이르는 말.
	호거용반 虎踞龍蟠	용이 도사리고 범이 웅크리고 앉았다라는 뜻으로, 웅장한 산세를 이르는 말.
	화룡유구 畫龍類狗	큰 일을 하려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한 가지의 작은 일도 이룰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
	화룡점정 畫龍點睛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역
ㄱ

감은사	044, 074, 079, 080, 294, 295, 305, 306, 311
거타지	038, 081, 225, 285
계룡	023, 031, 051, 056, 072, 078, 095, 136, 225, 282
고려사	038, 048, 073, 129, 130, 162, 225, 239, 283
교룡	019, 022, 023, 031, 048, 142, 211
구령이	063, 091, 092, 099, 106, 108, 109, 110, 111, 134, 135, 192, 194, 205, 208, 259, 302, 306
구룡사	075, 085, 088, 089
기우제	020, 024, 043, 088, 100, 114, 116, 118, 120, 121, 122, 123, 125, 151, 152,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1, 175, 185, 211, 214, 238, 252, 276, 279, 306
김부대왕	140, 141, 291, 292, 293, 302, 303, 304, 306

니은
ㄴ

농기	066, 152, 198, 200, 209, 213, 214, 215, 268
----	---

디귤
ㄷ

대왕암	044, 074, 079, 080, 295, 303, 305, 311
드래곤	019, 078
등용문	051, 187, 188, 213

미음
ㅁ

만파식적	020, 044, 127, 128, 285, 286, 294, 305, 311
무왕	044, 052, 056, 072, 084, 092, 093, 094, 253, 272, 282, 297, 298, 299
문무왕	044, 052, 056, 074, 079, 080, 128, 141, 238, 285, 286, 294, 295, 296, 304, 305, 306, 311
미르	018, 023, 043, 078, 094
미륵사	074, 092, 093, 272, 297, 298

비음
ㅂ

반야용선	178, 179, 311
백룡	023, 033, 034, 075, 087, 113, 131, 181, 182, 258, 278, 303
벽골제	075, 180, 181, 183, 285
벽사	030, 046, 048, 150, 151, 252, 253, 300, 302

보광사	287, 301, 311
보양	044, 052, 062, 097, 098, 123, 124, 309
보주	029, 030, 031, 035, 036, 037, 046, 047
부석사	074, 099, 310

시옷
ㅅ

삼국사기	019, 031, 044, 077, 083, 096, 161, 181, 214, 225, 238, 253, 278, 285, 293, 305, 308, 313
삼국유사	019, 020, 021, 023, 031, 037, 044, 052, 062, 073, 075, 080, 081, 082, 083, 084, 092, 096, 097, 098, 100, 101, 104, 119, 120, 124, 125, 126, 129, 130, 138, 139, 225, 226, 285, 286, 293, 304, 305, 306, 308, 313
상진일	151, 183, 184
선묘	074, 098, 308, 310, 311
선운사	103, 104
수궁가	030, 039, 077
수신	019, 023, 043, 052, 064, 094, 123, 128, 133, 148, 151, 167, 184, 200, 207, 208, 210, 223, 224, 225, 238, 241, 252, 254, 282, 300, 302, 307
신문왕	052, 079, 120, 128, 294, 295, 305, 306, 311

이음
ㅇ

야래자	073, 083, 084, 104, 105, 106
여우	035, 038, 073, 081, 082, 130, 131, 132, 225, 283
여의주	031, 036, 041, 045, 050, 076, 128, 135, 177, 195, 196, 199, 202, 257, 258, 291
연기설화	067, 073, 139, 287, 312
오룡거	033, 051, 072, 106, 107, 108, 132
용경	120, 121, 170, 196, 197
용궁	020, 037, 038, 039, 052, 053, 073, 074, 076, 123, 129, 139, 143, 144, 149, 153, 189, 190, 226, 270, 283, 285, 286, 304, 309, 312
용기	198, 199, 200, 211
용두	034, 041, 043, 046, 047, 115, 119, 247, 300, 301, 302, 311
용마	072, 076, 117, 118, 172
용보	049, 050, 051, 068, 288, 290, 291
용비어천가	044, 073, 082, 113, 131, 284, 304, 305
용소	043, 076, 088, 100, 113, 114, 120, 121, 122, 160, 164, 233
용신	020, 021, 037, 039, 051, 052, 053, 054, 065, 078, 080, 098, 114, 115, 118, 122, 125, 136, 139, 142, 150, 152, 167, 184, 186, 225, 239, 240, 245, 253, 254, 255, 275, 276, 277, 294, 307, 311, 313
용신제	019, 020, 052, 057, 148, 152, 169, 231, 232, 233, 234, 239, 240, 242, 306

용연	043, 076, 100, 115, 116, 118, 119, 120, 121, 122, 152, 276
용왕	019, 020, 021, 035, 037, 038, 053, 054, 056, 057, 058, 072, 073, 077, 078, 102, 129, 131, 149, 153, 154, 156, 161, 189, 190, 216, 217, 218,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8, 239, 240, 242, 245, 270, 271, 283, 304, 307, 309
용왕굿	020, 043, 151, 216, 221, 222, 223, 224, 231, 232, 233, 234, 236, 237, 244
용왕당	225, 226, 227, 228, 239, 286
용왕도	024, 228, 229, 230, 231
용왕밥	223, 224, 233, 234, 235, 236, 237
용왕제	020, 043, 056, 057, 148, 151, 153, 189, 212, 215, 221, 2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53, 254, 255
용정	034, 043, 076, 100, 152
용줄	246, 247, 248, 249, 250, 262, 265, 267, 268, 271
용혈	076, 077, 080
용호	059, 060, 150, 251
우물	019, 037, 038, 043, 052, 053, 058, 076, 088, 095, 096, 121, 123, 127, 128, 131, 132, 151, 183, 189, 208, 212, 215, 218, 219, 220, 225, 227, 239, 240, 241, 242, 243, 247, 253, 254, 276

운문사	097, 123, 124, 125, 309
이건대	044, 052, 079, 294, 295, 305, 306
이목	052, 062, 097, 098, 100, 101, 123, 124, 125, 309
이무기	022, 023, 036, 045, 055, 061, 062, 063, 064, 065, 076, 080, 088, 097, 098, 100, 101, 109, 111, 112, 117, 118, 122, 124, 125, 135, 160, 194, 202, 259, 302
이성계	033, 085, 086, 113, 210
잉어	018, 038, 040, 041, 048, 105, 106, 107, 129, 187, 188, 199, 210, 211, 213, 214, 215
지읒 ㅈ	
작제건	038, 043, 073, 130, 131, 225, 238, 283, 284, 305
줄다리기	152, 156, 157, 246, 248, 249, 250, 260, 261, 262, 263, 265, 267, 268, 271, 272
지네	080, 110, 111, 134, 135
지롱	044, 052, 056, 253, 282

치읓 ㅊ	
처용	074, 137, 138, 251
청룡	023, 031, 033, 034, 048, 059, 060, 066, 068, 075, 076, 087, 113, 114, 125, 136, 152, 172, 177, 178, 181, 182, 198, 199, 200, 201, 202, 209, 211, 212, 213, 214, 215, 258, 275, 278, 286, 303
침호두	158, 164, 167, 276, 277
티글 ㅅ	
통도사	037, 047, 077, 125, 138, 139, 140, 227, 309, 310, 311
피읖 ㅆ	
풍년	053, 057, 169, 170, 171, 172, 181, 184, 196, 197, 206, 207, 219, 227, 228, 246, 247, 250, 251, 255, 262, 264, 282
풍농	151, 156, 200, 205, 207, 241, 248, 268
풍수	025, 027, 028, 034, 059, 060, 063, 108, 109, 177

풍어	020, 043, 052, 053, 056, 057, 148, 149, 151, 153, 156, 169, 170, 221, 222, 223, 224, 227, 228, 232, 235, 237, 238, 241, 243, 244, 245, 255
히읇 ㅎ	
해룡	023, 031, 037, 264, 286
호국	021, 080, 282, 285, 302, 304, 310, 311, 312
호랑이	018, 019, 020, 034, 043, 048, 083, 085, 150, 158, 164, 167, 177, 192, 193, 194, 198, 251, 252, 253, 276, 277
호법	124, 139, 282, 285, 310, 311, 312
화재	149, 150, 256, 300, 302
황룡	023, 031, 033, 034, 048, 067, 068, 069, 074, 076, 087, 113, 114, 131, 172, 195, 198, 199, 211, 213, 215, 256, 258, 286, 303, 309, 312
황룡사	044, 067, 074, 124, 127, 138, 285, 286, 303, 304, 309, 311, 312, 313
흑룡	033, 034, 044, 113, 131, 138, 197

필자

Author

필자

강성복(姜成福)	충청민속문화연구소	김상보(金尙寶)	전 대전보건대학교
오룡쟁주놀이	195	용왕상	238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김선태(金善泰)	문화연구 창
용놀이	200	용기	198
용왕기	224	김성구(金誠龜)	전 국립경주박물관
통기	277	용마루	045
강진옥(姜秦玉)	전 이화여자대학교	용두	300
용소	119	김영희(金玲希)	경기대학교
구미래(具美來)	불교민속연구소	공갈못	087
여의주보	034	김승연(金承衍)	전북대학교
호법룡	307	용머리고개	118
김구한(金求漢)	울산대학교	김재호(金在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형산강	140	기우제	161
김도현(金道賢)	고려대학교	김정경(金靜京)	인천대학교
용경	196	잉어의 보은	129
용왕밭	234	김지욱(金志昱)	경기민속학회
김두규(金斗圭)	우석대학교	용알뜨기	218
간룡법	025	김진형(金鎭亨)	경남연구원
용호	059	부석사	098
김만태(金萬泰)	한국명리성명학회	김형근(金亨根)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용띠	042	반야용선	178
김명자(金明子)	전 안동대학교	김화경(金和經)	전 영남대학교
용단지	203	감은사	079
용단지모시기	206	혜통	142
		만파식적	294
		문무왕	295
		김효경(金孝慶)	겨레문화유산연구소
		개구리알먹기	154

나경수(羅景洙)	전 전남대학교
설화 속의 용	072
갯제	155
미륵사	297

류종목(柳鍾穆)	동아대학교
철룡	273

박성지(朴聖智)	가천대학교
보양	097

박종수(朴鍾洙)	용인대학교
용인 용졸다리기	246

박종오(朴宗吾)	전남대학교
울돌목	125

배도식(裴桃植)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밀양 용호놀이	175

서연호(徐淵昊)	전 고려대학교
이십이	259

서해숙(徐海淑)	(사)남도학연구소
창녕조씨 시조신화	136

손정수(孫正洙)	국립농업박물관
구룡포	090

송화섭(宋華燮)	전 중앙대학교
용졸다리기	248
졸다리기	260
진쌍기놀이	265
천룡당	270

신동흔(申東昕)	건국대학교
계룡산	084

신재홍(申載弘)	가천대학교
처용	137

심상교(沈相敎)	부산교육대학교
영노	191

오대혁(吳大赫)	서울교육대학교
통도사	138
황룡사	312

오세길(吳世吉)	동아대학교
용궁	037
용왕	056
이무기	061

유목화(柳牧和)	전남대학교
남원 용마놀이	171

윤동환(尹東煥)	전북대학교
용왕굿	221
용왕당	225
용왕제	239

윤열수(尹烈秀)	가회민화박물관
용	018

이동철(李東哲)	한양대학교
비 내린 이무기	100
용 못 된 이무기	108
용 승천	110

이민주(李民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곤룡포	288

이상희(李尙姬)	충남대학교
백마강	298

이성희(李聖熙)	경희대학교
어부심	189

이영식(李英植)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회
구룡사	088

이원복(李源福)	전 국립중앙박물관
어변성룡도	186

이재완(李在浣)	예천박물관
회룡포	143

이지영(李志暎)	상명대학교
거타지설화	080
박혁거세신화	094
석탈해신화	101
아래자설화	104
작제건설화	130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름	134

이학주(李學周)	강원대학교
김부대왕	291
호국룡	303

이해준(李海濬)	전 공주대학교
금산 진악산 물굴봉 기우제당	157
금산 청정연 기우제당	159

이홍우(李洪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용추폭포	122

장용준(張龍俊)	국립대구박물관
귀면	028

장정룡(張正龍)	전 강릉원주대학교
나룻배싸움놀이	169

정미숙(鄭美淑)	실학박물관
용무늬	048

정병모(鄭炳模)	경주대학교
용호문배도	251

정연학(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용대기	209

조정현(曹鼎鉉)	제주학연구소
유금어들	302

조현설(趙顯高)	서울대학교
주몽신화	132

좌혜경(左惠景)	전 제주학연구소
동김녕 잠수굿	173

진성기(秦聖麒)	제주민속연구소
차귀본향놀이	268

천진기(千鎭基)	전 국립민속박물관
백룡	033
용꿈	040
용오름	054
청룡	065
황룡	067
수신과 벽사의 상징	148
상진일	183
호국과 호법의 상징	282

천혜숙(千惠淑)	전 안동대학교
용 싸움	113
운문사	123

최원오(崔元午)	광주교육대학교
용신	051

최종성(崔鍾成)	서울대학교
기우제등록	165
석척기우	185
침호두	276
화룡제	278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우물제	253

한서희(韓抒希)	전남대학교
견훤	082
선운사	103
벽골제 쌍룡놀이	180

허남춘(許南春) 제주대학교
용두암 115

홍나래(洪나래)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무왕 092
오룡거 106
원성대왕 126

홍선표(洪善杓) 전 이화여자대학교
운룡도 256

홍태한(洪泰漢) 전북대학교
물부리굿 175
옹떡 216
옹왕도 228
옹왕먹이기 231

감수

나경수(羅景洙) 전 전남대학교

윤열수(尹烈秀) 가회민화박물관